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Ⅲ

- ▶ 책임연구원 : 전영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김지영(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연구위원)
박성훈(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부연구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Ⅲ”

1. 협동연구 총서 시리즈

협동연구 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5-31-01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Ⅲ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5-31-02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Ⅲ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5-31-03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Ⅲ: 조사결과 자료집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 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윤철경 선임연구위원 (총괄책임자)	최인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강호(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유성렬(백석대학교 교수)
협력 연구 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영실 선임연구위원	김지영(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성훈(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발 간 사 ■ ■ ■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학업성취 경쟁에 쏠려 있으며 교육정책은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대학에 가는 청소년에게 집중적인 관심을 쏟아 왔습니다. 이러한 사회분위기 속에 학교 부적응, 이로 정규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사회는 유래 없이 높은 교육열로 인해 중, 고등학교 학업중단율이 낮기 때문에 이들을 문제거리, 골칫거리로 여기며 방치하는 가운데 학습된 무기력을 체화한 청소년들도 많습니다.

본 원의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연구는 이러한 사회적·교육적 소외집단에 관심을 갖고 이들이 왜 학교를 그만두었고, 이후 어떠한 생활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탐구하고자 하였으며 3개년에 걸친 연구결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한국사회가 학업중단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업중단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계기를 제공하였고 학업중단 청소년이 어떠한 삶의 경로로 이행하고 있는 지 일정 부분 밝혀 내었습니다.

학교를 떠난 후 공적 지원체계에서 멀어지고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그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하고 지원할 것인가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고민할 문제로 보입니다.

학업중단 청소년 연구는 조사대상자 접근 자체가 어렵고 대상의 변동성이 커 조사를 지속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1,000 명의 대규모 표본을 확보하여 3년간의 중단조사를 실시해 온 본 원과 협동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진, 본 연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도와 준 법무부와 보호관찰소,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현장,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상담복지센터, 한국리서치 등 모든 관계자 분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노혁

국 문 초 록

이 연구는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들의 특성 및 변화양상에 대해 파악해 보고, 이를 토대로 지원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보호관찰대상 학업중단청소년을 대상으로 3개년에 걸쳐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와 관련해서, 1차년도의 경우 전국 11개의 보호관찰소에서 총 22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2차년도에는 1차년도 조사 대상이었던 사람들 중 조사 가능한 2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조사대상자의 거주 이전 등으로 총 14개의 보호관찰소에서 조사 실시). 2015년의 경우 2014년도에 조사하였던 대상자 210명에 대해 조사를 하고자 하였으며, 3차까지 패널에 참여한 수는 모두 167명(패널유지율 75.9%)이다. 설문조사는 18개 보호관찰소와 4개 소년원, 3개 교도소에서 이루어졌으며, 조사기간은 2015년 7월 13일부터 8월 10일까지였다. 면접조사는 2차년도 심층면접대상자였던 12명중 총 6명의 청소년과 이들을 담당했던 보호관찰관 및 보호자를 대상을 이루어졌다.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 167명 중에서 5명(3.0%) 정도만 복교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13명(7.8%)은 학업을 재중단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의 상당수는 기존의 교육체계 내에 재진입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재진입을 하더라도 오래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학업중단 이후 경험과 관련해서는 아르바이트나 취업해서 일을 했다는 응답이 68.9%로 가장 많았고 이는 1-2차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을 둘러싼 생활환경의 변화를 보면,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신체적 혹은 정신적 학대를 받은 경우는 1차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래 애착과 친구의 비행성향의 경우 1-2차년도와 비교해 큰 변화는 없었다. 또한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도 변화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을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학업중단청소년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보호관찰관련 사항도 알아보았다. 지난 1년 동안 담당보호관찰관이 바뀌었다는 응답이 2차년도에 비하여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절반 이상(53.5%)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호관찰관과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좋은 편이었으며, 1-2차년도와 비교해도 보호관찰관과의 관계가 더 긍정적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의 변화에 대해 살펴 본 것과 더불어서 여기서는 비행의 지속 및 중단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비행의 유형은 크게 지위비행, 중비행,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된 공식기록범죄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족, 친구, 지역사회, 보호관찰 등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 환경을 중심으로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으로 나누어 비행의 지속이나 중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보호요인에 의한 비행의 억제보다는 위험요인을 통한 비행의 관여가 보다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요인 중에서는 부모와의 정서적 애착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시작시점에서 중비행의 정도도 낮을 뿐만 아니라 이후 중비행의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보호요인은 비행의 중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요인 중에서는 가족의 이사 횟수, 친한 친구의 비행성향, 보호관찰관의 변경여부가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중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의 이사 횟수가 잦을수록, 친구의 비행성향이 높을수록 중비행의 시작은 물론 이후 중비행의 증가에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들의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면, 보호관찰 단계에서는 일상생활에 대한 지도감독, 멘토링프로그램, 진로지도,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며, 보호관찰 종료 이후의 사후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보호관찰소, 학교, 복지기관 간 협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무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간의 협력이 체계적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제어: 비행청소년, 학업중단, 보호관찰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이 연구는 2013년도에 시작된 비행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의 3년차도 연구이며, 2013년에 조사를 시작한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특성 및 3년에 걸친 변화의 흐름을 파악해 보고자 하는 연구이다. 2013년에 시작된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2013년의 1차 연구에서는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을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과의 비교를 통해 파악하였으며, 2014년의 2차 연구에서는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과 변화 양상을 파악하였다. 2015년의 3차 연구는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패널조사의 마지막 연구로서 이들의 3년에 걸친 변화 양상, 재비행 및 관련요인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보호관찰대상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참고로 1차년도의 조사대상은 장기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이었다. 장기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패널유지가 매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적어도 2년의 기간 동안은 보호관찰소의 협조를 받아 패널조사가 용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 설문조사와 관련해서, 1차년도의 경우 전국 11개의 보호관찰소에서 총 22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2차년도에는 1차년도 조사 대상이었던 사람들 중 조사 가능한 2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조사대상자의 거주이전 등으로 총 14개의 보호관찰소에서 조사 실시). 2015년의 경우 2014년도에 조사하였던 대상자 210명에 대해 조사를 하고자 하였다. 210명 중 80명(38.1%)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보호관찰대상자였고, 130명(61.9%)는 보호관찰을 완료한 상태였다. 연구진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및 일선 보호관찰소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보호관찰대상자와 종료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3차까지 패널에 참여한 수는 모두 167명(패널유지율 75.9%)이다. 설문조사는 18개 보호관찰소와 4개 소년원, 3개 교도소에서 이루어졌으며, 조사기간은 2015년 7월 13일부터 8월 10일까지였다.

- 면접조사는 2차년도 심층면접대상자였던 12명중 총 6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조사는 2015년 5월 한 달 간 실시되었다. 1차년도와 2차년도가 청소년의 실태분석을 중심으로 한 심층면접이었다면 3차년도는 학업중단 이후 청소년의 변화된 모습에 관해 분석하고, 재비행 관련 요인을 찾고,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개선점을 찾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심층면접대상인 6명의 청소년을 담당했거나 담당 중인 보호관찰관을 대상으로도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또한 보호자 1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도 실시하여 비행학업중단청소년 가정의 역동성 및 심리적·경제적 어려움, 청소년들의 변화양상과 관련 요인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조사결과

1) 청소년의 변화 및 지원현황

- 먼저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학업지속 여부를 확인한 결과 지난 조사 이후 대부분의 청소년(85.0%)이 여전히 정규 중·고등학교를 그만둔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167명 중에서 5명(3.0%) 정도만 복교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13명(7.8%)은 학업을 재중단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의 상당수는 기존의 교육체계 내에 재진입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재진입을 하더라도 오래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학업중단을 재중단한 이유로는 검정고시 준비와 같은 긍정적인 의견도 존재하였으나, 학교를 그만둔 친구를 따라 놀고 싶어서나 학교규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아서 등의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더구나 여전히 학업중단 시 학교로부터 다양한 정보제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업 중단이 그냥 방치되고 있는 측면도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학업중단 이후 경험과 관련해서는 아르바이트나 취업해서 일을 했다는 응답이 68.9%로 가장 많았고 이는 1-2차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놀았다는 응답은 60.5%로 1-2차년도에 비하여 비율이 다소 감소하였고,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반면, 검정고시를 경험했다는 응답도 40.1%로 나타났는데 이는 1-2차년도 조사 시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학업중단 이후 생활양식과 관련해서는 게임·SNS·스마트폰에 관련하여 질문하였는데, 게임중독은 이전년도에 비하여 평균점수가 감소하였고, 스마트폰중독은 증가하는 수치를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또한 SNS에서의 피해경험 및 일탈경험을 질문하였는데, SNS에서 정보유출이나 욕설, 따돌림,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자주 경험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오프라인에서의 피해-가해 경험과 달리 SNS에서는 가해경험보다는 피해경험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양상이 조금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 학업중단청소년의 일상생활을 살펴본 결과, 식생활 습관과 관련해서는 최근 일주일간 2회 이하로 아침·점심·저녁식사를 했다는 응답자가 1차년도에 비하여 2차년도에 급감하였고, 3차년도에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학업중단청소년들의 평일 평균수면시간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으며, 아르바이트나 취업하여 일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을 둘러싼 생활환경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신체적 혹은 정신적 학대를 받은 경우는 1차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애착과 친구의 비행성향의 경우 1-2차년도와 비교해 큰 변화는 없었다. 지역사회와 관련하여 비공식통제는 1-2차년도와 비교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반면, 물리적·사회적 무질서, 지역사회 유익환경에 대한 인식은 변화가 없거나 다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 학업중단이후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의 심리·정서적 변화를 살펴본 결과, 심리적 측면에서 1-2차년도와 비교해 볼 때 3차년도의 결과는 변화가 크지 않았으나, 측정문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자신에 대한 긍정적 자아상을 반영하는 자아존중감은 1차년도 3.01, 2차년도 3.05, 3차년도 3.05로 2차년도와 변화가 없었고, 자아탄력성을 측정한 평균점수는 1-2차년도(2.98)에 비해 3차년도(3.00)에서 향상되었다. 반면, 일탈이나 범죄의 주요한 이론적 변인으로 일컬어지는 충동성은 1차년도 1.93에서 2차년도 1.88으로 조금 나아진 양상을 보여주었으나, 3차년도에 1.92라는 수치로 증가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의 우울감을 조사한 결과 1-2차 조사의 평균점수(2.01)보다 3차년도의 평균점수가(2.02)다소 증가하였다. 사회적 낙인에 대한 인식은 2차년도 2.09에서 3차년도 2.02로 통계적인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지만 그 수치가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심리적 측면에서 지난 1년 동안 학업중단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학업중단 이후 사회·미래에 대한 인식정도에 관해서는 학업중단 이후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경로는 ‘부모님 또는 주위사람들과 대화(81.9%)’이며, 인터넷(57.8%)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육·복지·고용관련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17.5%에 불과하여 여전히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중단 이후 진로정보 탐색 과정에서 인터넷이나 지인 등을 통해 잘못된 정보를 접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부정확한 정보는 이들이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비행학업중단청소년에게 진로장애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아직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직업분야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응답이 47.3%로 많은 청소년들이 진로탐색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나는 앞으로 내가 원하는 진로를 갖지 못할까봐 불안하다’, 또는 ‘나는 진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도 높아 진로에 대한 불안감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을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학업중단청소년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3차년도에는 보호관찰지원 프로그램의 평가 및 보호관찰관과의 관계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그 내용을 보면, 지난 1년 동안 자립생활관이나 청소년 쉼터와 같은 보호시설 및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학교에서 생활했다는 응답자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반면, 지난 1년 동안

담당보호관찰관이 바뀌었다는 응답이 2차년도에 비하여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절반 이상(53.5%)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호관찰관과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좋은 편이었으며, 1-2차년도와 비교해도 보호관찰관과의 관계가 더 긍정적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학습·진로지도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만족도도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검정고시 교육비 지원' 및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에 대한 이용경험도 높은 편이며, 이에 대한 만족도 역시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는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청소년들의 생활과 심리변화를 보면, 첫째,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은 사실상 아르바이트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심층면접에 응한 청소년 대부분의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청소년 본인들은 이미 여러 차례 퇴교와 복교를 반복해왔으므로 이들에게 학교는 동경이나 회한의 대상일 뿐 현실과는 동떨어진 존재였다. 때문에 부모님에게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 용돈을 벌면서 일상에 규칙성을 부여해주는 노동활동이야말로 하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일과라고 할 수 있다. 보호관찰관들도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재비행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었으며 보호관찰소도 연령이 높은 청소년에게는 직업훈련이나 직업소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었다. 물론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유흥에 쓰는 비율도 높아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 재비행을 저지르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2년 전 심층면접 당시, 육체적으로 고되거나 위험한 노동현장에서 일하는 청소년이 대부분이었던 반면 현재는 면허를 취득하거나 꾸준히 한 가지 일에 종사하면서 숙련도가 생긴 경우,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에서 일하는 청소년들도 있어 이들에게는 경제적 안정과 자존감을 동시에 갖게 해주고 세상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자리매김한다는 점에서 청소년 노동 및 직업교육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심층면접에서 만난 청소년 대부분 진로를 위한 계획이 지지부진하였고 실행의지도 약하였다. 올해 심층면접에서 만난 대상자들 중 어느 한 명도 정규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없었다. 청소년들 대부분이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직업을 탐색하고 있었다. 그러나 무엇을 하던지 대부분은 장래 계획이 추상적이었고 학원이나 직업훈련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1년차와 2년차 면접 당시, 고등학교 입학이나 직업훈련 이수와 같은 계획을 밝혔으나

면접자에게 밝힌 대로 계획을 달성한 사례는 없었다. 당장 돈이 벌리는 아르바이트는 열심히 할 수 있지만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은 이들에게 매우 어려운 일로 보였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불성실은 일찍부터 보호자의 방임 혹은 부재에 기인한 탓도 있다.

- 지난 3년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의 심리 및 관계는 안정화 되었다.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은 가족관계에 기인하는 경우도 있으나 반대로 이들의 안정된 모습이 가족관계를 복원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적인 측면이 있다. 즉 청소년 초기 질풍노도 같은 시기가 지나면서 비행도 잦아들고 비록 복고는 하지 못했으나 직업을 구해 자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부모자녀관계도 원만해진 모습을 볼 수 있었다.
- 보호관찰관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정책지원현황 및 개선방향에 대해 알아 본 내용을 몇 가지 제시해 보면, 먼저 보호관찰소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과 운영되는 프로그램 중에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검정고시, 취업성공패키지, 멘토링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영역들에 관련된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이자 가장 많은 자원이 투입되어 청소년의 참여율도 높았다. 다음으로, 새로 개설되거나 증설되었으면 하는 프로그램으로는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교육프로그램이 있었다. 또한 보호관찰소와 학교, 지자체가 연계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비행청소년을 돌보는데 가장 이상적 모델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보호관찰관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즉, 청소년들을 관찰하고 신뢰관계를 쌓아온 보호관찰관의 역할이 어떤 멘토나 상담사의 역할보다 중요하므로 보호관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년보호관찰관의 잦은 교체를 지양하고 보호관찰관 일인이 담당하는 청소년의 수를 줄여 나가야 하며, 역량강화를 위한 재교육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2) 비행의 지속 및 중단

- 여기서는 비행의 지속 및 중단에 대한 분석을 위해 종속변인으로서 비행의 유형을 크게

지위비행, 중비행,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된 공식기록범죄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결과를 보면, 개인이 경험한 부정적 인생사건의 경우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재혼, 가출 등 가족해체를 경험한 청소년일수록 음주, 흡연, 음란물접촉과 같은 지위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도 지위비행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은 경향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가정폭력이나 경제적 빈곤, 학업중단 이전 교사의 폭력과 같은 부정적 인생사건은 비행이나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미래에 대한 성공기대감, 충동성, 우울감, 게임중독성과 같은 개인심리요인이 비행 또는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미래에 대한 성공기대감과 게임중독성은 지위비행에 정적인 영향을, 충동성은 재산비행, 폭력비행, 약물비행과 같은 중비행에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과 달리 미래에 대한 성공기대가 높을수록 지위비행이 높은 이유는 긍정적 미래에 대한 열망에 비해 열악한 현실에 좌절한 결과로 해석되며, 게임중독성의 경우 게임에 몰입할수록 주로 PC방을 이용하게 되는데, PC방의 경우 게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흡연이 허용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에게 있어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과 같은 긍정적 심리요인은 비행이나 범죄를 억제하는데 효과적인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일상활동유형의 경우 다른 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행이나 범죄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활동을 하거나 주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은 경우 중비행은 물론 공식기록범죄에도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르바이트 활동과 주로 혼자 보내는 경우 지위비행과는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르바이트나 혼자서 지내는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비행이나 공식기록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의 경우 아르바이트 활동을 많이 할수록 규칙적인 생활로 인해 비행이나 범죄에 연루될만한 신체적·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으로 보이며, 혼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청소년의 경우에는 이전과 달리 일탈친구나 선배와의 접촉이 적거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시간이 많은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의 경우에는 지위비행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일을 하는 중에 혹은 일을 마치고 흡연이나 음주를 할 시간적 기회는 물론 경제활동으로 인해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겨지며, 혼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경우에도 흡연이나 음란물을 접할 기회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검정고시나 자격증을 따기 위해 개인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의 경우 탈비행 혹은 탈범죄의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었다.

- 가족, 친구, 지역사회, 보호관찰 등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 환경을 중심으로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으로 나누어 비행의 지속이나 중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보호요인에 의한 비행의 억제보다는 위험요인을 통한 비행의 관여가 보다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요인 중에서는 부모와의 정서적 애착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시작 시점에서 중비행의 정도도 낮을 뿐만 아니라 이후 중비행의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보호요인은 비행의 중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위험요인 중에서는 가족의 이사 횟수, 친한 친구의 비행성향, 보호관찰관의 변경여부가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중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의 이사 횟수가 잦을수록, 친구의 비행성향이 높을수록 중비행의 시작은 물론 이후 중비행의 증가에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의 유대가 낮은 반면에 지역의 무질서 정도는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일수록 학업중단 이후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증가시킴으로써 비행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여겨진다. 소년보호업무를 담당하는 많은 보호관찰관들이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을 관리하고 상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수많은 청소년을 세심하게 관리하고 상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이번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보호관찰관의 변경이 있는 청소년일수록 재산비행, 폭력 비행, 약물비행과 같은 중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은 이러한 어려운 업무환경을 그대로 반영하는 결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를 뒤집어보면 보호관찰기간 중 꾸준히 지도 및 관리를 해준 청소년의 중비행 가능성이 낮아진다고도 해석할 수 있으므로 향후 소년담당 보호관찰업무에 대한 더 많은 지원과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3. 결론

- 이 연구의 조사결과들을 토대로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지원방안들을 제시해 보았다. 먼저,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대해 개별 청소년의 욕구 및 필요한 지원내용을 파악하여 이에 맞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소년의 경우 성인에 비해 변화가능성이 크고 아직 미성년이기 때문에 보호와 건전한 성장을 위해 더욱 세심하게 지도 감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진로지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복학 의지가 있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최대한 복학을 돕고 검정고시를 원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검정고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독학으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관의 세심한 지도감독이 보다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복학의지가 분명하게 없는 경우에는 직업훈련이나 취업알선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며, 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멘토링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은 긍정적 자원을 연계시켜 비행청소년의 재비행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학업을 중단한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멘토링, 학교에 복귀한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멘토링 등에 대해 평가해 보고 보다 더 효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의 가족에 대한 개입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가족에 대한 개입으로는 보호자 교육과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보호자 특별교육을 자녀에 대한 이해 및 지도를 위해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과 더불어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을 알려 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진로문제를 위해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알려 주는 것은 도움이 된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가족캠프도 학업중단 청소년의 재비행 예방을 위해 유용할 수 있을 것이다.

-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일상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경우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이러한 일상생활에 대한 지도감독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만 건전한 생활 및 재비행 예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례로 보호관찰단계에서 처우계획을 수립할 때 대상자의 일상활동을 파악한 후 이른바 ‘행동계약’으로 밤늦게 친구들과 몰려다니지 않기, 비행친구를 만나지 않기, 게임시간 줄이기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서 지도·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로 건전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중 심리적 프로그램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업중단 비행청소년의 경우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이럴 경우 충동성이 비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학업중단 비행청소년 중 충동성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분노조절 프로그램 등이 효과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가족해체 등으로 치유가 필요한 청소년에게는 치유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 운영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일례로 전주보호관찰소 남원지소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중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여, 참여자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으면 연계시켜 주고 있으며, 학교 밖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에는 직업탐색 등 이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포함시켜 운영하고 있다. 이렇듯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집단프로그램에 대해 효과를 평가하여 운영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학업중단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효과적으로 지도감독하기 위해서 소년담당 보호관찰관의 전문화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소년담당 보호관찰관이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담당하도록 하는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 학업을 중단한 보호관찰대상자의 보호관찰이 종료될 경우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 보호관찰소에서 해당지역의 관련기관에 대해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보호관찰단계에서 보호관찰 종료 전 학업을 중단한 보호관찰대상자의 필요나

육구 등을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나 관련기관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 보호관찰소와 학교 및 사회복지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법무부, 교육부, 여성가족부의 협력이 중요할 것이다. 먼저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의 협력을 고려해 보면, 학업중단 시에 학교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려 주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간의 협력도 중요할 것이다. 학업을 중단한 보호관찰대상자인 경우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필요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법무부와 교육부간의 협력으로는 학업중단을 한 청소년이 복학할 경우 교사와 보호관찰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다. 앞서 전주보호관찰소 남원지소의 예를 보면, 학업중단을 했던 청소년이 복학을 할 경우 보호관찰담당자가 교사를 통하여 학교생활에 대해 파악하였고, 교사가 학생지도에 어려운 일이 생길 경우 보호관찰소에 연락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연계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유관 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2. 연구추진체계	5
3. 연구내용	6
4. 연구방법	7
II. 이론적 배경	11
1. 보호관찰 청소년 현황 및 지원 대책	13
2. 재비행관련 논의	18
III. 보호관찰대상 학업중단 청소년의 변화	23
1. 응답자의 특성	25
2. 참여패널과 이탈패널의 비교	26
3. 학업중단 지속 여부	32
4. 학업중단 이후 경험유형	43
5. 학업중단 이후 생활양식	48
6. 학업중단 이후 환경의 변화	62
7. 학업중단 이후 심리·정서적 변화	73
8. 학업중단 이후 사회·미래에 대한 인식	86
9. 보호관찰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 및 인식	97
10. 소결	103
IV. 심층면접에 나타난 보호관찰 학업중단청소년의 변화 및 지원현황	107
1. 조사대상자의 특성	109
2. 학업중단이후 생활의 변화	110

3. 보호관찰소의 지원현황 및 개선방향	127
4. 소결	149
V. 보호관찰대상 학업중단청소년의 비행지속과 비행중단	153
1. 비행의 지속 및 중단	155
2. 재비행의 요인	165
3. 비행의 발전	178
4. 소결	180
VI. 결 론	183
참고문헌	193
부 록	197
1. 부록 1(설문조사지)	199
2. 부록 2(3차년도 문항별 조사결과)	229
3. 부록 3(1차년도 혹은 2차년도 조사 후 삭제된 문항 결과)	303

표 목차

〈표 Ⅰ-1〉 2015년도 설문조사대상자	9
〈표 Ⅱ-1〉 보호관찰대상자 연령별 교육정도 현황(2014년)	14
〈표 Ⅱ-2〉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진로지도 현황	15
〈표 Ⅱ-3〉 2015년 검정고시 응시 및 합격자 현황	16
〈표 Ⅱ-4〉 최근 3년간 검정고시 합격률('13년 ~ '15년)	16
〈표 Ⅱ-5〉 검정고시 준비 형태에 따른 합격 현황	18
〈표 Ⅲ-1〉 응답자의 특성	26
〈표 Ⅲ-2〉 3개년도 참여패널과 이탈패널의 인구사회적 특성 비교	27
〈표 Ⅲ-3〉 3개년도 참여패널과 이탈패널의 학업중단관련 특성 비교	28
〈표 Ⅲ-4〉 3개년도 참여패널과 이탈패널의 비행 및 범죄발생 특성 비교	29
〈표 Ⅲ-5〉 3개년도 참여패널과 이탈패널의 보호관찰 종료시점 비교	30
〈표 Ⅲ-6〉 3개년도 참여패널과 이탈패널의 보호처분 비교	30
〈표 Ⅲ-7〉 3개년도 참여패널과 이탈패널의 보호관찰관 관계 비교	31
〈표 Ⅲ-8〉 복교 경험	33
〈표 Ⅲ-9〉 학업중단 지속 여부 및 복교경험	33
〈표 Ⅲ-10〉 지난 조사 후 복교 학교 유형	34
〈표 Ⅲ-11〉 재중단 경험	36
〈표 Ⅲ-12〉 학업 재중단 이유	37
〈표 Ⅲ-13〉 학업 중단 시 상담자	38
〈표 Ⅲ-14〉 학교에 복학하는 절차	38
〈표 Ⅲ-15〉 대안학교 등 대안교육기관	39
〈표 Ⅲ-16〉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방법	39
〈표 Ⅲ-17〉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 등 청소년시설	40
〈표 Ⅲ-18〉 진로나 직업교육훈련 관련 시설	40

〈표 III-19〉 학업중단 숙려제에 대한 설명	41
〈표 III-20〉 학업중단 숙려제 이용 경험 여부	41
〈표 III-21〉 졸업자격 취득 여부	42
〈표 III-22〉 대안학교에 다님	43
〈표 III-23〉 검정고시 공부를 함	43
〈표 III-24〉 대학입시 관련 (2차년 추가)	44
〈표 III-25〉 대학 재학여부	44
〈표 III-26〉 직업기술을 배움	45
〈표 III-27〉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	45
〈표 III-28〉 취미나 동아리활동 등에 참여함	46
〈표 III-29〉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놀 46	46
〈표 III-30〉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음	47
〈표 III-31〉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함	47
〈표 III-32〉 게임중독성	48
〈표 III-33〉 게임중독 문항	49
〈표 III-34〉 스마트폰 중독(2차년 추가)	50
〈표 III-35〉 스마트폰 중독 문항	51
〈표 III-36〉 SNS에서의 피해정도	51
〈표 III-37〉 SNS에서의 피해 정도 문항	52
〈표 III-38〉 SNS에서의 가해정도	52
〈표 III-39〉 SNS에서의 가해 정도 문항	53
〈표 III-40〉 최근 일주일동안 2번 이하 아침식사를 함	53
〈표 III-41〉 최근 일주일동안 2번 이하 점심식사를 함	54
〈표 III-42〉 최근 일주일동안 2번 이하 저녁식사를 함	54
〈표 III-43〉 최근 일주일동안 라면이나 컵라면을 3회 이상 먹었음	55

〈표 III-44〉 평균 수면시간	55
〈표 III-45〉 학교나 대안학교, 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을 다님	56
〈표 III-46〉 학교나 대안학교, 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지내는 평균시간	56
〈표 III-47〉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하여 일함	57
〈표 III-48〉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해서 일하면서 지내는 평균시간	57
〈표 III-49〉 숙제, 시험 준비, 자격증을 따기 위한 개인공부	58
〈표 III-50〉 숙제, 시험 준비, 자격증을 따기 위해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시간 ...	58
〈표 III-51〉 휴대전화기, 컴퓨터, 게임, TV 등을 보면서 시간을 때우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않고 혼자 지냄	59
〈표 III-52〉 휴대전화기, 컴퓨터, 게임, TV 등을 보면서 시간을 때우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평균시간	59
〈표 III-53〉 운동, 취미, 동아리, 교회나 성당을 다님	60
〈표 III-54〉 운동, 취미, 동아리, 교회나 성당에 할애하는 평균시간	60
〈표 III-55〉 친구들과 함께 돌아다니거나 놀러 다님	61
〈표 III-56〉 친구들과 함께 돌아다니거나 노는 평균시간	61
〈표 III-57〉 부모 애착	62
〈표 III-58〉 부모 애착 문항	63
〈표 III-59〉 부모의 방임	63
〈표 III-60〉 부모의 방임 문항	64
〈표 III-61〉 신체적 학대	64
〈표 III-62〉 신체적 학대 문항	65
〈표 III-63〉 정서적 학대 문항	65
〈표 III-64〉 친구의 수	66
〈표 III-65〉 또래 애착	66
〈표 III-66〉 또래 애착 문항	67

〈표 III-67〉 친구 비행성향	67
〈표 III-68〉 친구 비행성향 문항	68
〈표 III-69〉 지역사회 유대	68
〈표 III-70〉 지역사회 유대 문항	69
〈표 III-71〉 비공식 통제	69
〈표 III-72〉 비공식 통제 문항	70
〈표 III-73〉 물리적 무질서	70
〈표 III-74〉 물리적 무질서 문항	71
〈표 III-75〉 사회적 무질서	71
〈표 III-76〉 사회적 무질서 문항	72
〈표 III-77〉 지역사회 유익환경	72
〈표 III-78〉 지역사회 유익환경 문항	73
〈표 III-79〉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을 친구나 친척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었)다 ...	74
〈표 III-80〉 학교에 다니지 않아서 주위사람들이 문제아 취급을 하는 것 같(었)다 ..	74
〈표 III-81〉 학교와 같이 소속된 곳이 없으니 불안하(었)다	75
〈표 III-82〉 내가 선택한 결과이니 현재 생활에 만족한(했)다	75
〈표 III-83〉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에 대해 후회한(했)다	76
〈표 III-84〉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었)다	76
〈표 III-85〉 자아존중감	77
〈표 III-86〉 자아존중감 문항	77
〈표 III-87〉 자아탄력성	78
〈표 III-88〉 자아탄력성 문항	78
〈표 III-89〉 자아행복감	79
〈표 III-90〉 자아행복감 문항	79
〈표 III-91〉 우울감	79

〈표 III-92〉 우울감 문항	80
〈표 III-93〉 충동성	81
〈표 III-94〉 충동성 문항	81
〈표 III-95〉 사회적 낙인	82
〈표 III-96〉 사회적 낙인 문항	83
〈표 III-97〉 학력에 대한 생각	84
〈표 III-98〉 학력에 대한 생각	84
〈표 III-99〉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	85
〈표 III-100〉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	85
〈표 III-101〉 자신에게 도움을 준 어른을 만난 기관 (복수응답)	86
〈표 III-102〉 진로에 대해 부모님(또는 주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87
〈표 III-103〉 인터넷을 검색하였다	88
〈표 III-104〉 공공기관 (교육, 복지, 고용관련 기관 등)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	88
〈표 III-105〉 관심 있는 직업의 종사자를 만나 이야기해 본 적이 있다	89
〈표 III-106〉 여가시간, 방과 후, 방학 등을 활용해 직업체험을 해 본적이 있다 ·	90
〈표 III-107〉 진로정보 탐색의 어려움	91
〈표 III-108〉 진로에 대한 불안	92
〈표 III-109〉 진로 관련 경제적 어려움	93
〈표 III-110〉 원하는 진로계획 달성 예측	95
〈표 III-111〉 교육 기대 수준	95
〈표 III-112〉 자립에 필요한 항목	96
〈표 III-113〉 자립에 필요한 항목	96
〈표 III-114〉 보호시설(자립생활관, 청소년 쉼터 등)에서 지냄	97
〈표 III-115〉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생활함	97
〈표 III-116〉 소년원학교에서 생활함	98

〈표 III-117〉 담당 보호관찰관 변경 여부	98
〈표 III-118〉 담당 보호관찰관 변경 횟수	99
〈표 III-119〉 나의 문제점 파악에 노력하신다	99
〈표 III-120〉 내 고민이나 어려움에 대해 알려고 하신다	100
〈표 III-121〉 나를 잘 도와주신다	100
〈표 III-122〉 나의 문제를 의논한다	101
〈표 III-123〉 보호관찰소를 통해 받고 있는 지원 이용 여부	102
〈표 III-124〉 보호관찰소를 통해 받고 있는 지원에 대한 만족도	103
〈표 IV-1〉 청소년 대상자 사례번호	109
〈표 IV-2〉 보호자 및 보호관찰관 사례번호	110
〈표 V-1〉 지위비행의 지속 및 중단	156
〈표 V-2〉 지위비행의 변화에 대한 패널분석 결과	157
〈표 V-3〉 중비행의 지속 및 중단	158
〈표 V-4〉 중비행의 변화에 대한 패널분석 결과	159
〈표 V-5〉 공식기록범죄의 지속 및 중단	161
〈표 V-6〉 공식기록범죄의 변화에 대한 패널분석 결과	162
〈표 V-7〉 보호요인이 재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랜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166
〈표 V-8〉 위험요인이 재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랜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168
〈표 V-9〉 심리요인이 재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랜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171
〈표 V-10〉 일상활동유형이 재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랜덤 로지스틱회귀분석결과	174
〈표 V-11〉 부정적 인생사건이 재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랜덤 로지스틱회귀분석결과	176
〈표 V-12〉 지위비행, 중비행, 공식기록범죄, 경찰체포의 관계	179
〈표 부록 2-1〉 1차년도 및 2, 3차년도 조사 참여자 수	229

〈표 부록 2-2〉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29
〈표 부록 2-3〉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30
〈표 부록 2-4〉 졸업자격 취득 여부	231
〈표 부록 2-5〉 복교 경험	232
〈표 부록 2-6〉 복교 학교 형태	233
〈표 부록 2-7〉 복교 시기	234
〈표 부록 2-8〉 복교 이유	235
〈표 부록 2-9〉 종전 학교로의 복교 여부	236
〈표 부록 2-10〉 종전 학교로 복학하지 않은 이유	237
〈표 부록 2-11〉 복교 후 학교생활 만족	238
〈표 부록 2-12〉 재중단 경험	239
〈표 부록 2-13〉 재중단 학교 유형	240
〈표 부록 2-14〉 학업 재중단 시기	241
〈표 부록 2-15〉 학업 재중단 이유	243
〈표 부록 2-16〉 학업 재중단 시 상담자	244
〈표 부록 2-17〉 학업 재중단 시 제공받은 정보	245
〈표 부록 2-18〉 학업 재중단 시 필요했던 도움	246
〈표 부록 2-19〉 학업 재중단 시 학업중단 숙려제 경험	247
〈표 부록 2-20〉 중단 후 경험실태	248
〈표 부록 2-21〉 대안학교 유형	249
〈표 부록 2-22〉 검정고시 공부 방법	250
〈표 부록 2-23〉 검정고시 응시 경험 유무	251
〈표 부록 2-24〉 검정고시 합격 여부	251
〈표 부록 2-25〉 직업훈련 프로그램	252
〈표 부록 2-26〉 직업훈련 프로그램 내용	253

〈표 부록 2-27〉 직업훈련 프로그램 만족도	254
〈표 부록 2-28〉 아르바이트 및 일 중단 횟수	255
〈표 부록 2-29〉 아르바이트 및 일 중단 이유	256
〈표 부록 2-30〉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놀았던 이유	257
〈표 부록 2-31〉 학업중단 후의 주거 공간 및 비행경험	258
〈표 부록 2-32〉 가출 시 거주 장소	259
〈표 부록 2-33〉 담당 보호관찰관 변경여부	260
〈표 부록 2-34〉 담당 보호관찰관 변경횟수	261
〈표 부록 2-35〉 담당 보호관찰관과의 관계	262
〈표 부록 2-36〉 보호관찰 지원프로그램 이용 경험	263
〈표 부록 2-37〉 아르바이트 경험	264
〈표 부록 2-38〉 아르바이트 업종	265
〈표 부록 2-39〉 주요 아르바이트 업종	266
〈표 부록 2-40〉 아르바이트 주당 근로일수, 일일 근로시간, 시급	267
〈표 부록 2-41〉 성인 멘토를 만난 기관	268
〈표 부록 2-42〉 동아리·인터넷 카페 참여 경험	269
〈표 부록 2-43〉 동아리·인터넷 카페 참여 이유	270
〈표 부록 2-44〉 참여하는 동아리·인터넷 카페 유형	271
〈표 부록 2-45〉 동아리·인터넷 카페 활동 내용	272
〈표 부록 2-46〉 진로정보탐색	273
〈표 부록 2-47〉 진로 장애	274
〈표 부록 2-48〉 향후 진로 계획	275
〈표 부록 2-49〉 진로 계획 달성 예측	276
〈표 부록 2-50〉 자신의 향후 교육 기대수준	277
〈표 부록 2-51〉 학업중단에 대한 생각	278

〈표 부록 2-52〉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생활만족도	279
〈표 부록 2-53〉 우울, 충동성	280
〈표 부록 2-54〉 게임 중독	281
〈표 부록 2-55〉 SNS 관련 피해·가해 경험	282
〈표 부록 2-56〉 스마트폰 중독	283
〈표 부록 2-57〉 부모의 지원	284
〈표 부록 2-58〉 부모의 방임·학대	285
〈표 부록 2-59〉 친한 친구 수	286
〈표 부록 2-60〉 또래애착, 친구의 비행성향	287
〈표 부록 2-61〉 지역사회	288
〈표 부록 2-62〉 하루생활시간-수면	289
〈표 부록 2-63〉 하루생활시간	290
〈표 부록 2-64〉 취침 시각	292
〈표 부록 2-65〉 식생활	293
〈표 부록 2-66〉 학력에 대한 생각	294
〈표 부록 2-67〉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	295
〈표 부록 2-68〉 사회적 낙인감	296
〈표 부록 2-69〉 자립을 위해 필요한 것	297
〈표 부록 2-70〉 문제행동 피해경험	298
〈표 부록 2-71〉 비행경험	299
〈표 부록 2-72〉 장래 희망	301
〈표 부록 3-1〉 1,2차년도 조사 후 삭제문항	303
〈표 부록 3-1-1〉 최근 학업 중단 시기	304
〈표 부록 3-1-2〉 최근 학업 중단 시 학년	305
〈표 부록 3-1-3〉 학업 중단 시 처리 형태	306

〈표 부록 3-1-4〉 학교성적수준	307
〈표 부록 3-1-5〉 학업중단 횟수	308
〈표 부록 3-1-6〉 학업중단 시 부모님 태도	309
〈표 부록 3-1-7〉 학업중단 시 선생님 태도	310
〈표 부록 3-1-8〉 무단결석 여부	311
〈표 부록 3-1-9〉 최초 결석 시기	312
〈표 부록 3-1-10〉 최초 결석 이유	313
〈표 부록 3-1-11〉 학업중단 전 학교생활	314
〈표 부록 3-1-12〉 학교규범 위반 경험	315
〈표 부록 3-1-13〉 부모 결혼상태	316
〈표 부록 3-1-14〉 다문화가정 여부	317
〈표 부록 3-1-15〉 부모 학력	318
〈표 부록 3-2-1〉 학업중단 시 학교 유형	319
〈표 부록 3-2-2〉 학업중단 시 학교 소재지	320
〈표 부록 3-2-3〉 학업중단 시 하고 싶었던 일	321
〈표 부록 3-2-4〉 하고 싶었던 일 성취 정도	322
〈표 부록 3-2-5〉 하고 싶었던 일 성취 실패 이유	323
〈표 부록 3-2-6〉 하고 싶었던 일 성취 성공 이유	324
〈표 부록 3-2-7〉 지원받고 싶은 보호관찰 프로그램	325
〈표 부록 3-2-8〉 아르바이트 근로상 지위	326
〈표 부록 3-3-1〉 생애사건 경험(1차년도)	327
〈표 부록 3-3-2〉 생애사건 경험(2차년도)	328

그림 목차

【그림 Ⅰ-1】 연구추진체계	5
【그림 Ⅲ-1】 현재 학업상태	32
【그림 Ⅲ-2】 지난 조사 후 학교 복귀 이유	34
【그림 Ⅲ-3】 지난 조사 후 종전 학교로 복교하지 않은 이유	35
【그림 Ⅲ-4】 복학 후 학교생활 만족	35
【그림 Ⅲ-5】 향후 진로 계획	94
【그림 V-1】 지위비행의 변화추이	156
【그림 V-2】 지위비행의 개인별 변화추이	157
【그림 V-3】 중비행의 변화추이	159
【그림 V-4】 중비행의 개인별 변화추이	160
【그림 V-5】 공식기록범죄의 변화추이	161
【그림 V-6】 공식기록범죄의 개인별 변화추이	162
【그림 V-7】 지난 1년 동안 경찰체포 경험	163
【그림 V-8】 보호관찰대상 학업중단청소년의 비행지속 및 비행중단	180
【그림 부록 2-1】 중단/복교상태	230
【그림 부록 2-2】 졸업자격 취득 여부	231
【그림 부록 2-3】 복교 경험	232
【그림 부록 2-4】 복교 학교 형태	233
【그림 부록 2-5】 복교 시기	234
【그림 부록 2-6】 복교 이유	235
【그림 부록 2-7】 종전 학교로의 복교 여부	236
【그림 부록 2-8】 종전 학교로 복학하지 않은 이유	237
【그림 부록 2-9】 복교 후 학교생활 만족	238
【그림 부록 2-10】 재중단 경험	239

【그림 부록 2-11】 재중단 학교 유형	240
【그림 부록 2-12】 학업 재중단 시기	241
【그림 부록 2-13】 학업 재중단 이유	242
【그림 부록 2-14】 학업 재중단 시 상담자	244
【그림 부록 2-15】 학업 재중단 시 제공받은 정보	245
【그림 부록 2-16】 학업 재중단 시 필요했던 도움	246
【그림 부록 2-17】 학업 재중단 시 학업중단숙려제 경험	247
【그림 부록 2-18】 중단 후 경험실태	248
【그림 부록 2-19】 대안학교 유형	249
【그림 부록 2-20】 검정고시 공부 방법	250
【그림 부록 2-21】 검정고시 응시 경험 유무	251
【그림 부록 2-22】 검정고시 합격 여부	251
【그림 부록 2-23】 직업훈련 프로그램	252
【그림 부록 2-24】 직업훈련 프로그램 내용	253
【그림 부록 2-25】 직업훈련 프로그램 만족도	254
【그림 부록 2-26】 아르바이트 및 일 중단 횟수	255
【그림 부록 2-27】 아르바이트 및 일 중단 이유	256
【그림 부록 2-28】 고립 또는 방황 이유	257
【그림 부록 2-29】 주거 공간 및 비행추이	258
【그림 부록 2-30】 가출 시 거주 장소	259
【그림 부록 2-31】 담당 보호관찰관 변경여부	260
【그림 부록 2-32】 담당 보호관찰관 변경횟수	261
【그림 부록 2-33】 담당 보호관찰관과의 관계	262
【그림 부록 2-34】 보호관찰 지원프로그램 이용 경험	263
【그림 부록 2-35】 아르바이트 경험	264

【그림 부록 2-36】 아르바이트 주당 근로일수, 일일 근로시간, 시급	267
【그림 부록 2-37】 성인 멘토를 만난 기관	268
【그림 부록 2-38】 동아리 · 인터넷 카페 참여 경험	269
【그림 부록 2-39】 동아리 · 인터넷 카페 참여 이유	270
【그림 부록 2-40】 참여하는 동아리 · 인터넷 카페 유형	271
【그림 부록 2-41】 동아리 · 인터넷 카페 활동 내용	272
【그림 부록 2-42】 진로정보탐색	273
【그림 부록 2-43】 진로 장애	274
【그림 부록 2-44】 향후 진로 계획	275
【그림 부록 2-45】 진로 계획 달성 예측	276
【그림 부록 2-46】 본인의 교육 기대수준	277
【그림 부록 2-47】 학업중단에 대한 생각	278
【그림 부록 2-48】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생활만족도	279
【그림 부록 2-49】 우울, 충동성	280
【그림 부록 2-50】 게임 중독	281
【그림 부록 2-51】 SNS 관련 피해 · 가해 경험	282
【그림 부록 2-52】 스마트폰 중독	283
【그림 부록 2-53】 부모의 지원	284
【그림 부록 2-54】 부모의 방임 · 학대	285
【그림 부록 2-55】 친한 친구 수	286
【그림 부록 2-56】 또래애착, 친구의 비행성향	287
【그림 부록 2-57】 지역사회	288
【그림 부록 2-58】 하루생활시간-수면	289
【그림 부록 2-59】 평일 취침 시간	291
【그림 부록 2-60】 휴일 취침 시간	291

【그림 부록 2-61】 식생활	293
【그림 부록 2-62】 학력에 대한 생각	294
【그림 부록 2-63】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	295
【그림 부록 2-64】 사회적 낙인감	296
【그림 부록 2-65】 자립을 위해 필요한 것	297
【그림 부록 2-66】 문제행동 피해경험	298
【그림 부록 2-67】 비행경험	299
【그림 부록 2-68】 장래희망	300
【그림 부록 3-1-1】 최근 학업 중단 시기	304
【그림 부록 3-1-2】 최근 학업 중단 시 학년	305
【그림 부록 3-1-3】 학업 중단 시 행정처리 형태	306
【그림 부록 3-1-4】 학교성적수준	307
【그림 부록 3-1-5】 학업중단 횟수	308
【그림 부록 3-1-6】 학업중단 시 부모님 태도	309
【그림 부록 3-1-7】 학업중단 시 학교 선생님 태도	310
【그림 부록 3-1-8】 무단 결석 여부	311
【그림 부록 3-1-9】 최초 결석 시기	312
【그림 부록 3-1-10】 최초 결석 이유	313
【그림 부록 3-1-11】 학업중단 전 학교생활	314
【그림 부록 3-1-12】 학교규범 위반 경험	315
【그림 부록 3-1-13】 부모 결혼상태	316
【그림 부록 3-1-14】 다문화가정 여부	317
【그림 부록 3-1-15】 부모 학력	318
【그림 부록 3-2-1】 학업중단 시 학교 유형	319
【그림 부록 3-2-2】 학업중단 시 학교 소재지	320

【그림 부록 3-2-3】 학업중단 시 하고 싶었던 일	321
【그림 부록 3-2-4】 하고 싶었던 일 성취 정도	322
【그림 부록 3-2-5】 하고 싶었던 일 성취 실패 이유	323
【그림 부록 3-2-6】 하고 싶었던 일 성취 성공 이유	324
【그림 부록 3-2-7】 지원받고 싶은 보호관찰 프로그램	325
【그림 부록 3-2-8】 아르바이트 근로상 지위	326

제 I 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추진체계
3. 연구내용
4. 연구방법

제 I 장 서론¹⁾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비행청소년은 성인범죄자에 비해 변화가능성이 크며, 아직 미성년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인 보호 및 지원을 통한 재범예방노력이 보다 중요하다. 비행청소년 중 특히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학교라는 보호요인의 부재 속에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이들의 재비행과도 관련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통해 이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이들에 대한 접근 및 이를 통한 실태파악이 특히 어려울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조사는 학교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해서는 실태 파악이 쉽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들도 거의 수행되지 못한 실정이다. 그리고 이는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에 초점을 맞춘 실태 파악과 이를 토대로 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유용한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구체적으로는 이들의 특성 및 학업중단 이후의 경로를 파악해 봄으로써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2013년도에 시작된 비행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의 3년차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2013년에 조사를 시작한 비행학업중단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특성 및 3년에 걸친 변화의 흐름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2013년에 시작된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으로 한정된 이유는 보호관찰을 받는 기간 동안 접근이 용이하고, 보호관찰 종료 후에도 보호관찰소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접촉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다는 점, 시설 내 수용된

1) 이 장은 전영실 선임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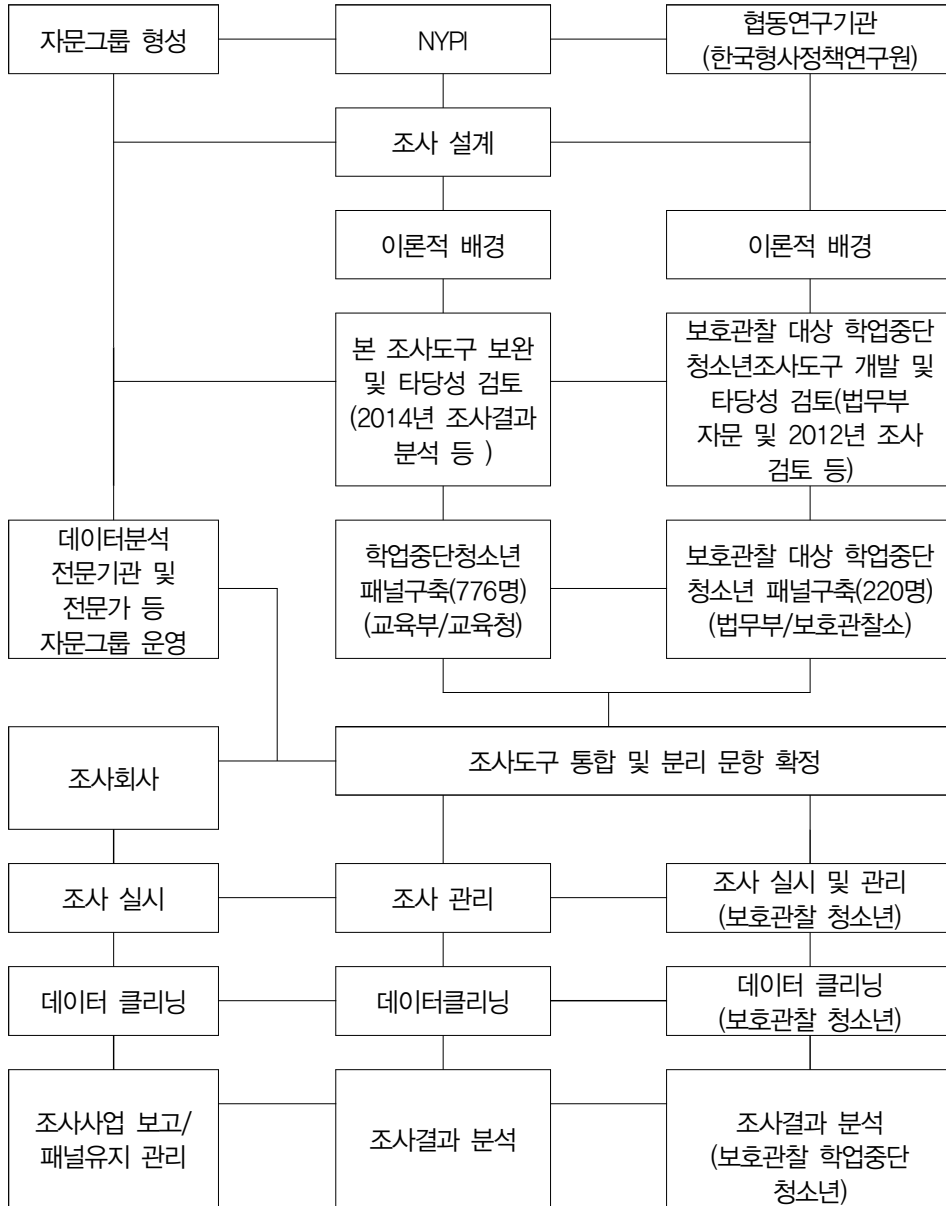
청소년에 비해 변화양상을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었다. 2013년의 1차 연구에서는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을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과의 비교를 통해 파악하였고, 2014년의 2차 연구에서는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과 변화 양상을 파악하였다. 2015년의 3차 연구는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패널조사의 마지막 연구로서 이들의 3년에 걸친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다루고자 한다.

첫째, 2013년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특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들의 개인적·환경적 특성 및 생활경험 등에 대해 파악해 보고자하며, 이를 1, 2차년도의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둘째, 조사대상이 되는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이후 경로에 대해 파악해 보고자 한다. 특히 조사대상자들의 부적응을 가장 명확히 가늠해 볼 수 있는 재비행을 파악해 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파악해 보고자 한다.

셋째, 이 연구에서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학업중단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을 예방하고, 사회적응을 돕는 지원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연구추진체계



【그림 I-1】 연구추진체계

*출처: 윤철경 외(2013). p.11의 【그림 I-2】를 수정보완함.

3. 연구내용

1) 비행학업중단 청소년 관련 선행연구 정리

이 연구의 대상이 되었던 보호관찰 청소년의 특성 및 지원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이들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특히, 재비행과 관련되는 기존 선행연구들을 검토해 봄으로써 본 조사대상이 되는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의 재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요인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2) 학업중단 및 관련요인 실태 및 변화 분석

1차년도 이후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업중단 지속 및 변화와 관련한 실태를 살펴보고, 이들의 심리적 특성, 가족 특성, 친구관계, 일상활동 등 일반적 특성을 3년에 걸친 조사결과와 비교함으로써 각 요인의 변화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3) 보호관찰대상 학업중단청소년 및 관련자 심층면접

1차년도와 2차년도에 이어 2015년에도 설문조사와 더불어 심층면접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전년도 대상자 12명중 6명이 면접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12명의 대상자중 총 7명이 보호관찰을 종료하였고 나머지 5명은 아직 보호관찰 중이다. 보호관찰 중인 4명과 보호관찰을 종료한 2명이 심층면접을 희망하여 총 6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에서는 6명중 3명만이 3년 연속 면접대상자였고, 나머지 3명은 작년부터 면접에 응했다. 때문에 일정 부분 한계는 있으나 지난 1년간의 경험과 생활 및 심리적 변화에 관해 살펴보고 총체적으로 지난 3년을 중심으로 학업중단이후 청소년의 변화과정을 되짚어보고자 한다.

아울러 청소년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재비행 관련 요인, 지난 3년간 청소년들이 받은 지원과 프로그램에 관한 평가 및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장단점, 개선방향 등에 관해서도 조사하여 정책제언에 반영하고자 한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담당했던 보호관찰관과 청소년의 보호자도 심층면접대상에 포함하였다. 심층면접을 통하여 보호관찰관과 보호자들의 입장에서 비행청소년들의 변화와 재비행 관련 요인, 정책개선방향에 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4)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의 재비행 원인 및 지원방안 제시

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행지속 혹은 비행중단의 실태를 살펴보고 관련 요인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의 재비행 예방 및 사회적응을 돕는 지원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특히 유관부처(법무부, 여성가족부 등)간 협력을 통한 지원방안 등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의 사회적응을 도울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4. 연구방법

1) 비행학업중단 청소년 관련 문헌 연구

비행학업중단 청소년, 특히 이 연구의 1다음 년도 조사 대상이었던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의 특성 및 현황, 이들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한 검토해 보고자 한다. 또한 비행소년의 재비행 관련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요소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2) 1, 2차년도 조사대상자에 대한 3차년도 설문조사

1차년도의 조사대상은 중고생 연령대의 청소년(참고로 소년법상 비행소년은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이지만, 현실적으로 학업중단이 시작되는 시기인 중학생 연령대 이상을 대상으로 하였음)으로, 장기보호관찰(최대 2년)을 받고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이었다. 장기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패널유지가 매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적어도 2년의 기간 동안은 보호관찰소의 협조를 받아 패널조사가 용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었다. 이들에 대해 전국 11개의 보호관찰소에서 총 22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2차년도에는 1차년도 조사대상이었던 사람들 중 조사 가능한 2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조사대상자의 거주이전 등으로 총 14개의 보호관찰소에서 조사 실시).

2015년의 경우 2014년도에 조사에 참여한 210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다. 210명 중 80명(38.1%)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여전히 보호관찰 대상자였고, 130명(61.9%)는 보호관찰을 완료한 상태였다. 비록 조사대상자 중 절반 이상이 보호관찰을 종료하였으나, 3차년도 역시 보호관찰소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종료 청소년에 대한 접촉이 리서치회사에 비해서는 훨씬 용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및

일선 보호관찰소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보호관찰대상자와 종료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가 완료된 대상자수는 총 167명이었다(패널유지율 75.9%). 이 중 보호관찰대상자는 75명, 보호관찰 종료자는 92명이었다. 설문이 불가능한 대상자는 43명으로 나타났는데, 설문이 불가능한 이유로는 소재불명이 대부분이었고, 일부는 설문을 거부한 경우도 있었으며, 군 입대로 인해 접촉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2차 조사 이후 사망자도 1명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설문조사는 2013년도에 조사대상이 되었던 11개 보호관찰소 외에 조사대상자의 이동으로 인해 울산보호관찰소, 서울북부보호관찰소, 고양보호관찰소, 부천보호관찰소, 성남보호관찰소, 영동보호관찰소, 군산보호관찰소, 대구소년원, 안양소년원, 춘천소년원, 광주소년원, 안양교도소, 춘천교도소, 대구구치소에서도 이루어졌다.

조사내용은 1, 2차년도의 틀을 유지하되 부분적으로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여 반영하였다. 설문조사와 더불어 보호관찰소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대상 청소년의 지난 1년간 공식범죄 유무 및 내용, 이에 대한 처분을 별도 조사표로 작성하였다.

조사기간은 2015년 7월 13일부터 8월 10일까지였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보호관찰대상 중인과 종료자 모두 해당 보호관찰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종료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담당자가 조사에 대해 설명한 후 대상자의 동의하에 조사를 진행하였다. 참고로 조사대상이 된 청소년들에게 1차년도 조사 시 3년에 걸친 패널조사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받았다.

<표 I -1> 2015년도 설문조사대상자

(단위: 명)

연번	기관명	설문발송			설문 완료			설문 불가		
		계	현재원	종료자	계	현재원	종료자	계	현재원	종료자
1	서울동부	25	11	14	18	10	8	7	1	6
2	대전	20	7	13	17	7	10	3		3
3	광주	19	3	16	16	2	14	3	1	2
4	의정부	19	1	18	13	1	12	6		6
5	인천	19	7	12	17	7	10	2		2
6	서울남부	17	8	9	13	8	5	4		4
7	수원	17	6	11	10	4	6	7	2	5
8	서울	15	7	8	12	7	5	3		3
9	전주	15	6	9	14	6	8	1		1
10	대구	13	7	6	11	6	5	2	1	1
11	부산	12	4	8	10	4	6	2		2
12	울산	2	1	1	2	1	1	0		
13	서울북부	1	1		1	1		0		
14	고양	1		1	0			1		1
15	부천	1		1	0			1		1
16	성남	1		1	1		1	0		
17	영동	1		1	1		1	0		
18	군산	1	1		1	1		0		
19	대구소년원	2	2		2	2		0		
20	안양소년원	2	2		2	2		0		
21	춘천소년원	2	2		2	2		0		
22	광주소년원	2	2		2	2		0		
23	안양교도소	1	1		1	1		0		
24	춘천교도소	1	1		1	1		0		
25	대구구치소	1		1	0			0		1
계		210	80	130	167	75	92	42	5	38

*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현재원은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을, 종료자는 보호관찰 종료된 청소년을 의미함

3) 2차년도 심층면접대상자 및 관련자에 대한 심층면접조사

3차년도 심층면접대상자였던 12명중 총 6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으나, 면접은 2015년 5월 1개월 동안 실시되었고, 대상자들의 동의를 얻어 연구진 1명이 면접을 실시하는 동안 연구보조원이 옆에서 기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기록과 동시에 녹취를 통해 면접내용을 빠짐없이 정리하고자 하였다.

1차년도와 2차년도가 청소년의 실태분석을 중심으로 한 심층면접이었다면 3차년도는 학업중단 이후 청소년의 변화된 모습에 관해 분석하고, 재비행 관련 요인을 찾고,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개선점을 찾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심층면접대상인 6명의 청소년을 담당했거나 담당 중인 보호관찰관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탈비행 요인에 관해 질문하고, 청소년을 위한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의 실태와 개선방향에 관해서도 질문하였다. 이러한 심층면접을 통해 궁극적으로 비행학업중단청소년에게 필요한 학교, 사회, 보호관찰소의 지원정책 및 프로그램의 개선방향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보호관찰관뿐만 아니라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비행학업중단청소년 가정의 역동성 및 심리적·경제적 어려움, 청소년들의 변화양상과 관련 요인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제 Ⅱ 장

이론적 배경

1. 보호관찰 청소년 현황 및 지원 대책
2. 재비행관련 논의

제 Ⅱ 장 이론적 배경²⁾

1. 보호관찰 청소년 현황 및 지원 대책

여기서는 이 연구의 1, 2차년도 조사대상이 되었던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과 관련한 특성 및 지원대책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보호관찰에서 학업중단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특성 파악이나 지원 대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조사대상과 관련될 수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의 학업중단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므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의 협조를 받아 기초적인 자료로서 2015년도를 기준으로 한 보호관찰대상자 연령별 교육수준을 파악해 보았다. 이와 더불어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과 관련되거나 이들에게 효과적일 것으로 간주되는 주요 프로그램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보호관찰대상자의 연령별 교육정도 현황을 살펴보면 <표 II-1>과 같다. 초등학교 수준의 교육정도에서는 재학과 유예가 각각 25.9%, 졸업이 48.2%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초등학교 정도의 교육수준에서 유예가 1/4을 넘는다는 점이다. 초등학교시기에 무단결석 등으로 유예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보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학교 수준의 교육정도에서는 재학이 53.6%, 유예가 37.0%, 졸업이 9.4%였다. 고등학교 수준의 교육정도에서는 재학이 60.5%였으며, 유예가 39.2%, 졸업이 0.3%였다.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수록 재학의 비율이 높지만, 이와 더불어 유예의 비율도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대안 없이 유예되는 경우는 학교부적응 등이 많을 수 있다고 볼 때, 보호관찰단계에서 학교부적응 내지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이 장은 전영실 선임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표 II-1> 보호관찰대상자 연령별 교육정도 현황(2014년)

(단위: 명)

연령	학력 불취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총계
		재학	유예	졸업	재학	유예	졸업	재학	유예	졸업		
만 10세 (2004년생)												-
만 11세 (2003년생)		7										7
만 12세 (2002년생)		22	1	2	9							34
만 13세 (2001년생)	1		1	1	232	17						252
만 14세 (2000년생)	1		6	10	1,263	253						1,533
만 15세 (1999년생)	2		6	5	2,572	861	87	218				3,751
만 16세 (1998년생)	3		3	12	1,513	1,023	197	2,288	923			5,962
만 17세 (1997년생)	3		8	11	281	1,045	333	3,891	2,474			8,046
만 18세 (1996년생)	1		4	13	89	917	426	4,337	3,561	52	35	9,435
총계	11	29	29	54	5,959	4,116	1,043	10,734	6,958	52	35	29,020

출처: 법무부(2015). 보호관찰과 내부자료.

다음으로는 이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학업중단 보호관찰대상자들과 관련될 수 있는 보호관찰 지원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보호관찰 통계 중 학업중단 청소년들만을 별도로 집계한 경우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반적인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에 대한 지원내용을 살펴보았다.

먼저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진로지도 현황을 살펴보면 <표II-2>와 같다. 앞서도 보았듯이 보호관찰대상 청소년 중 유예의 비율이 낮지 않다. 따라서 진로지도 현황을 보면, 복교주선이 많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복교주선은 진로지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복교주선 건수를 보면, 2013년 1,959건, 2014년 1,978건으로 비슷하며, 2015년의 경우 9월 기준으로 1,487건이다. 복교주선 다음으로 많은 것은 검정고시 지원이며, 다음은 직업훈련, 취업알선의 순인 것을 알 수 있다.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므로 특히 중학교 이하의 경우에는 유예된 상태 청소년의 복학을 주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표 II-2>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진로지도 현황 (단위: 건)

구분	취업알선	직업훈련	복교주선	검정고시	계
2013년 ³⁾	112	185	1,959	1,107	3,363
2014년	143	278	1,978	946	3,345
2015년 9월	33	166	1,487	741	2,427

출처: 법무부(2015). 보호관찰과 내부자료.

다음으로 학업중단을 한 보호관찰 청소년에게만 해당될 수 있는 검정고시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다. <표 II-3>검정고시 응시 및 합격자 현황을 보면 고입 검정고시의 경우 698명이 응시하여 전 과목 합격자수는 297명(42.6%), 과목 합격자수는 170명(24.4%)이었다. 고졸 검정고시의 경우 총 1,760명이 응시하였으며, 이 중 전 과목 합격자수는 684명(38.9%), 과목합격자수는 765명(43.5%)이었다. 고입 검정고시와 고졸 검정고시의 전 과목 합격률은 40%안팎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과목합격률까지 고려하면 상당비율이 합격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검정고시에 응시해서 합격할 경우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의 자존감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공부를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비행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표 II-3> 2015년 검정고시 응시 및 합격자 현황 (단위: 명)

구분	고입 검정고시			고졸 검정고시			계		
	응시	전 과목 합격	과목 합격	응시	전 과목 합격	과목 합격	응시	전 과목 합격	과목 합격
제1회	325	187	119	983	292	438	1,308	479	557
제2회	373	110	51	777	392	327	1,150	502	378
계	698	297	170	1,760	684	765	2,458	981	935

출처: 법무부(2015). 보호관찰과 내부자료.

3) 김지영 외(2014) p.21 <표 II-2>를 참고하였음.

2015년의 검정고시 응시 및 합격현황을 알아 본 것에 이어서 최근 3년간 검정고시 합격률은 <표 II-4>에서 제시하였다. 최근 3년간 전체 합격률을 보면, 2013년에 81.0%에서 2014년 79.2%, 2015년 77.9%로 조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를 다시 세부적으로 보면, 전 과목 합격률은 2013년 47.8%에서 2014년 37.0%로 감소하였다가 2015년에는 39.9%로 조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목합격률을 보면, 2013년 33.2%에서 2014년 42.2%로 증가하였다가 2015년에는 38.0%로 감소하였다. 검정고시에 합격할 경우 미래에 대한 긍정적 설계, 자신감 향상 등 긍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호관찰단계에서 검정고시에 합격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표 II-4> 최근 3년간 검정고시 합격률('13년 ~ '15년)⁴⁾ (단위: %)

구분	전체 합격률	전과목합격률	과목합격률
2013년	81.0	47.8	33.2
2014년	79.2	37.0	42.2
2015년	77.9	39.9	38.0

출처: 법무부(2015). 보호관찰과 내부자료.

이와 관련하여 2015년 검정고시 준비형태에 따른 합격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표 II-5>와 같다. 검정고시 준비형태를 보면 미지원(독학)이 1,580명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64.3%). 다음으로는 검정고시 학원알선이 237명(9.6%), 에듀넷수강이 207명(8.4%), 지역 센터와 보호관찰소의 공부방이 각각 192명(7.8%), 190명(7.7%), 보호복지공단 학원비 지원이 29명(1.2%) 등이었다.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보호관찰대상자의 60% 이상은 지원 없이 혼자서 공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검정고시 학원알선과 에듀넷수강, 지역 센터와 보호관찰소의 공부방이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검정고시 준비형태별로 합격률을 보면, 지원 없이 독학한 경우 검정고시 합격률은 74.2%(1,173명)였으며, 전 과목 합격률은 38.7%(611명), 과목합격률은 35.6%(562명)이었다. 검정고시 학원알선의 경우 합격률이 84.8%(201명)이었으며, 전체 합격률과 과목별 합격률은 각각 47.3%(112명), 37.6%(89명)로 나타났다.

4) 2013-2014년 자료는 김지영 외(2014) p.22 <표 II-4>를 참고하였음.

에듀넷수강의 경우에는 합격률이 79.7%(165명)이었으며, 전체 합격률은 35.7%(74명), 과목별 합격률은 44.0%(91명)이었다. 지역센터공부방의 경우 합격률은 85.4%(164명)이었으며, 전체 합격률 40.6%(78명), 과목별 합격률 44.8%(86명)이었다.

보호관찰소 공부방의 경우 합격률이 89.5%(170명)였으며, 전 과목 합격률은 42.6%(81명), 과목합격률은 46.8%(89명)이었다. 검정고시 합격률을 보면 보호관찰소 공부방이 가장 높으며, 다음은 지역 센터 공부방, 검정고시 학원알선, 에듀넷수강, 독학 등의 순인 것을 알 수 있다. 전 과목 합격률을 보면, 검정고시 학원알선이 가장 높으며, 다음은 보호관찰소 공부방, 지역 센터 공부방, 독학, 에듀넷수강 등의 순이었다.

전 과목 합격률이 가장 높은 형태는 검정고시 학원알선이며, 전체(전 과목+과목) 합격률이 가장 높은 것은 보호관찰소 공부방이었다. 반면 독학의 경우 다른 준비형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합격률이 높지 않은 편임을 알 수 있다. 검정고시 학원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검정고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유용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보호관찰소나 지역 센터 공부방 이용도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좋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는 학업을 중단한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감독과 지원을 제공하는 소규모 환경이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표 II-5> 검정고시 준비 형태에 따른 합격 현황 (단위: 명)

구분	에듀넷 수강	검정고시 학원알선	보호관찰소 공부방	보호복지공단 학원비지원	지역 센터 (공부방)	미지원 (독학)	기타	계
응시	207	237	190	29	192	1,580	23	2,458
합격	165	201	170	23	164	1,173	20	1,916
전 과목합격	74	112	81	9	78	611	16	981
과목합격	91	89	89	14	86	562	4	935

출처: 법무부(2015). 보호관찰과 내부자료.

이 외에도 보호관찰대상 중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에게 유용할 수 있는 것으로 멘토링 프로그램, 숲 체험 프로그램, 템플 스테이 등을 들 수 있다.

법무부보호관찰과 내부 자료에 의하면, 멘토링의 주요 내용으로는 심리상담, 검정고시 지도, 문화체험 활동, 진로지도, 각종 원호지원 등이 있다.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에게는 학교교사의 역할이 부재하므로 멘토링을 담당하는 성인과의 긍정적 상호작용은 재비행 예방 및 건전한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법무부 보호관찰과 내부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 9월말까지 소년 보호관찰 실시인원은 총 31,936명이며, 그 중 8,218명(25.7%)에 대해 멘토링을 실시하였다. 멘토링은 일반 법사랑 위원 1,091명(28.8%), 특별 법사랑 위원 2,703명(71.2%)이며, 특별 법사랑 위원은 교사 1,355명, 청소년상담사 644명, 대학생 190명, 기타 514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업중단 청소년 중 복학을 하는 보호관찰 청소년에게는 교사가 멘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청소년 상담사의 경우 학업중단 청소년의 지원을 위해 멘토로서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분석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법무부 보호관찰과 담당자에 의하면, 숲 체험 프로그램은 산림청과의 협의 하에 하고 있으며, 2015년 10월을 기준으로 358명이 참여하였다. 대한불교조계종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템플스테이는 2015년에 200명이 참여하였다.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은 보호자가 같이 가는 효과적이라고 해서 보호자를 참여시키고 있으며, 보호자가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호관찰소 직원이 보호자를 대신해서 대상청소년과 짝을 이루는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보호관찰 청소년의 심성순화 및 가족관계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는 학업중단 청소년에게도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2. 재비행관련 논의

다음으로 3차년도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재비행과 관련하여 기존 선행연구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 중에서 학업중단 청소년의 재비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 기존 선행연구들을 통한 함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비행청소년의 재범을 연구하면서 관련요인을 파악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의 연구들로는 김성곤(2005), 조윤오(2012)가 비행 청소년의 재비행 및 관련 요인을 파악하였으며, 민원홍(2014), 정의롬(2014)은 재비행까지 걸린 기간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요인을 살펴보았다.

이에 대해서 살펴보면, 김성곤(2005)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원한 비행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재비행 관련 요인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 재비행과 관련되는 요인은 부의 훈육방식, 학업에

대한 희망, 고등학교 퇴학 등이었다. 즉 부가 방임을 하는 경우에 재비행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으며, 학업을 계속하려는 동기가 강할수록 재비행을 적게 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고등학교에서 퇴학을 당한 경우 재비행을 더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운오(2012: 79)는 소년원 퇴원 후 보호관찰을 받는 청소년 223명을 대상으로 소년원 퇴원후의 중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조사결과를 보면,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퇴원 후 중비행을 더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퇴원 후 가출횟수가 많을수록, 친구의 비행정도가 심각할수록 퇴원 후 중비행을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행청소년의 재비행, 특히 중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남자청소년에 대한 재범예방노력이 중요하며, 보호관찰단계에서 재범고위험청소년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처우, 가출청소년에 대한 관리 및 보호, 비행친구의 영향력으로부터의 보호 등이 중요함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민원홍(2014: 280-283)은 재범기간에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 380명을 대상으로 하여 10개월의 기간에 걸쳐 이들의 보호관찰 시작부터 재비행까지 걸린 기간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지위비행은 제외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총 380명의 청소년 중 130명의 청소년이 재비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비행까지의 기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요인은 부정적 자존감, 자기통제력, 우울감, 부모의 지지, 학교에서의 징계경험이었다. 즉 부정적 자존감과 우울감이 높을수록, 자기통제력과 부모의 지지가 낮을수록, 학교에서 징계경험이 있는 경우에 재비행 위험성이 높았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심리적 특성들이 재비행과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 주어서 비행청소년에 대한 심리적 프로그램 제공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또한 부모의 지지는 재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보호요소가 됨을 보여 주어서 재비행 예방을 위해서는 가족에 대한 개입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 연구는 학업중단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아니지만 학업을 중단한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파악하는데 시사점을 주고 있다.

정의롬(2014: 65, 93-99)도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받는 소년 중 보호관찰기간 동안 범법행위를 한 후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906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재범기간은 유죄판결을 확정 받은 날이 아닌 실제 범죄를 저지른 날을 기준으로 하였다. 조사결과를 보면, 원호수준, 보호관찰관 1인당 담당자수 등이 재범기간과 관련되었다. 즉 보호관찰기간 중 원호조치가 잘 될수록, 보호관찰관 1인당 담당자수가 적을수록 재범기간이 길어지는 것이다. 이는 보호관찰 대상이 되는

청소년들에 대해 감독뿐만 아니라 필요한 지원 등이 적절하게 잘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며, 보호관찰관의 업무 부담이 크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학력과 관련해서 초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 재범기간이 가장 짧으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 경우 재범기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집단이 학생이 아닌 집단에 비해 재범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를 보면, 학교를 일찍 그만 둔 경우 재범기간이 짧아서 일정 수준의 학력을 밟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의 연구로 Ryan, Williams, & Courtney(2013: 460-463)는 청소년의 방임과 청소년 비행, 재범 위험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은 다양한 형태의 학대 및 아동보호기관 접촉이 지속적인 범죄 위험을 높이는지에 대해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아동보호기관과 소년사법체계에 이중으로 포함된 청소년의 재범위험이 가장 높다는 가설을 세웠다. 여기서 재범에는 지위비행과 교통법규위반이 제외되었다. 연구결과를 보면, 지속적인 방임사례가 된 청소년이 공식적인 방임 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범죄를 지속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관계는 가족, 동료, 학업, 정신건강, 약물남용 등을 통제한 후에도 유의미하였다. 이는 방임, 특히 아동보호기관까지 가게 되는 방임 피해경험이 비행의 지속, 즉 재비행과 관련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심각한 방임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비행 예방과 관련해서 중요할 것이다.

여기서의 결과들을 보면,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에는 심리적 특성과 가족관련 요인(방임, 훈육방식, 부모의 지지),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동기, 강제적인 학업중단, 가출, 친구의 비행정도, 원호수준 등이 관련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이 학업중단 청소년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지만 이 연구의 조사대상이 되는 학업중단 비행청소년들의 경우에도 이러한 요인들이 재비행과 관련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연구도 있다.

James, Stams, Asscher, De Roo, & van der Laan(2013: 263)은 청소년과 젊은 성인들의 재범감소를 위한 갇생보호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메타분석을 하였다. 여기서의 재범은 공식기록을 통해 파악하였다. 이들은 22개 연구, 총 5,764명을 대상으로 검토하면서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후 갇생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재범감소에 효과적임을 보여 주었다. 특히 갇생보호 프로그램은 집단보다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상대적으로 나이가 있는, 고위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때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이 비행청소년 중 학업중단 청소년이며, 학교라는 보호요인이 없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고위험 청소년이라고

본다면 이들의 보호관찰 종료 후 사후보호 및 지도를 위한 개입을 하는 것이 재비행 예방을 위해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해 준다.

참고로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패넬조사인 2014년의 조사결과를 보면, 2013년도에 비해 조사대상자의 사소한 비행은 증가한 반면, 심각한 문제행동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지영, 전영실, 박성훈, 2014: 182). 앞서 살펴 본 선행연구들이나 다른 선행연구들의 재비행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지위비행이 제외되는 것을 고려하면 조사대상자들의 재비행은 감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재비행에 관련될 수 있겠지만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상태가 관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보호관찰 종료 후에 효과적인 사후관리가 재비행 예방을 위해서 중요할 수 있을 것이다.

제 III 장

보호관찰대상 학업중단 청소년의 변화

1. 응답자의 특성
2. 참여패널과 이탈패널의 비교
3. 학업중단 지속 여부
4. 학업중단 이후 경험유형
5. 학업중단 이후 생활양식
6. 학업중단 이후 환경의 변화
7. 학업중단 이후 심리·정서적 변화
8. 학업중단 이후 사회·미래에 대한 인식
9. 보호관찰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 및 인식
10. 소결

제 III 장

보호관찰대상 학업중단 청소년의 변화⁵⁾

1. 응답자의 특성

이번 3차년도 설문조사에 참여한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표 III-1>에 제시된 것과 같이 성별은 남자 청소년이 77.8%, 여자 청소년이 22.2%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차년도를 기준으로 중등학령(만 15세 이하)의 청소년이 1명, 고등학령(만 16세~18세)의 청소년이 58명, 고등학교 졸업 연령(만 19세 이상)이 108명으로 나타났다.⁶⁾ 가족구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3차년도를 기준으로 양부모 가정이 44.3%로 여전히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한부모 가정은 34.1%, 모두 안 계신 경우 21.6%의 순으로 나타났다. 1·2차년도와 비교하여 볼 때, 부모님이 모두 안계신 가정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경제수준은 ‘하’가 46.7%로 가장 많고, ‘중’ 37.7%, ‘상’ 15.6%로 나타났다. 1·2차 년도와 비교하여 볼 때, 3차년도에 ‘상’이라고 느끼는 청소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이 장은 박성훈 부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6) 중학교를 졸업한 연령이 상대적으로 적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연령이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는 패널조사의 특성상 2013년, 2014년 당시에는 중·고등학령에 포함되었던 학업중단 청소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중등학령기와 고등학령기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표 III-1> 응답자의 특성

(단위: 명,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167	(100.0)	167	(100.0)	167	(100.0)
성별	남자 청소년	130	(77.8)	130	(77.8)	130	(77.8)
	여자 청소년	37	(22.2)	37	(22.2)	37	(22.2)
연령	만 14-15세	19	(11.4)	6	(3.6)	1	(0.6)
	만 16-18세	147	(88.6)	104	(62.7)	58	(34.7)
	만 19세~20세	-	-	56	(33.7)	108	(64.7)
가족구성	양부모 가정	81	(48.5)	72	(43.1)	74	(44.3)
	한부모 가정	64	(38.3)	68	(40.7)	57	(34.1)
	모두 안 계심	22	(13.2)	27	(16.2)	36	(21.6)
주관적 경제수준	상	20	(12.0)	17	(10.2)	26	(15.6)
	중	72	(43.1)	63	(37.7)	63	(37.7)
	하	75	(44.9)	87	(52.1)	78	(46.7)

2. 참여패널과 이탈패널의 비교

보호관찰대상 학업중단청소년 패널로 1차년도부터 3차년도까지 참여한 패널과 1차년도와 2차년도까지는 참여하였으나 3차년도에 참여하지 않은 패널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3차년도까지 참여한 패널이 얼마나 랜덤하게 표집 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두 집단 간 비교는 크게 인구사회적 특성, 학업중단관련 특성, 비행관련 특성, 보호처분관련 특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1) 인구사회적 특성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라 1차년도부터 3차년도까지 참여한 패널과 3차 조사에서 이탈한 패널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성별, 연령별, 경제수준, 친부모와 동거여부를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두 집단 간 차이는 유일하게 연령에서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 3개년도 참여패널과 이탈패널의 인구사회적 특성 비교 (단위: 명, %)

성별	남성	여성	계	χ^2 검증	
참여패널	130	37	167		
	(77.8)	(22.2)	(100.0)		
이탈패널	30	13	43		(p=0.267)
	(69.8)	(30.2)	(100.0)		
연령별(1차기준)	13-14세	15-16세	17-18세	계	χ^2 검증
참여패널	7	52	108	167	
	(4.2)	(31.1)	(64.7)	(100.0)	
이탈패널	0	4	39	43	(p=0.004)
	(0.0)	(9.3)	(90.7)	(100.0)	
경제수준(1차기준)	하	중	상	계	χ^2 검증
참여패널	75	72	20	167	
	(44.9)	(43.1)	(12.0)	(100.0)	
이탈패널	21	19	3	43	(p=0.636)
	(48.8)	(44.2)	(7.0)	(100.0)	
친부모동거(1차기준)	동거안함	동거함	계	χ^2 검증	
참여패널	105	62	167		
	(62.9)	(37.1)	(100.0)		
이탈패널	31	12	43		(p=0.259)
	(72.1)	(27.9)	(100.0)		

참여패널의 경우 13세부터 18세까지 모든 연령에서 3차 조사까지 이루어진 반면, 이탈패널의 경우에는 17-18세의 비율이 90.7%로 참여패널(64.7%)과 비교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탈패널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등학생 연령대에서 패널에 참여하지 않고 이탈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2) 학업중단관련 특성

학업중단관련 특성에 따라 1차년도부터 3차년도까지 참여한 패널과 3차 조사에서 이탈한 패널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학업중단 시 학교급, 학업중단 시 학교성적, 학업중단 횟수, 학업중단 상태 등을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두 집단 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 3개년도 참여패널과 이탈패널의 학업중단관련 특성 비교 (단위: 명, %)

학업중단 시 학교급	중학교 때	일반계 고	전문계 고	계	χ^2 검증
참여패널	76 (45.5)	52 (31.1)	39 (23.4)	167 (100.0)	0.195 ($p=0.907$)
이탈패널	18 (41.9)	14 (32.6)	11 (25.6)	43 (100.0)	
학업중단 시 학교성적	하위권	중위권	상위권	계	χ^2 검증
참여패널	135 (80.8)	23 (13.8)	9 (5.4)	167 (100.0)	4.114 ($p=0.128$)
이탈패널	33 (76.7)	4 (9.3)	6 (14.0)	43 (100.0)	
학업중단 횟수 (1차기준)	1회	2회	3회 이상	계	χ^2 검증
참여패널	117 (70.1)	45 (27.0)	5 (3.0)	167 (100.0)	0.323 ($p=0.851$)
이탈패널	32 (74.4)	10 (23.3)	1 (2.3)	43 (100.0)	
학업중단 상태 (2차기준)	그만둔 상태	다니는 상태	졸업/기타	계	χ^2 검증
참여패널	142 (85.0)	22 (13.2)	3 (1.8)	167 (100.0)	7.082 ($p=0.069$)
이탈패널	40 (93.0)	2 (4.7)	1 (2.3)	43 (100.0)	

3) 비행 및 범죄관련 특성

비행 및 범죄발생 특성에 따라 참여패널과 이탈패널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1차년도와 2차년도에 응답한 지위비행, 중비행, 공식범죄를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두 집단 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 3개년도 참여패널과 이탈패널의 비행 및 범죄발생 특성 비교 (단위: 명, %)

1차년도 지위비행	있음	없음	계	χ^2 검증	평균(회)	t검증
참여패널	21 (12.6)	146 (87.4)	167 (100.0)	1.059 ($p=0.304$)	1.72	-1.252 ($p=0.212$)
이탈패널	3 (7.0)	40 (93.0)	43 (100.0)		1.91	
2차년도 지위비행	있음	없음	계	χ^2 검증	평균(회)	t검증
참여패널	9 (5.4)	158 (94.6)	167 (100.0)	0.902 ($p=0.342$)	1.92	0.255 ($p=0.799$)
이탈패널	4 (9.3)	39 (90.7)	43 (100.0)		1.88	
1차년도 중비행	있음	없음	계	χ^2 검증	평균(회)	t검증
참여패널	92 (55.1)	75 (44.9)	167 (100.0)	0.035 ($p=0.851$)	0.98	0.198 ($p=0.844$)
이탈패널	23 (53.5)	20 (46.5)	43 (100.0)		0.93	
2차년도 중비행	있음	없음	계	χ^2 검증	평균(회)	t검증
참여패널	112 (67.1)	55 (32.9)	167 (100.0)	0.858 ($p=0.354$)	0.81	0.934 ($p=0.352$)
이탈패널	32 (74.4)	11 (25.6)	43 (100.0)		0.58	
2차년도 공식범죄	있음	없음	계	χ^2 검증	평균(회)	t검증
참여패널	106 (63.5)	61 (36.5)	167 (100.0)	0.040 ($p=0.842$)	0.68	-0.311 ($p=0.756$)
이탈패널	28 (65.1)	15 (34.9)	43 (100.0)		0.74	

4) 보호처분관련 특성

보호처분관련 특성이 패널의 이탈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조사에 참여할 당시를 기준으로 보호관찰 종료시점, 보호관찰 시 받은 처분, 보호관찰관과의 유대관계,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관의 평가 등을 비교한 결과,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두 집단 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 3개년도 참여패널과 이탈패널의 보호관찰 종료시점 비교 (단위: 명, %)

보호관찰 종료시점	2013년	2014년	2015년	계	χ^2 검증
참여패널	4 (2.4)	57 (34.1)	106 (63.5)	167 (100.0)	1.096 ($p=0.578$)
이탈패널	2 (4.7)	12 (27.9)	29 (67.4)	43 (100.0)	

<표 III-6> 3개년도 참여패널과 이탈패널의 보호처분 비교 (단위: 명, %)

	보호자 등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 명령	단기보호 관찰	장기보호 관찰	8호처분	보호관찰 위반
참여패널	72 (43.1)	45 (27.0)	65 (38.9)	7 (4.2)	151 (90.4)	34 (20.4)	5 (3.0)
이탈패널	20 (46.5)	14 (32.6)	17 (39.5)	4 (9.3)	37 (86.1)	8 (18.6)	1 (2.3)
χ^2 검증	0.160 ($p=0.689$)	0.533 ($p=0.465$)	0.005 ($p=0.941$)	1.799 ($p=0.180$)	0.697 ($p=0.404$)	0.066 ($p=0.798$)	0.055 ($p=0.815$)

<표 III-7>

3개년도 참여패널과 이탈패널의 보호관찰관 관계 비교

(단위: 명,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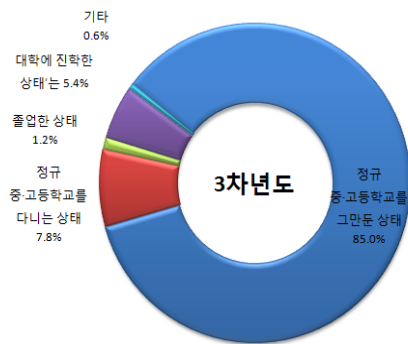
		참여패널		이탈패널		t검증
		N	평균	N	평균	
보호관찰관과 유대	1차기준	167	3.24	43	3.20	0.415 ($p=0.679$)
	2차기준	158	3.38	39	3.34	0.345 ($p=0.730$)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평가	2차기준	162	2.89	40	2.78	0.931 ($p=0.353$)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볼 때, 전반적으로 참여패널과 이탈패널 간에 뚜렷한 특성차이는 없으며, 따라서 패널의 이탈은 임의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연령의 측면에서 18-19세에 해당하는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경우 성인단계로 진입하면서 대학진학, 군 입대, 교소도 등 인생경로가 다양해지면서 조사에 대한 참여 의향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보호관찰대상 학업중단청소년 패널은 표본의 대표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체계적인 이탈에 의한 편향 표본 집단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학업중단 지속 여부

1) 현재 학업상태

지난 조사 이후 약1년 동안 응답자의 학업중단이 지속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그림 III-1】과 같이 ‘정규 중·고등학교를 그만둔 상태’라는 응답이 85.0%로 매우 높은 반면, ‘정규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상태’라고 응답한 경우는 7.8%로 낮게 나타났다. 그밖에 ‘정규 고등학교를 졸업한 상태’라는 응답은 1.2%로 나타났으며, ‘대학에 진학한 상태’는 5.4%, ‘기타’는 0.6%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의 경우 소수의 학생을 제외하고 상당수가 1년 이상 학업중단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I-1】 현재 학업상태(N=167)

2) 복교 관련 실태

(1) 복교경험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이 지난 조사 이후 학교에 복교를 한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는 <표 III-8>과 같다. ‘복학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차년도에는 32.9%, 2차년도에는 13.2%로 나타났으나, 3차년도의 복교경험을 조사한 결과 ‘복학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3.0%로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수치적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II-8> 복교 경험 (단위: 명, %)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X^2
복학 경험 없음	112	(67.1)	145	(86.8)	161	(97.0)	56.268***
복학 경험 있음1)	55	(32.9)	22	(13.2)	5	(3.0)	

*** $p < .001$

* 주: 1) 2-3차년도 조사 시 수정된 보기에 따라 1차년도 조사 당시 보기 ①, ②(① 복학한 경험이 있다 ② 현재 복학하여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복학 경험 있음으로 간주하여 제시되었음.

(2) 학업중단 지속여부와 복교경험

3차년도를 기준으로 현재 학업 상태에 따라 복교 경험이 어떠한 지 확인한 결과, <표 III-9>와 같이 정규 중·고등학교를 그만둔 상태인 경우 ‘복교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무려 98.6%로 매우 높은 반면, ‘복교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4%에 불과해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경우 정규 학교로의 복학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9> 학업중단 지속 여부 및 복교경험 (단위: 명, %)

구분	복교경험 유무		전체
	경험 있음	경험 없음	
정규 중·고등학교를 그만둔 상태	2 (1.4)	139 (98.6)	141 (84.9)
정규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상태	3 (23.1)	10 (76.9)	13 (7.8)
정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상태	0 (0.0)	2 (100.0)	2 (1.2)
대학교 진학	0 (0.0)	9 (100.0)	9 (5.4)
기타	0 (0.0)	1 (100.0)	1 (0.6)
전체	5 (3.0)	161 (97.0)	166 (100.0)

(3) 복교한 학교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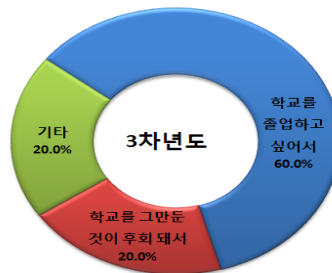
다음 <표 Ⅲ-10>은 복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복교를 한 학교의 유형을 살펴본 결과이다. 복교한 학교 유형으로는 대부분 일반고나 특성화고 등 ‘고등학교’(80.0%)에 복교를 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복교한 학교는 ‘전에 다녔던 학교’(40.0%)라는 응답보다 ‘다른 학교’(60.0%)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0> 지난 조사 후 복교 학교 유형 (단위: 명, %)

구분	복교학교유형		전체
	전에 다녔던 학교	다른 학교	
일반고	0 (0.0)	2 (100.0)	2 (40.0)
특성화고	2 (100.0)	0 (0.0)	2 (40.0)
기타	0 (0.0)	1 (100.0)	1 (20.0)
전체	2 (40.0)	3 (60.0)	5 (100.0)

(4) 복교를 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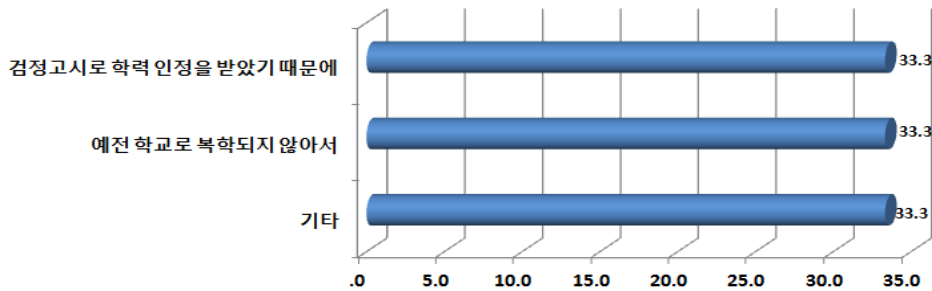
【그림 Ⅲ-2】에 따르면, 복교를 하게 된 이유로는 ‘학교를 졸업하고 싶어서’(60.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학교를 그만둔 것이 후회돼서’(20.0%)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2】 지난 조사 후 학교 복귀 이유(N=5, %)

(5) 기존의 학교로 복교하지 않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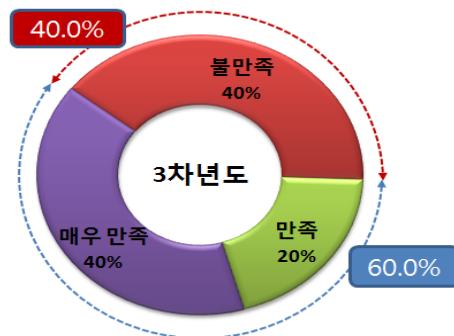
기존에 다니던 학교로 복학하지 않은 이유는 총3명이 응답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그림 Ⅲ-3】 과 같이 ‘검정고시를 쳐서 학력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예전 학교로 복학되지 않아서’, ‘기타’의 이유로 나타났다.



【그림 Ⅲ-3】 지난 조사 후 종전 학교로 복교하지 않은 이유(N=3, %)

(6) 복교 후 만족도

복교를 한 학생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질문한 결과 [그림 Ⅲ-4]와 같이 불만족한 경우(40.0%) 보다는 만족한 경우(60.0%)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림 Ⅲ-4】 복학 후 학교생활 만족(N=5, %)

3) 학업 재중단 관련 실태

(1) 학업재중단 경험여부

<표 III-11>은 비행학업중단청소년 가운데 지난 조사 이후 약 1년 동안 학업을 재중단한 경험이 있는 지를 나타낸다. 총 167명의 응답자 중 13명(7.8%)으로 나타났다.

<표 III-11> 재중단 경험 (단위: 명, %)	
구분	학업 재중단 경험
재중단 경험이 없음	154(92.2)
재중단 경험이 있음	13(7.8)
전체	167 (100.0)

(2) 학업 재중단 이유

학업을 재중단한 이유로는 <표 III-12>와 같이 ‘검정고시를 하려고’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학교를 그만둔 친구를 따라 놀고 싶어서’, ‘학교규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아서’, ‘비행으로 보호처분을 받게 되어서’, ‘나이 어린 친구들과 다니기 싫어서’, ‘학교가 너무 멀어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12> 학업 재중단 이유 (단위: 명, %)

내용	1순위 기준	복수 응답 기준
검정고시를 하려고	3(23.1)	5(16.1)
학교를 그만 둔 친구를 따라 놀고 싶어서	2(15.4)	3(9.7)
학교규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아서	2(15.4)	3(9.7)
비행으로 보호처분을 받게 되어서	2(15.4)	3(9.7)
기타(취업, 타 진로 등)	2(15.4)	4(12.9)
나이 어린 친구들과 다니기 싫어서	1(7.7)	2(6.5)
학교가 너무 멀어서	1(7.7)	3(9.7)
학교에 가야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0(0.0)	1(3.2)
건강상의 이유로	0(0.0)	1(3.2)
잠이 많아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서	0(0.0)	3(9.7)
내 특기나 소질을 살리려고	0(0.0)	1(3.2)
전학이 안 돼서	0(0.0)	1(3.2)
학교의 규칙이 엄해서	0(0.0)	1(3.2)
전체	13(100.0)	31(100.0)

(3) 학업 재중단시 상담자

<표 Ⅲ-13>에 따르면, 학업 재중단시 고민을 상담한 사람으로는 1-2차년도와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학교의 교사’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나 선후배’, ‘형제자매’의 비중은 2차 조사와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아무도 없었다’는 응답의 비중이 증가하여 2차 조사와 비교하여 학업재중단시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표 III-13> 학업 중단 시 상담자 (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대상자 구분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부모님	108(39.9)	8(47.1)	5(31.3)
형제자매	18(6.6)	1(5.9)	1(6.3)
학교교사	15(5.5)	3(17.5)	4(25.0)
학교 내 상담교사	16(5.9)	2(11.8)	0(0.0)
상담기관	5(1.8)	1(5.9)	0(0.0)
친구나 선후배	74(27.3)	2(11.8)	3(18.7)
없음	32(11.8)	0(0.0)	3(18.7)
기타	3(1.2)	0(0.0)	0(0.0)
전체	271(100.0)	17(100.0)	16(100.0)

4) 학업 중단 시 정보제공 여부

(1) 학교 복학절차에 대한 정보제공 여부

<표 III-14>에 따르면, 학업을 재중단했을 때 학교에 복학하는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있다'(46.2%)는 의견과 '없다'(53.8%)는 응답과 유사한 비중을 차지하였고, 2차 조사와 비교하면 정보제공을 받은 응답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표 III-14> 학교에 복학하는 절차

(단위: 명, %)

정보제공여부	대상자 구분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있다	57(34.1)	2(25.0)	6(46.2)
없다	110(65.9)	6(75.0)	7(53.8)
전체	167(100.0)	8(100.0)	13(100.0)

(2)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여부

<표 III-15>는 학업재중단시 대안학교 등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없다’(76.9%)는 의견이 ‘있다’(23.1%)는 경우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차 조사와 비교하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이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5> 대안학교 등 대안교육기관 (단위: 명, %)

정보제공여부	대상자 구분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있다	33(19.8)	1(12.5)	3(23.1)
없다	134(80.2)	7(87.5)	10(76.9)
전체	167(100.0)	8(100.0)	13(100.0)

(3) 검정고시 준비방법에 대한 정보제공 여부

<표 III-16>에 따르면, 학업재중단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없다’(61.5%)는 의견이 ‘있다’(38.5%)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6>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방법 (단위: 명, %)

정보제공여부	대상자 구분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있다	63(37.7)	5(55.6)	5(38.5)
없다	104(62.3)	4(44.4)	8(61.5)
전체	167(100.0)	9(100.0)	13(100.0)

(4) 청소년시설에 대한 정보제공 여부

<표 III-17>에서와 같이 학업재중단시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 등 청소년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없다’(76.9%)는 의견이 ‘있다’(23.1%)는 경우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시설에 대한 정보제공 역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7>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 등 청소년시설 (단위: 명, %)

정보제공여부	대상자 구분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있다	24(14.4)	0(0.0)	3(23.1)
없다	143(85.6)	8(100.0)	10(76.9)
전체	167(100.0)	8(100.0)	13(100.0)

(5) 진로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정보제공 여부

<표 III-18>에 따르면, 학업재중단시 진로나 직업교육·훈련 관련 시설에 대한 정보제공 여부와 관련하여 역시 ‘있다’(7.7%)는 응답에 비해 ‘없다’(92.3%)는 응답이 훨씬 높았고, 다른 정보에 비해 특히 진로나 직업교육에 대한 정보제공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으로 볼 때 학업중단 시 진로나 직업교육에 대하여 지속적인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III-18> 진로나 직업교육·훈련 관련 시설 (단위: 명, %)

정보제공여부	대상자 구분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있다	19(11.4)	0(0.0)	1(7.7)
없다	148(88.6)	8(100.0)	12(92.3)
전체	167(100.0)	8(100.0)	13(100.0)

(6)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한 정보제공 여부

학업 재중단시 학업중단 숙려제에 대한 설명을 제공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표 Ⅲ-19>와 같이 ‘있다’(15.4%)는 응답에 비해 ‘없다’(84.6%)는 응답이 높아 학교를 그만두려고 하는 경우 숙려기간을 통한 학업중단의 유예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Ⅲ-19> 학업중단 숙려제에 대한 설명 (단위: 명, %)

정보제공여부	대상자 구분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있다	7(4.2)	1(12.5)	2(15.4)
없다	160(95.8)	7(87.5)	11(84.6)
전체	167(100.0)	8(100.0)	13(100.0)

학업을 재중단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학업중단 숙려제를 실제로 이용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표 Ⅲ-20>과 같이 92.3%가 ‘경험한 적이 없다’라고 응답하였고, 7.7%만이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표 Ⅲ-20> 학업중단 숙려제 이용 경험 여부 (단위: 명, %)

학업중단 숙려제 이용경험 여부	대상자 구분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경험 있음	2(1.2)	1(11.1)	1(7.7)
경험 없음	165(98.8)	8(88.9)	12(92.3)
전체	167(100)	9(100)	13(100)

5) 졸업자격 취득여부

고등학교 졸업자격 취득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표 III-21>과 같이 전체 응답자 142명 중 23.9%가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취득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6.1%였다.

<표 III-21> 졸업자격 취득 여부			(단위: 명, %)
졸업자격 취득 여부	대상자 구분		X^2
	2차년도	3차년도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하지 않았다	109(80.1)	108(76.1)	0.679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하였다	27(19.9)	34(23.9)	
전체	136(100.0)	142(100.0)	

4. 학업중단 이후 경험유형

1) 학업경험

(1) 대안학교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이 학업중단 이후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지를 살펴본 결과, <표 III-22>에 제시된 것처럼 3차년도에 참여한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의 1.8%만이 대안학교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적 비율의 차이는 근소하나,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표 III-22> 대안학교에 다님 (단위: 명, %)

구분	대상자 구분			X^2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경험 있음	8(4.8)	1(0.6)	3(1.8)	6.660*
경험 없음	159(95.2)	166(99.4)	164(98.2)	
전체	167(100.0)	167(100.0)	167(100.0)	

* $\alpha.05$

(2) 검정고시

<표 III-23>에 따르면, 검정고시 공부경험에 대해서는 3차년도에 참여한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의 40.1%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1-2차 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진 것을 확인하였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표 III-23> 검정고시 공부를 함 (단위: 명, %)

구분	대상자 구분			X^2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경험 있음	78(46.7)	82(59.9)	67(40.1)	6.863*
경험 없음	89(53.3)	85(50.9)	100(59.9)	
전체	167(100.0)	167(100.0)	167(100.0)	

* $\alpha.05$

(3) 대학입시 공부

2차년도에 추가된 대학입시와 관련된 문항을 살펴보면, <표 III-24>에서와 같이 96.4%가 대학입시 공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2차 조사 시의 98.2%와 비교하면 대학입시 관련 공부를 경험한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이 3차년도에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4> 대학입시 관련 (2차년 추가)

(단위: 명, %)

구분	대상자 구분		χ^2
	2차 조사	3차 조사	
경험 있음	3(1.8)	6(3.6)	7.801**
경험 없음	164(98.2)	161(96.4)	
전체	167(100.0)	167(100.0)	

^{**} $p < .01$

(4) 대학 재학 여부

2차년도에 추가된 대학 재학여부와 관련된 문항을 살펴보면, <표 III-25>에서와 같이 6.0%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2차년도(24%)와 비교하면 대학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II-25> 대학 재학여부

(단위: 명, %)

구분	대상자 구분		χ^2
	2차 조사	3차 조사	
경험 있음	4(2.4)	10(6.0)	34.671**
경험 없음	163(97.6)	157(94.0)	
전체	167(100.0)	167(100.0)	

 $^{**}p<.01$

2) 직업경험

(1) 직업기술

직업기술을 배운 경험에 대해서는 <표 Ⅲ-26>과 같이 16.2%가 '경험이 있다'고 나타났고, 1-2차년도와 비교하면 경험을 했다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진 않았다.

<표 Ⅲ-26> 직업기술을 배움 (단위: 명, %)

구분	대상자 구분			X^2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경험 있음	13(7.8)	24(14.4)	27(16.2)	5.840
경험 없음	154(92.2)	143(85.6)	140(83.8)	
전체	167(100.0)	167(100.0)	167(100.0)	

(2) 아르바이트 또는 취업

<표 Ⅲ-27>에 따르면, 응답자의 68.9%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하여 하루 8시간이상 일을 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1-2차 년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학업중단이후 아르바이트나 취업경험이 더 많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통계적인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표 Ⅲ-27>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 (단위: 명, %)

구분	대상자 구분			X^2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경험 있음	89(53.3)	100(59.9)	115(68.9)	8.550*
경험 없음	78(46.7)	67(40.1)	52(31.1)	
전체	167(100.0)	167(100.0)	167(100.0)	

* $p < .05$

3) 취미·동아리 활동

<표 III-28>에 따르면, 취미나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경험에 대해서는 1-2차년도와 비슷하게 대부분의 응답자인 94.6%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취미나 동아리 활동의 1차, 2차, 3차 경험 간에는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8> 취미나 동아리활동 등에 참여함 (단위: 명, %)

구분	대상자 구분			X^2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경험 있음	10(6.0)	11(5.6)	9(5.4)	0.213
경험 없음	157(94.0)	156(93.4)	158(94.6)	
전체	167(100.0)	167(100.0)	167(100.0)	

4) 기타 경험

(1)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놀았던 경험에 대해서는 <표 III-29>와 같이 60.5%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1-2차년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감소하였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II-29>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놀 (단위: 명, %)

구분	대상자 구분			X^2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경험 있음	152(91.0)	115(68.9)	101(60.5)	42.644***
경험 없음	15(9.0)	52(31.1)	66(39.5)	
전체	167(100.0)	167(100.0)	167(100.0)	

*** $p < .001$

(2)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

<표 Ⅲ-30>에 따르면, 응답자의 3.6%가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1차년도 9.0%, 2차년도 4.2%에 비해 수치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감소추세는 통계적인 유의수준에 미치지지는 못하였다.

<표 Ⅲ-30>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음 (단위: 명, %)

구분	대상자 구분			X^2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경험 있음	15(9.0)	7(4.2)	6(3.6)	5.523
경험 없음	152(91.0)	160(95.8)	161(96.4)	
전체	167(100.0)	167(100.0)	167(100.0)	

(3) 병원 입원

<표 Ⅲ-31>에 따르면,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한 경험에 대해서는 12.0%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1차년도(13.2%)와 비교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차년도(10.2%)보다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Ⅲ-31>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함 (단위: 명, %)

구분	대상자 구분			X^2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경험 있음	22(13.2)	17(10.2)	20(12.0)	0.730
경험 없음	145(86.8)	150(89.8)	147(88.0)	
전체	167(100.0)	167(100.0)	167(100.0)	

5. 학업중단 이후 생활양식

1) 게임 · SNS · 스마트폰 사용

(1) 게임중독성

<표 III-32>에 따르면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의 게임중독성 역시 1차년도(1.37) 대비 2차년도와 3차년도 (1.30)의 평균점수가 낮아졌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의 차이는 아니었다.

<표 III-32> 게임중독성

(단위: 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2)}$
게임중독성	1차 조사	167	1.37	0.59	2.958
	2차 조사	167	1.30	0.57	
	3차 조사	167	1.30	0.57	

*주: 2) 조사 시점 간 차이는 MANOVA 분석에 따른 개체 내 차이 검증 결과이며, 이후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였음.

<표 III-33>의 게임중독성을 문항별로 살펴보면,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1차 1.68 → 2차 1.51 → 3차 1.5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또한 ‘게임을 하느라 해야 할 일을 못한다’(1차 1.41 → 2차 1.33 → 3차 1.32), ‘게임을 안 하겠다고 마음먹고도 다시 게임을 하게 된다’(1차 1.38 → 2차 1.27 → 3차 1.29), ‘갈수록 게임을 하는 시간이 길어진다’(1차 1.40 → 2차 1.34 → 3차 1.28), ‘점점 더 오랜 시간 게임을 해야 만족하게 된다’(1차 1.28 → 2차 1.25 → 3차 1.22), ‘게임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에도 게임을 그만두는 것이 어렵다’(1차 1.26 → 2차 1.23 → 3차 1.19), ‘게임 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한다’(1차 1.28 → 2차 1.24 → 3차 1.23) 등 모든 문항이 수치상으로 값은 감소하였으나,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게임을 오랜 시간 즐기기는 하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게임에 빠지는 일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Ⅲ-33> 게임중독 문항

(단위: 점)

게임중독 문항		평균	F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	1차 조사	1.68	4.185*
	2차 조사	1.51	
	3차 조사	1.51	
게임을 하느라 해야 할 일을 못한다	1차 조사	1.41	1.347
	2차 조사	1.33	
	3차 조사	1.32	
갈수록 게임을 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1차 조사	1.40	1.659
	2차 조사	1.34	
	3차 조사	1.28	
점점 더 오랜 시간 게임을 해야 만족하게 된다	1차 조사	1.28	0.519
	2차 조사	1.25	
	3차 조사	1.22	
게임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에도 게임을 그만두는 것이 어렵다	1차 조사	1.26	0.962
	2차 조사	1.23	
	3차 조사	1.19	
게임 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한다	1차 조사	1.28	0.395
	2차 조사	1.24	
	3차 조사	1.23	
게임을 안 하겠다고 마음먹고도 다시 게임을 하게 된다	1차 조사	1.38	1.758
	2차 조사	1.27	
	3차 조사	1.29	
게임 생각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다	1차 조사	1.29	0.455
	2차 조사	1.23	
	3차 조사	1.25	

*p<.05

(2) 스마트폰 중독성

<표 III-34>에 따르면 스마트폰 중독 문항은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의 3차년도 평균(1.67)이 2차년도 평균(1.60)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4> 스마트폰 중독(2차년 추가) (단위: 점)

		N	평균	표준편차	$t^3)$
스마트폰 중독성	2차 조사	167	1.60	0.56	-1.672
	3차 조사	167	1.67	0.62	

*주: 3)조사시점 간 차이는 대응표본검증(paired-t)에 따른 결과이며, 이후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함.

<표 III-35>의 스마트폰 중독의 3차년도 평균의 세부분항을 살펴보면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2.66)’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다(1.72)’,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더 즐겁다(1.58)’ 순으로 나타났다. 2차년도와 비교한 결과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이려고 해보았지만 실패했다’(2차 1.42 → 3차 1.56)와,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2차 1.33 → 3차 1.53)의 평균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표 III-35> 스마트폰 중독 문항 (단위: 점)

스마트폰 중독 문항		평균	t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더 즐겁다	2차 조사	1.48	-1.711
	3차 조사	1.58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다	2차 조사	1.64	-1.168
	3차 조사	1.72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이려고 해보았지만 실패했다	2차 조사	1.42	-2.111*
	3차 조사	1.56	
스마트폰을 사용하느라 계획한 일(공부, 숙제, 또는 학원수강 등)을 하기 어렵다	2차 조사	1.31	-1.469
	3차 조사	1.41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온 세상을 잃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다	2차 조사	1.30	-0.702
	3차 조사	1.34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전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2차 조사	1.33	-2.838**
	3차 조사	1.53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⁴⁾	2차 조사	2.74	0.719
	3차 조사	2.66	
스마트폰을 너무 자주 또는 오래 사용한다고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불평을 들은 적이 있다	2차 조사	1.57	0.256
	3차 조사	1.56	

* $\alpha.05$, ** $\alpha.01$

*주: 4) 본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성이 낮은 문항으로, 본 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균값과 t, 변수값은 변수를 역코딩하여 산출된 값임.

(3) SNS에서의 피해 및 가해정도

가. SNS에서의 피해정도

<표 III-36>에 따르면 SNS에서의 피해 정도는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의 2차년도의 평균점수가 1.25, 3차년도의 평균점수가 1.26으로 2-3차년도 평균점수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III-36> SNS에서의 피해정도 (단위: 명, 점)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t
SNS에서의 피해 정도	2차 조사	167	1.25	0.36	-0.137
	3차 조사	167	1.26	0.40	

<표 III-37>에 따르면 SNS에서의 피해 정도는 총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3차년도와 2차년도의 경우 'SNS상에서 나의 개인정보(연락처, 하는 일, 학교 등)가 유출된 적이 있다'의 평균값(1.41)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SNS상에서 누군가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1.08)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2·3차년도의 피해정도를 비교해본 결과 문항별로 약간의 증감이 있었으나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7> SNS에서의 피해 정도 문항 (단위: 점)

SNS 사용 문항		평균	t
SNS 상에서 나의 개인정보(연락처, 하는 일, 학교 등)가 유출된 적이 있다	2차 조사	1.39	-0.328
	3차 조사	1.41	
SNS 상에서 누군가로부터 나에게 대한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	2차 조사	1.38	0.097
	3차 조사	1.38	
SNS 상에서 나를 놀리는 글을 본 적이 있다	2차 조사	1.24	1.368
	3차 조사	1.17	
SNS 상에서 누군가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2차 조사	1.07	-0.364
	3차 조사	1.08	
SNS 상에서 나에게 대해 확인되지 않은 글(괴담, 소문)을 본 적이 있다	2차 조사	1.19	-1.224
	3차 조사	1.25	

나. SNS에서의 가해정도

<표 III-38>에 따르면 SNS에서의 가해 정도의 2차년도 평균은 1.22, 3차년도의 평균은 1.24로, 3차년도의 수치가 비교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차 조사와 3차 조사에서 나타난 가해의 차이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II-38> SNS에서의 가해정도 (단위: 명, 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SNS에서의 가해 정도	2차 조사	167	1.22	0.45	-0.766
	3차 조사	167	1.24	0.50	

<표 III-39>에 따르면 SNS에서의 가해 정도는 총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차년도와 경우 'SNS를 통해 누군가에 대해 욕을 한 적이 있다'의 평균값(1.48)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SNS를 통해 남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글을 올려놓은 적이 있다'(1.10)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2-3차년도의 가해정도를 비교해본 결과 2차년도와 경향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9> SNS에서의 가해 정도 문항 (단위: 점)

SNS 사용 문항		평균	t
SNS를 통해 누군가를 따돌린 적이 있다	2차 조사	1.15	-0.774
	3차 조사	1.18	
SNS를 통해 허락 없이 누군가의 개인정보를 올려놓은 적이 있다	2차 조사	1.16	0.456
	3차 조사	1.14	
SNS를 통해 누군가에 대해 욕을 한 적이 있다	2차 조사	1.40	-1.225
	3차 조사	1.48	
SNS를 통해 누군가를 놀린 적이 있다	2차 조사	1.27	-0.852
	3차 조사	1.32	
SNS를 통해 남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글(괴담, 소문 등)을 올려놓은 적이 있다	2차 조사	1.10	0.000
	3차 조사	1.10	

2) 식생활 습관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의 식생활 습관을 분석한 결과, <표 III-40>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동안 아침식사를 2번 이하로 한 경우는 1차년도 62.3%, 2차년도 40.9%, 3차년도에 43.7%로 나타나, 2차년도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3차년도에는 2차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나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변화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II-40> 최근 일주일동안 2번 이하 아침식사를 함 (단위: 명, %)

구분	대상자 구분			χ^2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그렇다	104(62.3)	67(40.9)	73(43.7)	18.001***
아니다	63(37.7)	97(59.1)	94(56.3)	
전체	167(100.0)	164(100.0)	167(100.0)	

*** $\alpha<.001$

<표 III-41>에 따르면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이 최근 일주일 동안 점심식사를 2번 이하로 한 경우는 1차년도 67.1%, 2차년도 26.7%, 3차년도 28.1로 나타나, 2차년도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3차년도에는 2차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나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변화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II-41> 최근 일주일동안 2번 이하 점심식사를 함 (단위: 명, %)

구분	대상자 구분			X^2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그렇다	112(67.1)	44(26.7)	47(28.1)	72.484***
아니다	55(32.9)	121(73.3)	120(71.9)	
전체	167(100.0)	165(100.0)	167(100.0)	

*** $p<.001$

<표 III-42>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동안 저녁식사를 2번 이하로 한 경우는 1차년도에 73.1%, 2차년도 22.4%, 3차년도 23.4%로 나타나, 2차년도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3차년도에는 2차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나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였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2> 최근 일주일동안 2번 이하 저녁식사를 함 (단위: 명, %)

구분	대상자 구분			X^2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그렇다	122(73.1)	37(22.4)	39(23.4)	116.840***
아니다	45(26.9)	128(77.6)	128(76.6)	
전체	167(100.0)	165(100.0)	167(100.0)	

*** $p<.001$

<표 Ⅲ-43>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동안 면이나 컵라면을 3회 이상 먹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1차년도에 62.3%, 2차년도 33.9%, 3차년도 35.9%로 나타났다. 2차년도에서 급감하는 형태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표 Ⅲ-43> 최근 일주일동안 라면이나 컵라면을 3회 이상 먹었음 (단위: 명, %)

구분	대상자 구분			χ^2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그렇다	104(62.3)	56(33.9)	60(35.9)	33.814***
아니다	63(37.7)	109(66.1)	107(64.1)	
전체	167(100.0)	165(100.0)	167(100.0)	

*** α .001

3) 시간사용패턴

(1) 수면시간

<표 Ⅲ-44>에 따르면 ‘평균 수면시간’은 3차년도의 경우 평일은 평균 7.95시간, 휴일은 평균 9.35시간으로 휴일의 수면시간이 더 많았다. 그리고 평일의 경우 1차년도(8.88)와 2차년도(8.14)에 비해 그 수치가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평일과 휴일의 수면시간 감소는 통계적인 수준에서도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Ⅲ-44> 평균 수면시간 (단위: 명, 시간)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평일	1차 조사	167	8.88	2.16	12.454***
	2차 조사	167	8.14	1.73	
	3차 조사	165	7.95	1.74	
휴일	1차 조사	165	10.05	2.32	7.850***
	2차 조사	167	9.23	2.49	
	3차 조사	167	9.35	2.12	

*** α .001

(2) 학습 및 근무시간

가. 학교나 대안학교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의 학습 및 근무시간을 살펴본 결과, <표 III-45>에 따르면 학교나 대안학교, 학원, 직업훈련기관을 다니는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은 21.6%로 1차년도 14.4%와 비교할 때 증가하였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했다.

<표 III-45> 학교나 대안학교, 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을 다님 (단위: 명, %)

구분	대상자 구분			X^2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해당 있음	24(14.4)	44(26.5)	36(21.6)	7.529*
해당 없음	143(85.6)	122(26.5)	131(78.4)	

* $\alpha.05$

<표 III-46>에 따르면 학교나 대안학교, 학원, 직업훈련기관에서 머무는 평균 시간은 3차 조사를 기준으로 평일은 6.94시간으로 1-2차 조사에 비해 수치상으로는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휴일의 경우 평균 0.17시간으로 나타났다. 평일과 주말에 학교 등에서 지내는 평균시간의 차이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46> 학교나 대안학교, 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지내는 시간 (단위: 명, 시간)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평일	1차 조사	24	4.46	2.06	2.322
	2차 조사	42	5.83	2.55	
	3차 조사	36	6.94	2.04	
휴일	1차 조사	24	0.83	2.16	0.778
	2차 조사	39	1.27	2.85	
	3차 조사	36	0.17	0.85	

나. 아르바이트나 일

<표 III-47>에 따르면 비행학업중단청소년 중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하여 일하는 경우는 45.5%로 1차년도(28.1%)와 2차년도(39.2%)에 비해 증가했으며, 통계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7>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하여 일함 (단위: 명, %)

구분	대상자 구분			X^2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해당 있음	47(28.1)	65(39.2)	76(45.5)	10.989**
해당 없음	120(71.9)	101(60.8)	91(54.5)	

** $\alpha.01$

<표 III-48>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나 취업으로 인한 근무의 평균시간은 2차년도를 기준으로 평일 8.92시간, 휴일 4.63시간으로 나타나, 평일의 평균 근무시간은 증가하였고, 반면 휴일의 평균시간은 감소하였다. 1-3차년도를 비교하면, 평일에 일하면서 지내는 평균시간은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휴일에 일하면서 지내는 시간이 감소한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8>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해서 일하면서 지내는 시간 (단위: 명, 시간)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평일	1차 조사	47	8.45	2.79	0.913
	2차 조사	64	8.66	2.80	
	3차 조사	76	8.92	2.41	
휴일	1차 조사	47	6.43	4.29	5.777**
	2차 조사	63	6.35	4.92	
	3차 조사	76	4.63	4.84	

** $\alpha.01$

(3) 여가시간

가. 공부시간

<표 III-49>와 같이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의 여가시간 활동을 살펴본 결과, 숙제, 시험 준비, 자격증을 따기 위해 개인공부를 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3차년도 22.2%로 1차년도(25.7%)와 2차년도(32.5%)에 비하여 다소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III-49> 숙제, 시험 준비, 자격증을 따기 위한 개인공부 (단위: 명, %)

구분	대상자 구분			X^2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해당 있음	43(25.7)	54(32.5)	37(22.2)	4.709
해당 없음	124(74.3)	112(67.5)	130(77.8)	

<표 III-50>와 같이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것에 투자하는 평균시간은 3차년도 기준 평일 1.53시간, 휴일 1.71시간으로 2차년도와 비교할 때 다소 감소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평일 과 주말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 III-50> 숙제, 시험 준비,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공부 시간 (단위: 명, 시간)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평일	1차 조사	43	2.60	1.69	4.900*
	2차 조사	53	2.88	2.61	
	3차 조사	37	2.62	1.53	
휴일	1차 조사	43	2.28	2.07	4.030*
	2차 조사	53	2.08	2.00	
	3차 조사	37	1.62	1.71	

* $p < .05$

나. 혼자 지내는 시간

<표 III-51>에 따르면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이 휴대전화나 컴퓨터, 게임, TV등을 보면서 시간을 때우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경우는 71.3%로 1차년도(74.9%)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경향을 보이나 전반적으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1> 휴대전화, 컴퓨터, 게임, TV 등을 보면서 시간을 때우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혼자 지냄 (단위: 명, %)

구분	대상자 구분			X^2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해당 있음	125(74.9)	115(69.3)	119(71.3)	1.314
해당 없음	42(25.1)	51(30.7)	48(28.7)	

<표 III-52>에 따르면 휴대전화, 컴퓨터, 게임, TV등으로 시간을 때우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평균 시간은 3차년도 기준 평일 3.73시간, 휴일 4.82시간으로 휴일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I-52> 휴대전화, 컴퓨터, 게임, TV 등을 보면서 시간을 때우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시간 (단위: 명, 시간)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평일	1차 조사	125	3.72	2.49	0.990
	2차 조사	115	3.87	3.07	
	3차 조사	119	3.73	2.20	
휴일	1차 조사	125	3.90	2.96	0.865
	2차 조사	115	3.92	3.08	
	3차 조사	119	4.82	3.33	

다. 취미 및 운동시간

<표 III-53>에 따르면 여가시간에 운동, 취미,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교회 혹은 성당에 다니는지에 대해서는 24.6%가 이러한 활동을 한다고 응답해, 1차년도(32.3%)와 2차년도(31.3%)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취미 및 운동을 즐기는 청소년의 비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3> 운동, 취미, 동아리, 교회나 성당을 다님 (단위: 명, %)

구분	대상자 구분			X^2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해당 있음	54(32.3)	52(31.3)	41(24.6)	2.882
해당 없음	113(67.7)	114(68.7)	126(75.4)	

<표 III-54>에 따르면 운동, 취미, 동아리, 교회나 성당에 할애하는 평균 시간은 3차년도 조사를 기준으로 평일 1.78시간, 휴일 1.85시간으로 나타났다. 2차년도에 비해 평일은 다소 증가하였고, 휴일은 감소하는 수치를 보인다. 그러나 1-3차년도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운동 등에 할애하는 평균시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4> 운동, 취미, 동아리, 교회나 성당을 다니는 시간 (단위: 명, 시간)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평일	1차 조사	54	1.77	1.11	1.214
	2차 조사	51	1.48	1.54	
	3차 조사	41	1.78	1.11	
휴일	1차 조사	54	1.86	1.57	0.422
	2차 조사	51	2.17	1.60	
	3차 조사	41	1.85	1.28	

라.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

<표 Ⅲ-55>에 따르면 여가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돌아다니거나 놀러 다닌다고 응답한 비행학업 중단청소년은 70.7%로 1차년도(79.6%)와 2차년도(71.7%)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감소추세는 통계적인 수준에서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 Ⅲ-55> 친구들과 함께 돌아다니거나 놀러 다님 (단위: 명, %)

구분	대상자 구분			X^2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해당 있음	133(79.6)	119(71.7)	118(70.7)	4.192
해당 없음	34(20.4)	47(28.3)	49(29.3)	

<표 Ⅲ-56>에 따르면 하루 중 친구들과 함께 돌아다니거나 노는 데에 보내는 평균 시간은 3차년도를 기준으로 평일 3.56시간, 휴일 5.40시간으로 평일은 1차년도(4.81)와 2차년도(4.32)와 비교할 때 점차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휴일은 2차년도(5.81)보다 다소 감소하였다. 1·3차년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평일의 평균시간의 감소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표 Ⅲ-56> 친구들과 함께 돌아다니거나 노는 시간 (단위: 명, 시간)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평일	1차 조사	133	4.81	2.83	5.157**
	2차 조사	116	4.32	3.02	
	3차 조사	118	3.56	2.86	
휴일	1차 조사	133	5.52	2.84	0.050
	2차 조사	117	5.81	3.30	
	3차 조사	118	5.40	2.74	

** $\alpha.01$

6. 학업중단 이후 환경의 변화

1) 부모와의 관계

(1) 부모 애착(부모의 정서적·경제적 지원)

<표 III-57>에 따르면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의 부모 애착은 1차년도 2.98, 2차년도 3.01, 3차년도 2.96이다. 1-2차년도에 비해 수치상으로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에 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I-57> 부모 애착

(단위: 명, 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부모 애착	1차 조사	167	2.98	0.65	0.774
	2차 조사	167	3.01	0.62	
	3차 조사	167	2.96	0.63	

<표 III-58>과 같이 부모 애착을 측정한 문항별로 살펴보면, ‘나를 잘 알고 이해해주신다’(1차 2.98 → 2차 3.06 → 3차 3.10)는 지속적으로 수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님(보호자)은 나에게 용돈을 주신다(1차 2.96 → 2차 2.93 → 3차 2.71)’, ‘부모님(보호자)은 내 공부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사주신다(1차 3.04 → 2차 2.99 → 3차 2.87)’,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경제적인 걱정 없이 생활하게 해주신다(1차 2.77 → 2차 2.77 → 3차 2.72) 등 부모의 경제적 지원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부모님은 나에게 용돈을 주신다’는 응답은 매년 꾸준히 감소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다.

<표 III-58> 부모 애착 문항

(단위: 점)

부모애착 문항		평균	표준편차	F
나를 잘 알고 이해해주시다.	1차 조사	2.98	0.75	1.884
	2차 조사	3.06	0.80	
	3차 조사	3.10	0.71	
나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다.	1차 조사	3.08	0.74	0.728
	2차 조사	3.16	0.69	
	3차 조사	3.14	0.68	
고민을 들어 주신다.	1차 조사	2.98	0.76	0.055
	2차 조사	2.97	0.78	
	3차 조사	2.99	0.78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다	1차 조사	3.11	0.76	0.540
	2차 조사	3.16	0.71	
	3차 조사	3.11	0.70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위로해주시다	1차 조사	2.94	0.80	2.133
	2차 조사	3.06	0.72	
	3차 조사	3.05	0.78	
부모님(보호자)은 나에게 용돈을 주신다	1차 조사	2.96	0.84	6.525*
	2차 조사	2.93	0.90	
	3차 조사	2.71	0.98	
부모님(보호자)은 내 공부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사주시다.	1차 조사	3.04	0.81	2.220
	2차 조사	2.99	0.87	
	3차 조사	2.87	0.93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경제적인 걱정 없이 생활하게 해주시다.	1차 조사	2.77	0.89	0.192
	2차 조사	2.77	0.90	
	3차 조사	2.72	1.00	

* $p < .05$

(2) 부모의 방임

<표 III-59>에 따르면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의 부모의 방임은 3차년도 2.08로, 1차년도(2.06)와 2차년도(2.00)에 비하여 수치상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표 III-59> 부모의 방임

(단위: 명, 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방임	1차 조사	167	2.06	0.55	2.803
	2차 조사	167	2.00	0.48	
	3차 조사	167	2.08	0.57	

<표 III-60>의 부모의 방임을 측정한 문항별로 살펴보면,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관심이 없으시다’, ‘늦게 들어와도 신경 쓰지 않으신다’의 점수가 2차보다 3차에서 상대적으로 높아져 방임정도가 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다.

<표 III-60> 부모의 방임 문항

(단위: 점)

부모의 방임 문항		평균	표준편차	F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다른 일(직장일이나 바깥일)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⁵⁾	1차 조사	2.16	0.82	0.105
	2차 조사	2.13	0.88	
	3차 조사	2.17	0.91	
나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칭찬하거나 혼내는 일이 없으시다.	1차 조사	1.90	0.81	0.246
	2차 조사	1.92	0.78	
	3차 조사	1.96	0.82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관심이 없으시다.	1차 조사	1.98	0.85	5.284**
	2차 조사	1.77	0.72	
	3차 조사	1.93	0.81	
늦게 들어와도 신경 쓰지 않으신다.	1차 조사	1.90	0.87	5.298*
	2차 조사	1.80	0.82	
	3차 조사	2.02	0.94	
내가 아플 때도 귀찮아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신다.	1차 조사	1.66	0.74	0.284
	2차 조사	1.62	0.73	
	3차 조사	1.66	0.78	

* $p < .05$, ** $p < .01$

*주: 5) 본 문항은 점수가 낮을수록 방임도가 높은 문항으로, 본 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값은 역코딩하여 산출된 값임.

(3) 신체적 학대

<표 III-61>에 따르면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의 신체적 학대는 1차년도 1.87, 2차년도 1.58, 3차년도 1.57로 수치상으로 점차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감소수치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II-61> 신체적 학대

(단위: 명, 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신체적 학대	1차 조사	167	1.87	0.73	11.383***
	2차 조사	167	1.58	0.61	
	3차 조사	167	1.57	0.68	

*** $p < .001$

<표 Ⅲ-62>와 같이 신체적 학대를 문항별로 살펴보면, ‘화를 낼 때는 주위에 아무거나 손에 닿는 대로 들고 때리신다’(1차 1.78 → 2차 1.57 → 3차 1.57), ‘내가 잘못하면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때리려고 하신다’(1차 2.05 → 2차 1.69 → 3차 1.60)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내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부모님(보호자)께서 나를 때리신다’(1차 1.77 → 2차 1.50 → 3차 1.54)는 2차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 신체적 학대와 관련한 모든 문항에서 통계적인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62> 신체적 학대 문항 (단위: 점)

신체적 학대 문항		평균	표준편차	F
화를 낼 때는 주위에 아무거나 손에 닿는 대로 들고 때리신다.	1차 조사	1.78	0.83	4.606*
	2차 조사	1.57	0.68	
	3차 조사	1.57	0.70	
내가 잘못하면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때리려고 하신다.	1차 조사	2.05	0.88	16.350***
	2차 조사	1.69	0.76	
	3차 조사	1.60	0.72	
내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부모님(보호자)께서 나를 때리신다.	1차 조사	1.77	0.83	7.225**
	2차 조사	1.50	0.64	
	3차 조사	1.54	0.69	

* α .05, ** α .01, *** α .001

(4) 정서적 학대

<표 Ⅲ-63>에 따르면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의 정서적 학대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1차년도 2.01, 2차년도 1.70, 3차년도 1.61로 점차 감소하였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63> 정서적 학대 문항 (단위: 점)

정서적 학대 문항		평균	표준편차	F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을 하신 적이 많다.	1차 조사	2.01	0.98	11.224***
	2차 조사	1.70	0.82	
	3차 조사	1.61	0.81	

*** α .001

2) 친구와의 관계

(1) 친구의 수

<표 III-64>와 같이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의 친한 친구 수를 비교한 결과, '1~5명 이하'가 1차년도 42.7%에서 2차년도 59.9%, 3차년도 53.9%로 변화하였고, '6~10명 이하'와 '11명 이상'은 각각 27.5%, 12.6%로 1차년도에 비하여 감소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표 III-64> 친구의 수

(단위: 명, %)

친한 친구의 수	대상자 구분			X^2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없음	5 (3.0)	8 (4.8)	10 (6.0)	16.022*
1~5명 이하	70 (42.7)	100 (59.9)	90 (53.9)	
6~10명 이하	51 (31.1)	36 (21.6)	46 (27.5)	
11명 이상	38 (23.2)	23 (13.8)	21 (12.6)	
전체	164 (100.0)	167 (100.0)	167 (100.0)	

(2) 또래애착

<표 III-65>와 같이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의 또래애착은 1차년도 3.22에서 2차년도 3.20, 3차년도 3.15로 또래애착의 평균점수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추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표 III-65> 또래 애착

(단위: 명, 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또래애착	1차 조사	167	3.22	0.53	0.728
	2차 조사	166	3.20	0.55	
	3차 조사	166	3.15	0.64	

<표 Ⅲ-66>의 또래 애착을 측정한 문항별로 살펴보면,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1차 3.20 → 2차 3.20 → 3차 3.14), ‘나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다’(1차 3.25 → 2차 3.25 → 3차 3.19), ‘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1차 3.21 → 2차 3.15 → 3차 3.12)에서 세 문항 모두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표 Ⅲ-66> 또래 애착 문항 (단위: 점)

또래 애착 문항		평균	표준편차	F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	1차 조사	3.20	0.50	0.806
	2차 조사	3.20	0.57	
	3차 조사	3.14	0.64	
나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다.	1차 조사	3.25	0.62	0.578
	2차 조사	3.25	0.61	
	3차 조사	3.19	0.70	
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	1차 조사	3.21	0.69	0.815
	2차 조사	3.15	0.65	
	3차 조사	3.12	0.71	

(3) 친구비행 성향

<표 Ⅲ-67>에 따르면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의 친구비행성향은 1차년도 1.75에서 2차년도 1.65, 3차년도 1.63으로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Ⅲ-67> 친구 비행성향 (단위: 명, 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친구비행	1차 조사	167	1.75	0.66	2.117
	2차 조사	166	1.65	0.68	
	3차 조사	166	1.63	0.71	

<표 III-68>의 친구 비행성향을 측정한 문항별로 살펴보면, ‘내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을 잘 괴롭힌다’(1차 1.91 → 2차 1.71 → 3차 1.79)는 1차년도에 비하여 수치가 감소하였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또한 ‘내 친구들은 다른 사람을 잘 때린다’(1차 1.80 → 2차 1.70 → 3차 1.66), ‘내 친구들은 물건을 잘 훔친다’(1차 1.54 → 2차 1.54 → 3차 1.45)의 경우도 1차년도보다 감소하는 수치가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표 III-68> 친구 비행성향 문항 (단위: 점)

친구 비행성향 문항		평균	표준편차	F
내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을 잘 괴롭힌다.	1차 조사	1.91	0.78	4.882**
	2차 조사	1.71	0.71	
	3차 조사	1.79	0.84	
내 친구들은 다른 사람을 잘 때린다.	1차 조사	1.80	0.78	1.724
	2차 조사	1.70	0.77	
	3차 조사	1.66	0.79	
내 친구들은 물건을 잘 훔친다.	1차 조사	1.54	0.70	1.451
	2차 조사	1.54	0.71	
	3차 조사	1.45	0.71	

** $\alpha < .01$

3) 지역사회 특성

(1) 지역사회 유대

<표 III-69>에 따르면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유대는 1차년도 2.42에서 2차년도 2.37, 3차년도 2.36으로 지역의 유대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감소추세는 통계적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 III-69> 지역사회 유대 (단위: 명, 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지역사회 유대	1차 조사	2.42	0.78	0.403
	2차 조사	2.37	0.84	
	3차 조사	2.36	0.85	

<표 III-70>과 같이 지역사회 유대를 문항별로 살펴본 결과, ‘우리 동네 사람들은 대부분 잘 알고 지낸다’(1차 2.56 → 2차 2.47 → 3차 2.47), ‘우리 동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돕는다’(1차 2.29 → 2.26 → 3차 2.26)로 나타나 1차년도에 비해 지역사회 유대점수가 감소하였으나, 통계적 유의수준에서의 차이는 아니었다.

<표 III-70> 지역사회 유대 문항 (단위: 점)

지역사회 유대 문항		평균	표준편차	F
우리 동네 사람들은 대부분 잘 알고 지낸다.	1차 조사	2.56	0.88	0.682
	2차 조사	2.47	0.92	
	3차 조사	2.47	0.94	
우리 동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돕는다.	1차 조사	2.29	0.83	0.107
	2차 조사	2.26	0.87	
	3차 조사	2.26	0.88	

(2) 비공식 통제

<표 III-71>의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비공식 통제에 대한 인식 역시 1차년도 2.63에서 2차년도 2.34, 3차년도 2.30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의 감소는 3차년에 걸쳐서 점차 감소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II-71> 비공식 통제 (단위: 명, 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비공식 통제	1차 조사	167	2.63	0.81	12.175***
	2차 조사	167	2.34	0.86	
	3차 조사	167	2.30	0.81	

*** α .001

<표 III-72>와 같이 비공식 통제를 측정된 문항별로 살펴보면 ‘동네에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신다면 우리 동네 어른들은 꾸짖는다’(1차 2.56 → 2차 2.29 → 3차 2.25)와 ‘우리 동네 사람들은 청소년들이 길거리에서 싸우고 있으면 혼내고 말린다’(1차 2.71 → 2차 2.39 → 3차 2.35)로 모두 비공식 통제 수치가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다.

<표 III-72> 비공식 통제 문항

(단위: 점)

비공식 통제 문항		평균	표준편차	F
동네에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신다면 우리 동네 어른들은 꾸짖는다.	1차 조사	2.56	0.92	8.293***
	2차 조사	2.29	0.91	
	3차 조사	2.25	0.89	
우리 동네 사람들은 청소년들이 길거리에서 싸우고 있으면 혼내고 말린다.	1차 조사	2.71	0.84	11.491***
	2차 조사	2.39	0.90	
	3차 조사	2.35	0.92	

*** $p < .001$

(3) 물리적 무질서

<표 III-73>에 따르면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물리적 무질서에 대한 인식은 1차년도 2.04에서 2차년도 2.01로 다소 낮아졌으나, 3차년도에는 2.10으로 증가하는 수치를 나타냈다. 이러한 증가수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I-73> 물리적 무질서

(단위: 명, 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물리적 무질서	1차 조사	167	2.04	0.75	1.234
	2차 조사	166	2.01	0.73	
	3차 조사	167	2.10	0.75	

<표 Ⅲ-74>에 따르면 물리적 무질서를 측정한 문항에서는 ‘우리 동네는 관리하지 않는 집이나 공터가 많다’(1차 1.93 → 2차 1.80 → 3차 1.87)의 경우 다소 감소한 반면, ‘우리 동네는 어둡고 후미진 곳이 많다’(1차 2.15 → 2차 2.22 → 3차 2.34)는 다소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표 Ⅲ-74> 물리적 무질서 문항 (단위: 점)

물리적 무질서 문항		평균	표준편차	F
우리 동네는 관리하지 않는 집이나 공터가 많다.	1차 조사	1.93	0.82	1.311
	2차 조사	1.80	0.76	
	3차 조사	1.87	0.80	
우리 동네는 어둡고 후미진 곳이 많다.	1차 조사	2.15	0.87	2.722
	2차 조사	2.22	0.91	
	3차 조사	2.34	0.92	

(4) 사회적 무질서

<표 Ⅲ-75>에 따르면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사회적 무질서에 대한 인식은 1차년도 2.38에서 2차년도 2.23, 3차년도 2.31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추이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Ⅲ-75> 사회적 무질서 (단위: 명, 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사회적 무질서	1차 조사	167	2.38	0.83	2.013
	2차 조사	167	2.23	0.79	
	3차 조사	167	2.31	0.86	

<표 III-76>의 사회적 무질서를 측정한 문항별로 살펴보면, ‘우리 동네는 밤에 술 취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닌다’(1차 2.32 → 2차 2.23 → 3차 2.32), ‘우리 동네는 불량한 청소년들이 함께 몰려다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1차 2.44 → 2차 2.24 → 3차 2.31)로 다소의 증감을 보이거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표 III-76> 사회적 무질서 문항

(단위: 점)

사회적 무질서 문항		평균	표준편차	F
우리 동네는 밤에 술 취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닌다.	1차 조사	2.32	0.91	0.822
	2차 조사	2.23	0.88	
	3차 조사	2.32	0.95	
우리 동네는 불량한 청소년들이 함께 몰려다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1차 조사	2.44	0.94	2.928
	2차 조사	2.24	0.93	
	3차 조사	2.31	0.97	

(5) 지역사회 유익환경

<표 III-77>에 따르면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유익환경에 대한 인식은 1차년도 2.51에서 2차년도 2.56, 3차년도 2.57로 다소 높아졌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진 않았다.

<표 III-77> 지역사회 유익환경

(단위: 명, 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지역사회 유익환경	1차 조사	167	2.51	0.76	0.424
	2차 조사	167	2.56	0.79	
	3차 조사	167	2.57	0.76	

<표 Ⅲ-78>의 지역사회 유익환경을 측정한 문항별로 살펴보면, ‘우리 동네에는 여가문화시설(청소년시설, 문화센터, 도서관 등)이 가까운 곳에 있어 이용하기 편리하다’(1차 2.32 → 2차 2.34 → 3차 2.34), ‘우리 동네는 산, 공원, 하천 둔치 등이 있어 운동이나 산책하기 좋다’(1차 2.70 → 2차 2.81 → 3차 2.78)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표 Ⅲ-78> 지역사회 유익환경 문항 (단위: 점)

지역사회 유익환경 문항		평균	표준편차	F
우리 동네에는 여가문화시설(청소년시설, 문화센터, 도서관 등)이 가까운 곳에 있어 이용하기 편리하다.	1차 조사	2.32	0.86	0.037
	2차 조사	2.34	0.90	
	3차 조사	2.34	0.95	
우리 동네는 산, 공원, 하천 둔치 등이 있어 운동이나 산책하기 좋다.	1차 조사	2.70	0.88	0.857
	2차 조사	2.81	0.91	
	3차 조사	2.78	0.93	

7. 학업중단 이후 심리·정서적 변화

1) 학업중단에 대한 심리·정서

<표 Ⅲ-79>에 따르면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의 학업중단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기 위하여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을 친구나 친척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는지를 살펴본 결과, ‘알리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55.4%로 1차년도(70.1%)와 2차년도(59.0%)에 비해 감소하였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절반 이상이 학업중단 사실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79>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을 친구나 친척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다.(단위: 명,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평균	F
1차 조사	16 (9.6)	34 (20.4)	80 (47.9)	37 (22.2)	167 (100.0)	2.83	4.342*
2차 조사	25 (18.0)	32 (23.0)	55 (39.6)	27 (19.4)	139 (100.0)	2.60	
3차 조사	25 (16.9)	41 (27.7)	59 (39.9)	23 (15.5)	148 (100.0)	2.54	

* $p < .05$

<표 III-80>에 따르면 학교에 다니지 않아서 주위사람들이 문제아 취급을 하는 것 같았는지에 대해서는, 54.7%가 ‘문제아 취급을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1차년도(66.5%)와 2차년도(65.4%)에 비해 감소하였다. 평균점수를 고려했을 때도 1차년도에 비하여 3차년도의 평균점수가 감소한 것이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표 III-80> 학교에 다니지 않아서 주위사람들이 문제아 취급을 하는 것 같(았)다. (단위: 명,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평균	F
1차 조사	14 (8.4)	42 (25.1)	77 (46.1)	34 (20.4)	167 (100.0)	2.78	4.393*
2차 조사	17 (12.2)	31 (22.3)	59 (42.4)	32 (23.0)	139 (100.0)	2.76	
3차 조사	23 (15.5)	44 (29.7)	61 (41.2)	20 (13.5)	148 (100.0)	2.53	

* $p < .05$

<표 III-81>에 따르면 학교와 같이 소속된 곳이 없으니 불안한지에 대해서 1차년도 35.9%, 2차년도 34.6%, 3차년도 30.4%가 ‘불안하다’고 응답하였다.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1차년도 2.21에 비하여 3차년도는 2.07로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의 감소는 아니었다.

<표 III-81> 학교와 같이 소속된 곳이 없으니 불안하(였)다. (단위: 명,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평균	F
1차 조사	37 (22.2)	70 (41.9)	48 (28.7)	12 (7.2)	167 (100.0)	2.21	1.997
2차 조사	35 (25.2)	56 (40.3)	40 (28.8)	8 (5.8)	139 (100.0)	2.15	
3차 조사	40 (27.0)	63 (42.6)	40 (27.0)	5 (3.4)	148 (100.0)	2.07	

<표 III-82>에 따르면 학업중단이 자신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차년도 49.1%에 비해 2차년도 63.3%, 3차년도 64.9%로 수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1차 조사(2.50)에서 2차 조사(2.75), 3차 조사(2.76)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평균점수가 증가하였다.

<표 III-82> 내가 선택한 결과이니 현재 생활에 만족한(했)다. (단위: 명,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평균	F
1차 조사	18 (10.8)	67 (40.1)	63 (37.7)	19 (11.4)	167 (100.0)	2.50	4.011*
2차 조사	10 (7.2)	41 (29.5)	62 (44.6)	26 (18.7)	139 (100.0)	2.75	
3차 조사	12 (8.1)	40 (27.0)	67 (45.3)	29 (19.6)	148 (100.0)	2.76	

* $p < .05$

<표 III-83>에 따르면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에 대해 후회하였는지를 물어본 결과, 3차년도 응답자의 67.6%가 ‘후회한다’고 응답하였다. 1차년도(71.8%)와 2차년도(74.8%)에 비해서는 ‘후회한다’는 비율이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었다.

<표 III-83>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에 대해 후회한(했)다. (단위: 명,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평균	<i>F</i>
1차 조사	16 (9.6)	31 (18.6)	62 (37.1)	58 (34.7)	167 (100.0)	2.97	1.685
2차 조사	11 (7.9)	24 (17.3)	53 (38.1)	51 (36.7)	139 (100.0)	3.04	
3차 조사	16 (10.8)	32 (21.6)	53 (35.8)	47 (31.8)	148 (100.0)	2.89	

<표 III-84>와 같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였는지에 대한 문항에는 응답자의 절반인 50.0%가 행복하다고 응답하였다. 1차년도(44.3%)와 비교할 때, 학업중단 이후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한 것에 대한 행복감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보이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III-84>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였)다. (단위: 명,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평균	<i>F</i>
1차 조사	23 (13.8)	70 (41.9)	62 (37.1)	12 (7.2)	167 (100.0)	2.38	1.124
2차 조사	15 (10.9)	52 (37.7)	56 (40.6)	15 (10.9)	139 (100.0)	2.51	
3차 조사	14 (9.5)	60 (40.5)	53 (35.8)	21 (14.2)	148 (100.0)	2.55	

2) 개인적심리적 특성

(1) 자아존중감

<표 III-85>에 따르면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1차년도 3.01에서 2차년도 3.05, 3차년도 3.05로, 자아존중감은 3년간 큰 차이가 없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85> 자아존중감 (단위: 명, 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자아존중감	1차 조사	167	3.01	0.56	0.431
	2차 조사	167	3.05	0.57	
	3차 조사	166	3.05	0.60	

<표 III-86>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항 문항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자아존중감에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1차 2.90→ 2차 2.96 → 3차 3.02)'의 평균점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표 III-86> 자아존중감 문항 (단위: 점)

자아존중감 문항		평균값	표준편차	F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차 조사	3.01	0.64	1.105
	2차 조사	3.08	0.67	
	3차 조사	3.04	0.65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1차 조사	2.90	0.69	2.543
	2차 조사	2.96	0.68	
	3차 조사	3.02	0.65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 같이 일을 잘할 수가 있다.	1차 조사	3.15	0.65	0.033
	2차 조사	3.15	0.64	
	3차 조사	3.13	0.67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1차 조사	3.05	0.67	0.168
	2차 조사	3.04	0.67	
	3차 조사	3.06	0.69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1차 조사	2.96	0.74	0.358
	2차 조사	3.02	0.74	
	3차 조사	2.99	0.75	

(2) 자아탄력성

<표 III-87>에 따르면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은 1차년도 2.98에서 2차년도 2.98, 3차년도 3.00으로 수치상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그렇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나타내진 않았다.

<표 III-87> 자아탄력성

(단위: 명, 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자아탄력성	1차 조사	167	2.98	0.51	0.251
	2차 조사	167	2.98	0.56	
	3차 조사	166	3.00	0.56	

<표 III-88>의 자아탄력성을 측정 한 문항을 살펴보면, ‘나는 내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1차 2.83 → 2차 2.81 → 3차 2.87)’, ‘나는 매우 에너지(힘)가 넘치는 사람이다(1차 2.91 → 2차 2.96 → 3차 3.02)’는 수치상으로 다소 증가한 경향을 보이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III-88> 자아탄력성 문항

(단위: 점)

자아탄력성 문항		평균값	표준편차	F
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낸다.	1차 조사	2.93	0.69	0.485
	2차 조사	2.97	0.74	
	3차 조사	2.90	0.75	
나는 평소에 잘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해보는 것을 좋아한다.	1차 조사	2.99	0.74	0.177
	2차 조사	3.02	0.74	
	3차 조사	3.02	0.80	
나는 내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1차 조사	2.83	0.77	0.576
	2차 조사	2.81	0.80	
	3차 조사	2.87	0.81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호기심이 많다.	1차 조사	3.22	0.67	0.739
	2차 조사	3.15	0.72	
	3차 조사	3.18	0.68	
나는 매우 에너지(힘)가 넘치는 사람이다.	1차 조사	2.91	0.77	1.817
	2차 조사	2.96	0.69	
	3차 조사	3.02	0.76	

(3) 자아행복감

<표 Ⅲ-89>에 따르면 2차년도에 추가된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의 자아행복감 문항은 1차년도 2.61, 2차년도 2.58로 나타났다.

<표 Ⅲ-89> 자아행복감 (단위: 명, 점)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t
자아행복감	2차 조사	167	2.61	0.71	0.464
	3차 조사	166	2.58	0.74	

<표 Ⅲ-90>에 따르면 자아행복감은 ‘나는 사는 게 즐겁다’,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 한다’ 등 3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는데, 평균점수와 비교해서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2.23)는 문항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Ⅲ-90> 자아행복감 문항 (단위: 점)

자아행복감 문항		평균값	표준편차	t
나는 사는 게 즐겁다.	2차 조사	2.81	0.79	0.197
	3차 조사	2.80	0.82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2차 조사	2.25	0.87	0.000
	3차 조사	2.23	0.91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 한다.	2차 조사	2.78	0.82	0.936
	3차 조사	2.72	0.80	

(4) 우울감

<표 Ⅲ-91>에 따르면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의 우울감은 1차년도 2.01, 2차년도 2.01, 3차년도 2.02로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91> 우울감 (단위: 명, 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우울감	1차 조사	2.01	0.63	0.114
	2차 조사	2.01	0.65	
	3차 조사	2.02	0.67	

<표 III-92>의 우울감을 측정한 문항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다소 증가하는 수치를 나타낸다. '기운이 별로 없다'(1차 2.02 → 2차 2.05 → 3차 2.08), '외롭다'(1차 1.99 → 2차 2.14 → 3차 2.17), '장래가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다'(1차 1.99 → 2차 2.01 → 3차 2.04)는 다소 증가한 반면,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1차 1.81 → 2차 1.77 → 3차 1.69),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자주한다'(1차 2.13 → 2차 2.08 → 3차 2.03)은 다소 감소하였다.

<표 III-92> 우울감 문항

(단위: 점)

우울감 문항		평균값	표준편차	F
기운이 별로 없다.	1차 조사	2.02	0.806	0.512
	2차 조사	2.05	0.761	
	3차 조사	2.08	0.802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 한다.	1차 조사	1.99	0.788	0.237
	2차 조사	1.98	0.784	
	3차 조사	2.02	0.821	
걱정이 많다.	1차 조사	2.50	0.891	0.839
	2차 조사	2.41	0.920	
	3차 조사	2.50	0.943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1차 조사	1.81	0.781	1.650
	2차 조사	1.77	0.734	
	3차 조사	1.69	0.789	
울기를 잘한다.	1차 조사	1.84	0.860	0.491
	2차 조사	1.90	0.855	
	3차 조사	1.84	0.831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자주한다.	1차 조사	2.13	0.875	1.000
	2차 조사	2.08	0.881	
	3차 조사	2.03	0.810	
외롭다.	1차 조사	1.99	0.922	2.847
	2차 조사	2.14	0.965	
	3차 조사	2.17	0.948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1차 조사	1.82	0.779	0.139
	2차 조사	1.79	0.759	
	3차 조사	1.82	0.731	
장래가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다.	1차 조사	1.99	0.908	0.201
	2차 조사	2.01	0.882	
	3차 조사	2.04	0.881	
모든 일이 힘들다.	1차 조사	1.95	0.831	1.086
	2차 조사	1.93	0.785	
	3차 조사	2.03	0.860	

(5) 충동성

<표 III-93>에 따르면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의 충동성은 1차년도 1.93, 2차년도 1.88, 3차년도 1.92로 심리적 측면의 충동성이 1차년도 보다는 다소 감소하고, 2차년도 보다는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통계적인 수준에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표 III-93> 충동성 (단위: 명, 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충동성	1차 조사	167	1.93	0.63	0.689
	2차 조사	166	1.88	0.61	
	3차 조사	167	1.92	0.61	

<표 III-94>의 충동성을 측정한 문항별로 살펴본 결과, ‘나는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편이다.’의 평균점수가 2.17로 가장 높았으며, ‘나는 위험하고 짜릿한 활동을 즐기는 편이다.’ 역시 상대적으로 평균점수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III-94> 충동성 문항 (단위: 점)

충동 문항		평균값	표준편차	F
나는 말보다 주먹이 앞선다.	1차 조사	1.68	0.75	0.703
	2차 조사	1.73	0.72	
	3차 조사	1.66	0.72	
나는 일이 힘들고 복잡해지면 곧 포기한다.	1차 조사	1.97	0.82	0.425
	2차 조사	1.95	0.79	
	3차 조사	2.01	0.84	
나는 위험하고 짜릿한 활동을 즐기는 편이다.	1차 조사	2.02	0.91	2.434
	2차 조사	1.90	0.85	
	3차 조사	2.07	0.90	
나는 사람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일이 재미있다.	1차 조사	1.75	0.76	0.438
	2차 조사	1.69	0.72	
	3차 조사	1.71	0.68	
나는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편이다.	1차 조사	2.21	0.96	0.700
	2차 조사	2.12	0.98	
	3차 조사	2.17	0.99	

3) 사회적 낙인

<표 III-95>에 따르면 2차년도에 추가된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의 사회적 낙인 문항은 2차년도 평균점수가 2.09, 3차년도 2.02로 수치상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통계적 유의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95> 사회적 낙인 (단위: 명, 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사회적 낙인	2차 조사	167	2.09	0.50	1.756
	3차 조사	167	2.02	0.52	

<표 III-96>에 따르면 사회적 낙인은 총 8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는데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르게 취급받는다'고 느낀다(2차 2.11 → 3차 1.98), '나는 사회가 나를 문제 있는 존재로 본다'고 느낀다(2차 2.03 → 3차 1.89), '나는 사회 속에서 편안함을 느낀다(2차 2.66 → 3차 2.51)'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그 수치가 감소하였다. 그 밖에 '사회는 나를 부정적으로 본다(2차 2.09 → 3차 2.03)', '사회가 나를 열등하게 본다'고 느낀다(2차 2.10 → 3차 2.01), '나는 사회에서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2차 1.96 → 3차 1.85)' 등 대부분의 문항이 2차년도에 비해 감소하였다.

반면 '나는 사회에 의해서 희생 되었다'고 느낀다(2차 1.89 → 3차 1.99), '나는 유용한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느낀다(2차 1.91 → 3차 1.93)'의 경우는 그 수치가 증가하였다.

<표 Ⅲ-96> 사회적 낙인 문항

(단위: 점)

사회적 낙인 문항		평균값	표준편차	t
사회는 나를 부정적으로 본다.	2차 조사	2.09	0.75	0.912
	3차 조사	2.03	0.77	
나는 사회가 나를 열등하게 본다고 느낀다.	2차 조사	2.10	0.71	1.561
	3차 조사	2.01	0.71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르게 취급 받는다고 느낀다.	2차 조사	2.11	0.74	2.030*
	3차 조사	1.98	0.72	
나는 사회에서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	2차 조사	1.96	0.67	1.870
	3차 조사	1.85	0.71	
나는 사회가 나를 문제 있는 존재로 본다고 느낀다.	2차 조사	2.03	0.74	2.188*
	3차 조사	1.89	0.73	
나는 사회 속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⁶⁾	2차 조사	2.66	0.76	2.127*
	3차 조사	2.51	0.80	
나는 사회에 의해서 희생 되었다고 느낀다.	2차 조사	1.89	0.62	-1.479
	3차 조사	1.99	0.78	
나는 유용한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느낀다.	2차 조사	1.91	0.73	-0.342
	3차 조사	1.93	0.76	

* $p < .05$

*주: 6) 본 문항은 점수가 낮을수록 사회적 낙인이 부정적인 문항으로, 본 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균은 역코딩하여 산출된 값임.

4) 학력에 대한 생각

<표 III-97>에 따르면 2차년도에 추가된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의 학력에 대한 생각문항은 2차년도 평균점수가 2.93, 3차년도 2.91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2차 조사와 3차 조사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3차 조사 시 학력에 대한 생각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II-97> 학력에 대한 생각 (단위: 명, 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학력에 대한 생각	2차 조사	166	2.93	0.79	-2.144*
	3차 조사	167	2.91	0.78	

* $p < .05$

<표 III-98>에 따르면 학력에 대한 생각의 문항은 '우리 사회에서는 대학교 졸업장이 없으면 심하게 차별을 받는다(2차 2.93 → 3차 3.00)'에서 수치가 다소 증가한 반면, '우리 사회에서 중·고등학교 중퇴 학력으로는 취업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다(2차 2.72 → 3차 2.59)'는 수치가 감소하였다. 전체적인 학력에 대한 생각은 통계적 차이를 보인 반면, 개별문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표 III-98> 학력에 대한 생각 (단위: 점)

학력에 대한 생각 문항		평균값	표준편차	t
우리 사회는 학력이 높을수록 대우를 받는다	2차 조사	3.13	0.84	-0.169
	3차 조사	3.14	0.84	
우리 사회에서는 대학교 졸업장이 없으면 심하게 차별을 받는다	2차 조사	2.93	0.95	-0.942
	3차 조사	3.00	0.88	
우리 사회에서 중고등학교 중퇴 학력으로는 취업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다	2차 조사	2.72	0.96	1.664
	3차 조사	2.59	1.01	

5)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

<표 III-99>에 따르면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의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은 1차년도 2.90, 2차년도 2.94, 3차년도 2.88로 2차년도에 다소 증가하였으나, 3차년도에 다시 감소하였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나타내진 않았다.

<표 III-99>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 (단위: 명, 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미래에 대한 긍정적 태도	1차 조사	167	2.90	0.73	1.094
	2차 조사	163	2.94	0.72	
	3차 조사	156	2.88	0.77	

<표 III-100>의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측정한 문항별로 살펴보면, ‘나는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1차 2.57 → 2차 2.65 → 3차 2.68)로 미래에 대해 다소 긍정적으로 바뀐 반면, ‘나는 내가 열심히 하면 앞날이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1차 3.04 → 2차 3.06 → 3차 2.99), ‘나는 내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한다’(1차 3.10 → 2차 3.12 → 3차 2.98)에서는 다소 부정적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나는 내가 성공할 것이라 생각한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감소를 보였다.

<표 III-100>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 (단위: 점)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 문항		평균값	표준편차	F
나는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1차 조사	2.57	0.94	-0.353
	2차 조사	2.65	0.86	
	3차 조사	2.68	0.92	
나는 내가 열심히 하면 앞날이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	1차 조사	3.04	0.85	0.926
	2차 조사	3.06	0.82	
	3차 조사	2.99	0.86	
나는 내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한다	1차 조사	3.10	0.81	2.231*
	2차 조사	3.12	0.80	
	3차 조사	2.98	0.88	

*p<.05

8. 학업중단 이후 사회·미래에 대한 인식

1) 도움을 준 기관

비행학업중단청소년에게 자신을 이해하고, 고민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 ‘기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101>에 따르면 3차년도의 경우 ‘보호관찰소’가 34.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직장(4.6%)’, ‘청소년시설(3.1%)’, ‘상담기관(3.1%)’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도움을 준 기관이 없다’라는 응답도 37.1%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101> 자신에게 도움을 준 어른을 만난 기관 (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청소년시설	11	(4.3)	9	(4.2)	6	(3.1)
복지시설	11	(4.3)	4	(1.9)	4	(2.1)
보호시설	12	(4.7)	8	(3.7)	2	(1.0)
상담기관	15	(5.9)	12	(5.6)	6	(3.1)
보호관찰소	98	(38.7)	80	(37.5)	66	(34.0)
직업훈련기관	7	(2.8)	9	(4.2)	6	(3.1)
종교기관	10	(4.0)	8	(3.7)	4	(2.1)
학원	7	(2.8)	8	(3.7)	4	(2.1)
병원 등 치료시설	3	(1.2)	3	(1.4)	1	(0.5)
대안교육기관	5	(2.0)	0	(0.0)	3	(1.5)
직장	1	(0.4)	3	(1.4)	9	(4.6)
없음	31	(12.3)	66	(30.8)	72	(37.1)
기타	42	(16.6)	4	(1.9)	11	(5.7)
전체	253	(100.0)	214	(100.0)	194	(100.0)

2) 진로정보

(1) 진로탐색의 방법

가. 부모님(또는 주위 사람들)과의 대화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한 이후 진로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진로에 대해 ‘부모님 또는 주위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는지 살펴보았다. <표 III-102>에 따르면 1차년도 82.1%, 2차년도 80.2%, 3차년도 81.9%로 거의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고, 진로탐색을 하는 다른 방법에 비하여 비교적 많은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102> 진로에 대해 부모님(주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단위: 명, %, 점)

조사 시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평균	F
1차 조사	11 (6.6)	19 (11.4)	97 (58.1)	40 (24.0)	167 (100.0)	2.99	0.148
2차 조사	15 (9.0)	18 (10.8)	90 (53.9)	44 (26.3)	167 (100.0)	2.98	
3차 조사	13 (7.8)	17 (10.2)	88 (53.0)	48 (28.9)	166 (100.0)	3.03	

나 . 인터넷 검색

<표 III-103>에 따르면 학업중단 이후에 진로정보를 ‘인터넷 검색’을 통해 획득하였는지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그렇다’고 응답한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이 1차년도 60.5%, 2차년도 63.9%로 다소 높아졌으나, 3차년도에 57.3%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과반 이상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진로정보를 탐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위: 명, %, 점)

조사 시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평균	F
1차 조사	32 (19.2)	34 (20.4)	76 (45.5)	25 (15.0)	167 (100.0)	1.69	1.659
2차 조사	22 (13.3)	38 (22.9)	73 (44.0)	33 (19.9)	166 (100.0)	1.77	
3차 조사	31 (18.7)	39 (23.5)	66 (39.8)	29 (17.5)	165 (100.0)	1.77	

다. 공공기관의 도움

<표 III-104>에 따르면 학업중단 이후 진로정보 획득을 위하여 '교육기관, 복지기관, 고용관련 기관과 같은 공공기관'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그렇다'고 응답한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이 1차년도 14.4%, 2차년도 19.3%로 다소 높아졌으나, 3차년도에 16.8%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III-104> 공공기관(교육, 복지, 고용관련 기관 등)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단위: 명, %, 점)

조사 시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평균	<i>F</i>
1차 조사	82 (49.1)	61 (36.5)	18 (10.8)	6 (3.6)	167 (100.0)	1.69	0.540
2차 조사	78 (47.3)	55 (33.3)	24 (14.5)	8 (4.8)	165 (100.0)	1.77	
3차 조사	84 (50.6)	53 (31.9)	18 (10.8)	10 (6.0)	165 (100.0)	1.77	

라. 관심 있는 직업의 종사자와의 대화

2차년도에 추가된 문항으로 진로정보 획득을 위하여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표 III-105>에 따르면 2차년도는 42.7%, 3차년도는 44.0%로 나타났다.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2차년도 2.22, 3차년도 2.42로 수치상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III-105> 관심 있는 직업의 종사자를 만나 이야기해 본 적이 있다. (단위: 명, %, 점)

조사 시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평균	t
2차 조사	55 (33.1)	40 (24.1)	51 (30.7)	20 (12.0)	166 (100.0)	2.22	-1.687
3차 조사	41 (24.7)	51 (30.7)	46 (27.7)	27 (16.3)	165 (100.0)	2.42	

마. 직업체험

2차년도에 추가된 문항으로 진로정보 획득을 위하여 여가시간, 방과 후, 방학 등을 활용해 직업체험을 해 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표 III-106>에 따르면 2차년도 84.3%, 3차년도 80.8%가 직업체험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이 직업체험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2차년도 평균점수는 1.70, 2차년도 평균점수는 2.22로 수치상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III-106> 여가시간, 방과후, 방학 등을 활용해 직업체험을 해 본적이 있다. (단위: 명, %, 점)

조사 시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평균	t
2차 조사	82 (49.4)	58 (34.9)	19 (11.4)	7 (4.2)	166 (100.0)	1.70	-5.241***
3차 조사	71 (42.8)	63 (38.0)	22 (13.3)	9 (5.4)	165 (100.0)	2.22	

*** $p < .001$

(2) 진로장애

가. 진로탐색의 어려움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의 진로 관련 상황과 관련한 문항들이 2차년도에 새로 추가되었다. <표 III-107>의 진로관련 정보에 대한 문항들을 살펴보면, 3차년도의 경우 ‘나는 진로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 잘 모르겠다’에 32.3%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나는 선택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있다’에 54.5%, ‘나는 여러 가지 직업 분야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에 43.1%, ‘내가 잘 할 수 있는 직업분야가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에 47.3%, ‘내가 하고 싶은 일이나 교육 등에 대한 자료를 얻기가 어렵다’에 37.7%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이는 2차년도와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의 절반에 가까운 비율이 진로에 대한 정보탐색이 어려운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문항별 평균점수로 살펴본 결과 2차년도와 3차년도의 다소의 증감이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표 III-107> 진로정보 탐색의 어려움

(단위: 명, %, 점)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평균	t
진로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 잘 모르겠다	2차	34 (20.4)	69 (41.3)	54 (32.3)	10 (6.0)	167 (100.0)	2.24	1.070
	3차	33 (19.8)	80 (47.9)	47 (28.1)	7 (4.2)	167 (100.0)	2.17	
선택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있다	2차	18 (10.8)	65 (38.9)	69 (41.3)	15 (9.0)	167 (100.0)	2.49	-0.495
	3차	19 (11.4)	57 (34.1)	76 (45.5)	15 (9.0)	167 (100.0)	2.52	
여러 가지 직업 분야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	2차	22 (13.3)	63 (38.0)	72 (43.4)	9 (5.4)	166 (100.0)	2.41	1.266
	3차	29 (17.4)	66 (39.5)	61 (36.5)	11 (6.6)	167 (100.0)	2.32	
잘 할 수 있는 직업분야가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	2차	24 (14.5)	50 (30.1)	78 (47.0)	14 (8.4)	166 (100.0)	2.49	1.095
	3차	29 (17.4)	59 (35.3)	59 (35.3)	20 (12.0)	167 (100.0)	2.42	
하고 싶은 일이나 교육 등에 대한 자료를 얻기가 어렵다	2차	27 (16.3)	64 (38.6)	65 (39.2)	10 (6.0)	166 (100.0)	2.35	1.794
	3차	34 (20.4)	70 (41.9)	54 (32.3)	9 (5.4)	167 (100.0)	2.23	

나. 진로에 대한 불안

<표 III-108>의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의 진로에 대한 불안 정도를 측정한 문항들을 살펴보면, 3차년도에 경우 '나는 앞으로 내가 원하는 진로를 갖지 못할까봐 불안하다'는 44.9%, '시대의 변화가 나의 진로에 대한 선택과 계획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27.0%, '경기 불황으로 인해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나의 진로에 영향을 준다'에 28.8%가 '나는 진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다'에 39.5%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상당수의 응답자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차년도와 비교하면 대부분의 수치가 감소했음을 알 수 있고, 청소년들은 시대적 상황이나 경기불황 등 보다 구조적인 측면보다 개인적 측면에 있어 더욱 불안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별 평균점수를 살펴본 결과, 2차년도와 3차년도 평균점수가 다소 감소하였

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는 아니었다.

<표 Ⅲ-108> 진로에 대한 불안

(단위: 명, %, 점)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평균	t
나는 앞으로 내가 원하는 진로를 갖지 못할까봐 불안하다	2차	34 (20.6)	47 (28.5)	59 (35.8)	25 (15.2)	165 (100.0)	2.45	0.920
	3차	38 (22.8)	54 (32.3)	48 (28.7)	27 (16.2)	167 (100.0)	2.38	
시대의 변화가 나의 진로에 대한 선택과 계획에 혼란을 초래 하고 있다	2차	36 (21.8)	70 (42.4)	50 (30.3)	9 (5.5)	165 (100.0)	2.19	1.485
	3차	42 (25.1)	80 (47.9)	34 (20.4)	11 (6.6)	167 (100.0)	2.08	
경기 불황으로 인해 일자리가 부족한 것 이 나의 진로에 영 향을 준다	2차	38 (23.0)	81 (49.1)	41 (24.8)	5 (3.0)	165 (100.0)	2.08	0.821
	3차	51 (30.5)	68 (40.7)	40 (24.0)	8 (4.8)	167 (100.0)	2.02	
나는 진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 다	2차	33 (20.0)	60 (36.4)	55 (33.3)	17 (10.3)	165 (100.0)	2.34	1.346
	3차	44 (26.3)	57 (34.1)	47 (28.1)	19 (11.4)	167 (100.0)	2.24	

다. 진로관련 경제적 어려움

<표 Ⅲ-109>와 같이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의 진로와 관련된 경제적 어려움 문항들을 살펴본 결과, 3차년도의 경우 ‘내가 원하는 진로와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경제적 지원이 부족하다’에 31.8%,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 나를 뒷받침해 줄 수 없다’에 31.2%,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른다’에 34.1%, ‘가정환경이 열악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진로로 선택하기 어렵다’에 27.0%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문항별 평균점수를 비교해본 결과, ‘가정환경이 열악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진로로 선택하기

어렵다'의 문항은 2차년도와 3차년도의 평균점수가 동일하였고, 나머지 진로관련 경제적 어려움 문항은 3차년도의 평균점수가 수치상으로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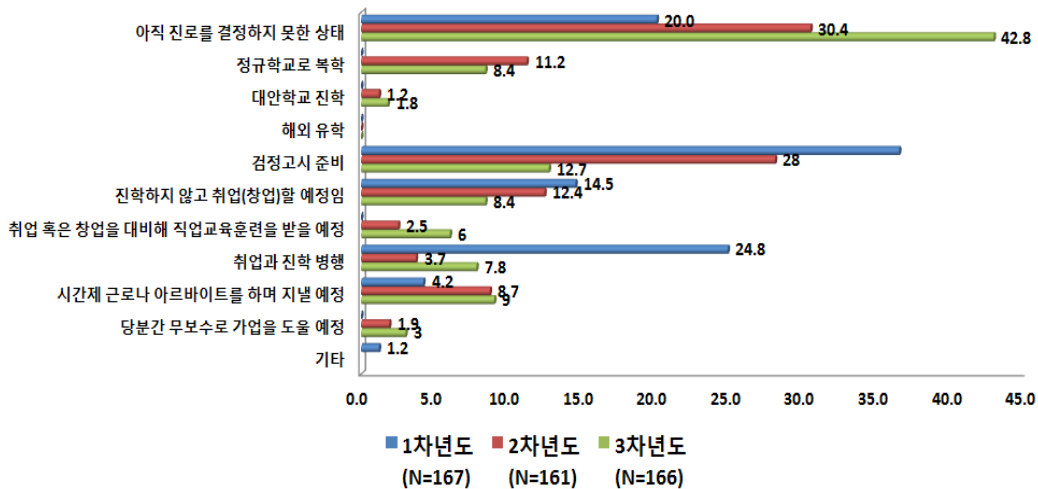
<표 Ⅲ-109> 진로 관련 경제적 어려움 (단위: 명, %, 점)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평균	t
내가 원하는 진로 와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경제적 지원이 부족하다	2차	31 (18.7)	76 (45.8)	51 (30.7)	8 (4.8)	166 (100.0)	2.22	0.798
	3차	42 (25.1)	72 (43.1)	35 (21.0)	18 (10.8)	167 (100.0)	2.16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 나를 뒷받침 해 줄 수 없다	2차	39 (23.5)	71 (42.8)	47 (28.3)	9 (5.4)	166 (100.0)	2.16	0.095
	3차	41 (24.6)	74 (44.3)	38 (22.8)	14 (8.4)	167 (100.0)	2.15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경제 적인 어려움이 따 른다	2차	34 (20.5)	75 (45.2)	50 (30.1)	7 (4.2)	166 (100.0)	2.18	0.342
	3차	45 (26.9)	65 (38.9)	42 (25.1)	15 (9.0)	167 (100.0)	2.16	
가정환경이 열악해 서 내가 하고 싶 은 일을 진로로 선택하기 어렵다	2차	41 (24.7)	86 (51.8)	33 (19.9)	6 (3.6)	166 (100.0)	2.02	0.000
	3차	50 (29.9)	72 (43.1)	36 (21.6)	9 (5.4)	167 (100.0)	2.02	

(3) 미래 계획

가. 향후 진로 계획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업중단 후 진로계획에 대한 조사 결과, 【그림 III-5】에 따르면 3차년도의 경우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라는 응답이 42.8%로 1차년도(20.0%)와 2차년도(30.4%)와 비교할 때 점차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진로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1-2차년도와 유사한 순으로 ‘검정고시 준비’가 12.7%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취업 혹은 창업할 예정’이 8.4%, ‘취업과 진학을 병행할 예정’이 7.8%로 나타났다.



【그림 III-5】 향후 진로 계획 (N=167)

나. 진로 계획 달성 예측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에게 ‘향후 원하는 진로계획이 달성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표 III-110> 따르면 3차년도의 경우 ‘그렇다’라는 긍정적인 응답이 89.3%로 2차년도(86.6%)와 비교할 때 다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평균점수의 경우 2차년도 3.24, 3차년도 3.12로 그 수치가 감소하였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다.

<표 Ⅲ-110> 원하는 진로계획 달성 예측

(단위: 명, %, 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평균	t
향후 원하는 진로계획이 달성될 것 같다	2차	0 (0.0)	14 (13.3)	58 (55.2)	33 (31.4)	105 (100.0)	3.24	1,425
	3차	0 (0.0)	10 (10.8)	61 (65.6)	22 (23.7)	93 (100.0)	3.12	

다. 자신의 교육 기대 수준

‘자신이 어느 수준까지 교육받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3차년도의 경우 ‘고졸’이 5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다음으로는 ‘대졸(4년제)’은 18.7%, ‘초대졸(2-3년제)’은 12.0%, ‘중졸’은 7.8%의 순으로 나타나, 2차년도의 조사결과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Ⅲ-111> 교육 기대 수준

(단위: 명, %)

		중졸	고졸	초대졸 (2-3년제)	대졸 (4년제)	대학원 졸	전체
본인의 교육 기대 수준	2차	10 (6.0)	84 (50.3)	25 (15.0)	35 (21.0)	13 (7.8)	167 (100.0)
	3차	13 (7.8)	93 (56.0)	20 (12.0)	31 (18.7)	9 (5.4)	166 (100.0)

(4) 자립에 필요한 항목

<표 Ⅲ-112>에 따르면 자립에 필요한 항목은 2차년도의 경우 평균점수가 2.59이고, 3차년도에는 2.65로, 수치상으로는 증가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표 III-112> 자립에 필요한 항목

(단위: 명, 점)

		N	평균	표준편차	t
자립관	2차 조사	165	2.59	0.75	-0.820
	3차 조사	167	2.65	0.75	

<표 III-113>에 따르면 자립에 필요한 항목은 총 9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는데 이 가운데 ‘저축, 돈 관리 등 실생활 속의 경제교육과 체험이 필요하다’의 평균점수가 2.8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직업기술, 자격증취득을 위한 교육기회가 늘어야한다’(2.84), ‘관심 있는 분야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필요하다’(2.77)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목표의식을 갖기 위한 동기부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2.40) 문항은 평균대비 가장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2차년도의 조사와 유사한 결과로, 통계적으로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3> 자립에 필요한 항목

(단위: 점)

학력에 대한 생각 문항		평균값	표준편차	t
목표의식을 갖기 위한 동기부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2차 조사	2.39	0.86	-0.153
	3차 조사	2.40	0.89	
자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2차 조사	2.41	0.86	-0.476
	3차 조사	2.44	0.88	
지속적 관심과 실질적 정보를 제공해 주는 성인 안내자의 도움이 필요하다.	2차 조사	2.49	0.90	0.683
	3차 조사	2.44	0.87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제적인 학습준비가 필요하다.	2차 조사	2.66	0.88	-1.010
	3차 조사	2.74	0.87	
직업기술, 자격증취득을 위한 교육기회가 늘어야한다.	2차 조사	2.70	0.92	-1.733
	3차 조사	2.84	0.86	
관심 있는 분야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2차 조사	2.73	0.85	-0.419
	3차 조사	2.77	0.93	
취업 및 대학진학과 관련한 진로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2차 조사	2.61	0.88	-0.995
	3차 조사	2.69	0.92	
긍정적인 대인관계 형성, 분노조절 등의 사회관계훈련이 제공되어야한다.	2차 조사	2.57	0.87	-0.657
	3차 조사	2.63	0.93	
저축, 돈 관리 등 실생활 속의 경제교육과 체험이 필요하다.	2차 조사	2.78	0.92	-0.791
	3차 조사	2.85	0.92	

9. 보호관찰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 및 인식

1) 보호시설 경험

(1) 보호시설 경험여부

<표 III-114>에 따르면 자립생활관이나 청소년 쉼터와 같은 보호시설에서의 생활 경험에 대해서는 3차년도에 4.2%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1차년도(14.4%)와 2차년도(4.8%)에 비하여 감소하였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4> 보호시설(자립생활관, 청소년 쉼터 등)에서 지냄 (단위: 명, %)

정보제공여부	대상자 구분			X^2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경험있음	24(14.4)	8(4.8)	7(4.2)	15.182**
경험없음	143(85.6)	159(95.2)	160(95.8)	
전체	167(100.0)	167(100.0)	167(100.0)	

** $p<.01$

(2) 소년분류심사원 경험여부

<표 III-115>에 따르면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생활한 경험에 대하여, 3차년도의 경우 10.2%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1차년도 42.5%, 2차년도 14.4%와 비교할 때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표 III-115>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생활함 (단위: 명, %)

정보제공여부	대상자 구분			X^2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경험있음	71(42.5)	24(14.4)	17(10.2)	59.497***
경험없음	96(57.5)	143(85.6)	150(89.8)	
전체	167(100.0)	167(100.0)	167(100.0)	

*** $p<.001$

(3) 소년원학교 경험여부

<표 Ⅲ-116>에 따르면 소년원학교에서 생활한 경험에 대한 문항은 2차년도에 추가되었다. 2차년도 18.0%, 3차년도 10.2%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16> 소년원학교에서 생활함(2차년 추가) (단위: 명, %)

정보제공여부	대상자 구분		X ²
	2차 조사	3차 조사	
경험있음	30(18.0)	17(10.2)	6.920**
경험없음	137(82.0)	150(89.8)	
전체	167(100.0)	167(100.0)	

**p<.01

2) 보호관찰관과의 관계

(1) 담당 보호관찰관의 변경여부

비행학업중단청소년들에게는 <표 Ⅲ-117>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담당 보호관찰관의 변경 여부’를 질문하였는데, 응답자의 53.5%가 변경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즉, 절반 이상의 비행학업중단청소년들이 담당 보호관찰관 변경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차년도(72.4%)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표 Ⅲ-117> 담당 보호관찰관 변경 여부(2차년 추가) (단위: 명, %)

정보제공여부	대상자 구분		X ²
	2차 조사	3차 조사	
변경 있음	113(72.4)	69(53.5)	7.480**
변경 없음	43(27.6)	60(46.5)	
전체	156(100.0)	129(100.0)	

**p<.01

<표 III-118>의 3차년도에 담당 보호관찰관이 변경된 적이 있다면, 몇 번이나 바뀌었는지 확인한 결과 ‘1회’ 34.8%, ‘2회’가 29.0%로 나타났으며, 많게는 최고 ‘5회 이상’까지 담당 보호관찰관의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 실무에서 담당보호관찰관이 비교적 자주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I-118> 담당 보호관찰관 변경 횟수 (단위: 명, %)

구 분	대상자 구분	
	2차 조사	3차 조사
1회	48(42.5)	24(34.8)
2회	26(23.0)	20(29.0)
3회	20(17.7)	13(18.8)
4회	14(12.4)	8(11.6)
5회 이상	5(4.4)	4(5.7)
전체	113(100.0)	69(100.0)

(2) 보호관찰관에 대한 인식

<표 III-119>에 따르면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의 보호관찰관에 대한 인식을 나타낸 결과이다. ‘나의 문제점 파악에 노력하신다’는 항목에 대해서 1차년도 95.2%, 2차년도 94.9%, 3차년도 97.7%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은 보호관찰관이 자신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1차년도 3.25, 2차년도 3.40, 3차년도 3.47로 그 수치가 점차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III-119> 나의 문제점 파악에 노력하신다 (단위: 명, %, 점)

조사 시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평균	F
1차 조사	1(0.6)	7(4.2)	109(65.3)	50(29.9)	167(100.0)	3.25	4.922**
2차 조사	2(1.3)	6(3.8)	77(48.7)	73(46.2)	158(100.0)	3.40	
3차 조사	2(1.6)	1(0.8)	61(47.3)	65(50.4)	129(100.0)	3.47	

** $\alpha.01$

<표 III-120>에 따르면 보호관찰선생님은 ‘내 고민이나 어려움에 대해 알려고 하신다’는 항목에 대해서 1차년도 91.6%, 2차년도 95.6%, 3차년도 96.1%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치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의 대부분은 보호관찰관이 자신의 고민이나 어려움에 대해 알려고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평균점수를 비교해본 결과 1차년도 3.19, 2차년도 3.39, 3차년도 3.50으로 평균점수가 점차 증가하였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표 III-120> 내 고민이나 어려움에 대해 알려고 하신다 (단위: 명, %, 점)

조사 시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평균	F
1차 조사	1(0.6)	13(7.8)	107(64.1)	46(27.5)	167(100.0)	3.19	9.305***
2차 조사	2(1.3)	5(3.2)	81(51.3)	70(44.3)	158(100.0)	3.39	
3차 조사	3(2.3)	2(1.6)	52(40.3)	72(55.8)	129(100.0)	3.50	

*** $p < .001$

<표 III-121>에 따르면 ‘나를 잘 도와주신다’는 항목에 대해서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의 96.9%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의 대부분은 보호관찰관이 자신을 잘 도와준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년도별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1차년도 3.35, 2차년도 3.45, 3차년도 3.55로 평균점수가 점차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 했다.

<표 III-121> 나를 잘 도와주신다 (단위: 명, %, 점)

조사 시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평균	F
1차 조사	0(0.0)	8(4.8)	93(55.7)	66(39.5)	167(100.0)	3.35	3.743*
2차 조사	2(1.3)	7(4.4)	67(42.4)	82(51.9)	158(100.0)	3.45	
3차 조사	3(2.3)	1(0.8)	47(36.4)	78(60.5)	129(100.0)	3.55	

* $p < .05$

<표 Ⅲ-122>에 따르면 ‘나의 문제를 의논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도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의 상당수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1차년도 88.6%에서 2차년도 87.3%, 3차년도 92.2%로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점수를 살펴본 결과, 1차년도 3.17, 2차년도 3.27, 3차년도 3.42로 점수가 점차 증가하였고,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증가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의 대부분은 보호관찰관에게 자신의 문제를 의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Ⅲ-122> 나의 문제를 의논한다 (단위: 명, %, 점)

조사 시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평균	F
1차 조사	2 (1.2)	17 (10.2)	98 (58.7)	50 (29.9)	167 (100.0)	3.17	4.742**
2차 조사	5 (3.2)	15 (9.5)	70 (44.3)	68 (43.0)	158 (100.0)	3.27	
3차 조사	3 (2.3)	7 (5.4)	52 (40.3)	67 (51.9)	129 (100.0)	3.42	

** α .01

3) 보호관찰소의 지원

(1) 보호관찰소의 지원 이용경험

<표 Ⅲ-123>에 따르면 현재 보호관찰소를 통해 지원 받고 있는 프로그램의 이용현황을 파악한 결과, ‘학습·진로지도’가 23.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검정고시학원 교육비 지원’ 18.3%,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 16.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숙소정보제공’(0.8%) 및 ‘의료지원’(4.0%) 등은 상대적으로 이용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3> 보호관찰소를 통해 받고 있는 지원 이용 여부(복수응답) (단위: 명, %)

이용 여부		경제적 지원	학습/진로 지도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	숙소 정보 제공	검정고시 교육비 지원	의료 지원	심리 상담지원	부모/보호자 교육·상담지원
있다	2차 조사	29 (19.2)	40 (26.8)	33 (22.0)	6 (4.0)	43 (28.7)	17 (11.3)	18 (12.0)	23 (15.3)
	3차 조사	14 (11.1)	29 (23.0)	21 (16.7)	1 (0.8)	23 (18.3)	5 (4.0)	18 (14.3)	16 (12.7)
없다	2차 조사	122 (80.8)	109 (73.2)	117 (78.0)	144 (96.0)	107 (71.3)	133 (88.7)	132 (88.0)	127 (84.7)
	3차 조사	112 (88.9)	97 (77.0)	105 (83.3)	125 (99.2)	103 (81.7)	121 (96.0)	108 (85.7)	110 (87.3)

(2) 만족도

보호관찰지원 프로그램의 이용경험자를 대상으로 각 프로그램별 만족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표 III-124>과 같다. 각 프로그램의 평균점수를 산출한 결과 3차년도의 경우 ‘검정고시학원 교육비 지원’의 평균이 3.48로 가장 높았고, 2차년도에 비해 만족도가 다소 증가하였다. 다음으로는 ‘학습·진로지도(3.31)’, ‘경제적 지원(3.29)’의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프로그램 이용자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부모 또는 보호자에 대한 교육·상담지원’, ‘숙소정보제공’의 경우 평균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의료지원’과 ‘숙소정보 제공’프로그램의 경우 이용자 자체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Ⅲ-124> 보호관찰소를 통해 받고 있는 지원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점)

만족도		N	평균	표준편차	$t^{7)}$
경제적 지원	2차 조사	29	2.90	0.67	-1.581
	3차 조사	14	3.29	0.47	
학습 · 진로 지도	2차 조사	38	3.37	0.59	0.000
	3차 조사	29	3.31	0.47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	2차 조사	32	3.19	0.64	0.612
	3차 조사	21	3.24	0.70	
숙소정보 제공	2차 조사	6	2.50	1.05	-
	3차 조사	1	3.00	-	
검정고시 교육비 지원	2차 조사	42	3.45	0.77	1.915
	3차 조사	23	3.48	0.51	
의료 지원 (질병치료, 문신제거 등)	2차 조사	16	3.19	0.98	-
	3차 조사	5	3.20	0.45	
심리상담 지원	2차 조사	17	3.12	0.86	-1.000
	3차 조사	17	3.12	0.60	
부모 또는 보호자에 대한 교육 · 상담 지원	2차 조사	21	3.00	0.77	0.000
	3차 조사	16	3.06	0.85	

*주: 7) 보호관찰소지원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차이비교는 사례수가 적어 분석이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않음.

10. 소결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3차년도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학업지속 여부를 확인한 결과 지난 조사 이후 대부분의 청소년(85.0%)이 여전히 정규 중·고등학교를 그만둔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167명 중에서 5명(3.0%) 정도만 복교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13명(7.8%)은 학업을 재중단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의 상당수는 기존의 교육체계 내에 재진입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재진입을 하더라도 오래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학업중단을 재중단한 이유로는 검정고시 준비와 같은 긍정적인 의견도 존재하였으나, 학교를 그만둔 친구를 따라 놀고싶어서나 학교규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아서 등의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더구나 여전히 학업중단 시 학교로부터 다양한 정보제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업 중단이 그냥 방치되고 있는 측면도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학업중단 이후 경험과 관련해서는 아르바이트나 취업해서 일을 했다는 응답이 68.9%로 가장 많았고 이는 1-2차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놀았다는 응답은 60.5%로 1-2차년도에 비하여 비율이 다소 감소하였고,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반면, 검정고시를 경험했다는 응답도 40.1%로 나타났는데 이는 1-2차년도 조사 시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업중단 이후 생활양식과 관련해서는 게임·SNS·스마트폰에 관련하여 질문하였는데, 게임중독은 이전년도에 비하여 평균점수가 감소하였고, 스마트폰중독은 증가하는 수치를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또한 SNS에서의 피해경험 및 일탈경험을 질문하였는데, SNS에서 정보유출이나 욕설, 따돌림,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자주 경험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오프라인에서의 피해-가해 경험과 달리 SNS에서는 가해경험보다는 피해경험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양상이 조금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업중단청소년의 일상생활을 살펴본 결과, 식생활 습관과 관련해서는 최근 일주일간 2회 이하로 아침·점심·저녁식사를 했다는 응답자가 1차년도에 비하여 2차년도에 급감하였고, 3차년도에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학업중단청소년들의 평일 평균수면시간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으며, 아르바이트나 취업하여 일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을 둘러싼 생활환경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신체적 혹은 정신적 학대를 받은 경우는 1차년도에 비해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애착과 친구의 비행성향의 경우 1-2차년도와 비교해 큰 변화는 없었다. 지역사회와 관련하여 비공식통제는 1-2차년도와 비교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반면, 물리적·사회적 무질서, 지역사회 유익환경에 대한 인식은 변화가 없거나 다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학업중단이후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의 심리·정서적 변화를 살펴본 결과, 심리적 측면에서 1-2차년도와 비교해 볼 때 3차년도의 결과는 변화가 크지 않았으나, 측정문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자신에 대한 긍정적 자아상을 반영하는 자아존중감은 1차년도 3.01, 2차년도 3.05, 3차년도 3.05로 2차년도와 변화가 없었고, 자아탄력성을 측정한 평균점수는 1-2차년도(2.98)에 비해 3차년도(3.00)에서 향상되었다. 반면, 일탈이나 범죄의 주요한 이론적 변인으로 일컬어지는 충동성은 1차년도 1.93에서 2차년도 1.88으로 조금 나아진 양상을 보여주었

으나, 3차년도에 1.92라는 수치로 증가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의 우울감을 조사한 결과 1-2차 조사의 평균점수(2.01)보다 3차년도의 평균점수가(2.02)다소 증가하였다. 사회적 낙인에 대한 인식은 2차년도 2.09에서 3차년도 2.02로 통계적인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지만 그 수치가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심리적 측면에서 지난 1년 동안 학업중단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일곱 번째, 학업중단 이후 사회·미래에 대한 인식정도에 관해서는 학업중단 이후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경로는 ‘부모님 또는 주위사람들과 대화(81.9%)’이며, 인터넷(57.3%)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육·복지·고용관련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16.8%에 불과하여 여전히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중단 이후 진로정보 탐색 과정에서 인터넷이나 지인 등을 통해 잘못된 정보를 접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부정확한 정보는 이들이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비행학업중단청소년에게 진로장애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아직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직업분야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응답이 47.3%로 많은 청소년들이 진로탐색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나는 앞으로 내가 원하는 진로를 갖지 못할까봐 불안하다’, 또는 ‘나는 진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도 높아 진로에 대한 불안감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덟째,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을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학업중단청소년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3차년도에는 보호관찰지원 프로그램의 평가 및 보호관찰관과의 관계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분석 결과, 지난 1년 동안 자립생활관이나 청소년 쉼터와 같은 보호시설 및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학교에서 생활했다는 응답자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반면, 지난 1년 동안 담당보호관찰관이 바뀌었다는 응답이 2차년도에 비하여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절반 이상(53.5%)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호관찰관과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좋은 편이었으며, 1-2차년도와 비교해도 보호관찰관과의 관계가 더 긍정적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학습·진로지도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검정고시 교육비 지원’ 및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에 대한 이용경험도 높은 편이며, 이에 대한 만족도 역시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는 높았다.

제 IV 장

심층면접에 나타난 보호관찰 학업중단청소년의 변화 및 지원현황

1. 조사대상자의 특성
2. 학업중단이후 생활의 변화
3. 보호관찰소의 지원현황 및 개선방향
4. 소결

제 IV 장

심층면접에 나타난 보호관찰 학업중단청소년의 변화 및 지원현황⁷⁾

1. 조사대상자의 특성

청소년 심층면접대상자들은 총 6명으로 18세에서 20세 사이에 분포되어 있다. 이들 중 3명의 청소년이 안양보호관찰소에 있었거나 현재도 있으며, 서울남부보호관찰소가 2명, 수원보호관찰소가 1명으로 나타났다. 안양보호관찰소의 4명 중 2명은 최근에 보호관찰이 종료된 청소년들로 심층면접의사를 밝힌 청소년에 한해 면접을 실시하였다. 전년도 연구에서는 세 명의 여학생들이 심층면접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모두 종료된 상태이고 올해 심층면접대상자들은 모두 남학생이다. 이들 중 사례2와 사례5는 재비행으로 인해 보호관찰이 연장되었으며 사례 4는 7월에 입대를 앞두고 있다.

<표 IV-1> 청소년 대상자 사례번호

사례 번호	출생년도	성별	거주 지역	인터뷰 일시	보호관찰현황	보호관찰 연장여부	비고
1	1996	남	경기도	5월18일	2015년 1월 종료		2차년도부터 심층면접
2	1996	남	경기도	5월18일	종료까지 9개월 남음	연장	2차년도부터 심층면접
3	1996	남	경기도	5월18일	종료까지 9개월 남음		2차년도부터 심층면접
4	1995	남	서울	5월19일	현재 보호관찰중/ 7월 입대예정		1차년도부터 심층면접
5	1997	남	서울	5월19일	종료까지 15개월 남음	연장	1차년도부터 심층면접
6	1995	남	경기도	5월20일	2015년 1월 종료		1차년도부터 심층면접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담당했던 보호관찰관과 청소년 보호자에 대한 심층면접도 실시되

7) 이 장은 김지영 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었다. 보호자 및 보호관찰관 조사대상자들은 총 6명이며 이중 1명만 보호자이다. 사례 1은 청소년 사례 3의 어머니이며 보호관찰소를 통해 심층면접을 요청한 몇몇 보호자 중에서 유일하게 면접을 수락하였다. 나머지 5명은 보호관찰관들로 보호관찰관 사례2는 청소년 사례 1과 청소년 사례 2의 담당자이고 보호관찰관 사례 3은 청소년 사례 3의 담당자이다. 보호관찰관 사례 4는 청소년 사례 4를, 보호관찰관 사례 5와 보호관찰관 사례 6은 각각 청소년 사례 5와 청소년 사례 6을 담당하였다. 보호관찰관 5명중 사례 4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의 보호관찰관은 모두 남성이다. 이 가운데 사례2는 보호관찰경력 1년 2개월, 소년보호 근무기간 4개월로 가장 짧은 근무경력을 가진 반면, 사례 3은 보호관찰경력 14년, 소년보호 근무기간 5년으로 가장 긴 근무경력을 지니고 있다.

<표 IV-2> 보호자 및 보호관찰관 사례번호

사례 번호	방문기관 지역	연령	성별	보호관찰 근무기간	소년보호 근무기간	인터뷰 일시	비고
1	경기도	44세	여	해당 없음	해당 없음	5월18일	사례3의 보호자
2	경기도	46세	남	1년2개월	4개월	5월29일	사례1/사례2 보호관찰관
3	경기도	43세	남	14년	5년	5월 29일	사례3의 보호관찰관
4	서울	32세	여	8년	1년	5월19일	사례4의 보호관찰관
5	서울	45세	남	8년	2년	5월19일	사례5의 보호관찰관
6	경기도	36세	남	6년	1년 5개월	5월20일	사례6의 보호관찰관

2. 학업중단이후 생활의 변화

1) 아르바이트와 유흥

1차년도와 2차년도의 면접에서도 나타났듯이 지난 1년도 아르바이트는 학업중단 비행청소년 들 일상의 구심점이었다. 아르바이트는 시간이 남아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생활에 나름의 규칙성을 부여하고 노동의 결과인 임금은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청소년들은 자신이 번 돈으로 옷도 사 입고, 일부를 생활비에 보태기도 하지만 유혹에 쓰는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임금으로 벌어들인 돈은 술집에서, 피시방에서, 당구장에서, 노래방에서, 탕진될 뿐 미래를 위해 재투자되지는 않는다.

사례 2의 경우도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일하고 있는 떡볶이 집에서 올해도 계속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담당 보호관찰관의 말에 따르면 새벽까지 친구들과 놀다가 출근 30분전에 일어나는 일상을 반복한다고 한다. 학업을 그만둔 이후 주유소 아르바이트, 배달 등 여러 가지 일을 전전하다 2년 전부터 떡볶이 집에서 일하며 월 220만원 상당의 짹짹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때문에 야간에 하는 고된 일이지만 성실하게 아르바이트를 지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르바이트로 번 돈은 '옷 사고, 술 먹고, 피시방도 가는' 것으로 모두 탕진되면서 아르바이트와 유혹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깰 수 없게 만든다. 본인도 면접에서 밝히고 있듯이 '일 끝나고 애들 만났다가 집에 가고'하는 생활이 옛날부터 반복되어 온 것이다.

Q : 하루 일과가?

A : 일 끝나고 애들 만났다가 집에 가고, 그게 옛날부터 반복됐었어요.

Q : 구체적으로?

A : 10시 반에 일어나서, 오후 6시 퇴근할 때도 있고, 가게 직원들 쉬는 날은 밤 12시.

Q : 퇴근하고 나서 뭐해요?

A : 애들한테 전화해보고, 피시방, 당구장 가거나 애들 집에 있으면 그냥 저도 집에 가고 그래요.

(중략)

Q : 버는 돈은 어떻게 쓰나?

A : 그냥 다 노는데 다 써요

Q : 저축은 안 해요?

A : 네

Q : 피시방 이런데 가는데 쓰는 거예요?

A : 네, 옷 사고, 술 먹고, 피시방도 가고

(청소년 사례 2)

기술도 없고 배움도 부족한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육체적으로 고되거나 위험한 노동에 한정되어 있다. 물건을 나르는 물류아르바이트나 식당의 서빙, 치킨 배달 등 육체적으로 고되거나 위험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운전면허가 있거나 지속적으로 한 가지 일에 종사하면서 숙련도가 생기는 경우는 조건이 좋은 곳에 취직할 수 있다. 사례 3은 작년부터 면접에 응한 대상자로 학업중단 이후부터 노동 강도가 높고 월급이 많은 일에 종사하면서 부모의 이혼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을 돕고 있었다. 작년 한 해 동안도 물류와 서빙 일을 주로 했다고 한다(아래 청소년 사례 3 참조). 물류아르바이트는 매일 나가지는 않지만 한번 나가면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12시간을 일해야 하고, 허리가 끊어질 듯 한 무게의 짐을 하루 종일 나르는, 성인도 힘든 고강도의 노동이다.

Q : 지난 일 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

A : 그냥 알바하면서, 놀고 이랬어요.

Q : 알바는 뭐했어?

A : 그냥 이것저것 했어요. 서빙, 물류 이런 거 했어요.

Q : 둘 다 굉장히 힘든 일 아닌가? 아줌마 다른데 다녀보니까 이 두 개가 힘들다고 하던데

A : 물류만 힘들어요.

Q : 페이가 세다던데 한 달에 얼마나 벌었어?

A : 물류는 일주일에 이십 주고 잠깐잠깐 서빙 쉴 때 나갔어요.

Q : 서빙 하면서 중간 중간 물류 하는구나. 그럼 한 달 수입이 꽤 됐겠네?

A : 꽤 되지는 않아요.

Q : 얼마나 들었어?

A : 서빙은 한 달에 육십.

Q : 그것 밖에 안됐어? 서빙은 매일 나가는데

A : 서빙은 매일 나가는데 몇 시간 안 해서

Q : 몇 시간 한 거야?

A : 5시간씩 했어요. 5시간씩 중간 중간에 물류 하고

Q : 어디서 무슨 서빙?

A : 샤브집이요.

Q : 몇 시간 하는데 60만원?

A : 5시간 일주일에 서너 번

(중략)

Q : 그거보다 더 주는 구나. 그럼 물류는?

A : 일당으로 7만2천원 받아요.

Q : 얼마나 일하지?

A :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12시간

Q : 아... 하루 종일 12시간 해? 일당 7만 2천원? 너무 힘들진 않아? 몸 힘들진 않아?

A : 좀 허리가...

(청소년 사례 3)

힘든 노동의 대가로 받은 귀중한 돈이지만 일부를 어머니께 드리고 나면 대부분이 본인의 용돈으로 탕진된다. 사례 2와 마찬가지로 옷 사고, 피시방 가고, 노래방 가는 것이 용돈의 주된 사용처라고 할 수 있다.

Q : 위험한 거 같은데. 그렇구나... 알았어. 종현이가 하루 중 제일 시간을 많이 쏟는 건 아르바이트라 할 수 있네?

A : 네.

Q : 그치. 아르바이트지. 아르바이트 해서 번 돈은 어머니 드리고, 용돈하고 끝? 저축은?

A : 조금 해요.

Q : 한 달에 얼마나 저축해?

A : 이만큼은 안 써야겠다. 돈 너무 막 쓴다 싶을 때, 저축해요. 원래 돈 들어오기 전에 모아야겠다고 생각하다가 막상 들어오니까 옷 사고 그래요.

Q : 그 때 돈을 아낀다?

A : 좀 쓰고 나서 아껴요.

Q : ○○이가 약간 계획성이 있다. 그치? 어머니한테 얼마나 드리는지?

A : 십. 이십, 삼십 정도.

Q : 십, 이십, 삼십 정도.. 그렇게 줄 때 있다? 그 정도면 많이 드리는 거 아닌가?

A : 다 주면 좋은데 하고 싶은 게 있어서...

Q : 그럼 남은 시간은 뭐했어?

A : 자거나 놀았어요.

A : 그냥 피시방 가고, 노래방 가고

(중략)

A : 일찍 일 나갈 때는 8시에 일어나고 오후 나갈 때는 1-2시, 그 전에는 잠깐 친구들과 만났다가 피시방 가기도 하고 집에서 자고.

Q : 자는 시간은?

A : 12시에서 1시에. 어떨 때는 밤새기도 해요.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청소년 사례 3)

비록 청소년들이 종사하는 아르바이트가 힘들고 위험한 일이지만 학업을 중단하고 무위도식 하게 되면 비행친구들과 어울리며 사건사고에 휘말릴 가능성이 더 높으므로 아르바이트를 지속하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학업중단비행청소년들에게는 재비행을 방지하는 한 가지 보호요인이 될 수 있다. 사례 5는 1차년도 심층면접 당시 오후부터 자정까지 치킨 집에서 휴일도 없이 일하고 있었으며, 2차년도에는 주차 알바를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올해도 역시 대형마트에서 주차 알바를 한다고 했다. 사례 5의 경우는 아르바이트를 꾸준히 성실히 하는 편이라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건 고용주로부터 인정받고 일정 책임이 부여된 중간 관리자급의 업무를 담당했었다.

Q : 아르바이트 하는 거 있어? 뭐하고 있어?

A : 네, 홈플러스 주차 알바

Q : 많이 힘들지 않아?

A : 많이 해서 노하우 생겨서 남들 못하는 거 잘해요.

Q : 어떤 거 잘해?

A : 카트를 담당하는데 저 많이 끄는 거 잘해요. 남들은 잘 못하는데

Q : 한 달에 얼마나 벌어?

A : 화, 토는 연기학원 때문에 쉬어서 70정도, 일요일엔 쉬는데 (카트)땀는 거해요.

(청소년 사례 5)

사례 6의 경우는 심층면접 대상자 중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열악하고 심리적인 문제도 심각했었으나 올해 1월에 재비행없이 보호관찰을 종료한 상태였다. 기초수급자인 할머니를 모시고

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된 노동으로 생활비를 벌면서 틈틈이 자동차에 관해 공부하고 운전면허도 취득하여 상대적으로 벌이가 좋은 일을 하고 있었다. 2년 전에 처음 면접을 시작할 당시부터 여건상 학업을 지속할 엄두를 내지 못했으며 본인도 학업보다는 구직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때문에 중학교 3학년에 학업을 중단한 이후부터 아르바이트가 사례 6의 생활의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다. 자동차에 관심이 많아 일찍부터 면허를 취득하여 주말에는 발렛파킹을 하고, 평일에는 완성된 자동차를 운전해서 목적지까지 가져다주는 차량탁송일을 하고 있었다.

Q : 요새는 무슨 일 해?

A : 이제는 웨딩홀에서 발렛파킹해요.

Q : 그게 더 편하지 않나?

A : 네

Q : 이제는 운전 잘하나 보네. 예전에 오토바이 사고 난적 있었잖아.

A : 네

Q : 할머니 그 때 허리 수술해야 한다고 했는데 아직 수술 안한 상태야?

A : 네, 할머니님 돈도 많이 들고 병원 답답해서 하기 싫으시다고.

Q : 그리고 그 때 경기희망리본부에 다니고 있다 했었는데. 그 때 카센터일 마스터했어?

A : 말씀드렸어요. 다른 일 한다고 운전직으로 나간다고.

Q : 관둔다고 한 거야?

A : 네, 재직증명서 떼어달라고 했는데 연락이 없더라고요.

Q : 자격증 따면 쓸모가 있지 않았을까?

A : 그렇긴 한데 제가 좋아하는 일 하는 게....

Q : 월급은 얼마데?

A : 일당 7만원 받아요. 5시간 하고.

(청소년 사례 6)

1년차와 2년차 면접에서 대상자가 주로 한 아르바이트는 인력사무실을 통한 물류 아르바이트나 막노동 일용직이었다.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운전면허도 취득하고 성실하게 일을 지속한 덕분에 정규직은 아니지만 육체적으로 덜 고되고 노동시간대비 임금도 높은 발렛파킹과 자동차 탁송일을 하게 된 것은 사례 6의 생활에 큰 보탬이 되었다.

Q : 일주일에 며칠 나가니?

A : 주말에만 나가고 평일에는 탁송. 차 다른 지역에 갖다 주고. 그런 거.

Q : 그런데 왜 술을 많이 마시고 다녀?

A : 음주운전 안하고 그냥 친구들이랑 놀거나 몇 개월 전엔 안 좋은 일 있어서.

Q : 어떤 사정인데?

A : 개인 사정이...

Q : 그게 어디 소속이 있는 건가? 자동차 수송하는 건?

A : 그거는 따로

Q : 연락이 오는 거야?

A : 네

Q : 연락이 안 오면

A : 일이 없는 거죠.

Q : 일을 하는 날은 일주일에 얼마나 돼?

A : 한 서너 번 정도

Q :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

A : 9시에서 10시 정도

Q : 하루 일과는?

A : 때마다 달라서 5시나 4시까지 일하는 날도 있고. 일없는 날은 집에서 조금 쉬고.

Q : 평일 날은?

A : 평일날도 일 있는 날은 한 건당 3,4만원씩 받으니까 차 갖다 주고 놀거나 할머니 모시고 밥 먹거나....

(청소년 사례 6)

아르바이트도 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보내는 경우, 청소년 사례 4의 경우에서도 나타나듯이 생활의 질서를 잡기가 더 어렵다. 보호관찰관들도 꾸준히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상자들의 생활태도를 양호한 것으로 평가한다. 즉 학업중단 비행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단순노동으로 받은 임금을 유흥비에 쓰고 다시 유흥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순환 고리에 갇혀 기술이나 학업을 배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 사례 4의 경우와 같이 학업도 공부도 알바도 아무것도 매인 것이 없는

상황이 보다 막막할 수 있다. 대상자의 경제적 상황이 그리 양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면접내용을 보면 절실히 일자리를 구한 적이 없고 내키면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지만 이내 그만두었고 올해 면접에서도 남아도는 잉여 시간은 ‘오후 3시 기상’과 ‘집에 있다가 술 먹고, 친구 만나고, 영화 보는 것’으로 탕진된다.

Q : 하루 일과는?

A : 집에 있다가 술 먹고, 영화보고, 친구 만나고.

Q : 술을 많이 먹네?

A : 요즘 들어서 많이 먹는 거 같아요.

Q : 얼마나 먹는데?

A : 일주일에 두·세 번

Q : 돈은 어디서 나와요?

A : 저는 돈 거의 안내요. 친구들이 내주거나 제가 돈이 없는데 친구들이 나오라고 해요. 사준다고.. 좀만 먹고 가자고.

Q : 인기가 많네.

A : 아니에요. 나오는 친구들이 별로.... 나올 애들은 나오고 안 나올 애들은 안 나오고. 물어보는데 안 나오는 거 뻔 하니까. 누가 봐도 안 나오는 애들이 뻔 하니까.

Q :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요?

A : 아침에 거의 안 일어나고 오후 3,4시쯤에 일어나고. 요즘엔 아침 6시쯤에 일어나서 밥 먹고 9시쯤에 자다가 1시, 2시쯤에 다시 일어나고.

(청소년 사례 4)

경제적으로 궁핍한 다른 대상자들이 많이 하는 물류아르바이트도 사례 4는 ‘몇 시간 하고 힘들어서’ 그만두고(아래 청소년 사례 4 참조) 대부분의 시간을 목적 없이 허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Q : 요새 큰 관심사는 군대? 여자친구는?

A : 없어요.

Q : 알바는?

A : 물류센터 했는데 몇 시간 하고 힘들어서 그만됐어요. 계속 하려 했는데 조끼랑 신발 입으라는데 다 냄새나고 찢어지고 그런 거라서 별로 하기 싫어서 조금만 하다가 가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가도 된다고 해서...

Q : 요새는 아무것도 안하는 거네요?

A : 네

(청소년 사례 4)

2) 학업과 진로

면접대상자인 청소년들은 벌써 여러 차례 학업을 중단한 경력이 있으므로 일반 고등학교에 복교한다면 급우들과의 연령차나 학업 등의 문제로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고 '졸업장 받기 위해' 다닌다는 특성화 고등학교, 2년제 고등학교조차도 입학해서 출석하는 것조차 힘들어해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3년차 심층면접에 만난 대상자 전부가 검정고시를 준비 중이거나 직업기술을 배우기 위해 진로를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검정고시를 준비 중인 청소년이나 직업기술을 배우기 위해 학원을 다니고자 계획 중이거나, 이미 학원을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끈기 있게 나가지는 못하고 있다.

학업을 중단한 비행청소년의 대부분이 신중하게 진로를 계획하고 학교를 나온 것이 아니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학업중단을 후회한다. 사실 대상자들은 학업중단과 복교를 반복했으므로 자신들이 학교에 적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스스로 확인한 상태이다. 학교를 다니는 또래나 교복 입은 학생에 대한 막연한 동경, 학업중단에 대한 회한만이 늘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을 뿐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력이 약한 것이 청소년들이다. 청소년 사례 1은 작년 면접당시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다고 했으나 올해 다시 만났을 때는 사실상 진학을 포기하고 검정고시만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대학진학의 희망을 피력하고 있으나 이 또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였다.

Q : 별일 없이 (보호관찰) 종료해서 다행이네. 중학교 2학년 때 (학교)관렸죠? 작년에는 검정고시 시험 보러 간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A : 떨어졌죠.

(중략)

Q :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 본다고 했는데 자동차 고등학교 가고 싶다고 했는데?

A : 못가고 이번에 6월 학원 다니면서 검정고시 보면서 고등학교 것도 보고.. 점수 좋으면 대학 가려고요. 인생 망하면 안 되죠.

Q : 대학교 가고 싶다는 것은 공부 하고 싶다는 거네?

A : 네

Q : 학교 그만두고 싶다고 했는데? 어땠어요?

A : 처음에는 어른들이 후회 많이 할 거라고 했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18살 되니까 많이 후회가 되요. 다른 사람 보면서 느껴요.

(청소년 사례 1)

종단연구 3년차에 접어들어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이 성년에 이르렀으므로 이들의 진학계획은 중·고등학교 졸업자격 시험을 넘어 자신의 진로와 연계된 대학의 학과나 장래 직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사례 3은 요리사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고, 사례 5는 연예인이 되고 싶다는 계획을 가지고 학원을 다니고 있었다. 사례 2는 요식업으로 장사를 하고 싶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중 어느 누구도 자신의 진로를 뚜렷하게 노정하고 끈기 있게 매진하고 있지는 못하다. 청소년 사례 3의 보호자인 보호자 사례1과의 면접내용에서 드러나듯이 무료로 다니는 학원도 불성실하게 다녀서 몇 번이나 검정고시를 통과하지 못하고 요리사 자격증을 따는 길도 요원하기 만한 상황인 것이다.

Q : 그럼 친구들 만나면 대학생 친구 만나면 종윤이도 대학 다니고 싶겠네?

A : 네 가고 싶어요.

Q : 그럼 검정고시 계속 준비해가지고 학교 갈 생각이 있는 건가?

A : 아뇨. 그건 아니예요.

Q : 그건 아니야?

A : 그냥 재밌어서 해요.

(중략)

A : 계획하고 있는데.... 요리사 자격증 따려고요

Q : 어떤 종류? 어떤 분야의 요리를?

A : 그냥 모든 종류 다 도전해보려고요

(청소년 사례 3)

A : 실전을 못해요. 그런 망설임도 있는 거 같아요. 한다고 했다가, 안가면 돈만 버리고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있는 거 같아요. 무료로 검정고시 학원을 다녔는데, 땡땡이도 치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학원이 이제 옮겨서 검정고시 보려면 수원까지 가야할 판이에요. 60점이 되어야 하잖아요. 56점 정도더라고요. 합격을 못한다는 거죠. 검정고시 못하니까 요리자격증 따야하는데 아직은 학력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그럼 어떡하냐. 학교 가라. 친구는 거기 다녀서 졸업했거든요. 시흥에 학교 있으니까 가서 졸업을 해라. 하니까 안 해요. 아직까지는 아직 필요성을 못 느끼는구나 네가 좀더 느껴봐라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생략)

(보호자 사례 1)

청소년 사례 2는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핸드폰 절도 등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규칙위반으로 지속적으로 보호관찰이 연장되었다. 고등학교 1학년에 자퇴하여 학교로 복귀했지만 다시 한 달 만에 자퇴하였다. 현재는 군 입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으로 작년에도 떡볶이집 아르바이트로 꽤 높은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그 때문인지 작년에도 학업을 지속하는 것보다 장사에 관심이 많았으며 올해 면접에서도 제대이후에 요식업을 하고 싶다는 계획을 밝혔다.

Q : 장래 계획이나 하고 싶은 거는?

A : 군대 갔다 오면 돈 좀 더 벌다가 서른쯤 되면 요식업으로 장사 한번. 군대가 공익으로 빠져서 공익 가면 오후 시간 나니까 오후에 일하면서 돈 모으려고요.

Q : 공익으로 빠질 수 있어요?

A : 다리 쪽에 하지정맥류가 있어요.

(청소년 사례 2)

청소년 사례 5와의 면접에서 대상자는 1차년도 심층면접에서부터 밝힌 연예인이 되고 싶은 희망을 위해 학원에 흡족하며 열심히 다니는 듯이 말했지만(아래 청소년 사례 5) 보호관찰관에

의하면 실상 잘 나오지 않아 보호관찰관이 매일 전화를 하다시피해서 출석을 채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율이 저조하여 프로그램이 해체 직전이며 보호관찰관의 표현 그대로 하면 이 대상자는 '상대방 기분 모르고 자기중심적이고 약속에 대해 못 지키는, 생활개선이 필요한' 청소년인 것이다(아래 보호관찰관 사례 5).

Q : 지금 학원 다니는 게 제일 중요한 일과?

A : 중학교 검정고시만 따서요, 이번에 고등학교 시험 보는데 무조건 80점 넘겨야 돼요. 대학 가려면. 못 넘기면 또 한 번 시험 봐야 해요. 연극영화학과도 공부 좀 본다 해가지고. 기초만 볼 거 같아서 80점만 넘기려고

(중략)

Q : 어떤 꿈이 있어?

A : 저는 가수 되는 게 꿈이에요.

Q : 노래 잘 해?

A : 못하는 편은 아니에요.

Q : 예체능 학교 말하는 거야?

A : 연극영화학과

Q : 준비하는 게 있어?

A : 연기, 노래랑 특기 준비하고 있죠.

Q : 어디서 배워?

A : 여기서 추천해준 강남에 있는 곳 다녀요.

Q : 여기서 지원 해주나?

A : 거기서 지원해줘요. 제가 대학입시반이 아니라 돈 안내고 다녀요.

(청소년 사례 5)

Q : 작년에도 신분증 위조로 연장되고 올해도 무면허로 연장되고... 문제가 많은 거 같은데

A : 제대로 안 해요 안 올 때도 있고. 엄청나게 혼을 내준 적 있죠. 제 마음대로 탈락 시키면 프로그램 전체 영향을 미치니까. (연기)학원 원장은 한 사람이라도 안 나오면 손해니까 최후통첩을 한거죠. 성실하게 참여하진 않습니다.

Q : 이게 자기 하고 싶은 거라 하던데

A : 본인이 애정이 많아요. 적극 참여하고 싶으나 생각과 행동이 잘 안 따라서. 주의를 많이 줬죠.

Q : 연기학원 흡족해 한다고.

A : (그런데) 잘 안 나옵니다. 프로그램 해체할 분위기예요. 4명인가 시작해서. 자발적 참여자인데 수시로 불참해서 반발 전에 프로그램이 없어질까 싶어요. ○○이하고 둘이 나오는데 ○○가 자주 빠집니다. 수시로 집에 가고, 3시 프로그램인데 4시 이후에 나오고, 날마다 제가 전화해요. 그래서 1시간 늦게 오는 거예요. 제 판단에는 생활개선이 필요한 애들이죠. 상대방 기분 모르고 자기중심적이고 약속에 대해 못 지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Q : ○○가 최근에 일주일, 이주일? 프로그램 들었다하는데

A : 전혀 없습니다. 프로그램 못 시킵니다. 제대로 안 나와서. 연기학원 가는 것도 벽찬데... 작년에 직업탐색 프로그램 했죠. 1달 반 정도. 1박 2일 캠핑도 갔는데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기록에 남아 있더라고요. 애가 존재감이 없었던 거죠. 캠프 가면 밥 짓고 놀러가고 그러는데 애는 기억이 안나더라고요. 남하고 얘기 안하고....

(보호관찰관 사례 5)

보호관찰관들이 이구동성으로 밝혔듯이 비행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특히 끈기와 인내가 부족하다. 본인들의 불성실성에 더해 보호자가 부재하거나 방임하므로 이들이 학업이나 진로교육을 제대로 이수하는 것은 매우 요원한 일이다.

3) 관계의 변화, 심리의 변화

2년차 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부모들은 자녀들과 체념 섞인 타협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므로 본인의 일은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한다는, 부모들이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을 통해 자녀와의 갈등이 완화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또한 지난 일 년 동안 부모가 재결합을 모색하는 가정(청소년 사례 1)도 있고 아버지가 교제를 시작하면서 온기가 돌기 시작한 가정도 있다(청소년 사례 5). 가정에 화목한 기운이 감돌면서 청소년과 보호자와의 유대관계도 더욱 돈독해지고 있는 것이다.

Q : 부모님과과의 관계는?

A : 좋죠. 친구처럼 막 같이 재밌어요. 놀러도 다니고. (엄마랑)아빠랑은 이혼했죠. 근데
아빠랑 엄마랑 가까워지고 있고. 엄마 아빠가 다시 해볼라고 그러고 있고.

Q : 좋았겠네?

A : 그죠. 저한테 반지도 주고, 비싼 거...

Q : 아버님이 특별히 어머니랑 많이 싫었던 건 아니었겠네?

A : 악연이었죠.

Q : 악연? 어떤 점에서?

A : 모르겠어요. 저 어릴 때라서.

(청소년 사례 1)

청소년 사례 5도 4살 무렵에 부모가 이혼 후 고모와 고모부에 의해 양육되었다. 첫 면접
당시에 분노 수준이 높고 신경질적이었으며 자살시도를 한 적도 있고, 우울감을 호소하기도
했으나 3년차인 올해 만난 대상자는 매우 명랑해보였다. 비록 자신의 미래를 위해 계획하고
실천하는 끈기는 부족했으나 심리적으로 훨씬 안정되어 있었고, 가족관계도 한결 돈독해져
있었다.

Q : 고모랑 살고 있었는데..

A : 지금은 혼자 살아요. 제가 학원 갈려면 안산으로 넘어가야 하고 대학교 갈려면 여기
있는 게 낫잖아요.

Q : 집세 같은 거는?

A : 아빠가 내주시죠.

Q : 보증금이 얼마?

A : 세 내주었던 저희 집에서 사는 거예요.

Q : 고모 얘기 많이 했는데, 고모님 실망 하셨겠다. 고모한테 자주 가?

A : 한 달에 한 번 가요. 혼자 살다보니 조미료 덩어리 먹어서 거기(고모집) 가서 밥 먹고..
(중략)

Q : 고모나 아버님한테 변화?

A : 이제 저를 믿는 것 같아요.

A : 네, 지금 엄마만 하고 있어요.

Q : 아빠 다리는 나으셨는지?

A : 아니오.

(청소년 사례 4)

Q : 아버님하고는 어떻게?

A : 연락하는 편이긴 한데 그때랑 다를 거 없어요. 특별히 연락을 자주 하는 거는(아니
예요)

Q : 동생은?

A : 아예 연락이 안 돼요. 가출한지 1년 반에서 2년 정도

Q : 작년에 가출했다 했나? 아버지 집에 있다 했잖아.

A : 근데 나갔다 하더라고요.

Q : 여동생이었던 거 같은데

A : 네, 아빠랑은 연락하고 있는 거 같아요.

Q : 어떻게 지낸데?

A : 잘 모르겠어요. 저한테 말을 안 해줘서

Q : 근태이가 물어볼 수도 있잖아.

A : 동생이 연락을 안 받아요.

Q : 근태이가 아버지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

A : 아빠도 말씀 안 해주시고 동생도 전화 안 받고.

Q : 수술한 거 언제? 오토바이 사고도 났던 거 같은데... 손 다친 거는 재작년이었지?

A : 네

Q : 건강이 좀 간 같은 데가 안 좋아졌다는데? 언제?

A : 더 간이 안 좋아져가지고.

Q : 술 많이 마셨어?

A : 네.

Q : 술 안 먹는다더니

A : 어떻게 하다보니까...

Q : 왜 술을 많이 먹었어?

A : 이곳저곳 일하러 다니다 보니까.

Q : 작년까지 큰 변화가 동생이 가출한 거라 할 수 있나? 아버님은 어떤 분하고 같이 사신다고.

A : (여자 분이랑) 또 떨어져 살고 계신 거 같아요.

Q : 작년이랑 비교해봤을 때 올 해는 어떤 거 같아?

A : 제 자리를 잡은 거 같아요.

Q : 마음이?

A : 한결 나아진 거 같아요.

Q : 할머니는 아프시니까. 근태 씨가 다 알아서 해야 하는데 아버님이 도와주시진 않나요?

A : 네

Q : 기초수급 나오는 거

A : 제가 할머니 밑에 있으니까 안 된다 해서 저만 따로 돌려놓고. 얼마 안 되는 거 같아요. 할머니 혼자 계시는 거.

(청소년 사례 6)

다른 대상자들은 가족관계에 있어 약간이나마 호전된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이전에 비해 사례 4와 사례 6은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례 4는 면접 첫해부터 현재까지 진로와 생활습관 문제로 부모와 지속적으로 갈등하고 있었으며 그 와중에 아버지가 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사례 6은 아버지가 가족을 외면한 상태인데 작년에는 동생마저 가족과 연락을 끊고 사라진 상황이다. 그러나 청소년 사례 6은 친족이외 가족과 같은 여자친구를 만나 많은 위안을 얻었다고 한다.

실제 가족관계가 악화되었음에도 심리적으로 안정된 것으로 보였다. 즉 대체로 면접대상자들은 학업중단 직후나 보호관찰직후보다 시간경과에 따라 심리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으며, 가족관계도 한층 성숙해진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가족이나 유사가족-새아버지, 여자친구-의 영향일수도 있고, 대상자 자신이 더 이상의 비행을 저지르지 않음에 따라 가족 내 긴장이 완화된 결과로도 보인다.

3. 보호관찰소의 지원현황 및 개선방향

1) 보호관찰소의 지원사업과 운영프로그램의 실태 및 효과성

보호관찰 청소년의 프로그램 참여나 제공되는 지원사업은 청소년을 담당하는 관찰관의 판단에 따라 일방적 지시를 통해 이루어진다(아래 보호관찰관 사례 4). 보호관찰소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과 운영되는 프로그램 중에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검정고시, 취업성공패키지, 멘토링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는 무엇보다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영역들에 관련된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들이다. 때문에 가장 많은 보호관찰의 자원이 투입되어 있으며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비율도 높다고 할 수 있다(아래 보호관찰관 사례 3). 특히 직업훈련 및 구직과 관련된 취업성공패키지와 허그지원프로그램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취업이 절실한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Q : 보호관찰소에서 애들이 제일 많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A : 일방적인 지시에 의한 참여이기 때문에. 하고 싶어? 하고 싶으면 들어가자 이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이 많아요. 이런 게 나이 어느 정도 차서 자기 자각이 있고 뭐 해먹고 살아야 되지 걱정되는 나이대의 애들이 허그 지원 프로그램에 참석하려 하더라고요.

Q : 취업성공패키지가 잘 구성되어 있나 봐요?

A : 이번 년도에 시작해서 작년까지 제가 그냥 모른 상태로 아이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따라가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사업 처음 들어보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하다 보니까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호관찰관 사례 4)

Q : 보호관찰 프로그램 중 아이들이 특히 많이 듣는 것은? 대충의 비율로 따졌을 때요...
검정고시?

A : 그렇죠..... 시즌이 되면....

Q : 그 다음(검정고시) 또 어떤?

A : 어....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면담확인 이외에 많이 하는 것 중 하나가 검정고시, 취업성공패키지, 법사랑 위원과 멘토링, 법사랑 위원 아까 말씀드린 데로 청소년 동반자를 법사랑 위원으로 지정해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죠.

Q : 그 세 가지 프로그램이 아이들이 많이 하는 것인가요?

A : 그렇죠. 그 세 가지에 많이 투입되죠.

(보호관찰관 사례 3)

보호관찰관 사례 6과의 면담내용은 지원사업이나 프로그램이 가지는 효과와 한계를 동시에 알려준다. 보호관찰소에서 운영하는 지원사업이나 프로그램은 엄밀히 말해 내용이나 효과에서 '고만고만'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보호관찰을 받는 청소년들에게 극적인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이나 지원사업을 꼭 집어서 말하기 힘들다. 프로그램을 받는 순간에는 뭔가 변화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향후에까지 청소년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프로그램은 많지 않다. 때문에 '5%의 청소년', 단 한명의 청소년만 변화시킬 수 있어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아래 보호관찰관 사례 6)

A : 고만고만한 거 같다. 애들마다 다 다르니까. 실패하는 게 대다수고. 성격이 다 다르다 보니 맞는 애들은 갑자기 탁 달라지고요. 그 순간에는 대부분 다 좋거든요. 프로그램 나름대로 전문가가 만든 거니까. 그 순간은 80 90 다 나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영향을 미치는지는 외부에서는 효과가 없다 할 수 있지만 저희가 볼 때는 100명 중에 5퍼센트만 되도(탈비행 해도). 그렇게 보면 효과가 있는 거 같아요. 작년에 진행했던 축구 프로그램도 효과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30명 모였는데 1명만 달라졌어요. 스포츠관련 학과 가겠다고 혼자 노력하는데 그 이후로 사고 안쳐요. 그렇게 프로그램 하나 해보면 달라지는 애들이 한 둘이 그냥 기대 안했던 애들이 생기거든요.

(보호관찰관 사례 6)

보호관찰에서 운영하는 지원사업과 프로그램이 모든 대상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보다 재범가능성이 높은 청소년들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간다(아래 보호관찰관 사례 5). 또한 청소년 개인의 특성과 그들이 처한 환경적 특성을 보호관찰관이 판단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거나 특정 프로그램에 배정할지 결정한다. 예컨대 학업을 중단한 상태인데 경제적으로 어려워 사비로

다니는 학원도 없는 청소년의 경우는 우선 지원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아래 청소년 사례 5). 때문에 면접대상자들마다 참여한 프로그램이나 받은 지원이 상이하다. 상대적으로 지원받은 바가 적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한 비율이 낮은 청소년들은 문제의 소지가 많지 않은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Q : 진로상담하고 공부방 했었네... 작년 면접 이후로 다른 거 받은 거 있어?

A : 제가 시간이 많으니까 무조건 저부터 불러요. 처음엔 싫다 했는데 막상 하라 해서 했는데 재밌긴 재밌어서.

Q : 어떤 거 했어?

A : 진로랑 비슷한 거 했어요. 뭐 게임하고 마지막에 피자랑 사주시고. 일주일 동안 받았어요. 질문하고 답 하는 거고. 무슨 진로였는데 그 방향이... 같이 (문제를) 풀어 보려 하면서 동영상 보여주고.

(청소년 사례 5)

Q : 어떤 학생은 프로그램 들은 바가 없다 하고 어떤 학생은 많은 프로그램 한다고 하는데 그런 차이는 어떻게 생기는지?

A : 보호관찰 프로그램이 재범가능성 높은 애들 중 10%를 선정해서 강점중심 사례관리 하는 겁니다. 카테고리 3개로 나눠서 취업, 검정고시, 기타 생활개선 나머지 공통 프로그램 적절한 프로그램에 포진시키고 순환시킵니다. 인터넷 프로그램, 가족취재도 하고 사례관리죠. 생활개선이 급히 필요한 애들이죠. 자원이 한정돼서 다 할 순 없죠. 학교 다니는 애들은 5시에 오니까 실제 프로그램이 힘들고 개들은 재범가능성이 낮아서 선택해서 하는 겁니다.

Q : 프로그램 안 들었다는 얘기는 큰 문제가 없다는 거겠네요

A : 그죠. 담당자 지도감독 등급을 낮추고 사고 나면 등급이 높아지는데 보호관찰관이 지속적으로 담당하죠.

Q :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대해 시큰둥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A : 예, 싫어합니다. 담당자가 가장 효과 있는 프로그램이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직업탐색이 실용적이니까(직업탐색을 많이 합니다). 막연히 요리사 되고 싶은데 소질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 하면 그 프로그램하면 자격증 줍니다. 자격증 따고 시작하니까

굉장히 실용적이죠.

Q : 직업탐색은 적성을 찾아주는 건지?

A : 담당자 나름... 직업적성검사, 교육도 하고. 간단한 프로그램이죠. 실제로는 다른데 지원 받습니다. 자격증 과정 개설하고, 취업박람회 데려가서 아르바이트 해서 취직 시킨 경우도 있고 직업체험도 시키고. 구경도 하고. 상공회의 밤날 초청해서 음식 먹고 사진 찍고 다양한 직간접 경험이 있죠.

Q : 위캔 스타트인가? 그런 게 있다던데 취업성공패키지.

A : 그건 개별신청이에요. ○○억 몇 층 가서 신청하면 1단계 면담하면 20만원 주더라. 2단계 카드 주면 학원 다니고. 그렇게 하면 이수확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1단계를 보호관찰소에서 하는 걸로 출석일에 상담일을 맞추면 100프로 통과되잖아요. 학원도 연결해주고. 업무협약을 맺은 거죠.

Q : 탈락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끝까지 못 들었던 애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A : 15명 했는데 그 중에 한 명 탈락했어요. 나머지는 다 이수했어요. 2단계는 학원인데 학원 잘 다니고 있더라고요. 운영의 묘를 잘 활용해야죠. 취업담당직원을 잘 유지 하면 이수확률이 높아지죠.

(보호관찰관 사례 5)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피교육자인 청소년들과 보호관찰관의 시각에 차이가 존재한다. 청소년들에게는 사회적 국가적 자원을 투입해서 지원해준 프로그램들 중에 도움 되는 것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날 만큼' 대수롭지 않은 경우도 있다(아래 청소년 사례 6) 물론 보호관찰관들도 청소년들이 경제적 지원 이외에 보호관찰소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이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달가와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면접대상자들을 보면 경제적으로 열악한 현실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나 자신이 원하는 진학을 위해 선택한 검정고시 학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둔 청소년들의 비율이 높다(아래 청소년 사례 4, 보호관찰 사례 4).

Q : 보호관찰 프로그램 중에 이게 제일 도움 됐다 하는 건 있나?

A : 기억이 안 나서 모르겠어요.

Q : 별로? 여기서 끝까지 받은 건 없고? 앞으로 이런 건 내가 받아보고 싶다. 이런 지원 받고 싶다.

A : 없어요. 그냥 제 스스로 하고 싶어요.

(청소년 사례 6)

Q : 취업성공패키지 했다는데?

A : 잘 안 나가서 잘렸어요. 나간 건 다 나갔는데 구인광고 해서 일 바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컴퓨터 분야 좋다고 했는데 면담자 잡아주고 그랬는데 안 나가서 잘렸어요.

Q : 무슨 일 하려 했었는데?

A : 자기 원하는 일 찾아서 바로 일 하라 그러는 거예요. 교육 받기 싫으면 학원 다니래요. 근데 저는 학원 잘 안 다닌다고

Q : 무슨 학원?

A : 컴퓨터 학원 말하는데 다니기 싫다니까 바로 일하라는 거예요.

Q : 기술 알려준다고 했는데 ○○씨가 싫다고 하니까 바로 일하라고 했는데 그거 안 나가서 잘린 거예요?

A : 네

Q : 심리 상담은?

A : 아뇨.

Q : 문신 제거는 안하겠다.

A : 네

Q : 의료지원은?

A : 없어요.

Q : 멘토링은?

A : 한 번도 안 해봤어요.

Q : 경제적 지원은?

A : 없는 거 같아요.

Q : 앞으로 받고 싶다 이런 건?

A : 생각해본 게 없어요.

(청소년 사례 4)

A : 프로그램 되게 많이 했어요. 허그 일자리 지원프로그램이라고 취업성공패키지 저희

가 시켜서 했었는데 그거 제대로 못해서 잘리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부족해서 프로그램 담당자들이 잘 제시하지 않았을지. 저도 좀 파악을 해봐야 할 거 같아요. 허그 일자리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너무 잘 안 나가고 태도도 안 좋고 해서 태도변경처분이 들어간 거거든요. 11월 달에 나와서 보호관찰 했으니까 지금까지는 아르바이트 한다고 어떤 지시를 하진 않았었거든요.

Q : 권유해서 한 거는 있다는 거죠? 완수는 못했고...

A : 그죠. ○○이가 보호관찰 끝낸 게 없거든요. 계속 변경이 되서 다시 오고 다시 오고. 보호관찰 기간 내에 끝낸 적이 없어서...

(보호관찰관 사례 4)

청소년 사례 1은 작년 면접에서도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이나 교육프로그램에 강한 거부감을 보였는데, 올해 면접에서도 검정고시 학원에서 받은 수업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러한 대상자의 불만표출은 물론 본인의 불성실을 방어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보호관찰관 사례 3에 따르면 실제 비행청소년끼리 악영향을 주고받을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다. 때문에 되도록 본인들은 개별면담이나 개별교육을 선호한다고 한다(아래 보호관찰관 사례 3).

Q : 작년에 보호관찰 상담도 받고, 대학생 형들하고 공부도 했다는데 다른 건?

A : 수강 이런 거. 재판 받아서 수강명령 떨어져서.

Q : 직업훈련 같은 건?

A : 받은 적 없어요.

Q : 그 외에 소개를 안 해준 거예요? 아니면 안하겠다고 한 거예요?

A : 잘 소개 안 해준 거 같은데~ 일단 들어가기 싫다고 했죠.

Q : 어떤 직업훈련이었지?

A : ○○이었나? 가라고 했는데 가기 싫어서 안 갔죠. 직업훈련소 가면 뭐하는데요?

Q : 본인의 희망, 적성을 상담을 통해서 알아내고... 교육도 받고 그런 거지. (전에) 상담이나 교육이나 일대 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A : 네 맞아요. 검정고시학원도 다녔는데 다 때려치우고 나왔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지네 나갈 대로만 나가고, 알려주지도 않고.

(중략)

Q : 받은 보호프로그램 중에 좋았던 것

A : 면담 담당선생님들 말하는 게 도움이 됐어요. 1:1 면담 받아 본 적이 거의 없다.

Q : 앞으로 받고 싶은 건?

A : 그냥 공부요. 멘토링 1대1 이런 거 받고 싶어요.

Q : 보호관찰 좋았던 거?

A : 그런 거 밖에 없어요.

Q : 이런 거는 별로였다 이런 거?

A : 그냥 귀찮은 거. 다른 사람도 다 그럴 거예요. 이게 집 앞에 있으면 아 좋네 하고 다닐 텐데.(웃음) 버스로 30-40분 걸리니까

Q : 이런 점이 좋아졌다 하는 점은?

A : 그냥 이런 프로그램....돈 받아가라(경제적 지원 프로그램)?

(청소년 사례 1)

A : 저라도 너무 싫을 것 같아요. 내 자식이 그런데 가면 너무 싫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뭔가 역동이 일어나서 내가 뭔가 배워야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면 다행인데... 그렇게 하려면 굉장히 잘해야 겠죠... 뭔가 훈련된 진행자가 해야겠죠.

Q : 심지어 공부도 여럿이 하는 게 싫다. 자기도 보호관찰 받고 있지만 다른 보호관찰 받는 아이들이랑 있는 것이 싫다고 하더라고요.

A : 싫어하는 사람 꽤 있죠. 아이들의 특성을 봤을 때... 제가 아이들을 모아놓고 법교육을 주로 하거든요... 처벌수위나 처벌과정 등에 관한 교육을 해요... 개별적으로 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비행경력이 십 몇 회, 보호관찰 경력이 5-6회인 아이들에게 모아서 교육해 봤자 어차피 효과가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눈 마주치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죠.

Q : 저는 이놈이 특이한가 생각했는데... 그럴 수 있겠네요.

A : 사람 마음이 비슷하겠죠. 아무리 죄진 친구들이지만 뭐가 좋겠어요? 때로는 무서운 선배가 있을 수도 있고....안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지역사회이기 때문이에요.

Q : 지역사회이다 보니까 선생님은 모르는 자기들의 커뮤니티가(있을 수 있다)... 그렇죠?

A : 안 좋은 것을 따지면... 그런 것이 있죠. 순작용도 있겠지만요... 조심 해야 돼요.

(중략)

A : 아이들이 여기 오기 전까지는 사고 치면 검찰청에서 경찰에서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와요. 부모가 돈이 있으면 또 다른 프로그램하고 여기까지 와요. 아이들이 저 많이 해봤어요 라고 말해요. 그래서 프로그램보다도 개별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뭉쳐놓으면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면 동네 아이들끼리 모여서 역효과가 나요. 더 비행관계가 넓어지고.... 어설픈 프로그램 하면 더 안 좋은 경우가 생겨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집단보다는 개별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보호관찰관 사례 3)

그동안 받은 지원이나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것을 질문한 결과, 청소년 사례 3도 청소년 사례 1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지원을 꼽았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입장에서는 지루한 교육이나 상담보다 돈이나 상품권과 같은 경제적 지원이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소에서도 경제적 지원 대상으로 가장 열악한 환경에 처한 대상자, 그 와중에 아르바이트도 할 수 없는 상황인 청소년들이 우선 고려대상이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문제의 소지가 많은 심각한 비행청소년들의 행동교정을 위한 보상책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아래 보호관찰관 사례 3).

Q : 혹시 보호관찰 선생님은 그대로신지?

A : 네

Q: 문신 같은 건 안한 거 잘했네. 앞으로 특별히 이때까지 보호관찰소에서 받았던 프로그램 중 좋았던 것은?

A : 돈이요

Q : 돈?

A : 상품권이요.

Q : 그거 받아서 뭐했어?

A : 그거 받아서 놀았을 거예요.

Q : 유흥비로(웃음)

A : 지금은 모르고 있어요.

Q : 앞으로 특별히 지원받고 싶은 건 뭐 이런 거 있어? 돈, 요리학원 빼고

A : 그런 거 빼고 없어요.

Q : 지금 제일 받고 싶은 게?

A : 요리사(요리학원).

(청소년 사례 3)

Q : ○○이 경제적 지원문제 말씀하셨는데.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지원자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선생님이 보시고 제일 어려운 아이들 위주로?

A : 그렇죠. 어려운 아이들...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 중에 본인 스스로 아르바이트 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좀 뒤로 빼요. 그런 애들은 뺄 수도 있고,.... 충분히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꽤 있죠.

Q : 조정을 하는 거네요.

A : 네, 그렇지만 급한 순서대로.... 교복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교복을 주고.... 조정을 하죠. 때로는 문제가 많을 때 그 아이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당근책으로 보상차원에서 지원을 주기도 해요. 어려운 아이들 주기도 하고,,모범적인 아이들에게 주기도 하고....

Q : 포상의 개념도 있는 거네요.

A : 네네... 여러 가지 함의가 있습니다.

(보호관찰관 사례 3)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있고 대상자의 특성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 운영자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면접내용을 보면 프로그램 자체보다는 운영자의 개성이 대상자와 잘 맞는 경우, 보다 성의 있게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노력이 있었던 경우, 청소년의 마음을 열 수 있었고, 반응도 좋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사례 3을 담당했던 보호관찰관 3의 말에 따르면 대상자는 청소년 지원사업을 통해 청소년 동반자를 만났으나 담당자가 바뀌자 프로그램을 거부했다. 또한 법사랑 위원의 경우, 청소년과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관계가 해지되었다. 두 가지 사례에서 드러난 바, 프로그램의 성공을 좌우하는 것은 프로그램 특성이 아니라 운영자 특성으로 보인다.

Q : 그럼 ○○는 어떤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었던 거 같으세요?

A : ○○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했어요. 거기서 청소년 동반자를 만났는데, 통보된 보고서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내용이 적혀있더라구요. 청소년 동반자 선생님과 많은 이야기를 했던 거 같아요. 근데 거기서도 계약직이어서 그런지 선생님들이 자주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하다가 중간에 선생님이 전근 가는 바람에 다른 선생님이 시작하게 되었는데, ○○가 다른 선생님과 하기 싫다고 했고, 그래서 그만하라고 했어요.

Q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것인가요?

A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두 개 기관 중에 하나일 거예요.

Q : 부처 간에 좋은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있으면 교환하면서 진행하시는 거군요.

A : 그렇죠. 그곳에서도 대상자를 구해야 하고, 우리는 아이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거니까요.

Q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도 일종의 멘토링 같은 거죠?

A : 네, 그렇죠. 그들은 다 석사 이상이에요. 상담선생님들이... 그런 사람을 채용해서 학교밖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학교밖에 있는 아이들을 구하려면 제도권에 있는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찾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쉽거나 보호관찰소를 끼고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죠. 저희가 설명회 하면 같이 교류하고 합니다.

(중략)

Q : 그럼 이런 거⁸⁾ 관련해서 상담이나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 애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라고... 안양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위탁의뢰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검정고시도 지원받고 상담도 받게 했는데... 본인이 상담을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어른하고 대화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검정고시만 지원받았어요. 그리고 법사랑 위원하고도 연결시켜 줬는데, 그 목적은 상담의 효과보다 경제적 지원이었어요. 한 달에 3-4만원 5만 원 정도 만날 때마다 그분들이 도와줄 수 있거든요. 이모삼촌결연이라고 해서 그런 타이틀로 진행됐는데.... 법사랑 위원 결연된다고 애들 중에 다 그렇게 지원 받는 것은 아닌데, 그거라도 받아라 했었는데.. 최근에 법사랑 위원한테 버릇없이 굴었는지... 법사랑 위원은 전화도 안 받고 불순하게 대하고 있다.... 법사랑 위원

8) 사례 3의 심리상담을 가리킴

도 고지식한 분이기도 한데... 이 아이는 잠결에 전화 받아서 그런 것이라 하고 하긴 하는데... 같이 가는 것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해지 시켰어요. 어차피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진로지도만 계속 하면 될 것 같아요.

Q : 태도가 전반적으로 시니컬했던 거 같아요. 자기 이야기 하는 것을 싫어하죠?

A : 자기 이야기 잘 안 해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반응이 있었어요. 선생님한테 자기 이야기 잘 안 해요.

(보호관찰관 사례 3)

멘토링 프로그램이 위의 사례 3과 같이 범사랑 위원이나 일반인 자원자들이 대상자를 만나 형이나 삼촌처럼 스스럼없이 대화를 나누고 경제적 지원까지 겸하는 경우도 있으나 아래(보호관찰관 사례 4)와 같이 상담전문가나 교사를 멘토로 지정하여 사실상 상담프로그램과 유사한 내용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1차년 연구와 2차년 연구를 보면 멘토링 프로그램이나 상담에 대해 긍정적이었던 학생들도 있는 반면 청소년 사례 6은 상담프로그램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갖고 있었다. 상담이 이 대상자에게는 ‘할 말 없는데... 얘기 들어주겠다 그러면서’ 귀찮게 물어보는 시간낭비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Q : 대상자에게 제일 효과적인 프로그램은?

A : 제가 많이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 멘토링.. 쓰고 있어요. 저보다는 편하니까 거기 가서 말해봐라 라는 의도에서 멘토링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Q : 멘토링과 상담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A : 상담명령은 법원에서 나와 있는 상담 명령...(근본적으로 상담과 멘토링이) 의미가 다른 거 같진 않은데...

Q : 상담은 전문가랑, 멘토링은 일반인들 중에서?

A : 저희는 멘토링을 상담전문가 분들에게 맡기는 경향이 있어요. 대학생 멘토링은 없어요. 학교 다니는 애들은 학교선생님을 지정 했고요. 선생님이 안 되는 애들은 상담센터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보호관찰관 사례 4)

Q : 멘토링 같은 건? 어떤 사람하고 짝지어 가지고 밥도 사주고 상담도 해주고 그러는데

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프로그램에 넣어놓으면 생각이나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아이들은 찾아갈 수도 있지만... 그게 다 때가 있어요. 그때를 좀 오래 기다려야 해요. 그래서 기다리거나 그 아이들 처지와 환경에 맞게 그때그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주입해야 할 것이.... 근데 그게 감각적인 건데... 지금 이야기를 해도 어떤 말을 안들을 때라는 것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동기가 없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하기에는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더러 별로 저는 제 나름대로 경험으로 하고 있습니다.

Q : 그러나 이런 프로그램이 있기는 있는 거죠? 진로지도나 진로상담?

A : 엄청 많죠. 고용노동부에 있는 취업성공패키지에 보내면 되거든요. 보내면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이 금전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뒷받침 다 되어 있죠. 그렇지만 제가 몇 년 전에 학교 그만둔 아이들 다 그쪽으로 보내봤거든요. 다 나가 떨어졌어요. 억지로 보내봤자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고용노동센터에 죄송하기도 하고, 조금이라도 의지나 동기가 있는 아이들을 깊이 있게 설득해도 될까 말까... 시기가 나이가 있거든요.

Q : 옆에서 잘 아는 사람이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A : 저는 이 아이들을 3년 이상 봤잖아요. 그럼 잘 알거든요. 그런데 담당자가 자주 바뀌면 시행착오를 반복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주요할 것이에요.

Q : 계속 붙들고 같이 가는 거요?

A : 그렇죠. 인사정책이 뜻대로는 안 되겠지만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하나를 구하는 거예요. ○○이나 ○○같은 아이요. 물론 그 아이들을 100프로 변화시킬수는 없지만 그건 제가 자부해요. 대한민국에서 너를 제일 잘 아는 어른은 부모 다음으로 나일 꺼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믿고 가는 거죠. 그렇게 3년 끌고 가면 동네가 변화되는 거예요.

(보호관찰관 사례 3)

앞서 언급했듯이 프로그램 운영자의 역량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자의 개성이 청소년과 얼마나 잘 조화되는가에 따라 프로그램의 효과는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보호관찰관 사례 5도 프로그램의 성공이 운영자의 역량에 따라 좌우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데 심지어 상담사의 외모조차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아래 보호관찰관 사례 5) 또한 청소년 사례 5와의 면담에서는 공감을 통해 상담사가 청소년의 진로 탐색에 대한 동기를 불어넣은 과정을 알 수 있다.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 부모갈등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등

에 관한 대화를 통해 청소년 사례 5의 마음을 열었고, 마침내 진로를 진지하게 고민해서 연기학원을 찾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Q : 나한테 이런 점이 도움이 되었다 하는 부분은?

A : 진로 쪽이 도움이 됐어요. 원래 할 마음이 없었는데. 평범하게 자격증 따고 대학 아무데나 나와서 살 생각했는데 꿈은 있었는데 실현을 못하는 것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자동차정비 할까? 자격증 딸까? 이게 안 되면 뭐를 할까 생각을 계속 했는데... 복잡해서 생각하기 싫어서 놀아버리고 집에 가서 생각나면 멍 때리고 있다가 제가 아는 초등학교 애들은 다 하고 싶은 게 있더라고요. 부서관 뭐 이런 거. 난 뭐해야 하지? 저랑 같은 꿈 가진 애들이 4명 있었는데 한 명은 이미 연습생이고 한 명은 저처럼 학원 다니면서 오디션 봤는데 잘 되진 않았는데... 연가시 이런데 엑스트라 식으로 나오고 한 명은 저처럼 학원을 다니고 있고 한 명은 밑바닥까지 내려갔고... 재네들도 하는데. 나도 못할 거 없잖아요.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자 생각하게 된 거 같아요. 무명시절은 다 십몇 년씩 가지고 있잖아요.

Q : 그런 결심을 하는 데 보호관찰이 역할이 있었던 거죠?

A : 진로 쪽엔 있었죠.

Q : 상담 받으면서 동기가 생겼나?

A : 상담 받으면서 바뀌었다. 처음에는 꿈을 포기하고 그냥 다른 사람처럼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 그거 하나만 보고 직장만 있고 결혼하고 결혼해서 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가지고. 한 번도 꿈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한 적 없거든요. 변호사 이런 거 말하고. 진짜로 제가 하고 싶은 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요번에 제대로 잡은 거 같아요. 한 번 해보자고.

Q : 어떤 점이 진로상담에 도움이 됐는지?

A : 상담사도 (상담사마다) 별개세요. 옛날 얘기도 하면서 가족사에 대해서도 말하시고 대부분 사고치는 사람이 부모님들 사이가 안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온전한데 사고치는 사람은 드물다 생각해요. 그런 얘기하다가 진로 얘기로 빠지더라고요. 저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선생님 때문에 검정고시 할 마음도 먹고. 계속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청소년 사례 5)

Q : 애들에게 공통적으로 효과가 좋은 프로그램은?

A : 직업탐색, 미술치료. 직업탐색은 잠재적 구직자죠. 무직자, 고3, 알바 학생도 있고. 직업상담사가 일주일에 2번 정도 와서 실제 체험, 캠프, 적성도 찾아보고. 소속감도 있고. 미술치료는 학생들이 처음에는 참여가 낮다가 전문 선생님 외모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선생님 역량이 그 프로그램을 좌우한다 생각합니다.

(보호관찰관 사례 5)

2)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선방향

보호관찰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중앙에서 만들어져 전국에 하달되기도 하지만 각 보호관찰소가 처한 환경과 보유한 자원 등에 따라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한 지역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효과를 거두면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기도 하는데 보유한 자원 즉 그 지역의 독지가나 학원이 후원을 허락하면 개별소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어 진행하기도 하는 것이다.

Q : 새로 개설되거나 확대했으면 하는 프로그램은?

A :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봐서(웃음) 그런 부분 항상 고민하죠. 지도하다보면 한계에 부딪치고 이럴 때 이게 좋을 거 같다 그건 이거 때문에 안 될 거 같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Q : 프로그램이 어떻게 개발되나?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겠죠.

A : 본부에서 개발이 되고요. 진행될 때까지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하고 의견을 들어서 보내주거든요. 일선에서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겠냐 아니면 우리 생각은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일선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다. 비슷한 걸 해봤는데 효과가 있었다. 개별소에서 진행을 하기도 한다. 애들은 항상 모여 있으니까. 예를 들어 지역상 어쩔 수 없는 강원도는 나가서 농촌체험 해봤다든지 비슷한 걸 운영해보고 데리고 나서 운동을 해봤다든지. 생각이 있는 분들이 하는 경우도 있다. 개별상담 해보자. 외부전문가에게 맡겨보자. 그래서 진행을 해보죠. 해보고 효과 있으면 자체적으로 확대해서 진행하고. 잘 됐을 때는 이런 프로그램 해보니 괜찮더라 그렇게 되면 전국에 다 퍼져서 의견 들어보고 대표기관 지정해서 하고. 반대로 공부해서 해보면 어떻겠느냐도 하구요.

Q : 돈이 필요하지 않나?

A : 안 들어가는 건 없죠. 찾아보면 뜻있는 분들이 많아요. 지역 내 분들이 지원하기도 하고 윗분들이 역량으로 많은 돈들을 연결하거나 해서 지원을 받기도 하고요. 간단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작년에는 학원 알아보고 했었는데 취업성공패키지라고 있는데 기간이 면담이 세 달씩 걸려서 애들도 힘들어하고 탈락률도 높아서... 학원 가보면 호의적인 곳이 꽤 있어요. 주변 독지가들 알아보고, 지원해 준다 하면 성사되는 거고. 학원은 깎아주겠다 여기는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지원되기도 하고. 원래 있었던 사업이지만 개별소에서 도장을 받아서 하도록 하고.

(보호관찰관 사례 6)

새로 개설되거나 증설되었으면 하는 프로그램을 질문했을 때, 보호관찰관 사례 4의 경우는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이 보다 활성화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비쳤다. 앞서 언급했듯이 프로그램 중에서도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이 가장 높는데, 실질적으로 지원금 부족으로 인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한다고 한다.

Q : 개설, 증설되었으면 하는 프로그램은?

A :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다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열 몇 개 정도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새로 개설 돼야 한다고 생각한 프로그램은 없는 거 같아요.

Q : 활성화 되면 하고 싶은 건 없나요?

A : 허그 일자리 지원이 법무복지공단과 연계돼서 하는데 지원금이 부족해서 지원하는 아이들을 다 보내지 못하고 있어요. 지원자가 이번에 있었는데 한번 참여하지 못했던 아이들이 있거든요. 연계를 해서 다음에 자리 생기면 돌려나가겠다. 지원금도 많이 내려왔고 도움 많이 될 수 있을 거 같다 해서 아이들에게 홍보 했는데 막상 참여를 못하니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 같아요.

Q : 금전적인 지원도 많이 되고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거죠?

A : 금전적인 지원도 되고 취업에 나아갈 길이 제가 알고 뭔가 여기 가봐라 할 수 있는 자원이 없어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아이는 있는데 해줄 수 있는 자원이 없다보니 그런 걸 통해서라도 조금 정보를 주고 싶은 생각은 늘 가지고 있죠.

(보호관찰관 사례 4)

한편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면접대상자 중 유일한 보호자인 사례1과의 면접에서 드러난 바, 3회에 걸쳐 회당 2시간 정도의 어머니 교실 프로그램 강의를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수업위주의 일회 단기교육으로 눈에 띄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였다. 부모들이 가족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지만 일단 참여하기만 하면 자녀들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때문에 보호관찰관 사례 5는 가족 프로그램의 확대·실시와 더불어 담당 보호관찰관의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Q : 어머니가 참여한 프로그램 있는지?

A : 분류심사원 갔다 오면 어머니 교실 프로그램 강의 듣고 그런 건 참여했어요. 그런데 따로 뭐 하는 건 없었어요.

Q : 뭘 강의하는지?

A : 아이들 대하는 법, 아이와의 대화법, 아이들이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강의하는 사람의 경험담. 뭐 이런 거. 그런데 적어 와서 써먹어 봤는데 성향이 틀려서 그런지 안 먹히는 게 많았어요.

Q : 얼마나 했나요?

A : 3회. 한번 가면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정도. 쉬는 시간도 있었던 거 같고. 되게 많았어요. 나이 드신 분들도 많고, 제일 제가 어린데, 애도 일찍 나서

(보호자 사례 1)

Q : 새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프로그램은?

A : 저는 가족 프로그램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초기면담 때만 부모님 오시고 마지막 캠프나 함께할 수 있는 거만 오시면 되니까. 그런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싫어합니다. 가족 건드려서. 근데 하면 또 애가 변합니다. 가족이 문제시 되는 게 대부분이니까. 시작이 거기니까 프로그램도 그걸로 하면 되더라고요. 참여율이 굉장히 낮아요. 담당자가 관리를 못해서 그래요. 부모님 면담도 하고 학생 면담해서 모집을 잘 해야 하는데, 꼭 필요할 때 부모님 모셔야하는데, 작년에는 부모님 한 명 왔더라고요. 참여자는 만족도가 높는데 소수가 참여해서 문제다. 면담하면 올 수 있는데 마지막 1박 2일 캠프 가는데 대중교통 있으니까. 결손이든 뭐든 일반적인 가정에서도 문제 있는 경우 있잖습니까. 마지막은 놀러

가는 겁니다. 펜션 다 잡아주고, 여름휴가 이 때 쓰면 되잖아요. 그분들도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대부분은 설명하면 넘어옵니다. 대신 담당자가 관리하기 힘들죠.

(보호관찰관 사례 5)

가족프로그램은 보다 많이 개설되어야 할 프로그램이지만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비율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검정고시, 취업성공패키지, 멘토링 중에서 멘토링의 경우는 멘토의 총원자체도 부족하고 자질을 갖춘 멘토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멘토를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일선 보호관찰소의 고충이라고 할 수 있다(아래 보호관찰관 사례 5)

A : 멘토를 지정해주면 어느 정도 잘되는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자기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 유지가 되잖아요. 자기 멘토가 있으면 행동 변화가 있고 발전이 있더라구요. 보호관찰소에서는 멘토 지원해주면 그나마 개선 될 수 있다 생각해요.

Q : 멘토 지원 잘 안 된다 하는데...

A : 많이 힘들죠. 보호관찰소마다 사정이 다르죠. 잘 활성화 된데도 있고 실제 회비만 내고 안 나오는 분도 있고 그렇다고 강제로 할 수도 없고. 총원 중에 멘토하는 분이 작거든요. 보호관찰소가 컨트롤해서 실제 범방위원들이 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보람을 느끼도록 해야 할 거 같아요.

Q : 멘토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거죠?

A : 양은 많은데 실제로 할 사람을 많이 찾기 힘들죠. 멘토 발대식은 최소 5명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돼서 못하고 올해 개별적으로 2명 지정했고요. 중간에 또 임원도 바뀌고. 내일도 한 명 할 거고. 위촉장 쫓더니 안 나타난 분들도 계시고.

Q : 멘토마다 다를 거 같은데

A : 담당자가 하고 싶단 위원님들 평을 좀 듣죠. 연세 많고 옛날에 위원 하셨을 때 강압적으로 지도해서 반응이 안 좋았다 하는 분은 지정 안하고. 젊고 좀 학생하고 맞는 그런 부분 신경 씁니다.

(보호관찰관 사례 5)

보호관찰소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청소년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청

소년과 관련된 학교, 보호관찰소, 지자체가 연계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의견도 있다(아래 보호관찰관 사례 5).

A : 지자체도 (청소년)관련부서 있어요. ○○구청 관내에 저소득층 자녀 40명 뽑아서 ○○캠프 보낸다 해서 (보호관찰소와) 같이 하자 요청했어요. 나름 노력하는데 직접적인 노력은 안하는 것 같아요. 저소득층 관리 팀이 있는데 사례 관리는 따로 한다고. 보호관찰소보다는 지자체 연계하는 게 훨씬 효과 있어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신경 쓰는 학생들이 있고.. 지역 내에서. 학교, 지자체, 보호관찰소 연계하면 지속적인 관리가 되는데 아버지도 교도소 가고 애 둘도 소년원 가고 하는데 애 둘은 ○○구청에서 케이스 관리한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구는 있고, ○○구는 하려고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복지지원과 인가... 그런 부서들과 연계가 된다면 훨씬 효과가 있겠죠.

(보호관찰관 사례 5)

3) 보호관찰관의 역할 개선방향

보호관찰 기간 동안 담당보호관찰관은 청소년이 재범행에 빠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청소년의 장래를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진로 지도 등을 제공하므로 보호관찰기간뿐 아니라 향후 장래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 운영자와 마찬가지로 보호관찰관 개개인의 특성이 청소년 개개인의 특성과 조화되는 경우도 있고, 조화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관심과 보살핌의 강도도 보호관찰관마다 다를 수 있다. 때문에 어떤 보호관찰관을 만나느냐에 따라 청소년들이 극적으로 변화될 수도 있고, 보호관찰의 경험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A : 보호관찰 특별한 점이 담당자가 사람이다 보니까 다 달라요. 어떤 담당자는 학생에게 장학금 주고 대안학교 소개해주고 계속 케어하는데 어떤 사람은 제재 조치를 하죠. 대신 규정 넘지 않은 선에서. 여자 직원이 많거든요. 여자라고 다정하게 보살피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은 아들같이 동생같이 관리하고. 어떤 직원은 엄한 조치하죠. 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많이 하고 강의 시키는 편인데 손이 많이 가요. 전화하지, 혼내지 해서 노력이 많이 들어 꺼려하죠. 업무가 반으로 줄어들면 다양한 처우를 시도하겠죠. 편한 직업

은 아니니까. 업무가 과중해서.

Q :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것도 복이네요.

A : (학생들이)다른 담당자로 옮겼으면 좋겠다 해서, 성격이 안 맞는 경우도 있고.

(보호관찰관 사례 5)

보호관찰관은 법원의 처분에 따라 청소년이 재범을 일으키지 않도록 감독하고, 필요에 따라 제재를 가하기도 하지만 학교의 교사와 같이 청소년을 지도하고 상담사의 역할도 아울러 겸한다. 아래 면접내용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청소년의 진로를 상담하고 이끌어 주는 것도 보호관찰관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다(아래 보호관찰관 사례 3). 평소 옆에서 늘 청소년들을 관찰하고 신뢰관계를 쌓아온 보호관찰관이 청소년의 적성과 욕구를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진로지도에 적격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보호관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Q : 많이 참여하는 것과 별개로 계장님 개인적으로 아이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A : 아이들에게 진로에 대해 꿈을 찾아주려고 하고 있어요. 목표가 있는 아이들은 빨리 돌아오거든요. 한 사람당 한 가지씩... 1인 1과제를 하자고 해요. 검정고시든 알바든 직업 훈련이든 무엇이든 한 가지씩 하자.... 그리고 인생의 그림을 한번 그려줘요... 칠판을 가져와서 군대는 언제하고 졸업은 언제하고 등등 그래프를 한번 그려요.

Q : 제가 이해하기로는 특정프로그램보다는 보호관찰선생님들이 평소에 아이들과 진로 상담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A : 저는 다른 외부에 프로그램을 의뢰하는 것에 대해선 필요한 경우에는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보호관찰)담당자와 대상자하고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호관찰)담당자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보호관찰관 사례 3)

보호관찰관이 청소년들의 교사이자 상담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인사발령에 따라 일 년에 한두 번씩 교체되는 것은 다반사이다. 잦은 보호관찰관의 교체가 가지는 문제는 청소년에서부터 담당 보호관찰관, 기관장에 이르기까지 관계자들 모두

가 인식하고 있는 문제이나 면접내용에서도 나타난 바, 전자발찌나 성인 보호에 비해 소년보호는 상대적으로 경시되고 있는 현실이라 인력의 누수도 많다고 한다(아래 보호관찰관 사례 3). 보호관찰관 사례 3의 표현대로 ‘제일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또 바뀌었어요?’라는 말이라고 할 만큼 청소년들도 잦은 담당자 교체를 싫어한다. 한 지역을 오래 담당하는 경우, 지역 비행청소년들의 관계망을 파악하고 있으므로 지도감독의 용이성도 높아짐은 물론이다. 때론 담당보호관찰관의 지도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 교체를 반기는 청소년도 있었으나 1차년도와 2차년도의 심층면접에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선생님이 바뀌지 않았으며 좋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Q : 저도 면접 전에는 보호관찰분들이 그렇게 자주 바뀌는지는 몰랐어요. 보통 1년 사이에 2번 정도 바뀌더라고요.

A : 저는 특이하게 3년 동안 한 지역을 담당한 것이... 거의 없을 거예요.

Q :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인사가?

A : 제가 요청을 했어요. 저도 갈 때가 됐는데... 제가 지금 가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이제 씨를 뿌렸잖아요. 열매를 거둬야 하는데 열매를 거두긴 했지만....아이들을 두고 가기가..

Q : 계장님처럼 계속 있게 해달라는 분들이 왕왕 있으신가요?

A : 소에서 탄 부서로 옮길 수도 있고, 탄 데로 전출갈수도 있죠. 소에서 탄 데로 갈 때 주임님들이나 과장님들이 가라고 하면 가야 하지만. 저는 주무계장이다 보니까 “남아있겠습니다” 하면 남아 있을 확률이 많죠. 이런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Q : 그럼 어느 정도 직급이 되어야지 요청을 해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A : 그렇죠.. 지금 여기가 당장 급한데... 누가 육아휴직을 들어가거나 그러면 가져다 써야 하니까... 그리고 소년 보호관찰이 만만해요. 인력을 빼다 쓰기가... 왜냐면 전자발찌는 나름대로 위험도 있기 때문에 쉽게 못 빼가지만 소년보호관찰은 쉽게 인력을 빼다 쓰기가 편해요. 자주 바뀔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대체인력을 구할 수 있는 경우도 아니고... 기관장님들도 가급적이면 인력을 홀트리키 않고 하려고 노력하시죠. 담당이 바뀌면 아이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아이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제일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또 바뀌었어요? 라는 말이에요. 다시 그 아이들의 마음을 얻고, 공감을 하고, 하려면 3-6개월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하려는 게 쉽지 않겠죠.

A : 팀원들이랑 이야기를 많이 해요. 상당히 난해한 케이스나 이런 거요... 케이스바이 케이스니까요.. 팀원들과 소통을 많이 하려고 해요.

(보호관찰관 사례 3)

4. 소결

심층면접을 통해 지난 3년간 청소년의 생활·심리 변화와 정책지원실태 및 개선방향에 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보호관찰 청소년 및 보호관찰종료 청소년 6명, 보호자 1명, 보호관찰관 5명을 심층면접 하였다. 먼저 청소년들의 생활과 심리변화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은 사실상 아르바이트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할 수 있다. 흔히 청소년의 아르바이트는 ‘청소년 인권침해’ ‘불법고용’ 등의 부정적 단어와 연관되지만 학업을 중단한 비행청소년들에게 아르바이트만큼 중요한 영역은 없었다. 심층면접에 응한 청소년 대부분의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청소년 본인들은 이미 여러 차례 퇴교와 복교를 반복해왔으므로 이들에게 학교는 동경이나 회한의 대상일 뿐 현실과는 동떨어진 존재였다. 때문에 부모님에게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 용돈을 벌면서 일상에 규칙성을 부여해주는 노동활동이야말로 하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일과라고 할 수 있다. 보호관찰관들도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재비행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었으며 보호관찰소도 연령이 높은 청소년에게는 직업훈련이나 직업소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었다. 물론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유흥에 쓰는 비율도 높아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 재비행을 저지르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2년 전 심층면접 당시, 육체적으로 고되거나 위험한 노동현장에서 일하는 청소년이 대부분이었던 반면 현재는 면허를 취득하거나 꾸준히 한 가지 일에 종사하면서 숙련도가 생긴 경우,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에서 일하는 청소년들도 있어 이들에게는 경제적 안정과 자존감을 동시에 갖게 해주고 세상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자리매김한다는 점에서 청소년 노동 및 직업교육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심층면접에서 만난 청소년 대부분 진로를 위한 계획이 지지부진하였고 실행의 지도 약하였다. 올해 심층면접에서 만난 대상자들 중 어느 한명도 정규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없었다. 청소년들 대부분이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직업을 탐색하고 있었다. 그러나

무엇을 하던지 대부분은 장래계획이 추상적이었고 학원이나 직업훈련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1년차와 2년차 면접 당시, 고등학교 입학이나 직업훈련 이수와 같은 계획을 밝혔으나 면접자에게 밝힌 대로 계획을 달성한 사례는 없었다. 올해 그들이 밝히는 미래 계획 또한 실현의지가 높아보이지는 않았다. 당장 돈이 벌리는 아르바이트는 열심히 할 수 있지만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은 이들에게 매우 어려운 일로 보였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불성실은 일찍부터 보호자의 방임 혹은 부재에 기인한 탓도 있다.

셋째, 지난 3년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의 심리와 관계는 안정화 되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체념 반 타협 반의 관계로 변화되어 가는데 체념을 통해 자녀와의 갈등이 완화되기도 하고, 부부사이가 복원되거나 새로운 가족, 여자친구가 생기면서 청소년들이 심리적 안정을 얻기도 하는 등 대체로 면접대상자들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심리적으로 안정되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은 가족관계에 기인하는 경우도 있으나 반대로 이들의 안정된 모습이 가족관계를 복원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적인 측면이 있다. 즉 청소년 초기 질풍노도 같은 시기가 지나면서 비행도 잦아들고 비록 복교는 하지 못했으나 직업을 구해 자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부모자녀관계도 원만해진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정책지원현황 및 개선방향에 관해 조사하였다. 보호관찰소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과 운영되는 프로그램 중에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검정고시, 취업성공패키지, 멘토링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영역들에 관련된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이자 가장 많은 자원이 투입되어 청소년의 참여율도 높다. 특히 직업훈련 및 구직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취업이 절실한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보호관찰소에서 운영하는 지원사업 프로그램을 통해 다수의 청소년들이 극적으로 변화되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보호관찰에서 운영하는 지원사업과 프로그램이 모든 대상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보다 재범가능성이 높은 청소년들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간다. 또한 청소년 개인의 특성과 그들이 처한 환경적 특성을 보호관찰관이 판단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거나 특정 프로그램에 배정할지 결정한다. 때문에 면접대상자들마다 참여한 프로그램이나 받은 지원이 상이하고 각자가 느끼는 효과도 천차만별이다. 어떤 청소년에게 좋은 프로그램이 어떤 청소년에게는 그저 귀찮고 성가신 기억으로 남아있기도 하다. 즉 경제적 지원을 제외하고는 다수의 청소년이 공통적으로 선호하는 지원사업이나 프로그램은 없다.

고 볼 수 있다.

프로그램의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자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프로그램 자체보다는 운영자가 얼마나 청소년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양질의 멘토나 상담사 등 자원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보호관찰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중앙에서 만들어져 전국에 하달되기도 하지만 각 보호관찰소가 처한 환경과 보유한 자원 등에 따라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한 지역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효과를 거두면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기도 하는데 보유한 자원 즉 그 지역의 독지가나 학원이 후원을 허락하면 개별소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어 진행하기도 하는 것이다.

심층면접에서 보호관찰관들이 밝힌 바, 새로 개설되거나 증설되었으면 하는 프로그램으로는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교육프로그램이 있었다. 또한 보호관찰소와 학교, 지자체가 연계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비행청소년을 돌보는데 가장 이상적 모델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담당보호관찰관은 청소년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상담과 각종 정보제공을 통해 보호자 다음으로 청소년의 장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면접에서 보호관찰관이 밝힌 바, 늘 청소년들을 관찰하고 신뢰관계를 쌓아온 보호관찰관의 역할이 어떤 멘토나 상담사의 역할보다 중요하므로 보호관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소년보호관찰관의 잦은 교체를 지양하고 보호관찰관 일인이 담당하는 청소년의 수를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역량강화를 위한 재교육도 병행되어야 한다. 소년보호에 배치되기 전이나 업무수행 중에도 청소년학, 심리학 등의 관련 학문에 대한 재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제 V 장

보호관찰대상 학업중단 청소년의 비행지속과 비행중단

1. 비행의 지속 및 중단
2. 재비행의 요인
3. 비행의 발전
4. 소결

제 V 장

보호관찰대상 학업중단 청소년의 비행지속과 비행중단⁹⁾

1. 비행의 지속 및 중단

비행의 지속 및 중단에 대한 분석을 위해 종속변인으로서 비행의 유형을 크게 지위비행, 중비행,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된 공식기록범죄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위비행은 ‘담배 피우기’, ‘술 마시기’, ‘음란물 보기’ 가운데 하나라도 경험이 있는지 여부로 측정하였고, 중비행은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남의 돈이나 물건 뺏기’, ‘돈내기(도박)’, ‘공공장소에 있는 기물이나 물건 파손하기’, ‘약물(본드) 흡입’ 등 재산·폭력·약물비행 중에서 하나라도 경험이 있는지 여부로 측정하였으며, 공식기록범죄는 ‘폭력’, ‘절도’, ‘강도’, ‘약물’, ‘교통범죄’, ‘기타범죄’ 중에서 하나라도 저지른 경우로 측정하였다.

1) 지위비행

먼저 지위비행을 살펴보면, 보호관찰대상 패널 167명 가운데 1차 조사 때부터 3차 조사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위비행을 저지른 경험이 있는 비율이 80.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 1차 조사 때부터 3차 조사 때까지 지위비행의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는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 이 장은 박성훈 부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김지영 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표 V-1>

지위비행의 지속 및 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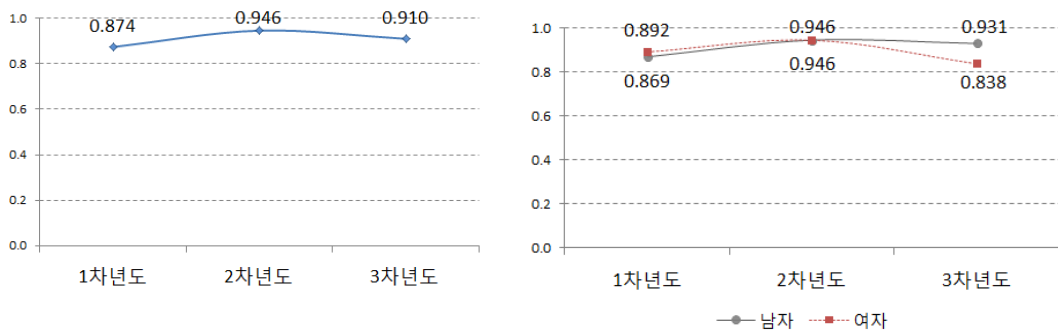
(단위: 명, %)

1차 조사	3차 조사		경험 없음	경험 있음	계
	2차 조사				
경험 없음	경험 없음	2 (1.2)	3 (1.8)	5 (3.0)	
	경험 있음	3 (1.8)	13 (7.8)	16 (9.6)	
경험 있음	경험 없음	3 (1.8)	1 (0.6)	4 (2.4)	
	경험 있음	7 (4.2)	135 (80.8)	142 (85.0)	
계			15 (9.0)	152 (91.0)	167 (100.0)

각 조사시점에서 지위비행의 비율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차년도 87.4%, 2차년도 94.6%, 3차년도 91.0%로 2차 조사 시점까지 증가하다가 3차년도에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지위비행의 경향을 성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남자는 1차년도 89.2%, 2차년도 94.6%, 3차년도 93.1%인 반면에 여자는 1차년도 86.9%, 2차년도 94.6%, 3차년도 83.8%로 남자에 비해 지위비행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따라서 전체적인 지위비행의 경향이 다소 낮아진 이유는 여자의 지위비행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지위비행의 변화(1차년도~3차년도)



【그림 V-1】 지위비행의 변화추이 (N=167)

1차 조사부터 3차 조사까지 지위비행의 변화를 패널분석을 통해 각 개인별로 지위비행의 초기값과 변화량의 차이(random effect, 임의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기저모형(base-line model)을 토대로 검증한 결과, 각 개인별로 초기값의 차이, 즉 기울기의 분산(u_{1j})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25.56, p<0.01$). 전반적으로 보호관찰대상 학업중단청소년의 지위 비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증가경향은 각 개인마다 차이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절편의 분산(u_{0j})은 거의 없어, 지위비행의 초기값이 개인마다 다르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 지위비행의 변화에 대한 패널분석 결과

	계수값	오즈비	z값
fixed effect			
상수(γ_{00})	0.878		1.74
패널차수(γ_{10})	1.805	(6.08)	3.30 **
random effect			
절편의 분산(u_{0j})	0.000		
기울기의 분산(u_{1j})	1.820		
LR test vs. logit : $\chi^2(2)$	25.56***		
N of obs	501		
N of groups	167		

** $\alpha.01$, *** $\alpha.001$



【그림 V-2】 지위비행의 개인별 변화추이 (N=167)

2) 중비행

다음으로 중비행을 살펴보면, 보호관찰대상 패널 167명 가운데 1차 조사 때부터 3차 조사 때까지 지속적으로 중비행을 저지른 경험이 있는 비율이 9.6%로 나타났다. 반면, 1차 조사 때부터 3차 조사 때까지 중비행의 경험이 전혀 없는 비율은 35.3%로 3분의 1가량이 중비행을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1차 조사 때 중비행을 저질렀으나 2차 조사, 3차 조사에서는 중비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8.0%, 1차 조사, 2차 조사 때 중비행을 저질렀으나 3차 조사에서는 중비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1.4%로 1차 조사 혹은 2차 조사 때와 달리 3차 조사에서 중비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29.4%) 역시 3분의 1정도 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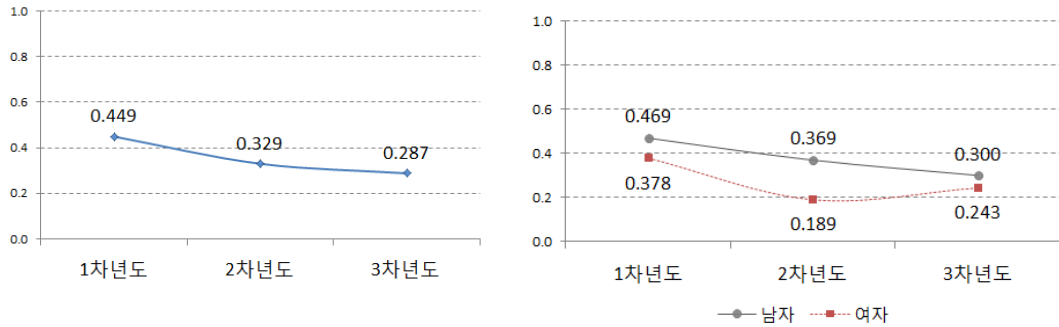
<표 V-3> 중비행의 지속 및 중단 (단위: 명, %)

1차 조사	3차 조사		경험 없음	경험 있음	계
	2차 조사				
경험 없음	경험 없음		59 (35.3)	13 (7.8)	72 (43.1)
	경험 있음		11 (6.6)	9 (5.4)	20 (12.0)
경험 있음	경험 없음		30 (18.0)	10 (6.0)	40 (24.0)
	경험 있음		19 (11.4)	16 (9.6)	35 (21.0)
계			119 (71.3)	48 (28.7)	167 (100.0)

각 조사시점에서 중비행의 비율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차년도 44.9%, 2차년도 32.9%, 3차년도 28.7%로, 지위비행과 달리 1차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만, 감소폭은 1차 조사에서 2차 조사(12.0%)의 감소율에 비해 2차 조사에서 3차 조사(4.2%)의 감소율이 더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중비행의 감소경향을 성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남자는 1차년도 46.9%, 2차년도 36.9%, 3차년도 30.0%인 반면, 여자는 1차년도 37.8%, 2차년도 18.9%, 3차년도 24.3%로 전체적으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중비행을 더 많이 저지르는 경향이 있으나, 여자의 경우 2차년도 이후 3차년도에서는 중비행이 오히려 증가하여 남자와의 차이가 1차년도와 2차년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비행의 변화(1차년도~3차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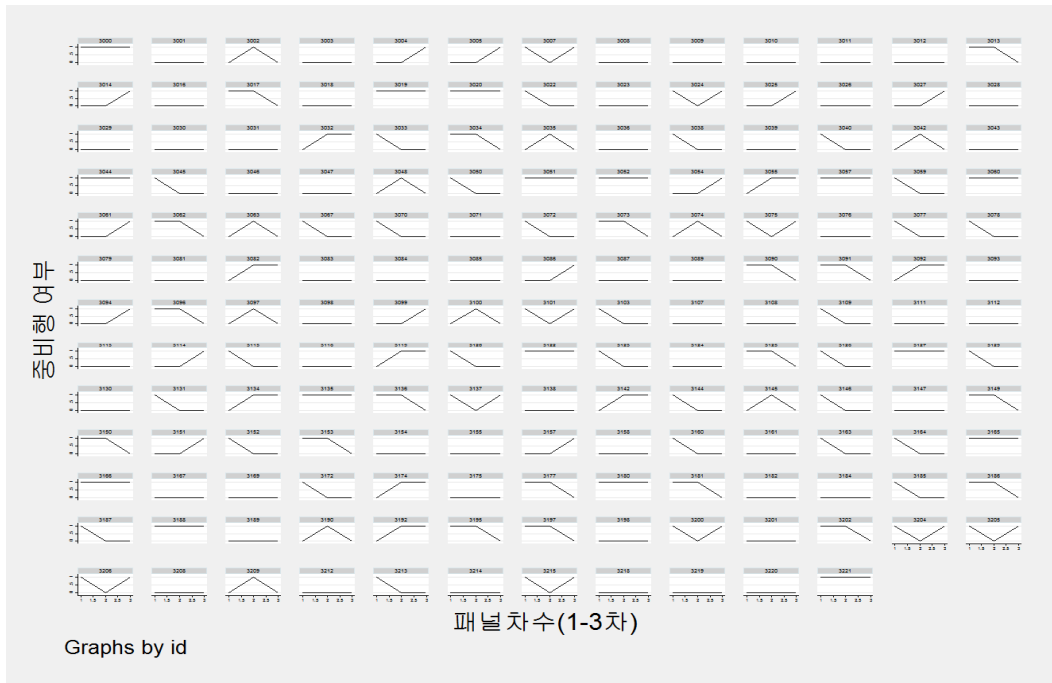
【그림 V-3】 중비행의 변화추이 (N=167)

중비행의 경우에도 1차 조사부터 3차 조사까지 패널분석을 통해 각 개인별로 중비행의 초기값과 변화량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지위비행과 달리 절편의 분산(u_{0j})과 기울기의 분산(u_{1j}) 모두 통계적으로 개인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20.74, p<0.01$). 즉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이 저지른 중비행은 조사의 시작시점에서는 물론 이후 중비행의 감소에 있어서도 개인별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V-4> 중비행의 변화에 대한 패널분석 결과

	계수값	오즈비	z값
fixed effect			
상수(γ_{00})	0.246		0.78
패널차수(γ_{10})	-0.543	(0.58)	-3.12 **
random effect			
절편의 분산(u_{0j})	0.951		
기울기의 분산(u_{1j})	0.187		
LR test vs. logit : $\chi^2(2)$	20.74***		
N of obs	501		
N of groups	167		

** $p<0.01$, *** $p<0.001$



【그림 V-4】 중비행의 개인별 변화추이 (N=167)

3) 공식기록범죄

공식기록범죄의 경우 보호관찰대상 패널 167명 가운데 1차 조사 때부터 3차 조사 때까지 지속적으로 중비행을 저지른 경험이 있는 비율은 7.6%로 나타났다. 1차 조사 이후 2차 조사까지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나 3차 조사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4.4%로 나타났다. 반면에 1차 조사 이후 3차 조사 때까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비율은 57.0%로, 절반 이상이 보호관찰을 받은 이후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차 조사 때는 범죄를 저질렀으나 3차 조사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비율도 31.0%로, 2차 조사 이후 3분의 1가량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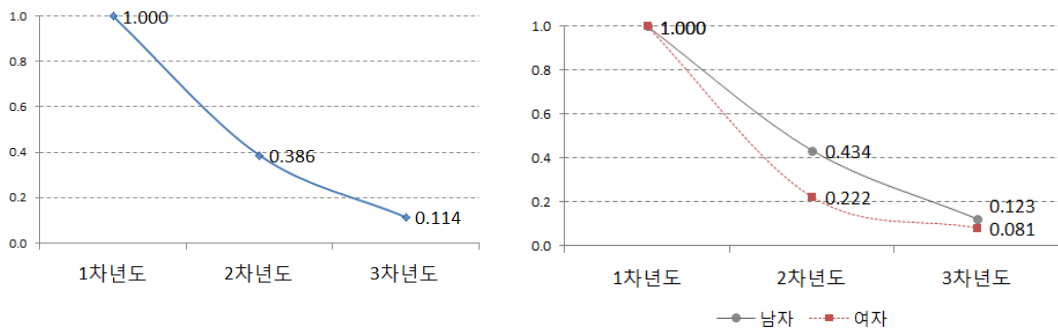
<표 V-5> 공식기록범죄의 지속 및 중단

(단위: 명, %)

1차 조사	3차 조사		경험 없음	경험 있음	계
	2차 조사				
경험 있음	경험 없음		90 (57.0)	7 (4.4)	97 (61.4)
	경험 있음		49 (31.0)	12 (7.6)	61 (38.6)
계			139 (88.0)	19 (12.0)	158 (100.0)

지난 3년 동안 공식기록범죄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1차 조사에서는 모든 조사대상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보호처분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비율이 100.0%이지만, 2차 조사에서는 보호관찰기간 중 새롭게 범죄를 저지른 비율이 38.6%, 3차 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11.4%로 크게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공식기록범죄의 변화(1차년도~3차년도)



【그림 V-5】 공식기록범죄의 변화추이 (N=1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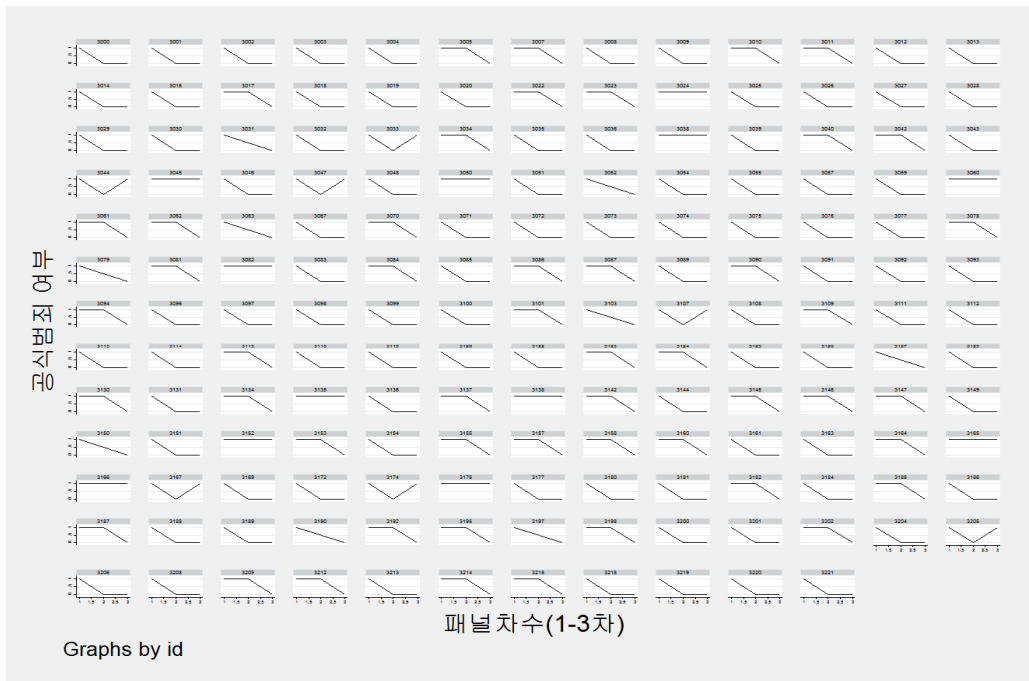
공식기록범죄의 변화추이에 대한 개인 간 차이를 검증한 결과 역시 통계적으로 각 개인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9.79$, $p<0.01$). 따라서 중비행과 마찬가지로 공식기록범죄 역시 전반적으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이러한 감소경향은 각 개인마다 차이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공식기록범죄는 조사시점에서 모든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후 보호관찰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절편의 분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공식기록범죄의 감소 경향은 개인 간 차이가 뚜렷하다고 볼 수 있다.

<표 V-6> 공식기록범죄의 변화에 대한 패널분석 결과

	계수값	오즈비	z값
fixed effect			
상수(γ_{00})	7.937		8.22 **
패널차수(γ_{10})	-4.122	(0.02)	-8.00 **
random effect			
절편의 분산(u_{0j})	0.000		
기울기의 분산(u_{1j})	0.775		
LR test vs. logit : $\chi^2(1)$	19.79**		
N of obs	492		
N of groups	167		

** $\alpha.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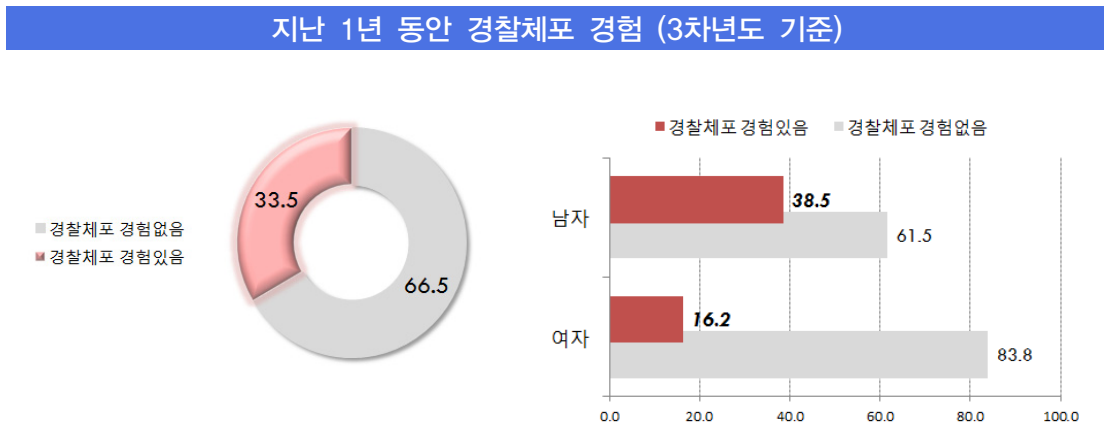


【그림 V-6】 공식기록범죄의 개인별 변화추이 (N=167)

4) 지난 1년 동안 경찰체포 경험

이번 연구의 조사대상인 보호관찰대상 학업중단청소년의 경우 상당수가 최장 2년 장기보호관찰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보호관찰기간이 연장되거나 새롭게 처분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3차년도 조사시점에서 보호관찰기간이 종료된 경우가 많았다. 보호관찰이 종료된 청소년의 경우 범죄를 다시 저지르게 되면 법원으로 사건이 송치되어 공식기록 상으로 재범을 저지른 것이 확인될 수 있지만, 경찰단계에서 훈방처리 될 경우 공식기록 상에는 재범으로 기록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3차 조사에서는 2차 조사 이후 지난 1년 동안 경찰에 체포된 적이 있는지를 추가문항으로 조사를 하였다.

분석 결과, 지난 1년 동안 경찰에 체포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6.5%로, 적지 않은 청소년이 문제를 일으켜 경찰과 접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체포 경험은 여자(16.2%)에 비해 남자(61.5%)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그림 V-7】 지난 1년 동안 경찰체포 경험 (N=167, 단위: %)

심층면접의 사례에서도 사기, 폭행,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인해 경찰에 체포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대상자가 경찰에 의해 인지되더라도 운이 좋은 경우 합의로 사건이 종료될 수 있으나, 보호관찰기간의 연장 또는 야간외출제한 등의 부가처분을 받기도 한다.

친구들하고 술을 마시고 편의점에 들렀다가 나오는데 어떤 아저씨가 ‘너 이리 와봐’ 하더라고요. 그래서 싸웠죠. 그래서 경찰에 갔어요.

(청소년 사례 1)

원래 올해 4월에 끝나요. 근데 집에 소주 반 병 먹고 집에 가다가 단속에 걸렸어요. 그래서 면허취소 먹고... 올해 12월 달에 다시 딸 수 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무면허 한번 걸려서 작년 9월까지 면허정지였는데, 오토바이는 따로 딸 수 있으니까. 타고 다니다가 음주로 또 걸리고. 그것마저 없어지니까 경비도 많이 들고. 근데 걸어 다니기는 귀찮고.

(청소년 사례 2)

친구들이 맞고 있어서 말리다가 먹살 잡고 있다가 저는 맞았는데 자리에 같이 있어 가지고... 벌금만 내고 끝났어요. 야간외출 금지 될 거 같아요. 새벽에 술 먹고 벌어진 일이라서... (보호관찰소에서) 야간외출제한 이런 거 뭐 하나 붙인다고 했어요.

(청소년 사례 4)

작년에 아르바이트 해서 오토바이 샀는데 가다가 무면허 걸려서 다시 2년 받았어요. 작년 8월에 받았어요. 제가 사자마자 친구가 사고내서 못 탔는데 친구 부모님이 돈 내서 수리해서 가지고 오는데 그 때 경찰관이랑 마주쳐서. 그래 가지고 얘기하고 벌금내고.

(청소년 사례 5)

거의 대부분 사기에요. 이번에는 폭행 건이 하나 있어요. 항상 컴퓨터 사기인데, 공동공 같이 한 번 있고, 특이한 게 강제추행이 한 번 있네요. 폭행사건은 현재 합의 중에 있어요. 사건이 끝나지는 않았어요. 검사가 처분할지 결정이 안 났고, 재판여부는 기소여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검찰에 계류 중에 있어요. 제가 보기에 실형을 받거나 징유보다는 벌금형을 받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하는데,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 쪽에서는 합의를 진행하는 거 같아요.

(보호관찰관 사례 4)

2. 재비행의 요인

앞서 1차년도부터 3차년도까지 지위비행, 중비행, 공식기록범죄에 대한 패널분석 결과, 세 가지 유형의 비행(또는 범죄)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있어 개인 간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기저모형의 결과를 토대로 개인 간 비행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랜덤 로지스틱 회귀모형(random-coefficient logistic regression model)을 통해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개인 간 비행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시 보호요인, 위험요인, 심리요인, 일상활동유형, 부정적 인생사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보호요인

보호요인으로는 크게 가족요인, 친구요인, 지역사회요인, 보호관찰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가족요인으로는 부모와 정서애착, 부모의 경제지원, 친부모와 동거여부를 고려하였고, 친구요인으로는 친구와 정서애착을, 지역사회요인으로는 지역사회의 유대정도, 성인멘토와의 교류정도를, 보호관찰요인으로는 담당 보호관찰선생님과 유대를 보호요인으로 고려하였다. 그리고 재비행에 중요한 차이를 보이는 성별, 그리고 연령은 통제변인으로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 지위비행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보호요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음주, 흡연, 음란물접촉과 같은 지위비행의 변화는 가족요인, 친구요인, 지역사회요인, 보호관찰요인과 같은 보호요인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폭력비행, 재산비행, 약물비행 등 중비행의 경우에는 보호요인 가운데 부모와의 정서애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사가 시작된 시점에서 부모와 정서적 애착이 높은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일수록 중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낮을 뿐만 아니라, 이후 중비행의 변화에 있어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모와 정서애착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중비행을 덜 저지르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지역사회요인이나 보호관찰요인은 중비행의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인으로 고려한 성별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여자청소년일수록 남자청소년에 비해 중비행을 저지르는 경향이 더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공식기록범죄의 경우 지위비행과 마찬가지로 보호요인으로 고려한 변인 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7> 보호요인이 재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랜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지위비행			중비행			공식기록범죄		
	계수값	오즈비	z값	계수값	오즈비	z값	계수값	오즈비	z값
fixed effect									
상수	-2.023		-0.40	5.303		2.00 *	8.498		2.15 *
패널차수	0.493	(1.64)	1.17	-0.317	(0.73)	-1.41	-4.101	(0.02)	-6.64 **
통제변인									
성별	-0.204	(0.82)	-0.27	-0.867	(0.42)	-2.24 *	-1.078	(0.34)	-1.93
연령	0.297	(1.35)	1.08	-0.070	(0.93)	-0.50	0.055	(1.06)	0.26
보호요인									
부모와 정서애착	0.378	(1.46)	0.69	-0.728	(0.48)	-2.71 **	0.218	(1.24)	0.43
부모의 경제지원	-0.516	(0.60)	-1.06	-0.086	(0.92)	-0.38	0.403	(1.50)	1.08
친부모와 동거	-0.715	(0.49)	-1.14	0.354	(1.42)	1.16	0.449	(1.57)	0.94
친구와 정서애착	0.132	(1.14)	0.25	-0.186	(0.83)	-0.75	0.028	(1.03)	0.07
지역사회의 유대	0.273	(1.31)	0.70	-0.099	(0.91)	-0.52	-0.668	(0.51)	-1.64
성인멘토와 교류	0.113	(1.12)	0.17	0.097	(1.10)	0.30	0.783	(2.19)	1.70
보호관찰관 유대	-0.088	(0.92)	-0.17	0.002	(1.00)	0.01	-0.255	(0.78)	-0.71
random effect									
u_{1j}		0.000			0.000			0.712	
u_{0j}		5.449			1.394			0.000	
LR test									
$\chi^2(2)$		12.65	**		14.12	**		13.39	**
N of obs		453			453			445	
N of groups		167			167			167	

* $p < .05$, ** $p < .01$

심층면접에서도 청소년을 지지하는 가족관계의 회복이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면접에 참여한 보호관찰관에 따르면, 청소년을 둘러싼 가족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새로운 가족성원이 생길 경우 청소년을 지지하고 도와줌으로써 비행을 그만두기도 한다.

(비행을 그만두는 이유가) 여러 가지이겠지만 자기 진로를 찾거나 가족의 지지나 가족관계라고 생각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집에 우울증이 심한 어머니가 있어서 집에만 가면 싸우게 되는 경우에는 제가 빨리 독립하라고 권합니다. 엄마랑 싸우지 말고 때마다 찾아가

서 인사를 드려라.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비행을 그만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라고 물어봤더니 “새아버지”라고 하더라고요. 새아버지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지지해주고, 사실 제가 개입했다기보다 새아버지가 아이에게 잘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잘 맞았는지는 모르지만, 새아버지가 본인을 잘 믿어준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보호관찰관 사례 3)

보호관찰관 사례 3이 가족관계의 복원을 비행중단의 요인으로 꼽았다면 보호관찰관 사례 6은 이를 ‘누군가에게 미안한 사람이 생기는 것’으로 표현했다. 즉 청소년들이 비행을 저질렀을 때, 누군가에서 미안한 마음이 생기게 되면 비행을 그만둘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미안한 사람’은 가족일 수도 있고, 비록 패널분석 결과에서는 뚜렷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보호관찰관일 수도 있다.

(비행을 그만두는 이유를) 알면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거 같네요(웃음).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경제적으로나 주변의 영향 때문에 ‘나는 안 된다’거나 ‘왜 나만 이렇게 사나? 주변 환경이 너무 안 좋다’는 데서 생긴 불신이 쌓인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해결되면 더 이상 범죄를 안 저지르는 거 같아요. 어떤 아이는 자기 목표 찾게 되면 스스로 그냥 정리하고 나가기도 하구요. 아니면 조금 ‘미안한 사람’ 이랄까? 보호관찰 하면서 그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애들이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사람한테 미안하잖아요. 그런데 범죄가 큰 애들을 보면 그런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에게 미안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신경을 쓰는 부분은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얼굴이 떠오르면서 ‘조금 미안하다’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노력하거든요.

(보호관찰관 사례 6)

2) 위험요인

위험요인 역시 크게 가족요인, 친구요인, 지역사회요인, 보호관찰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가족요인에는 부모의 방임, 부모의 학대, 한부모 가정여부, 가족의 이사 횟수를 고려하였고, 친구요인으로는 학업을 중단한 친구의 수, 친한 친구의 비행성향을, 지역사회요인으로는 지역의 무질서를, 보호관찰요인으로는 담당 보호관찰선생님의 변경여부를 위험요인으로 고려하였다. 그리고 보호요인 모형과 마찬가지로 성별과 연령은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였다.

<표 V-8> 위험요인이 재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랜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지위비행			중비행			공식기록범죄		
	계수값	오즈비	z값	계수값	오즈비	z값	계수값	오즈비	z값
fixed effect									
상수	-7.224		-0.89	-3.461		-0.99	8.160		2.16 *
패널차수	-1.735	(0.18)	-1.68	-0.532	(0.59)	-1.31	-2.343	(0.10)	-3.79 **
통제변인									
성별	-1.256	(0.28)	-1.03	-0.962	(0.38)	-1.73	-1.117	(0.33)	-2.09 *
연령	0.871	(2.39)	1.73	0.103	(1.11)	0.54	0.018	(1.02)	0.08
위험요인									
부모의 방임	1.793	(6.01)	1.74	0.462	(1.59)	1.15	-0.575	(0.56)	-1.38
부모의 학대	-1.834	(0.16)	-2.00 *	-0.408	(0.67)	-1.10	0.047	(1.05)	0.12
한부모 가정	-0.390	(0.68)	-0.37	-0.844	(0.43)	-1.98 *	-0.230	(0.79)	-0.58
가족의 이사횟수	0.552	(1.74)	0.78	0.728	(2.07)	2.77 **	0.161	(1.17)	0.75
학업중단 친구수	0.005	(1.00)	0.32	0.003	(1.00)	0.60	-0.001	(1.00)	-0.11
친구의 비행성향	0.226	(1.25)	0.28	0.735	(2.09)	2.34 *	0.025	(1.03)	0.08
지역의 무질서	0.883	(2.42)	0.99	0.421	(1.52)	1.37	-0.011	(0.99)	-0.58
보호관찰관 변경	0.707	(2.03)	1.51	0.275	(1.32)	1.98 *	0.019	(1.02)	0.15
random effect									
u_{1j}		0.000			0.076			0.307	
u_{0j}		10.953			0.000			0.000	
LR test		5.32			9.69	**		4.41	
$\chi^2(2)$									
N of obs		310			310			301	
N of groups		165			165			163	

* $p < .05$, ** $p < .01$

분석 결과, 지위비행의 경우에는 부모의 학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는데, 부모의 학대를 경험한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일수록 음주, 흡연, 음란물접촉과 같은 지위비행을 경험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학대가 원인이라기보다는 지위비행으로 인해 부모와 갈등이 심해지면서 부모의 체벌이나 폭력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중비행의 경우 위험요인으로 가족의 이사 횟수, 친한 친구의 비행성향, 보호관찰관의 변경여

부가 통계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한부모 가정여부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지난 1년 간 이사가 잦을수록, 친한 친구의 비행성향이 높을수록, 보호관찰관의 변경을 경험한 청소년일수록 조사가 시작된 시점에서는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비행을 저지를 가능성 역시 높다고 말할 수 있다. 반면에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 경우에는 오히려 중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낮을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비행의 감소율도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의 방임이나 학대, 학업을 중단한 친구의 수, 지역사회와의 무질서는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중비행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식기록범죄의 경우 위험요인으로 고려한 변인 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통제변인으로 투입한 성별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심층면접에서도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을 둘러싼 또래집단의 영향이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스스로 비행을 저지르는 또래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이 항상 재비행의 위험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정도이다.

친구들하고 어울리다보면 그럴 수도(다시 문제를 일으킬) 있겠쥬. 아예 그런 친구들이 없어야 돼요.

(청소년 사례 1)

심층면접 대상자의 친구들 대부분이 보호관찰을 받은 적이 있거나 현재 받고 있는데, 이들은 서로 무슨 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지 물을 필요도 느끼지 못할 만큼 보호관찰을 받는 사실이나 이유는 사소한 것으로 간주되는 또래문화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제 친구들) 몇 명은 대학교 가고,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도 있고, 저랑 같이 복학한 애들도 있어요. (그들 중에는) 보호관찰 받았던 애들도 있고, 지금 받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보호관찰 받은 지는 1~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런 사소한 거에는 서로 관심 없어요.

(청소년 사례 2)

보호관찰관들에 따르면, 재비행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청소년을 분리하기 위해 보호관찰소가 대상자의 친구관계를 파악하고 거주지 이전을 권유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 어떤 청소년들은 지속적으로 비행을 저지르는 반면에 어떤 청소년들은 비행을 그만두는지 원인을 한마디로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렵다. 심층면접 결과, 어떤 사례는 사춘기가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비행을 그만두고, 어떤 사례들은 부모의 적절한 지도로 인해 비행을 그만두기도 한다. 그러나 가난과 부모의 부재, 그로 인한 무절제한 일상생활, 범죄성향의 친구, 선후배와의 교제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비행이 지속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보호관찰 5-6년 되면 못 오거든요. 소년법 적용을 못 받으니까요. 학생들 면담해보면 ‘너 이제 보호관찰소 못 온다, 전과자 된다, 앞으로 내 얼굴 마지막으로 보고 성실히 해라’ 하면 그만두는 애들도 있어요. 이런 애들은 사고 치다 보니까 더 이상 사고 칠 게 없는 거죠. 더 이상 궁금한 게 없거든요. 자연스럽게 사춘기가 지나면서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요. 큰 처벌이 두려워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이 적절한 지도해서 2-3년 동안 사고를 치다가 그만두는 경우도 있어요. 문제는 계속 사고치는 애들인데, 부모가 울면서 소년원 보내 달라는 애도 많아요. 저도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가정환경의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또래집단은 나쁜 놈들 위주라서 그 속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요. 인생에 대해 진지한 생각이 없어요. 무절제하고 무위도식하려고만 하죠.

(보호관찰관 사례 5)

3) 심리요인

분석단위의 수준에서 볼 때,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이 가족, 또래·친구, 지역사회, 보호관찰 등 거시적인 사회 환경의 수준에서 고려한 것이라면, 심리요인은 거시적 수준이 아닌 미시적이고 개인적인 수준에서 고려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심리요인으로서는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미래에 대한 성공기대감, 충동성, 우울감, 게임중독성의 정도를 고려하였고, 성별과 연령은 통제변인으로 모형에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 지위비행의 경우에는 미래에 대한 성공기대감과 게임중독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미래에 대한 성공기대감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그리고 게임중독성의 정도가 심한 청소년일수록 음주, 흡연, 음란물접촉과 같은 지위비행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미래에 대한 성공기대감이 정적인 관계를 나타낸 것은 어둡고 절망적인 현실과

낙관적 미래에 대한 기대 간의 괴리가 오히려 스트레스를 야기함으로써 지위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비행의 경우 충동성이 강한 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통제력이 낮은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일수록 재산비행이나 폭력비행, 약물비행과 같은 보다 심각한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아존중감이나 자아탄력성 등 긍정적 자기신념이나 우울감, 게임중독성과 같은 부정적 심리는 중비행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공식기록범죄의 경우 심리요인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9> 심리요인이 재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랜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지위비행			중비행			공식기록범죄		
	계수값	오즈비	z값	계수값	오즈비	z값	계수값	오즈비	z값
fixed effect									
상수	-7.981		-1.57	0.763		0.32	10.776		2.58 *
패널차수	-0.052	(0.95)	-0.14	-0.543	(0.58)	-2.63 *	-4.369	(0.01)	-6.95 **
통제변인									
성별	-0.219	(0.80)	-0.29	-0.860	(0.42)	-2.40 *	-0.882	(0.41)	-1.57
연령	0.411	(1.51)	1.53	-0.025	(0.98)	-0.20	-0.043	(0.96)	-0.21
심리요인									
자아존중감	1.079	(2.94)	1.65	-0.394	(0.67)	-1.25	-0.605	(0.55)	-1.11
자아탄력성	-1.131	(0.32)	-1.66	0.203	(1.22)	0.62	0.794	(2.21)	1.45
미래성공기대감	0.968	(2.63)	2.47 *	-0.146	(0.86)	-0.71	-0.118	(0.89)	-0.33
충동성	0.620	(1.86)	1.25	0.883	(2.42)	3.63 **	0.577	(1.78)	1.38
우울감	-0.135	(0.87)	-0.26	-0.093	(0.91)	-0.35	-0.789	(0.45)	-1.72
게임중독성	1.298	(3.66)	2.03 *	0.354	(1.42)	1.56	-0.138	(0.87)	-0.34
random effect									
u_{1j}		2.530			0.161			0.799	
u_{0j}		5.951			0.456			0.000	
LR test		18.76	**		9.04	*		17.43	**
$\chi^2(2)$									
N of obs		483			483			474	
N of groups		167			167			167	

* $p < .05$, ** $p < .01$

심층면접 결과에서도 충동성, 즉 낮은 자기통제력은 중요한 이유로 언급되고 있다. 보호관찰관

들이 지적하는 비행청소년들의 성격특성은 폭력적이고 무절제하다는 것이다. 일부 청소년은 분노조절장애를 보였고, 사소한 일에도 화를 억제하지 못하고 폭력을 휘두르다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다. 경제적 어려움도 극심하여 어머니 혼자 월세를 내기도 빠듯한 상황이라 보호관찰관이 경제적 지원을 위해 애쓰고 있었다.

분노조절장애였죠. 한번 화가 나면 눈이 뒤집히고, 학교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선생님이 자기한테 뭐라고 했다고 자판기를 때려 부수었어요. 학교에서도 그런 일이 반복되고 하니 퇴학조치를 했죠. 이 아이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제가 데리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 가장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해줬어요. 가정 상황이 동생 네 명, 수입은 없고, 80만원 기초생계비 받는 것이 전부예요. 그래서 제가 후원을 받거나 지원을 받으면 무조건 이 아이가 일 순위였죠. 그런데 이혼한 아버지가 찾아와서 집에서 깡판을 치니까 아버지와 붙었나봐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보호관찰기간이라고 하면서 아들을 잡아가라고 고소를 했어요. 실제로 아이는 잘못된 게 없는데. 그냥 아버지더러 나가라고 계단에서 옥신각신했나봐요. 다행히 혐의 없음으로 잘 처리되었어요. 어머니도 굉장히 힘드시죠. 아마 월세도 못 낼 겁니다. 도와줘야죠.

(보호관찰관 사례 3)

청소년 사례 4를 담당하는 보호관찰관도 대상자의 성격적 문제를 참을성이 부족하고 쉽게 포기한다는 점에서 찾았다. 면접 당시 연기학원에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다니고 있다고 했던 사례 5의 경우 보호관찰관과의 면접에서는 예사로 보호관찰관과 약속을 어기고 학원에서는 지각하고 결석하는 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적인 문제가 좀 있지만, 자꾸 편하고 쉬운 걸 찾아요. 의지도 약하고, 자기한테 힘들거나 비위 상한다 싶으면 쉽게 포기해요. 어머니가 청각장애가 있어 장애 2급이세요. 아버지도 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고관절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해서 거동이 힘들고 일을 못해요. 형은 군대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보호관찰관 사례 4)

약속을 못 지키는 것은 고질적이고, 자기 생각과 현실 사이에 차이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애는 배우가 되고 싶어 하는데, 그만한 실천이 뒤따르지 못해요. 자기 개선이 없으면 힘들죠. 친구하고 싸워서 코뼈가 부러졌다고 하는데 보니까 멀쩡하더라고요. (학원에) 못 갔다고 했는데, 연기학원에 가기 싫어서 그랬는지.

(보호관찰관 사례 5)

4) 일상활동유형

심리요인 외에 미시적 수준에서 고려한 요인으로 일상활동유형과 부정적 인생사건을 고려하였다. 일상활동유형은 평일을 기준으로 하루 24시간을 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학교나 학원에 가는 시간, 개인공부를 하는 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시간, 취미나 동아리활동을 하는 시간, 혼자 보내는 시간, 친구들과 노는 시간으로 구분하였다. 다른 모형과 마찬가지로 성별과 연령은 통제변인으로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 지위비행의 경우 아르바이트 시간, 혼자 보내는 시간, 친구들과 노는 시간이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르바이트 하는데 많은 시간을 쓸수록, 혼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는 시간이 많을수록 음주, 흡연 등 지위비행에 노출될 가능성 역시 높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음주, 흡연, 음란물 등을 접할 기회 역시 많은 것으로 보인다.

중비행의 경우에는 지위비행에서와 달리 개인공부를 하는 시간이 많은 청소년일수록 중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낮을 뿐 아니라 시간에 따라 감소율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일상활동과는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기록범죄의 경우에는 보호요인, 위험요인, 심리요인 등 다른 모형에서와 달리 아르바이트 시간과 혼자 보내는 시간이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공식기록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뿐 아니라 시간에 따른 감소효과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아르바이트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거나 친구나 선배들과 어울리지 않고 주로 집에서 혼자 보내는 청소년일수록 공식기록범죄에 연루될 가능성 역시 낮게 나타났다.

<표 V-10> 일상활동유형이 재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랜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지위비행			중비행			공식기록범죄		
	계수값	오즈비	z값	계수값	오즈비	z값	계수값	오즈비	z값
fixed effect									
상수	-2.594		-0.66	0.391		0.18	11.328		3.02 **
패널차수	0.178	(1.19)	0.50	-0.534	(0.59)	-2.50 *	-4.344	(0.01)	-6.91 **
통제변인									
성별	-0.228	(0.80)	-0.34	-0.474	(0.62)	-1.31	-1.186	(0.31)	-2.09 *
연령	0.269	(1.31)	1.10	-0.005	(1.00)	-0.03	-0.023	(0.98)	-0.11
일상활동유형									
학교 · 학원시간	-0.014	(0.99)	-0.16	0.032	(1.03)	0.61	-0.009	(0.99)	-0.11
개인공부시간	-0.092	(0.91)	-0.78	-0.292	(0.75)	-2.64 **	0.018	(1.02)	0.13
아르바이트시간	0.161	(1.17)	2.31 *	0.052	(1.05)	1.51	-0.127	(0.88)	-2.11 *
취미 · 동아리시간	-0.075	(0.93)	-0.35	0.063	(1.06)	0.53	0.060	(1.06)	0.31
혼자보내는시간	0.195	(1.22)	2.02 *	0.075	(1.08)	1.59	-0.148	(0.86)	-2.07 *
친구들과노는시간	0.247	(1.28)	2.58 *	0.079	(1.08)	1.80	-0.113	(0.89)	-1.49
random effect									
u_{1j}		0.000			0.186			0.888	
u_{0j}		4.393			0.682			0.000	
LR test		16.25	**		14.32	**		20.72	**
$\chi^2(2)$									
N of obs		501			501			492	
N of groups		167			167			167	

* $p < .05$, ** $p < .01$

학교 · 학원시간: 하루 24시간 중 학교나 대안학교, 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지내는 시간

개인공부시간: 하루 24시간 중 숙제, 시험 준비, 자격증을 따기 위해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시간

아르바이트시간: 하루 24시간 중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또는 취업해서 일하는 시간

취미 · 동아리시간: 하루 24시간 중 운동, 취미, 동아리, 교회나 성당에 가는 시간

혼자 보내는 시간: 하루 24시간 중 휴대전화기, 컴퓨터, 게임, TV 등을 보면서 시간을 때우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시간

친구들과 노는 시간: 하루 24시간 중 친구들과 함께 돌아다니거나 노는 시간

패널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개인공부 혹은 아르바이트 등 무언가 규칙적인 생활이 가능할 경우 비행이나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적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심층면접 결과, 보호관찰 대상 학업중단청소년들에게 이러한 규칙적인 생활은 매우 힘들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청소년 사례 3은 지난 일 년간 재비행없이 보호관찰 종료를 9개월 앞두고 있다. 우여곡절이 많았으나 근래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버티어 준 것에 보호자와 담당보호관찰관 모두 안도하고 있었다. 말수가 적고, 자기 이야기 하는 것을 꺼려하여 본인과의 심층면접에서

알 수 없었던 그간의 상황들을 어머니와 보호관찰관을 통해 알 수 있었는데, 아버지와는 갈등에 기인한 정서적인 문제로 폭력성향을 보였으며 대상자를 포함한 다섯 자녀를 어머니 혼자 책임지고 있었다. 어머니는 현재 대상자가 재비행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있으나 성인기에 이르러 성실한 생활태도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었다.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요리를 배우거나, 목적을 세우고 끈기 있게 노력하지 못하고 항상 꿈만 꾸고 있는 것이 이들 청소년들의 현실이다. 어머니는 밤낮이 뒤바뀐 대상자의 생활습관부터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규칙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이들에게 가장 힘든 일 중의 하나이다.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요리를 하고 싶다’고 해요. 그래서 학원비 줄테니 알아보라고 했는데, 그게 벌써 두 달이 지났어요. 그럼 낮에 요리를 배우고 밤에 일하는 걸 알아보라고 했더니 알았다고만 하고 학원은 안 알아보는 거예요. 낮에는 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자고 밤에 일하는 걸 알아보라고 했는데도 그걸 안 해요. 근면하게 사는 습관은 아직 안돼요. 아직까지는 그런 게 안 되더라고요. 아침 일찍 일어난다는 생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은 아예 못해요. 밤 새고는 아침에 거의 자는 경우가 많아요.

(보호자 사례 1)

별로 말수가 없죠. 그렇다고 거리를 두는 것은 아닌데, 일단은 게으릅니다. 떡볶이 알바 밤 12시에 끝나면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집에 와서 5시나 6시 출근 30분전까지 잠을 자요. 그런 생활 스타일이 계속 가더라고요. 출석면담이 있으면 제가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요. 안 나오면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나오게 하죠. 규칙을 잘 안 지키는 편입니다.

(보호관찰관 사례 2)

5) 부정적 인생사건

부정적 인생사건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였다. 첫째는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재혼, 가출로 인한 가족해체사건의 경험여부, 둘째는 부모의 사업실패, 실직, 병상생활로 인한 경제적 빈곤사건의 경험여부, 셋째는 부부싸움, 부부폭력, 자녀에 대한 폭력 등 가정폭력사건의 경험여부, 넷째는 학업중단이전에 교사로부터 치욕적인 대우나 구타의 경험여부이다. 다른 모형과 마찬가지로 통제변인은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였다.

<표 V-11> 부정적 인생사건이 재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랜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지위비행			중비행			공식기록범죄		
	계수값	오즈비	z값	계수값	오즈비	z값	계수값	오즈비	z값
fixed effect									
상수	-4.194		-1.10	1.619		0.73	11.319		3.24 **
패널차수	0.552	(1.74)	0.45	-0.505	(0.60)	-2.39 *	-4.006	(0.02)	-7.39 **
통제변인									
성별	-0.149	(0.86)	-0.20	-0.686	(0.50)	-1.88	-1.047	(0.35)	-2.01 *
연령	0.362	(1.44)	1.32	-0.029	(0.97)	-0.22	-0.134	(0.87)	-0.68
부정적 인생사건									
가족해체사건	0.498	(1.65)	2.03 *	-0.132	(0.88)	-1.09	0.001	(1.00)	0.01
경제빈곤사건	0.027	(1.03)	0.07	0.169	(1.18)	0.95	0.039	(1.04)	0.15
가정폭력사건	0.092	(1.10)	0.33	-0.031	(0.97)	-0.22	0.063	(1.07)	0.32
교사폭력사건	0.093	(1.10)	0.08	0.342	(1.41)	0.75	-0.048	(0.95)	-0.07
random effect									
u_{1j}		0.633			0.166			0.732	
u_{0j}		2.019			0.901			0.000	
LR test									
$\chi^2(2)$		15.55	**		18.29	**		17.97	**
N of obs		501			501			492	
N of groups		167			167			167	

* $\alpha.05$ ** $\alpha.01$

가족해체사건: 부모의 사망·이혼·별거·재혼·가출 등 경험여부

경제빈곤사건: 부모의 사업실패·실직·병상생활 등 경험여부

가정폭력사건: 부부싸움·부부폭력·자녀폭력 등 경험여부

교사폭력사건: 학교선생님으로부터 치욕적인 대우나 구타 경험여부

분석 결과, 지위비행의 경우 가족해체사건의 경험이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재혼, 가출을 경험한 청소년일수록 지위비행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음주, 흡연, 음란물을 접할 기회 역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족해체의 경험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적 인생사건을 경험한 청소년일수록 지위비행에 쉽게 빠지는 것으로 보인다.

중비행이나 공식기록범죄의 경우 부정적 인생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통제변인으로 설정한 성별은 공식기록범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부정적 인생사건의 경우 중비행이나 공식기록범죄와 같은 심각한 수준의 비행 혹은 범죄에 직접적 원인이 되기보다는 음주, 흡연과 같은 지위비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비록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부정적 인생사건이 미치는 영향이 불분명하게 나타났으나, 실제 면접을 진행한 보호관찰대상 학업중단청소년의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열악할 뿐 아니라 부모 가운데 한 분 혹은 두 분 모두 안 계시거나, 이들에게 역기능적인 가정환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사례 3의 경우, 폭력적인 아버지로 인해 부모가 이혼한 후 어머니 혼자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고, 청소년 사례 6은 아예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활보호대상자인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등 이들이 처한 어려운 환경은 가난과 부모의 부재가 혼재된 양상을 보였다.

부모님이 이혼하고 아버지랑 둘이 살아요. 환경도 매우 열악합니다. 10평도 안 되는 슬라브 집에 살면서 토끼 같은 것도 키우고, 정리정돈은 거의 안 되어 있어요. 어머니는 따로 살고 계시고요.

(보호관찰관 사례 2)

무기력하죠. 엄마와 같이 사는데 엄마가 아파 돈을 못 벌어요. 본인이 학업을 그만두고 알바를 하는데 나쁜 애들하고 어울리게 되요. 방법이 없잖습니까. 자기가 벌어야 하는 애들에게 정상적인 환경을 제공하면 되겠지만, 도저히 그럴 수가 없으니까요. 나쁜 친구 외에는 친구가 없습니다. 집에 안 들어 가냐고 하지만 집에 가면 아무도 없는데요. 생활개선도 안 되는데 똑같은 말만 한다고 생각하니 무기력해지더라고요. 출석 잘하고 문제없으면 큰 문제는 없지만 근본적인 건 교정이 안 되죠.

(보호관찰관 사례 5)

청소년 사례 5의 경우는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 후 고모 집에서 생활했다. 담당 보호관찰관에 따르면, 부모가 지방에 있어 자녀에게 관심을 가질 상황이 아니었고 고모의 역할도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불성실하고 약속을 어기는 것을 예사로 알지만 담당 보호관찰관은 청소년 사례 5의 태도가 예전보다는 개선되었다는 사실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보호관찰 담당자에게 반항적이지 않고 순응적이에요. 제가 욕해도 곧장 순응해요.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1주일동안 제가 전화했거든요. 연기학원 안가서 혼내준 적이 있어요. 마치고 20분 전에 왔더라고요. 데리고 가서 엄청 혼을 냈죠. 이 아이의 행동 이런 거 보면 많이 나아졌죠. 옛날엔 보호관찰소 출석 자체를 안했어요.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고, 며칠 지나서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니까, 화가 나서 소환하면 ‘죄송합니다. 진짜 잊어버렸습니다.’하고... 객관적으로 잘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잘 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연기학원) 없어지면 생활 자체가 없어지니까요.

(보호관찰관 사례 5)

3. 비행의 발전

지금까지 살펴본 지위비행, 중비행, 공식기록범죄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중비행과 공식기록범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3차년도에 추가된 경찰체포여부와 관련성도 추가로 분석하였다.

먼저 지위비행이 중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 수준에서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음주, 흡연, 음란물과 같은 지위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일수록 재산비행, 폭력비행, 약물비행과 같은 중비행 역시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른 중비행의 증가와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2> 지위비행, 중비행, 공식기록범죄, 경찰체포의 관계

	중비행			공식기록범죄			경찰체포		
	계수값	오차비	z값	계수값	오차비	z값	계수값	오차비	z값
fixed effect									
상수	0.438		0.20	11.549		3.38 **	상수	4.545	1.35
패널차수	-0.541	(0.58)	-2.60 **	-3.983	(0.02)	-7.33 **	성별	-1.301	(0.27) -2.26 *
성별	-0.651	(0.52)	-1.84	-0.987	(0.37)	-1.92	연령	-0.375	(0.69) -2.08 *
연령	-0.024	(0.98)	-0.19	-0.115	(0.89)	-0.60	지위비행	2.833	(17.00) 2.23 *
지위비행	1.123	(3.08)	2.29 *	-0.762	(0.47)	-0.96	중비행	0.963	(2.62) 2.37 *
중비행	-	-	-	0.315	(1.37)	0.75	공식범죄	3.099	(22.19) 3.82 **
random effect							LR $\chi^2(5)$	47.06	**
u_{1j}	0.205			0.702			pseudo R^2	0.221	
u_{0j}	0.656			0.000			N of obs	167	
LR $\chi^2(2)$	16.58	**		16.69	**				
N of obs	501			492					
N	167			167					
grou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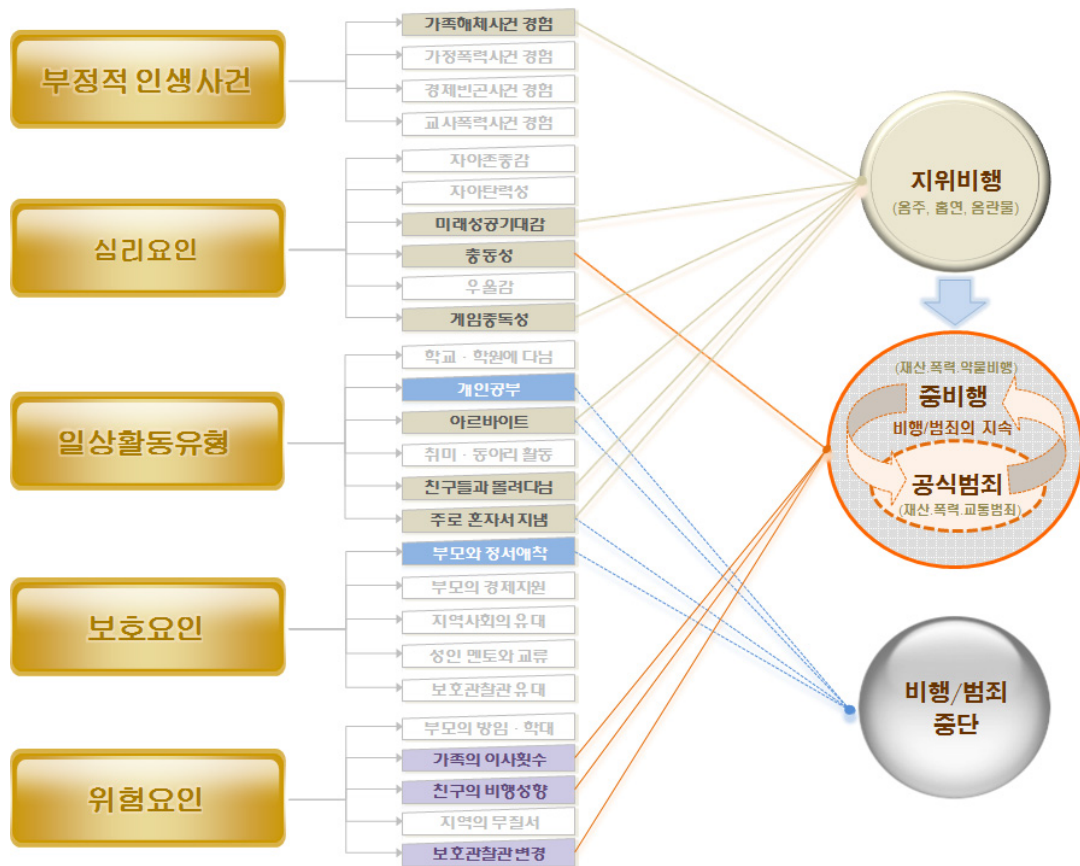
* $p < .05$, ** $p < .01$

종속변수의 성격에 따라 중비행과 공식기록범죄는 로짓패널분석을, 경찰체포는 일반로짓분석을 실시함

그러나 공식기록범죄와 관련해서는 지위비행과 중비행이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차년도에 측정한 경찰체포경험 여부의 경우에는 지위비행 뿐만 아니라 중비행, 공식기록범죄와 관련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에게 있어 지위비행은 중비행이나 경찰체포와 같은 보다 심각한 범죄에 이르게 되는 진입통로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겠다.

4. 소결

보호관찰대상 학업중단청소년이 지난 3년 동안 비행 또는 범죄를 얼마나 지속하는지, 만일 비행 또는 범죄를 지속하는 경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패널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림 V-8】 보호관찰대상 학업중단청소년의 비행지속 및 비행중단

첫째, 개인이 경험한 부정적 인생사건의 경우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재혼, 가출 등 가족해체를 경험한 청소년일수록 음주, 흡연, 음란물접촉과 같은 지위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도 지위비행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은 경향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가정폭력이나 경제적 빈곤, 학업중단 이전 교사의 폭력과 같은 부정적 인생사건은 비행이나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미래에 대한 성공기대감, 충동성, 우울감, 게임중독성과 같은 개인심리요인이 비행 또는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미래에 대한 성공기대감과 게임중독성은 지위비행에 정적인 영향을, 충동성은 재산비행, 폭력비행, 약물비행과 같은 중비행에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과 달리 미래에 대한 성공기대가 높을수록 지위비행이 높은 이유는 긍정적 미래에 대한 열망에 비해 열악한 현실에 좌절한 결과로 해석되며, 게임중독성의 경우 게임에 몰입할수록 주로 PC방을 이용하게 되는데, PC방의 경우 게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흡연이 허용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에게 있어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과 같은 긍정적 심리요인은 비행이나 범죄를 억제하는데 효과적인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일상활동유형의 경우 다른 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행이나 범죄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활동을 하거나 주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은 경우 중비행은 물론 공식기록범죄에도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르바이트 활동과 주로 혼자 보내는 경우 지위비행과는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르바이트나 혼자서 지내는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비행이나 공식기록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의 경우 아르바이트 활동을 많이 할수록 규칙적인 생활로 인해 비행이나 범죄에 연루될만한 신체적·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으로 보이며, 혼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청소년의 경우에는 이전과 달리 일탈친구나 선배와의 접촉이 적거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시간이 많은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의 경우에는 지위비행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일을 하는 중에 혹은 일을 마치고 흡연이나 음주를 할 시간적 기회는 물론 경제활동으로 인해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기 때문으로 여겨지며, 혼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경우에도 흡연이나 음란물을 접할 기회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검정고시나 자격증을 따기 위해 개인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의 경우 탈비행 혹은 탈범죄의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보호관찰대상 청소년 역시 가족해체나 경제적 빈곤과 같은 과거의 부정적 경험에 의한 영향보다는 상급학교로의 진학, 취업준비를 위한 자격증 준비, 일이나 아르바이트와 같은 경제활동 등 현재의 일상활동이 보다 규칙적이고 조직화된 시간활용을 많이 할수록 비행이나 범죄를

지속할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다.

넷째, 가족, 친구, 지역사회, 보호관찰 등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환경을 중심으로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으로 나누어 비행의 지속이나 중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보호요인에 의한 비행의 억제보다는 위험요인을 통한 비행의 관여가 보다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요인 중에서는 부모와의 정서적 애착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시작시점에서 중비행의 정도도 낮을 뿐만 아니라 이후 중비행의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보호요인은 비행의 중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위험요인 중에서는 가족의 이사 횟수, 친한 친구의 비행성향, 보호관찰관의 변경여부가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중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의 이사횟수가 잦을수록, 친구의 비행성향이 높을수록 중비행의 시작은 물론 이후 중비행의 증가에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가 잦은 경우는 1차년도를 기준으로 양부모 가정(평균 1.85회)보다는 한부모 가정(평균 2.72회)에서 이사가 잦은 편이었고($p<0.01$), 지역사회의 유대가 낮은 동네에 거주할수록($r = -.160, p<0.05$), 동네의 무질서 정도가 높은 지역에 거주할수록($r = .220, p<0.05$) 이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가정의 경제수준($r = -.09, n.s.$)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지역사회의 유대가 낮은 반면에 지역의 무질서 정도는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일수록 학업중단 이후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증가시킴으로써 비행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여겨진다.

비록 소년보호업무를 담당하는 많은 보호관찰관들이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을 관리하고 상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수많은 청소년을 세심하게 관리하고 상담한다는 것을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이번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보호관찰관의 변경이 있는 청소년 일수록 재산비행, 폭력비행, 약물비행과 같은 중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은 이러한 어려운 업무환경을 그대로 반영하는 결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를 뒤집어보면 보호관찰기간 중 꾸준히 지도 및 관리를 해준 청소년의 중비행 가능성이 낮아진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소년담당 보호관찰업무에 대한 지원과 개선책이 더 많이 요구된다고도 하겠다.

제 VI 장



결론

제 VI 장
결 론¹⁰⁾

이 연구에서는 보호관찰대상자 중 학업중단을 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3년에 걸친 패널조사를 통하여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 및 변화양상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고 재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대상이 된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을 중심으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대해 개별 청소년의 욕구 및 필요한 지원내용을 파악하여 이에 맞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소년의 경우 성인에 비해 변화가능성이 크고 아직 미성년이기 때문에 보호와 건전한 성장을 위해 더욱 세심하게 지도 감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부 보호관찰 분야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소년의 경우 보호관찰 담당직원 1인당 평균담당사건이 성인에 비해 적게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로 법무부 보호관찰과 내부 자료에 의하면 보호관찰소 중 2013년 1차년도의 조사대상이 되었던 11개 보호관찰소 직원 1인당 평균담당사건은 소년의 경우 85건으로 성인의 162건에 비해 훨씬 적다. 또한 법무부 보호관찰과 담당자에 의하면,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처우프로그램 및 원호지원 등이 소년대상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소년 담당사건 수는 성인에 비해 적지만 실제 업무량은 소년과 성인 담당직원이 비슷하다고 한다.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위험성과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개입이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가 크다(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14: 10).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학업을 중단한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위험성과 욕구 평가 시 필요한 지원내용을 파악하여 보호관찰 기간 동안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진로지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10) 이 장은 전영실 선임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연구의 심층면접결과에 의하면, 학업중단 보호관찰대상자들은 미래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향이 있다. 또한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자의 상당수가 진로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호관찰소에서 받고 있는 지원 중 검정고시 교육비 지원, 학습진로 지도 등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학업중단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은 미성년이며, 이들이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들에 대한 진로지도는 복학이나 취업 혹은 직업훈련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연구의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검정고시나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탈비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정적인 직업은 심리적 안정감과 책임감을 부여해서 건전하게 생활하도록 돕고 재비행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14: 48).

보호관찰소 실무가와의 자문에 의하면, 보호관찰대상 중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 중학생 연령대에 대해서는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이므로 가능한 복학을 돕고, 고등학생 연령대의 경우에는 복학의지 등을 파악하여 복학을 돕거나 직업훈련, 취업지원을 하고 있다. 연령이 낮거나 복학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복학을 돕고 복학 이후에 교사와 보호관찰담당자와의 연계를 통하여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복학이 아닌 검정고시 준비를 원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이 원하는 방식으로 검정고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독학으로 할 경우에는 보다 세심하게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복학의지가 분명하게 없는 경우에는 직업훈련이나 취업알선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직업훈련, 취업알선을 해 주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멘토링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비행예방을 위한 학교라는 보호요인이 부재하다. 학교에 대한 애착과 학교활동에의 참여는 청소년의 약물남용과 비행 시작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Li, Zhang, Liu, Arbeit, Schwartz, Bowers, & Lerner, 2011: 1189). 즉 학교와 관련된 정서적, 행동적 요소들은 비행예측에 유용한 요소들이라고 볼 수 있다(Li, Zhang, Liu, Arbeit, Schwartz, Bowers, & Lerner, 2011: 1189). 이렇게 본다면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경우 학생에 비해 비행예방을 위한 학교관련 보호요인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해서는 학교라는 요인을 대신할 수 있는 긍정적 요인이 필요할 것이다.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은 긍정적 자원을 연계시켜 비행청소년의 재비행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법무부 보호관찰과 내부자료에 의하면, 2015년 9월말을 기준으로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인원은 16,687명이며(성인은 32,478명), 이 중 약 23%에 해당하는 3,794명에 대하여 1:1 멘토링을 실시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멘토링을 담당하는 특별 법사랑 위원으로 교사, 청소년상담사 등이 활동하고 있다. 청소년에 대한 멘토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청소년에 대한 지식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라포(rapport)의 형성이 용이한 사람들이 담당할 필요가 있다. 이런 면에서 교사나 청소년상담사가 긍정적일 수 있다. 특히 보호관찰대상자가 많은 학교의 교사가 특별 법사랑 위원으로 위촉될 경우, 학업을 중단한 이후 학교에 복귀한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효과적으로 지도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교사와 보호관찰담당자간에 연계가 되어서 보호관찰관 입장에서는 대상자의 학교생활 등 일상생활에 대해 파악하고, 지도감독하고, 교사입장에서는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학생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하는데 있어서 보호관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학업을 중단한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멘토링, 학교에 복귀한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멘토링 등에 대해 평가해 보고 보다 더 효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 연구의 심층면접 결과에 의하면 멘토링의 운영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운영사례 공유 및 벤치마킹도 요구된다.

넷째,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의 가족에 대한 개입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학업중단 비행청소년의 경우 학교 교사의 보호나 지도역할이 부재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하면 부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설문조사결과에서도 부모에 대한 정서적 애착이 탈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와의 정서적 애착이 높을 경우 중비행의 초기의 차이는 물론 이후 중비행도 적게 저지르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고려한다면, 가족에 대한 개입이 더욱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가족에 대한 개입으로는 보호자 교육과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법무부의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매뉴얼에도 소년에 대한 효과적인 처우를 위해서 가족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되어 있다(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14: 45). 참고로 손병덕(2010: 14)은 기존의 외국 청소년 재범예방프로그램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를 기초로 부모교육프로그램을 통한 가족관계 회복 및 양육행동 개선이 청소년의 재범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보호자 교육이 청소년 재비행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결과이다.

현재 소년법 제33조에서는 보호자특별교육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호자특별교육은 보호관찰기관에 따라서 4시간에서 8시간 정도로 되어 있다(이재화, 임성숙, 김여진, 김은희, 허남훈, 2015: 54). 지금처럼 4시간 내지 8시간의 보호자특별교육을 자녀에 대한 이해 및 지도를 위해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과 더불어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을 알려 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진로문제를 위해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알려 주는 것은 도움이 된다. 또한 문제부모, 예를 들면 알콜 문제나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를 파악하여 필요한 지원을 연계시켜주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참고로 대구서부보호관찰소에서 3년간 실시한 보호자 특별교육이수자 자녀의 재범률을 분석한 결과 16세 미만의 경우 보호자가 교육을 이수한 자녀의 재범률이 38.2%로 교육을 받지 않은 자녀의 재범률보다 3.5% 낮게 나타났다(이재화, 임성숙, 김여진, 김은희, 허남훈, 2015: 17). 저연령 청소년일수록 가정요인이 비행에 중요할 수 있으므로 보호자 특별교육이 저연령 청소년에게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업중단 청소년 중 저연령 청소년에 대해서는 특히 보호자교육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부모를 대상으로 올바른 양육방법 등을 교육하는 것은 자녀의 재비행 예방은 물론 사회적응, 부모의 역량강화를 통한 가족 안정성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전영실, 김지영, 박성훈, 2013: 213).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가족캠프도 학업중단 청소년의 재비행 예방을 위해 유용할 수 있을 것이다. Hirschi(1969)의 사회통제이론에 의하면 부모에 대한 애착은 비행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법무부 보호관찰과 담당자에 의하면 산림청의 협조 하에 숲 체험 프로그램, 대한불교조계종의 협조 하에 템플스테이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보호자를 참여시키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 역시 청소년의 심성순화와 더불어 부모-자녀 관계 회복이 재비행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고려에서 이루어진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다.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해 가족캠프 등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고, 애착을 강화한다면 재비행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일상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경우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이러한 일상생활에 대한 지도감독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만 건전한 생활 및 재비행 예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3개년 간의 연구 결과를 보면, 친구들과 물려다니는 시간이 많을수록 지위비행을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구의 비행성향이 강할수록 중비행을 많이 저지르며,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중비행을 적게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기록범죄의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시간이 많을수록,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공식기록범죄를 적게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보호관찰단계에서 처우계획을 수립할 때 대상자의 일상활동을 파악한 후 이른바 ‘행동계약’으로 밤늦게 친구들과 몰려다니지 않기, 비행친구를 만나지 않기, 게임시간 줄이기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서 지도·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로 건전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여섯째,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중 심리적 프로그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 결과에 의하면, 충동성은 중비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업중단 비행청소년의 경우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이럴 경우 충동성이 비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학업중단 비행청소년 중 충동성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분노조절 프로그램 등이 효과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족해체 경험 역시 음주·흡연·음란물접촉과 같은 지위비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해체의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심리적 치유가 필요한지를 파악해서 필요할 경우 심리적인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일곱째,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 운영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일례로 전주보호관찰소 남원지소에서는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10회기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45명). 이는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중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여, 참여자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으면 연계시켜 주고 있으며, 학교 밖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에는 직업탐색 등 이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포함시켜 운영하고 있다(남원보호관찰소 심층면접). 이렇듯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집단프로그램에 대해 효과를 평가하여 운영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여덟째, 학업중단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효과적으로 지도감독하기 위해서 소년담당 보호관찰관의 전문화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소년담당 보호관찰관이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담당하도록 하는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보호관찰관의 변경횟수가 중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잦은 보호관찰관 변경이 학업중단 청소년의 재비행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참고로 3차년도를 기준으로 지난 1년간 보호관찰관이 변경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3.5%에 달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학업중단 청소년을 포함하여 소년보호사건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이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학업중단 청소년을 포함하여 소년에 대한 이해가 청소년을 보다 적절하게 지도·감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소년담당 보호관찰관에 대한 전문화교육 역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참고로 법무부에서는 보호관찰담당자의 청소년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예산지원을 하고 있으며, 소년전담 직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국 5개 권역별 사례회의를 연 3회 실시하고 있으며, 소년전담 직원 간에 사례발표 및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시도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소년전담 직원 전문화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며, 소년 보호관찰 사례에 대한 공유 등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보호관찰 방법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의 교육정도 중 유예의 비율이 낮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보호소년에 대한 전문화 교육에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홉째, 학업을 중단한 보호관찰대상자의 보호관찰이 종료될 경우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업을 중단한 보호관찰대상자의 경우 보호관찰 종료 후 학교 교사에 의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 차원에서 지도감독 및 필요한 지원을 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및 재비행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보호관찰소에서 해당지역의 관련기관에 대해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보호관찰단계에서 보호관찰 종료 전 학업을 중단한 보호관찰대상자의 필요나 욕구 등을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나 관련기관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보호관찰관과 대상 청소년 간에 종료 전 동의절차가 요구된다.

열 번째, 보호관찰소와 학교 및 사회복지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법무부, 교육부, 여성가족부의 협력이 중요할 것이다. 먼저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의 협력을 고려해 보면, 학업중단 시에 학교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려 주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두고 있다. 이 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 교육, 교육, 직업 체험 및 취업, 자립지원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2015년을 기준으로 약 200여개소가 운영되고 있다(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이번 연구결과에 의하면, 학업재중단시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비율이 3개년 모두 70.0% 이상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학교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간에 보다 긴밀하고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간의 협력도 중요할 것이다. 학업을 중단한 보호관찰대상자인 경우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필요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법무부 보호관찰과 담당자에 의하면, 2015년 현재 법무부 보호관찰과에서는 전국 보호관찰소에 학업을 중단한 보호관찰대상자의 취업알선, 교육, 상담 등을 위해서 청소년 지원센터와 업무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2015년 10월부터 이러한 실적을 취합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이를 기관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는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의 적절한 지도 감독 및 지원을 위해서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전주보호관찰소 남원지소의 예를 보면, 학업을 중단한 보호관찰대상자가 검정고시 공부를 할 경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지도해 주고 있으며, 보호관찰담당자가 센터에서의 생활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

법무부와 교육부간의 협력으로는 학업중단을 한 청소년이 복학할 경우 교사와 보호관찰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다. 앞서 전주보호관찰소 남원지소의 예를 보면, 학업중단을 했던 청소년이 복학을 할 경우 보호관찰담당자가 교사를 통하여 학교생활에 대해 파악하였고, 교사가 학생지도에 어려운 일이 생길 경우 보호관찰소에 연락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연계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유관 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번 3개년 연구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향후 비행학업중단청소년(보호관찰대상 학업중단 청소년)의 재비행 예방은 물론 이들의 사회적응 및 재활을 위해서는 단순히 법이나 제도 마련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보호관찰소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기타 지역사회 유관기관의 연계 및 협력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현실적인 어려움과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진단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연계를 위한 실천적인 협력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 온 학업중단청소년, 그 중에서도 비행학업중단청소년 역시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미래의 시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중앙정부부터는 물론 지자체, 학계, 지역사회가 책임의식을 갖고 이들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참고 문헌]

- 고용노동부 (2015). **2015 한국직업전망**. 서울: 고용노동부.
- 김성곤 (2005). 비행청소년의 가정·학교·사회 환경·개인 심리적 변인과 재비행과의 관계. **소년보호연구**, 8, 165-217.
- 김지영, 전영실, 박성훈 (2014). 비행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Ⅱ(연구보고 14-R19-2),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민원홍 (2014). 비행청소년의 재비행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5(2), 265-290.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14).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감독 안내서**.
- 법무부 (2015). 보호관찰과 내부자료.
- 손병덕 (2010). 범죄청소년 재범예방 개입프로그램의 효과성분석과 함의. **한국범죄학**, 4(1), 3-29.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2015). [http:// www.mogef.go.kr](http://www.mogef.go.kr)에서 2015년 9월 10일 인출.
- 이재화, 임성숙, 김여진, 김은희, 허남훈 (2015). 보호관찰청소년 동반 의사소통향상 보호자 특별교육 개발에 관한 연구, **2014 보호관찰정책연구자료집**, 1-92.
- 전영실, 김지영, 박성훈(2013). 비행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Ⅰ(연구보고 13-R18-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정의롭 (2014).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조운오 (2012). 연구논문 : 소년원 퇴원 후의 재범 유발 요인에 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9(2), 79-98.
- Hirschi,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James, C., Stams, G. J. J. M., Asscher, J. J., De Roo, A. K., & van der Laan,

- P. H. (2013). Aftercare programs for reducing recidivism among juvenile and young adult offenders: A meta-analytic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33(2), 263–274.
- Li, Y., Zhang, W., Liu, J., Arbeit, M. R., Schwartz, S. J., Bowers, E. P., & Lerner, R. M. (2011). The role of school engagement in preventing adolescent delinquency and substance use: A survival analysis. *Journal of Adolescence*, 34(6), 1181–1192.
- Ryan, J. P., Williams, A. B., & Courtney, M. E. (2013). Adolescent neglect, juvenile delinquency and the risk of recidivism.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2(3), 454–465.

부 록

1. 부록 1(설문조사지)
2. 부록 2(3차년도 문항별 조사결과)
3. 부록 3(1차년도 혹은 2차년도 조사 후 삭제된 문항 결과)

부 록 1

(설문조사지)

학업중단 청소년의 삶과 의식에 대한 종단 조사 2015



안녕하십니까?

은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소년보호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삶과 의식에 대한 종단 조사’ 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계속되는 연구로서 학업중단 청소년의 생활실태와 의식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사결과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며 귀하가 응답한 내용은 통계법(제33조)에 의해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본 조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성실히 답하겠습니다.

2015년 6월

조사주관기관

조사수행기관

PID (기록하지 마세요)					본인 이름	
----------------------	--	--	--	--	-------	--



I. 학업중단 현황

※ 지금부터 응답하는 모든 문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응답 기준이 없는 한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문 1. 귀하는 **현재** 다음 중 어떤 **상태**입니까?

- ※ 여기에서 학교란 정규 학교를 가리키며 학력 인정을 위해 검정고시를 볼 필요가 없는 학교를 말함
- ※ 인가 대안학교는 정규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며, 미인가 대안학교는 정규 중·고등학교에 해당하지 않음
- ※ 학교를 휴학 중인 경우도 학교에 다니고 있는 상태로 봄
- ※ 중학교를 마치고 정규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은 경우도 학교를 그만둔 상태에 포함됨
- ※ 정규 중·고등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한 경우도 정규 중·고등학교를 그만둔 상태로 봄
- ※ 방송통신중학교나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정규 중·고등학교임

- ① 정규 중·고등학교를 그만둔 상태(고교 미진학/미인가 대안학교 포함) → 「문 1-1」로
- ② 정규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상태(휴학/방학 포함) → 「문 1-2」로
- ③ 정규 고등학교를 졸업한 상태(검정고시 합격 제외) → 「문 2」로
- ④ 대학에 진학한 상태(휴학/방학 포함) → 「문 2」로
- ⑤ 기타() → 「문 2」로

문 1-1. **정규 중·고등학교를 그만둔 상태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격 취득여부**는?

- ①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하지 않았다 → 「문 2」로
- ②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하였다 → 「문 2」로

문 1-2. **정규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경우, 현재 어느 기간**입니까?

- ① 학기 중 ② 방학 중 ③ 휴학 중

※ 다음은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복학 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2.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학교에 복학한 경험이 있습니까?

※ 중학교, 고등학교 복학 모두 포함

- ① 복학한 경험이 없다 → 「문 3」으로
② 복학한 경험이 있다 → 「문 2-1」로

문 2-1.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귀하가 복학한 학교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 학교 유형을 잘 모르는 경우 기타에 학교명을 기입
※ 실업계고는 특성화고에 해당

- ① 중학교 ② 일반고 ③ 특성화고
④ 자율고 ⑤ 특목고 ⑥ 방통중
⑦ 방통고 ⑧ 대안학교 ⑨ 기타(_____)

문 2-2.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언제 학교에 복학했습니까?

※ 예: 2015년 3월에 복학한 경우, 2015년 03월로 기입
※ 지난번 조사 이후 현재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것만 기입
※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여러 번 복학한 경우, 마지막 복학했을 때를 기준으로 기재

복학한 때

201□년 □□월

문 2-3.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복학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여러 번 복학한 경우, 마지막 복학했을 때를 기준으로 기재

- ① 학교를 졸업하고 싶어서
② 검정고시를 보고 상급학교로 진학하게 되어서
③ 다른 학교로 옮길 수 있게 되어서
④ 집에 있기 심심해서(다른 할 일이 없어서)
⑤ 부모님이 원해서
⑥ 주위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⑦ 학교를 그만둔 것이 후회 돼서
⑧ 보호처분(혹은 형사처벌)이 끝나서
⑨ 기타(_____)

문 2-4.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귀하가 **복학한 학교**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여러 번 복학한 경우, 마지막 복학했을 때를 기준으로 기재

- ① 전에 다녔던 학교 → 「문 2-6」으로
② 다른 학교 → 「문 2-5」로

문 2-5.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전에 다녔던 학교로 복학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선생님들에게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아서
② 친구들에게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아서
③ 학교 공부를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서
④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을 가르쳐 주는 학교로 옮기려고
⑤ 검정고시를 쳐서 학력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⑥ 예전 학교로 복학되지 않아서
⑦ 다니던 학교가 멀어서
⑧ 학비가 비싸서
⑨ 내신을 받기 어려워서
⑩ 계열을 바꾸려고
⑪ 그냥 별다른 이유 없이
⑫ 기타(_____)

문 2-6.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귀하가 **복학한 학교 이름**은 무엇이며, **학교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여러 번 복학한 경우, 마지막 복학했을 때를 기준으로 기재

※ 읍/면/동을 모를 때에는 최대한 아는 데까지 기재

학교 이름: _____ 학교

학교소재지: (_____) (시/도) (_____) (시/군/구) (_____) (읍/면/동)

문 2-7. **복학한 이후 학교생활에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한다	불만족한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 다음은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학교를 중단한 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3.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정규 중·고등학교를 중단한 경험**이 있습니까?

※ 대학교를 중단한 경우, 「문 4」로 이동

- ① 중단한 경험이 없다 → 「문 4」로
② 중단한 경험이 있다 → 「문 3-1」로

문 3-1.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정규 중·고등학교를 **중단한 경험**이 있다면 **그만 둔 학교**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여러 번 학교를 그만둔 경우, 마지막 그만 두었을 때를 기준으로 기재
※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은 경우 ① 중학교에 표시
※ 실업계고는 특성화고에 해당

- | | | |
|-------|--------|-------------|
| ① 중학교 | ② 일반고 | ③ 특성화고 |
| ④ 자율고 | ⑤ 특목고 | ⑥ 방통중 |
| ⑦ 방통고 | ⑧ 대안학교 | ⑨ 기타(_____) |

문 3-2.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 현재까지 기간 중 정규 중·고등학교를 그만둔 경험이 있다면, **언제** 학교를 **그만 두었습니까?**

※ 예: 2014년 10월에 그만둔 경우, 2014년 10월로 기입
※ 학교를 그만둔 때는 자신이 학교를 나가지 않기 시작한 때를 기준으로 함
※ 지난번 조사이후 현재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것만 기입
※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여러 번 그만둔 경우, 마지막 그만 두었을 때를 기준으로 기재

학교를 그만둔 때

201□년 □□월

문 3-3.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 현재까지 기간 중 **학교를 그만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큰 이유부터 순서대로 세 가지를 골라 주세요.

※ 적어도 1순위는 꼭 기입

※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여러 번 학교를 그만둔 경우, 마지막 그만두었을 때를 기준으로 기재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
| ① 건강상의 이유로 | ② 심리적 혹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
| ③ 가정불화 때문에 | ④ 집안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
| ⑤ 공부하기 싫어서 | ⑥ 학교에 가야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
| ⑦ 친구들이 싫어서 | ⑧ 학교의 규칙이 엄해서 |
| ⑨ 학교를 그만둔 친구를 따라 놀고 싶어서 | ⑩ 선생님이 싫어서 |
| ⑪ 검정고시를 하려고 | ⑫ 내 특기나 소질을 살리려고 |
| ⑬ 학교규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아서 | ⑭ 비행으로 보호처분(혹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서 |
| ⑮ 학교가 너무 멀어서 | ⑯ 잠이 많아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서 |
| ⑰ 다른 학교에 가려고 | ⑱ 이민 또는 해외 유학 가려고 |
| ⑲ 이성문제로 인해 | ㉑ 학교 분위기가 싫어서 |
| ㉒ 전학이 안 돼서 | ㉒ 복학생이라고 눈치 줘서 |
| ㉓ 나이 어린 친구들과 다니기 싫어서 | ㉔ 성적이 안 나와서 |
| ㉕ 기타(_____) | |

문 3-4.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 현재까지 학교를 그만 둔 무렵, **학업중단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의논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여러 번 학교를 그만둔 경우, 마지막 그만두었을 때를 기준으로 기재

- | | |
|-----------------------|-------------|
| ① 부모님 | ② 형제자매 |
| ③ 학교교사 | ④ 학교 내 상담교사 |
| ⑤ 상담기관(상담사, 인터넷 상담 등) | ⑥ 친구나 선후배 |
| ⑦ 없음 | ⑧ 기타(_____) |

문 3-5.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학교를 그만둘 때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여러 번 학교를 그만둔 경우, 마지막 그만 두었을 때를 기준으로 기재

	제공 받은 경험...	
1) 학교에 복학하는 절차	① 없다	② 있다
2) 대안학교 등 대안교육기관	① 없다	② 있다
3)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방법	① 없다	② 있다
4)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 등 청소년시설	① 없다	② 있다
5) 진로나 직업교육·훈련 관련 시설(예: 고용지원센터)	① 없다	② 있다
6)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한 설명 [학업중단숙려제: 학업중단 결정 전에 전문가 상담을 받으며 2주 이상 숙려(생각하고 고민)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는 제도]	① 없다	② 있다

문 3-6.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귀하가 학교를 그만둘 당시 필요했던 도움은 어떤 것이었나요? 다음 중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해 주세요.

- | | |
|-------------------------|--------------------------|
| ① 학업중단 이후 생활에 대한 정보제공 | ② 심리상담 |
| ③ 진로상담 | ④ 대안교육 |
| ⑤ 직업기술훈련 | ⑥ 일자리 소개 |
| ⑦ 또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익한 활동 | ⑧ 경제적 지원 |
| ⑨ 진학정보 제공 | ⑩ 진학상담 |
| ⑪ 관심 분야에 대한 맞춤형 정보제공 | ⑫ 관심 분야에 대한 다양한 참여 기회 제공 |
| ⑬ 없음 | ⑭ 기타() |

문 3-7.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학업중단을 결정하기 전에 전문가 상담을 받으며 2주 정도 생각하고 고민하는 기간(학업중단숙려제)을 가졌습니까?

- ① 예 → 「문 3-8」로
② 아니오 → 「문 4」로

문 3-8.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학업중단을 결정하기 전에 2주 동안 학업중단을 할 것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학업중단숙려제)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 | | |
|-----------------|-----------------|
|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 ②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
| ③ 약간 도움이 되었다 | ④ 매우 도움이 되었다 |



Ⅱ. 생활 경험과 인식

※ 다음은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 현재까지** 귀하의 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4.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아래 각각의 일을 경험한 달에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 해당 기간은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 현재까지임
- ※ 해당 기간 동안 월별로 최소 1개 이상 항목에 응답해야 하며 각 항목마다 경험한 달에 모두 표시해야 함
- ※ 월별로 한 일을 여러 개 선택할 수 있음
- ※ 방학기간이나 휴학기간도 학교에 속해 있으면 학교를 다닌 것으로 표기함
- ※ 응답자가 해당 월에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없는 경우 'b)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놀'을 선택
- ※ 앞의 문항에서 복학, 학업중단, 8시간 이상 일(아르바이트) 경험 등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해당 내용이 꼭 표시되어야 함
- ※ 복학이나 학업중단을 여러 번 한 경우 해당 기간을 더 주의 깊게 표시
- ※ 학교를 그만둔 시점은 학교를 떠나지 않기 시작한 때를 기준으로 함

[응답 예시]

2012년 11월에 학업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승호는 **2014년 7월에 지난 설문조사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 현재까지 기간 중 2014년 9월~10월은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2015년 3월에는 전에 다니던 학교에 복학하여 **2015년 6월 현재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2015년 2월~3월은 집 앞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 ☞ 승호가 **지난 설문조사를 한 이후인 2014년 8월부터 2015년 6월 현재까지** 무엇을 했는지를 응답합니다.
- ☞ 문1) 복학하여 학교에 다닌 의 보기 ⑧ 2015년 3월 ~ ⑪ 2015년 6월에 모두 동그라미 합니다.
- ☞ 문5)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하여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함 의 보기 ② 2014년 9월과 ③ 2014년 10월, ⑦ 2015년 2월과 ⑧ 2015년 3월에 모두 동그라미 합니다.
- ☞ 학업중단 기간 중 특별한 일을 하지 않은 나머지 기간은 문6)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놀 의 보기 ① 2014년 8월, ④ 2014년 11월 ~ ⑥ 2015년 1월에 동그라미 합니다.

	2014년					2015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 복학하여 중·고등학교에 다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5)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하여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6)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승호가 응답해야 할 기간											

※ 다음 각각의 항목에 대해 예시에 따라 응답해 주세요.

	2014년					2015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 복학하여 중·고등학교에 다님 (휴학/방학 포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2) 대안학교에 다님 (인가/미인가 모두 포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3) 검정고시 공부를 함(검정고시 학원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4) 직업기술을 배움(직업학교나 학원,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5)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하여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6)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7) 취미나 동아리활동 등에 참여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8)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9)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10) 대학입시 공부를 함(대입 학원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11) 대학에 다님(휴학/방학 포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문 4-1. 「문 4」에서 “2) 대안학교에 다님”에 응답한 경우, 다닌 적이 있는(또는 현재 다니고 있는) 대안학교 이름은 무엇이며, 학교 있는 곳(학교 소재지)은 어디입니까?

대안학교 이름: _____ 학교

학교소재지: (____)(시/도) (____)(시/군/구) (____)(읍/면/동)

문 4-1-1. 「문 4」에서 “2) 대안학교에 다님”에 응답한 경우,

다음 중 어떤 유형의 대안학교에 다니셨습니까(또는 다닙니까)?

- ① 공립 또는 사립 인가 대안학교(학력 인정이 됨)
- ② 미인가 대안학교(학력인정을 위해서는 검정고시를 해야 함)
- ③ 위탁교육기관(종전에 다니던 학교의 졸업자격을 줌)
- ④ 잘 모르겠음

문 4-2. 「문 4」에서 “3) 검정고시 공부를 함”에 응답한 경우 **주로 어떻게** 검정고시 공부를 하셨습니까?

※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 현재까지 검정고시 공부를 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문 4-3」으로

- ① 혼자서 (방송이나 인터넷 강의를 듣는 등)
- ② 검정고시 학원을 다니면서
- ③ 청소년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등 동네 기관에서 지원하는 검정고시 공부
- ④ 교육청이나 보호관찰소 등에서 지원하는 검정고시 공부
- ⑤ 대안학교에 다니면서
- ⑥ 기타()

문 4-2-1. **검정고시에 응시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응시한 적 있다 → 「문 4-2-2」로
- ② 없다 → 「문 4-3」으로

문 4-2-2. (응시한 적이 있다면) 합격하셨습니까?

- ① 전과목 합격
- ② 부분 합격
- ③ 불합격

문 4-3. 「문 4」에서 “4) 직업기술을 배우”에 응답한 경우, 다음 중 **주로 어떤**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이용하셨습니까(또는 하고 계십니까)?

- 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고용정보센터, 공립 직업전문학교 등)
- ② 지역사회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사회복지관, 자활지원관, 청소년기관 등)
- ③ 정부가 학원비를 지원하는 민간 사설학원 프로그램
- ④ 자기가 학원비를 내는 민간 사설학원 프로그램
- ⑤ 기타 ()

문 4-3-1. 거기에서 **배운 내용은 주로 무엇이었습니까**(또는 무엇을 배우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기입해주시시오.

()

문 4-3-2. 귀하가 배우셨던 또는 현재 배우고 계신 프로그램의 구성과 내용, 강사의 질, 프로그램 운영 시설과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 ② 불만족
- ③ 만족
- ④ 매우 만족

문 4-3-3. 「문 4-3-2」에서 ①이나 ②에 응답한 경우, **불만족스럽다면**,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불만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기입해주시시오.

()

문 4-4. 「문 4」에서 “5)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하여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함”에 응답한 경우,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아르바이트(또는 취업)를 하다가 그 일을 그만 둔 경험은 모두 몇 번 입니까?

(총 번) → 0번인 경우 문 4-5로

문 4-4-1. 「문 4」에서 「5)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하여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함」에
응답한 경우, 그 일을 그만 두었다면, 그 일을 중단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지난 조사 이후 일자리를 여러 번 그만두었다면, 가장 오래 일한 주된 일자리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 ① 적성에 맞지 않아서 ② 보수가 적어서
③ 더 이상 돈이 필요하지 않아서 ④ 동료 또는 주인공의 불화로
⑤ 근무 조건·환경이 나빠서 ⑥ 집안의 반대로
⑦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 ⑧ 계약기간이 끝나서
⑨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⑩ 기타()

문 4-5. 「문 4」에서 “6) 아무일도 하지 않으며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놀”에
응답한 경우,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일하고 싶으나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② 하고 싶은 것이 있으나 배울 데가 마땅하지 않아서
③ 만사가 귀찮아서
④ 노는 것이 좋아서
⑤ 기타()

문 5.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지낸 경우가 있다면 해당하는 달에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해당하지 않는 경우 “ ⑩ 해당 없음 ”에 표시

	2014년					2015년						해당 없음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 가출하여 친구집이나 PC방 같은 곳에 지내거나 가출팸과 함께 생활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⑩
2) 보호시설(자립생활관, 청소년 쉼터 등)에서 지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⑩
3) 보호관찰을 받음(보호관찰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⑩
4)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생활함 (소년분류심사원: 비행 청소년들을 상담하여 원인을 밝히고 분류 심사하는 기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⑩
5) 소년원 학교에서 생활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⑩

문 5-1. 「문 5」에서 “1) 가출하여 친구집이나 PC방 같은 곳에 지내거나 가출팸과 함께 생활함”이라고 응답한 달이 있는 경우 가출했을 때, 주로 거주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 「문 5」에서 “1) 가출하여 친구집이나 PC방 같은 곳에 지내거나 가출팸과 함께 생활함”이라고 응답한 달이 없는 경우는 「문 5-2」로

- ① 친구나 아는 형(오빠)/누나(언니) 집 ② PC방
- ③ 찜질방 ④ 모텔, 여관
- ⑤ 원룸, 고시원 ⑥ 지하철이나 기차역, 공원 등 거리
- ⑦ 기타 ()

문 5-2. 「문 5」에서 “3) 보호관찰을 받음”이라고 응답한 달이 있는 경우
지난 조사(2014년 7월)이후 현재까지 여러분이 만나는 보호관찰관이 바뀐 적이 있나요?

※ 「문 5」에서 “3) 보호관찰을 받음”이라고 응답한 달이 없는 경우는 「문 6」으로

- ① 없다 ➡ 「문 5-4」로
- ② 있다 ➡ 「문 5-3」으로

문 5-3. 「문 5-2」에서 “2)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 보호관찰관이 몇 번 바뀌었나요?

보호관찰관이 바뀐 수	_____ 번
-------------	---------

문 5-4. 「문 5」에서 “3) 보호관찰을 받음”이라고 응답한 달이 있는 경우

지난 조사(2014년 7월)이후 현재까지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선생님(보호관찰관)과의 관계는 어떠했습니까? 각 항목별로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응답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보호관찰 선생님은 나의 문제점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려고 노력하셨다.	①	②	③	④
2) 보호관찰 선생님은 내 고민이나 어려움에 대해 알려고 하셨다.	①	②	③	④
3) 보호관찰 선생님은 나를 잘 도와주셨다.	①	②	③	④
4) 보호관찰 선생님에게 나의 문제를 의논하였다.	①	②	③	④

문 5-5. 지난 조사(2014년 7월)이후 귀하가 보호관찰을 받던 기간 중에 다음과 같은 보호관찰 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이 있었는지 이용여부를 체크하고, 만일 이용한 경험이 있다면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도를 응답해 주세요.

	이용여부	만족도			
		매우 불만족 한다	불만족 한다	만족 한다	매우 만족 한다
1) 경제적 지원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2) 학습 · 진로 지도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3)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4) 숙소정보 제공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5) 검정고시학원 교육비 지원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6) 의료 지원(질병치료, 문신제거 등)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7) 심리상담 지원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8) 부모 또는 보호자에 대한 교육 · 상담 지원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 다음은 귀하의 일(아르바이트) 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6. 현재 일(아르바이트)을 하고 있습니까?

- ① 예 → 「문 6-1」로
② 아니오 → 「문 7」로

문 6-1. 지금 주로 하고 있는 일(아르바이트)은 무엇입니까? 아래 보기에서 한 가지만 골라 체크해주세요. 현재 하는 일(아르바이트)이 2개 이상이라면 '더 많은 시간을 하는 일(아르바이트) 기준'입니다.

- | | |
|--------------------------|-------------------------------|
| ① 전단지 돌리기(스티커 부착) | ② 카페(커피숍) 및 주점 서빙 |
| ③ 24시간 편의점 점원 | ④ 일반상점 판매원 |
| ⑤ 게임방 카운터 및 서빙 | ⑥ 노래방 카운터 및 서빙 |
| ⑦ 만화방 카운터 및 서빙 | ⑧ 피자치킨 등 패스트푸드점 서빙/카운터/배달 |
| ⑨ 분식점, 중국집 등에서 서빙/카운터/배달 | ⑩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고객(삐끼), 서빙 및 접대 |
| ⑪ 이벤트 행사장 도우미 | ⑫ 주유소 주유원 |
| ⑬ 이삿짐 운반 또는 물건 포장 | ⑭ 건설현장 노동 |
| ⑮ 공장노동 | ⑯ 사무업무 보조(설문조사 포함) |
| ⑰ 아기, 노인 돌보기 | ⑱ 퀵서비스 배달 |
| ⑲ 택배기사 | ㉑ 태권도·수영·헬스 등 운동 코치·사범 |
| ㉒ 키즈카페·수영장 등 안전요원 | ㉒ 오토바이, 자동차 등 정비 엔지니어 |
| ㉓ 식당, 출장 뷔페 등 요리사 | ㉔ 마트 등 주차·안내요원 |
| ㉕ 이·미용이나 네일 아트 등 | ㉖ 전자제품 방문 설치기사 |
| ㉗ 패션, 광고 모델 | ㉘ 배우 |
| ㉙ 가수 | ㉚ 콜센터 안내직원 |
| ㉛ 일반 사무직 | ㉜ 기타() |

문 6-2. 「문 6-1」에서 응답한 '현재 주로 하고 있는 일' (아르바이트)에 대한 질문입니다.
위에서 응답한 일(아르바이트)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주급이나 월급으로 받는 경우 시간당 비용으로 환산
※ 최대 소수점 1자리까지 표시해 주세요. (3.5일, 5.5시간 등)

1) 일주일에 며칠씩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약 ()일
2) 하루에 몇 시간씩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약 ()시간
3) 한 시간에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약 ()원

※ 다음은 도움을 준 어른을 만난 기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7.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 현재까지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 귀하를 이해하고, 고민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 어른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기관을 모두 표시해 주세요.

- | | |
|--------------------------------------|------------------------|
| ①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 문화의 집 등) | ③ 보호시설(자립생활관, 청소년쉼터 등) |
| ② 복지시설(사회복지관, 공부방 등) | ⑤ 보호관찰소 |
| ④ 상담기관(청소년상담소 등) | ⑦ 종교기관(교회, 성당, 절 등) |
| ⑥ 직업훈련기관(직업전문학교, 취업사관학교) | ⑨ 병원 등 치료시설 |
| ⑧ 학원 | ⑪ 직장 |
| ⑩ 대안교육기관 | ⑬ 기타(_____) |
| ⑫ 없음 | |

※ 다음은 동아리나 인터넷 카페 참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8.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 현재까지 동아리나 인터넷 카페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 ※ 가입만 하고 한 번도 활동하지 않은 경우 “② 아니요” 에 기재
 ※ 지난 조사 전부터 가입해서 계속 참여한 경우는 “① 예” 에 기재

- ① 예 → 「문 8-1」 로
 ② 아니요 → 「문 9」 로

문 8-1. 동아리나 인터넷 카페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세 가지를 골라 주세요.

※ 적어도 1순위는 꼭 기입

1순위	2순위	3순위
① 재미를 위해	② 자아계발	
③ 평소의 흥미	④ 학업중단 청소년끼리의 공감대 형성	
⑤ 보다 많은 사람과의 교류	⑥ 학업중단 성공사례를 알고 싶어서	
⑦ 취미생활 공유	⑧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서	
⑨ 사교적인 성격으로 바꾸고 싶어서	⑩ 검정고시 준비에 도움	
⑪ 복학에 도움	⑫ 대학입시 준비에 도움	
⑬ 취업 또는 직업 선택에 도움	⑭ 대학 및 학과 선택에 도움	
⑮ 공모전 등 각종 대회 준비에 도움	⑮ 학과 공부에 도움	
⑯ 특별한 이유 없음	⑯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 8-2. 귀하가 **가장 활발하게 참여한 동아리나 인터넷 카페**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아래 보기에서 **한 가지**만 골라 체크해주세요.

- | | |
|----------------------------|-------------------------|
| ①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등) 동아리 | ② 복지시설(사회복지관 등) 동아리 |
| ③ 보호시설(청소년쉼터 등) 동아리 | ④ 상담기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동아리 |
| ⑤ 보호관찰소 동아리 | ⑥ 직업훈련기관(직업전문학교 등) 동아리 |
| ⑦ 종교기관(교회, 성당, 절 등) 동아리 | ⑧ 소년원 학교 동아리 |
| ⑨ 검정고시 학원 동아리 | ⑩ 대입학원 동아리 |
| ⑪ 병원 등 치료시설 동아리 | ⑫ 대안교육기관 동아리 |
| ⑬ 중·고등학교 동아리 | ⑭ 대학교 동아리 |
| ⑮ 인터넷 포털(네이버, 다음 등) 카페 | ⑯ 인터넷 홈페이지 |
| ⑰ SNS 서비스(페이스북, 싸이월드 등) 카페 | ⑱ 활발하게 참여한 것 없음 |
| ⑲ 기타() | |

문 8-3. 귀하가 참여하는 동아리나 인터넷 카페 활동 내용을 써 주십시오.

※ 예: 힙합, 야구, 댄스, 기타 동아리 등

→ ()

※ 다음은 귀하의 **진로·진학 관련 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9.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진로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진로에 대해 부모님(또는 주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①	②	③	④
2) 인터넷을 검색하였다.	①	②	③	④
3) 공공기관(교육, 복지, 고용관련 기관 등)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①	②	③	④
4)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5) 여가시간, 방과후, 방학 등을 활용해 직업체험을 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문 10. 다음은 귀하의 **진로**와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진로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선택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여러 가지 직업분야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	①	②	③	④
4) 내가 잘 할 수 있는 직업분야가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5) 내가 하고 싶은 일이나 교육 등에 대한 자료를 얻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앞으로 내가 원하는 진로를 갖지 못할까봐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7) 시대의 변화가 나의 진로에 대한 선택과 계획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8) 경기 불황으로 인해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나의 진로에 영향을 준다.	①	②	③	④
9) 나는 진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다.	①	②	③	④
10) 내가 원하는 진로와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경제적 지원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11)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나를 뒷받침해 줄 수 없다.	①	②	③	④
12)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①	②	③	④
13) 가정환경이 열악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진로로 선택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문 11. **향후 진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해당하는 번호를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단,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여 이미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①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임		➡ 「문 13」으로
진학·학업	② 정규학교로 복학(대학 진학 포함) ③ 대안학교 진학 ④ 해외 유학 ⑤ (대안학교 등을 다니지 않고) 검정고시 준비	➡ 「문 12」로
취업	⑥ 진학하지 않고 취업(또는 창업)할 예정임 ⑦ 취업 혹은 창업을 대비해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예정임	
⑧ 취업과 진학 병행		
⑨ 진학이나 취업은 하지 않고 시간제 근로나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낼 예정임		
⑩ 당분간 무보수로 가업(부모님이 운영하는 가게 등)을 도울 예정임		

문 12. 귀하는 향후 **원하는 진로계획이 달성**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문 13. 귀하는 어느 **수준**까지 **교육**받기를 원하십니까?

중졸	고졸	초대졸 (2~3년제)	대졸 (4년제)	대학원 졸 (석사 및 박사)
①	②	③	④	⑤

문 14. **(지난 조사 (2014년 7월)이후부터 현재까지 정규 중·고등학교를 다닌 적이 없거나 그만 둔 경우에만 응답)**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해 귀하가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응답해 주세요.

※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 정규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경우만 「문 15」로 가세요.
그렇지 않은 경우 모두 아래 질문에 응답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을 친구나 친척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2) 학교에 다니지 않아서 주위사람들이 문제가 취급을 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3) 학교와 같이 소속된 곳이 없으니 불안하(였)다.	①	②	③	④
4) 내가 선택한 결과이니 현재 생활에 만족하(했)다.	①	②	③	④
5)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에 대해 후회하(했)다.	①	②	③	④
6)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였)다.	①	②	③	④

III. 개인의 심리·정서 상황

문 15. 다음은 귀하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에는 정답이 없으니 각 항목에 대해 떠오르는 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 같이 일을 잘할 수가 있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낸다.	①	②	③	④
7) 나는 평소에 잘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해 보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내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9)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호기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매우 에너지(힘)가 넘치는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사는 게 즐겁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문 16. 귀하의 **평소 기분과 행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각각의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기운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2)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①	②	③	④
3) 걱정이 많다.	①	②	③	④
4)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5) 율기를 잘한다.	①	②	③	④
6)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자주한다.	①	②	③	④
7) 외롭다.	①	②	③	④
8)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①	②	③	④
9) 장래가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다.	①	②	③	④
10) 모든 일이 힘들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말보다 주먹이 앞선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일이 힘들고 복잡해지면 곧 포기한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위험하고 짜릿한 활동을 즐기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14) 나는 사람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일이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15) 나는 화가 나면 물물을 가리지 않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 다음은 귀하의 게임, SNS,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17. 귀하가 **최근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얼마나 자주 해 보았는지** 아래 각각의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문 17-1. 다음은 **게임**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	①	②	③	④
2) 게임을 하느라 해야 할 일을 못한다.	①	②	③	④
3) 갈수록 게임을 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①	②	③	④
4) 점점 더 오랜 시간 게임을 해야 만족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5) 게임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에도 게임을 그만두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6) 게임 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한다.	①	②	③	④
7) 게임을 안 하겠다고 마음먹고도 다시 게임을 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8) 게임 생각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문 17-2. 다음은 **SNS**에 관한 질문입니다.

- ※ 본 설문에서 말하는 SNS는 "웹 상에 개인이 공적인 신상정보를 만들거나, 자신과 인맥을 맺은 다른 이용자들의 리스트를 분류하고, 다른 사람들의 계정에 있는 인맥 리스트를 볼 수 있는 웹서비스"를 의미
 ※ 대표적으로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싸이월드가 SNS에 포함되며, 카카오톡은 SNS에 포함되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SNS 상에서 나의 개인정보(연락처, 하는 일, 학교 등)가 유출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2) SNS 상에서 누군가로부터 나에 대한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 SNS 상에서 나를 놀리는 글을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4) SNS 상에서 누군가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5) SNS 상에서 나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글(괴담, 소문)을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6) SNS를 통해 누군가를 따돌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7) SNS를 통해 허락 없이 누군가의 개인정보를 올려놓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8) SNS를 통해 누군가에 대해 욕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9) SNS를 통해 누군가를 놀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10) SNS를 통해 남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글(괴담, 소문 등)을 올려놓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문 17-3. 다음은 **스마트폰**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더 즐겁다.	①	②	③	④
2)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다.	①	②	③	④
3)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이려고 해보았지만 실패했다.	①	②	③	④
4) 스마트폰을 사용하느라 계획한 일(공부, 숙제, 또는 학원수강 등)을 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5)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온 세상을 잃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6)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①	②	③	④
7)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8) 스마트폰을 너무 자주 또는 오래 사용한다고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불평을 들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IV. 부모·친구관계·동네주변 환경

※ 다음은 귀하의 부모(보호자), 친구관계, 동네주변 환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 18. 다음은 귀하가 부모님(보호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각각의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경우는 보호자에 대해 응답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보호자란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 다른 가족, 친척, 어른 등이 부모님의 역할을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2) 나에게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3) 고민을 들어 주신다.	①	②	③	④
4)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신다.	①	②	③	④
5)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위로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6) 부모님(보호자)은 나에게 용돈을 주신다.	①	②	③	④
7) 부모님(보호자)은 내 공부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사 주신다.	①	②	③	④
8)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경제적인 걱정 없이 생활하게 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문 19. 다음은 부모님(보호자)께서 귀하에게 나타내는 행동이나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신에게 가까운 곳에 표시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다른 일(직장일이나 바깥일)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①	②	③	④
2) 나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칭찬하거나 혼내는 일이 없으시다.	①	②	③	④
3)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관심이 없으시다.	①	②	③	④
4) 늦게 들어와도 신경 쓰지 않으신다.	①	②	③	④
5) 내가 아플 때도 귀찮아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신다.	①	②	③	④
6) 화를 낼 때는 주위에 아무거나 손에 닿는 대로 들고 때리신다.	①	②	③	④
7) 내가 잘못하면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때리려고 하신다.	①	②	③	④
8) 내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부모님(보호자)께서 나를 때리신다.	①	②	③	④
9)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을 많이 하신다. (예를 들어 멍청이, 개만도 못한 것, 나가 죽어라 네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등의 말)	①	②	③	④

문 20. **현재 친한 친구**가 몇 명입니까?

- ※ 여기서 친한 친구란 '평소에 잘 어울리고 친하게 지내는 친구' 로 예전 학교친구, 동네친구 및 선후배도 포함될 수 있음
- ※ 없으면 0으로 기입

현재 친한 친구 수	() 명
------------	-------

문 20-1. 「문 20」에서 응답한 '현재 친한 친구' 중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 새롭게 사귀 친구**는 몇 명입니까?

- ※ 「문 20」에서 말한 현재 친구 중에서 기입하는 것이므로 「문 20」의 친구 수보다 같거나 작아야 함
- ※ 없으면 0으로 기입

새롭게 사귀 친구 수	() 명
-------------	-------

문 20-2. 「문 20」에서 응답한 '현재 친한 친구' 중 **학교를 그만 둔 친구**는 몇 명입니까?

- ※ 「문 20」에서 말한 친구 중에서 기입하는 것이므로 「문 20」의 친구 수보다 같거나 작아야 함
- ※ 없으면 0으로 기입

학업중단한 친구 수	() 명
------------	-------

문 21. 귀하의 **친구(선후배 포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래 각각의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	①	②	③	④
4) 내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을 잘 괴롭힌다.	①	②	③	④
5) 내 친구들은 다른 사람을 잘 때린다.	①	②	③	④
6) 내 친구들은 물건을 잘 훔친다.	①	②	③	④

문 22. 귀하가 **현재 사는 동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각각의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동네 사람들은 대부분 잘 알고 지낸다.	①	②	③	④
2) 우리 동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돕는다.	①	②	③	④
3) 동네에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면 우리 동네 어른들은 꾸짖는다.	①	②	③	④
4) 우리 동네 사람들은 청소년들이 길거리에서 싸우고 있으면 혼내고 말린다.	①	②	③	④
5) 우리 동네는 관리하지 않는 빈 집이나 공터가 많다.	①	②	③	④
6) 우리 동네는 어둡고 후미진 곳이 많다.	①	②	③	④
7) 우리 동네는 밤에 술 취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닌다.	①	②	③	④
8) 우리 동네는 불량한 청소년들이 함께 몰려다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①	②	③	④
9) 우리 동네에는 여가문화시설(청소년시설, 문화센터, 도서관 등)이 가까운 곳에 있어 이용하기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10) 우리 동네는 산, 공원, 하천 둔치 등이 있어 운동이나 산책하기 좋다.	①	②	③	④

V. 일상생활 및 가치관

※ 다음은 귀하의 일상생활 및 가치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 23. 다음은 귀하가 하루 동안 생활하는 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생활 영역별로 해당 여부를 응답하시고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간을 기입해 주세요.

- ※ 평일, 휴일별로 모든 시간의 합은 24시간 이하가 되어야 함
- ※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경우 주로 하는 일 기준으로 기재
- ※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에 표시
- ※ 알 설문에서 현재 정규 중·고등학교에 다님, 대안학교에 다님, 직업기술을 배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하여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함 등에 응답하였으면 학교나 대안학교,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지내는 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또는 취업해서 일하는 시간에 반드시 응답하여야 함
- ※ 자신이 하루 중 주로 하는 일이 빠진 경우 기타에 기입하고 시간을 기재

		해당여부	평일에는	휴일에는
수면 시간	1) 나는 하루 24시간 중 잠자는 시간이 대략...		()시간이다.	()시간이다.
공부나 일하는 시간	2) 나는 하루 24시간 중 학교나 대안학교, 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지내는 시간이 대략...	① 해당 없음 ② 해당 있음 →	()시간이다.	()시간이다.
	3) 나는 하루 24시간 중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또는 취업해서 일하는 시간이 대략...	① 해당 없음 ② 해당 있음 →	()시간이다.	()시간이다.
여가 시간	4) 나는 하루 24시간 중 숙제, 시험준비, 자격증을 따기 위해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대략...	① 해당 없음 ② 해당 있음 →	()시간이다.	()시간이다.
	5) 나는 하루 24시간 중 휴대전화기, 컴퓨터, 게임, TV 등을 보면서 시간을 때우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대략...	① 해당 없음 ② 해당 있음 →	()시간이다.	()시간이다.
	※ 숙제나 공부 때문에 TV를 보거나 컴퓨터를 하는 시간은 제외함			
	6) 나는 하루 24시간 중 운동, 취미, 동아리, 교회나 성당에 가는 시간이 대략...	① 해당 없음 ② 해당 있음 →	()시간이다.	()시간이다.
	7) 나는 하루 24시간 중 친구들과 함께 돌아다니거나 노는 시간이...	① 해당 없음 ② 해당 있음 →	()시간이다.	()시간이다.
	8) 나는 이 외에 하루 24시간 중 여가 시간에 주로 ()을/를 하며 시간은 대략...	① 해당 없음 ② 해당 있음 →	()시간이다.	()시간이다.
합계			평일 합계 ()시간	휴일 합계 ()시간

문 23-1. 귀하는 **보통 몇 시에 잠니까?** 평일과 휴일로 나누어서 응답해 주세요.

※ 예: 밤 10시 30분 → (22) 시 (30) 분, 밤 12시 → (0) 시 (0) 분, 새벽 1시 30분 → (1) 시 (30) 분

1) 평일	2) 휴일
()시 ()분	()시 ()분

문 24. 다음은 **식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 각각의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여기서 우유나 주스만을 마신 것은 식사에서 제외하며 빵, 선식, 미숫가루, 죽, 시리얼 등을 먹은 경우는 포함합니다.

	예	아니오
1) 최근 7일 동안 나는 아침식사를 많아야 2번 먹었다.	①	②
2) 최근 7일 동안 나는 점심식사를 많아야 2번 먹었다.	①	②
3) 최근 7일 동안 나는 저녁식사를 많아야 2번 먹었다.	①	②
4) 최근 7일 동안 나는 라면이나 컵라면을 주 3회 이상 먹었다.	①	②

문 25. 다음은 **학력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아래 각각의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사회는 학력이 높을수록 대우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2) 우리사회에서는 대학교 졸업장이 없으면 심하게 차별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3) 우리 사회에서 중·고등학교 중퇴 학력으로는 취업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문 26.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경우만 응답〕**다음은 귀하가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별로 귀하가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응답해 주세요.

※ 이미 대학에 진학한 경우, 「문 27」로 이동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원하면 대학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내가 열심히 하면 앞날이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내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문 27. 다음은 귀하가 **사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사회는 나를 부정적으로 본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사회가 나를 열등하게 본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르게 취급받는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사회에서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사회가 나를 문제 있는 존재로 본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사회 속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7) 나는 사회에 의해서 희생되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8) 나는 유용한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문 28. 다음은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목표의식을 갖기 위한 동기부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2) 자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3) 자립을 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 정보를 제공해주는 성인안내자의 도움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4)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제적인 학업준비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5) 직업기술,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기회가 늘어나야 한다.	①	②	③	④
6) 관심 있는 분야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7) 취업 및 대학진학과 관련한 진로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8) 긍정적인 대인관계 형성, 갈등상황 해결, 분노조절 등의 사회관계훈련이 제공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9) 저축, 돈 관리 등 실생활 속의 경제교육과 체험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VI. 행동 경험

※ 다음은 귀하의 **행동이나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문 29. 다음은 귀하가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천천히 기억을 되살려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 현재까지,
다음과 같은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 현재까지	
1) 집단 따돌림(왕따) 당하기	① 없다	② 있다
2) 성적인 놀림 당하기	① 없다	② 있다
3) 문자나 메신저로 일방적으로 음란물 받기	① 없다	② 있다
4)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뺏기기(상납)	① 없다	② 있다
5) 심하게 얻어맞기(폭행)	① 없다	② 있다
6) 성폭력 당하기	① 없다	② 있다

문 30. 다음은 귀하가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 현재까지,
다음과 같은 행동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 현재까지	
1) 담배 피우기	① 없다	② 있다
2) 술 마시기	① 없다	② 있다
3)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	① 없다	② 있다
4)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① 없다	② 있다
5) 남의 돈이나 물건 뺏기(뺑 뜯기)	① 없다	② 있다
6) 음란물(영상, 사진, 서적)을 보기	① 없다	② 있다
7) 돈내기 도박 해보기(인터넷 포함)	① 없다	② 있다
8) 자살 시도	① 없다	② 있다
9) 공공장소에 있는 기물이나 물건 파손하기	① 없다	② 있다
10) 약물(본드) 흡입	① 없다	② 있다

문 31. 귀하는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 문제행동으로 인해 경찰서에 간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문 31-1」로
② 아니오 → 「문 32」로

문 31-1. 만일 경찰서에 간 적이 있다면, 몇 번이나 갔습니까?

경찰서에 갔던 경험 경험	() 번
------------------------------	-------

문 31-2. 만일 경찰서에 간 적이 있다면, 다음 중 어떤 처분을 받았습니까?

두 번 이상일 경우 그 때마다 받았던 처분이 무엇이었는지 각각 응답해 주세요.

※ 세 번 이상일 경우, 세 번째까지만 적어주세요.

순서	처분유형	
첫 번째	① 아무 혐의가 없어서 그냥 풀려남 ② 경찰에서 선도조건부 훈방으로 풀려남 ③ 검찰에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로 풀려남 ④ 기타()	※ <u>경찰의 선도조건부 훈방</u>이란, 경찰이 상담이나 교육을 조건으로 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 <u>검찰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u>란, 검사가 상담이나 교육을 조건으로 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① 아무 혐의가 없어서 그냥 풀려남 ② 경찰에서 선도조건부 훈방으로 풀려남 ③ 검찰에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로 풀려남 ④ 기타()	
세 번째	① 아무 혐의가 없어서 그냥 풀려남 ② 경찰에서 선도조건부 훈방으로 풀려남 ③ 검찰에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로 풀려남 ④ 기타()	

부 록 2

(3차년도 문항별 조사결과)

표 부록 2-1 1차, 및 2차년도 및 3차년도¹¹⁾ 조사 참여자 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모두 참여	167	75.9
3차년도만 미참여	43	19.5
2차년도만 미참여	10	4.5
계	220	100.0

표 부록 2-2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전 체		사례수	비율
성별	남학생	130	77.8
	여학생	37	22.2
연령	만 14-15세	1	0.6
	만 16-18세	58	34.7
	만 19세~20세	108	64.7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74	44.3
	한부모가정	21	12.6
	부모 모두 안계심	72	43.1
가정경제수준	상	26	15.6
	중	63	37.7
	하	78	46.7
학업성적	상	9	5.4
	중	23	13.8
	하	135	80.8
건강상태	전혀 건강하지 못함	7	4.2
	건강하지 못함	32	19.2
	건강한 편이다	94	56.3
	매우 건강하다	34	20.4

11) 2013년에 실시한 조사는 1차년도, 2014년에 실시한 조사는 2차년도, 2015년에 실시한 조사는 3차년도로 표기되었음.

1. 학업중단 현황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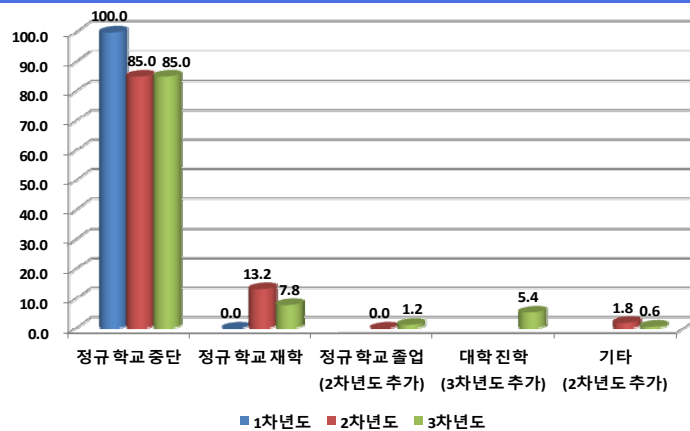
문 1. 중단/복교상태

중단/복교상태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85%가 '정규 학교를 그만둔 상태'라고 응답함

- 중단/복교상태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85.0%가 '정규 학교를 그만둔 상태'라고 응답했으며 '정규 학교를 다니는 상태'라고 응답한 비율은 7.8%, 고등학교를 졸업한 상태라는 응답이 1.2%였으며, 대학에 진학한 상태는 5.4% 기타는 0.6%였다.

1~3차년도 비교결과



【그림 부록 2-1】 중단/복교상태(N=167, 단위: %)

표 부록 2-3 중단/복교상태¹³⁾

(단위: 명, %)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정규 중·고등학교를 그만둔 상태	167	100.0	142	85.0	142	85.0
② 정규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상태	0	0.0	22	13.2	13	7.8
③ 정규 고등학교를 졸업한 상태(2차년도 추가)			0	0.0	2	1.2
④ 대학에 진학한 상태(3차년도 추가)					9	5.4
⑤ 기타(2차년도 추가)			3	1.8	1	0.6
계	167	100.0	167	100.0	16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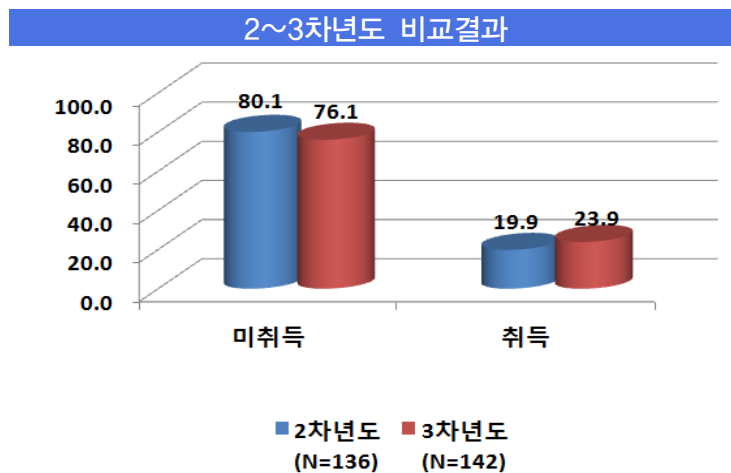
12) 2013년 실시한 조사는 1차년도, 2014년 실시한 조사는 2차년도, 2015년 실시한 조사는 3차년도로 표기하였음. 이하 동일.

13) 1차년도 조사 당시 보기(① 학교를 그만 둔 상태 ② 학교를 그만 두었다가 정규학교로 복학한 상태)는 2~3차년도 조사 시 수정된 보기에 따라서는 각각 정규 중·고등학교를 그만둔 상태, 정규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상태로 간주하여 대입되었음. 병합된 셀에 해당되는 보기는 해당년도에 조사되지 않았던 항목임. 이하 동일.

문 1-1. 졸업자격 취득여부(2차년도 추가)¹⁴⁾

**고등학교 졸업자격 취득여부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23.8%가 '취득하였다', 76.2%가 '취득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함**

- 졸업자격 취득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 142명 중 23.9%가 '취득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취득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6.1%였다.



【그림 부록 2-2】 졸업자격 취득 여부(단위:%)

표 부록 2-4 졸업자격 취득 여부¹⁵⁾

(단위: 명, %)

구분	2차년도		3차년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하지 않음	109	80.1	108	76.1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함	27	19.9	34	23.9
계	136	100.0	14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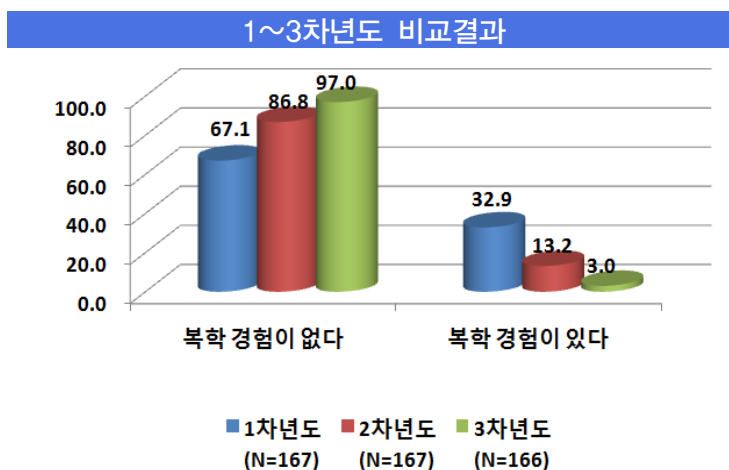
14) 문 1-1은 문 1의 ①번 '정규 중·고등학교를 그만둔 상태'에 응답한 경우만 응답한 결과임. 문 1-2의 경우 학사 일정(학기 중, 방학 중, 휴학 중)을 묻는 문항으로 수목이 불필요하여 본 보고서에 응답결과를 제시하지 않았음.

15) 무응답을 제외한 사례수를 기준으로 제시되었기에 부분적으로 사례수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음. 이하동일.

문 2. 복교 경험

복교 경험에 관한 문항 응답 결과, 전체 응답자 중 3.0%만이 '복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복교 경험에 관한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30%가 '복학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하였고, 97.0%는 '복학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복학 경험이 있다'는 응답률은 2013년(32.9%)에서 2014년(13.2%), 2015년은 3.0%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림 부록 2-3】 복교 경험(단위: %)

표 부록 2-5 복교 경험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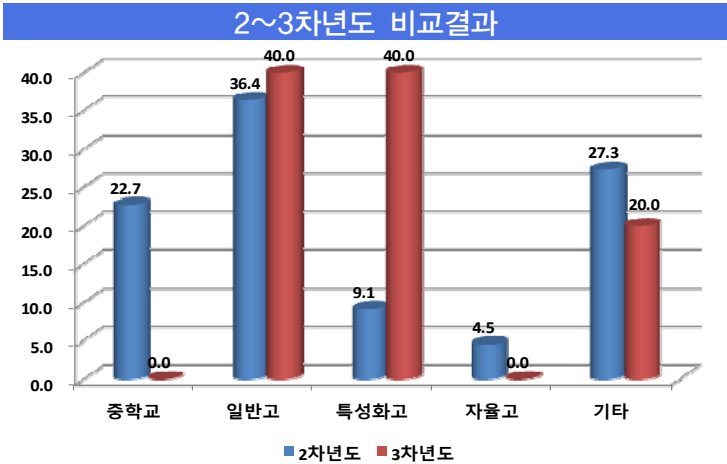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복학 경험 없음	112	67.1	145	86.8	161	97.0
복학 경험 있음 ¹⁶⁾	55	32.9	22	13.2	5	3.0
계	167	100.0	167	100.0	166	100.0

16) 2-3차년도 조사 시 수정된 보기에 따라 1차년도 조사 당시 보기 ①, ②(① 복학한 경험이 있다 ② 현재 복학하여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복학 경험 있음으로 간주하여 제시되었음.

문 2-1. 복교 학교 형태(2차년도 추가)¹⁷⁾

복교 학교 형태는 ‘일반고(40.0%)’와 ‘특성화고(40.0%)’가 가장 높았고, ‘기타(20.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복교 학교 형태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일반고(40.0%)’와 ‘특성화고(40.0)’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기타(2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부록 2-4】 복교 학교 형태(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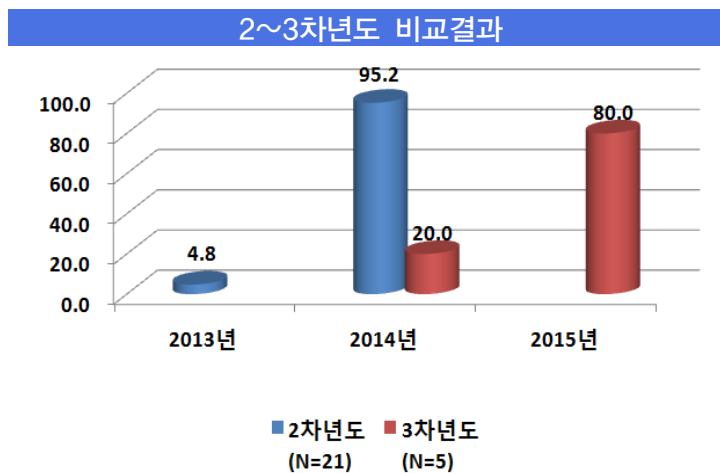
표 부록 2-6 복교 학교 형태		(단위: 명, %)		
구분	2차년도		3차년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중학교	5	22.7	0	0.0
일반고	8	36.4	2	40.0
특성화고	2	9.1	2	40.0
자율고	1	4.5	0	0.0
특목고	0	0.0	0	0.0
방통중(3차년도 추가)			0	0.0
방통고(3차년도 추가)			0	0.0
대안학교(3차년도 추가)			0	0.0
기타	6	27.3	1	20.0
계	22	100.0	5	100.0

17) 문 2에서 ‘㉔ 복학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만 문 2-1~7에 응답하였음.

문 2-2. 복교 시기(2차년도 추가)

복교 시기는 '2014년도에 1명', '2015년도에 4명'이 복학한 것으로 나타남

- 복교 시기에 대해 질문한 결과, '2013년' 이후 복학한 응답자는 2014년에 1명, 2015년에 4명으로 총5명이 복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부록 2-5】 복교 시기 (단위: %)

표 부록 2-7 복교 시기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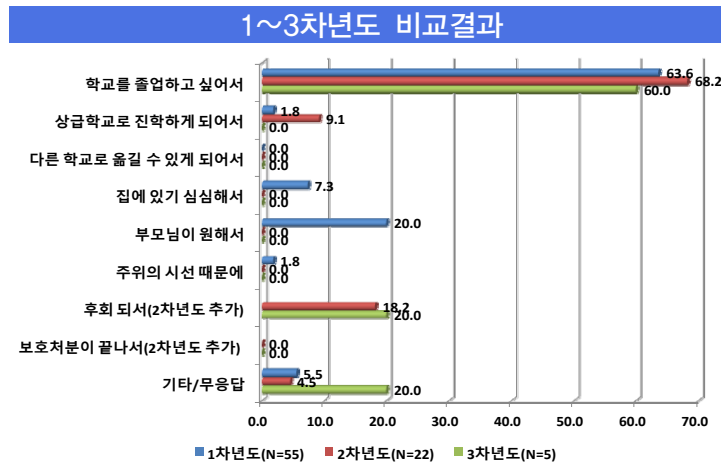
구분	2차년도		3차년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2013년 복학	1	4.8	18)	
2014년 복학	20	95.2	1	20.0
2015년 복학			4	80.0
계	21	100.0	5	100.0

18) 3차년도 조사 시 응답 기준이 2014년 7월 이 후이므로 2013년은 해당되지 않음.

문 2-3. 복교 이유

학교 복귀 이유는 ‘학교를 졸업하고 싶어서(60.0%)’가 가장 높았고,
‘학교를 그만둔 것이 후회돼서(20.0%)’, ‘기타(20.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복교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학교를 졸업하고 싶어서(60.0%)’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학교를 그만둔 것이 후회돼서(20.0%)’, ‘기타(20.0%)’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부록 2-6】 복교 이유(단위: %)

표 부록 2-8 복교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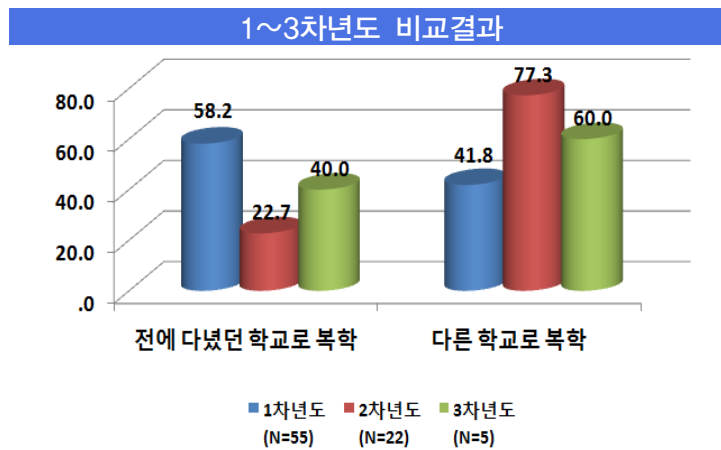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학교를 졸업하고 싶어서	35	63.6	15	68.2	3	60.0
② 감정고시를 보고 상급학교로 진학하게 되어서	1	1.8	2	9.1	0	0.0
③ 다른 학교로 옮길 수 있게 되어서	0	0.0	0	0.0	0	0.0
④ 집에 있기 심심해서	4	7.3	0	0.0	0	0.0
⑤ 부모님이 원해서	11	20.0	0	0.0	0	0.0
⑥ 주위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1	1.8	0	0.0	0	0.0
⑦ 학교를 그만둔 것이 후회 돼서(2차년도 추가)			4	18.2	1	20.0
⑧ 보호처분이 끝나서(2차년도 추가)			0	0.0	0	0.0
⑨ 기타/무응답	3	5.5	1	4.5	1	20.0
계	55	100.0	22	100.0	5	100.0

문 2-4. 종전 학교로의 복교 여부

**복교한 학교유형 문항의 응답 결과 ‘다른 학교로 복학(60.0%)’한 비율이
‘전에 다녔던 학교로 복학(40.0%)’한 비율보다 높게 나타남**

- 종전 학교로의 복교 여부와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 가운데 40.0%는 ‘전에 다녔던 학교로 복학하였다’, 60.0%는 ‘다른 학교로 복학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부록 2-7】 종전 학교로의 복교 여부(단위: %)

표 부록 2-9 종전 학교로의 복교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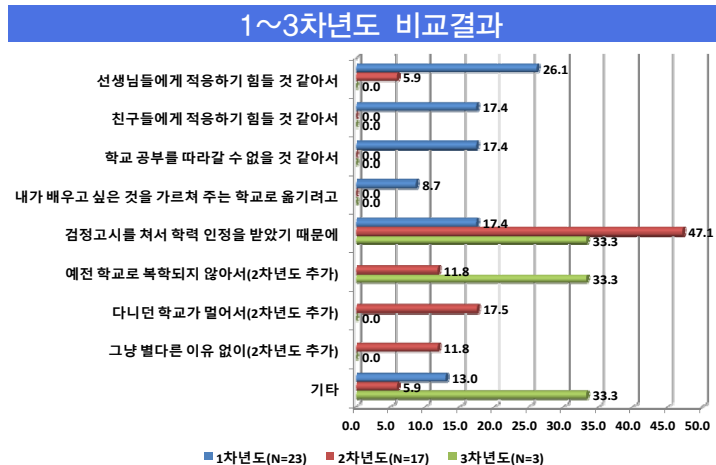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다른 학교에 복학함	23	41.8	17	77.3	3	60.0
전에 다녔던 학교로 복학함	32	58.2	5	22.7	2	40.0
계	55	100.0	22	100.0	5	100.0

문 2-5. 종전 학교로 복학하지 않은 이유¹⁹⁾

종전 학교로 복학하지 않은 이유는 ‘검정고시로 학력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33.3%)’, ‘예전 학교로 복학되지 않아서(33.3%)’, ‘기타(33.3%)’로 나타남

- 종전 학교로 복학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검정고시를 쳐서 학력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33.3%)’, ‘예전 학교로 복학되지 않아서(33.3%)’, ‘기타(33.3%)’로 나타났다.



【그림 부록 2-8】 종전 학교로 복학하지 않은 이유(단위: %)

표 부록 2-10 종전 학교로 복학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선생님들에게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아서	6	26.1	1	5.9	0	0.0
② 친구들에게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아서	4	17.4	0	0.0	0	0.0
③ 학교 공부를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서	4	17.4	0	0.0	0	0.0
④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을 가르쳐 주는 학교로 옮기려고	2	8.7	0	0.0	0	0.0
⑤ 검정고시를 쳐서 학력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4	17.4	8	47.1	1	33.3
⑥ 예전 학교로 복학되지 않아서(2차년도 추가)			2	11.8	1	33.3
⑦ 다니던 학교가 멀어서(2차년도 추가)			3	17.5	0	0.0
⑧ 학비가 비싸서(2차년도 추가)			0	0.0	0	0.0
⑨ 내신을 받기 어려워서(2차년도 추가)			0	0.0	0	0.0
⑩ 계열을 바꾸려고(2차년도 추가)			0	0.0	0	0.0
⑪ 그냥 별다른 이유 없이(2차년도 추가)			2	11.8	0	0.0
⑫ 기타	3	13.0	1	5.9	1	33.3
계	23	100.0	17	100.0	3	100.0

19) 문 2-4에서 복학한 학교가 ‘② 다른 학교’라고 응답한 경우(1차년도 23명, 2차년도 17명, 3차년도 3명)만 응답한 결과임
문 2-6의 경우 복학한 학교 소재지를 묻는 문항으로 수록이 불필요하여 본 보고서에 응답결과를 제시하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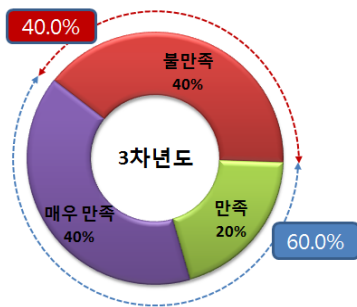
문 2-7. 복교 후 학교생활 만족(2차년도 추가)

**복교 후 학교생활 만족에 관한 문항 응답 결과,
전체 응답자 중 60.0%가 '만족한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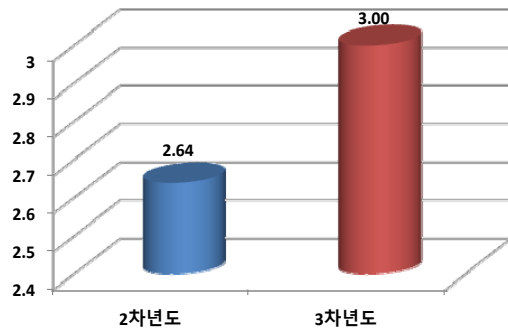
○ 복교 후 학교생활 만족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60.0%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40.0%는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연도별 추이] 2014년($M=2.64$)에서 2015년($M=3.00$)으로 만족도가 다소 증가하였다.

3차년도 결과(비율기준)



2~3차년도 비교결과(평균기준)



【그림 부록 2-9】 복교 후 학교생활 만족(단위: %, 점)

표 부록 2-11 복교 후 학교생활 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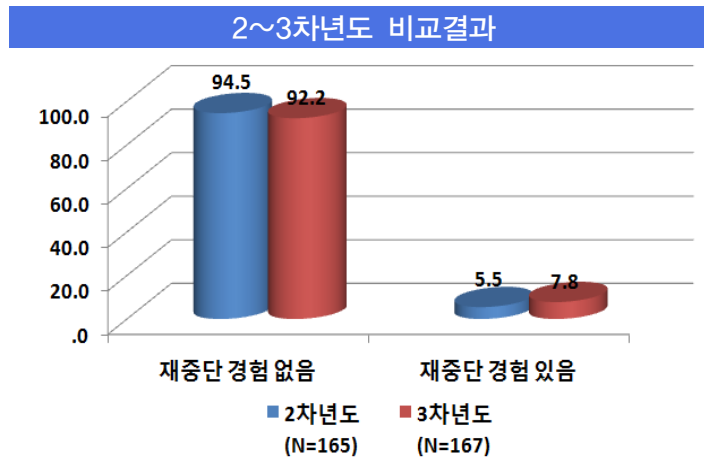
(단위: 명, %, 점)

구분	2차년도			3차년도		
	사례수	비율	M(SD)	사례수	비율	M(SD)
매우 불만족한다	3	13.6	2.64 (0.85)	0	0.0	3.00 (1.0)
불만족한다	4	18.2		2	40.0	
만족한다	13	59.1		1	20.0	
매우 만족한다	2	9.1		2	40.0	
계	22	100.0		5	100.0	

문 3. 재중단 경험(2차년도 추가)

재중단 경험에 관한 문항 응답 결과,
전체 응답자 중 7.8%가 '재중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재중단 경험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7.8%가 '재중단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하였고, 92.2%는 '중단 경험이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그림 부록 2-10】 재중단 경험 (단위: %)

표 부록 2-12 재중단 경험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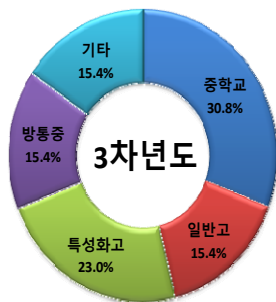
구분	2차년도		3차년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재중단 경험 없음	156	94.5	154	92.2
재중단 경험 있음	9	5.5	13	7.8
계	165	100.0	167	100.0

문 3-1. 재중단 학교 유형(2차년도 추가)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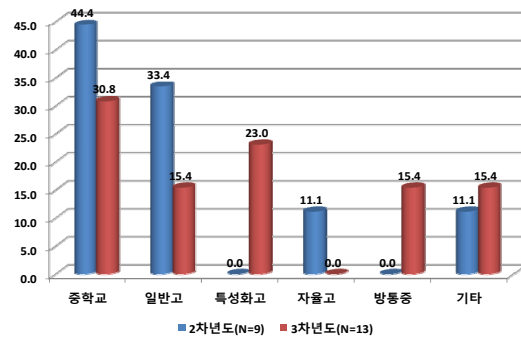
학업 재중단 학교 유형은 ‘중학교(30.8%)’가 가장 높았고,
‘특성화고(23.0%)’, ‘일반고(15.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재중단 학교 유형에 대해 질문한 결과, ‘중학교(30.8%)’가 가장 높았고, ‘특성화고(23.0%)’, ‘일반고(15.4%)’의 순으로 나타났다.

3차년도 결과(전체 기준)



2~3차년도 비교결과



【그림 부록 2-11】 재중단 학교 유형(단위: %)

표 부록 2-13 재중단 학교 유형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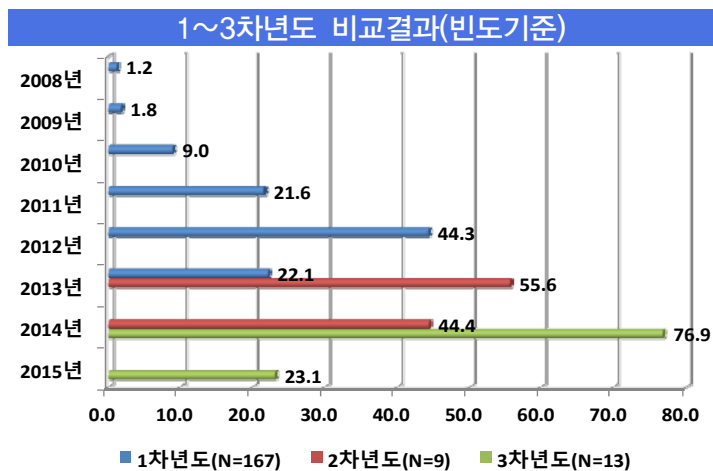
구분	2차년도		3차년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중학교	4	44.4	4	30.8
일반고	3	33.4	2	15.4
특성화고	0	0.0	3	23.0
자율고	1	11.1	0	0.0
방통중	0	0.0	2	15.4
기타	1	11.1	2	15.4
계	9	100.0	13	100.0

20) 문 3-1~문 3-8은 문 3의 ㉔번 ‘재중단 경험이 있다’에 응답한 경우만 응답한 결과임.

문 3-2. 학업 재중단 시기²¹⁾

**학업 재중단 시기는 2012년(74명)에 가장 많았고,
3차년도 조사결과 2014년(10명), 2015년(3명)으로 나타남**

- 지난 조사 이후(2014년 7월) 이후 정규 중·고등학교를 중단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 대해 2014년도에 '중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6.9%였고, 2015년도는 23.1%로 나타났다. 2013년도 1차년도 조사 기준으로는 조사 전년도인 2012년도가 44.3%(74명)으로 가장 많았고, 조사당해년도가 2013년도가 22.1%(37명)으로 나타났다.



【그림 부록 2-12】 학업 재중단 시기(단위: %)

표 부록 2-14 학업 재중단 시기

(단위: 명, %)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2008년	2	1.2				
2009년	3	1.8				
2010년	15	9.0				
2011년	36	21.6				
2012년	74	44.3				
2013년	37	22.1	5	55.6	10	76.9
2014년			4	44.4		
2015년					3	23.1
계	167	100.0	9	100.0	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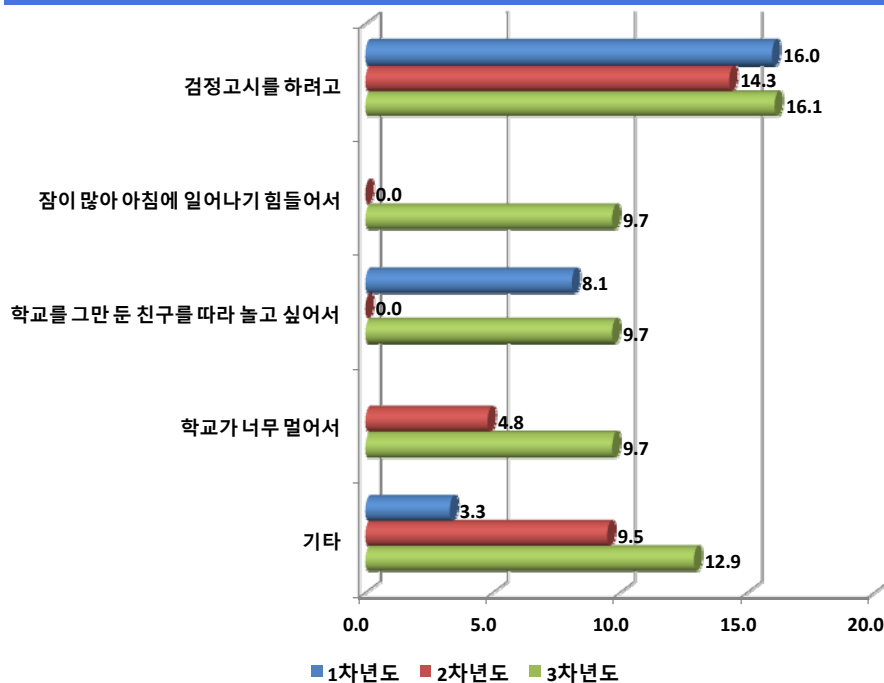
21) 문 3-2~문 3-8에 해당하는 문항은 1차년도 조사 당시 학업중단 경험과 관련된 내용이 제시되었으며, 2~3차년도의 경우 지난 조사이후 학업 재중단 경험과 관련된 내용으로 제시되었음.

문 3-3. 학업 재중단 이유(복수응답)

학업 재중단 이유는 ‘검정고시를 하려고(16.1%)’가 가장 높았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서(9.7%)’, ‘친구를 따라 놀고 싶어서(9.7%)’, ‘학교가 너무 멀어서(9.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학업 재중단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검정고시를 하려고(16.1%)’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서(9.7%)’, ‘친구를 따라 놀고 싶어서(9.7%)’, ‘학교가 너무 멀어서(9.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3차년도 비교결과 (1-5위 기준)



【그림 부록 2-13】 학업 재중단 이유(단위: %)

표 부록 2-15 학업 재중단 이유²²⁾

(단위: 명, %)

영역	내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가정형평/ 개인사정	① 건강상의 이유로	2	0.4	0	0.0	1	3.2
	② 심리적 혹은 정서적인 문제가 있어서	7	1.5	0	0.0	0	0.0
	③ 가정불화 때문에	12	2.6	0	0.0	0	0.0
	④ 집안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11	2.4	0	0.0	0	0.0
	⑩ 잠이 많아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서(2차년도 추가)			0	0.0	3	9.7
학교부적응/ 품행문제 (학업, 친구, 환경 등)	⑤ 공부하기 싫어서	81	17.7	5	23.7	0	0.0
	⑥ 학교에 가야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65	14.2	1	4.8	1	3.2
	⑦ 친구들이 싫어서	9	2.0	0	0.0	0	0.0
	⑧ 학교의 규칙이 엄해서	30	6.6	2	9.5	1	3.2
	⑨ 학교를 그만 둔 친구를 따라 놀고 싶어서	37	8.1	0	0.0	3	9.7
	⑩ 선생님이 싫어서	47	10.3	1	4.8	0	0.0
	⑬ 학교규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아서	29	6.3	2	9.5	3	9.7
	⑭ 비행으로 보호처분을 받게 되어서	19	4.2	1	4.8	3	9.7
	⑮ 학교가 너무 멀어서(2차년도 추가)			1	4.8	3	9.7
	⑰ 다른 학교에 가려고(2차년도 추가)			0	0.0	0	0.0
	⑱ 이민 또는 해외 유학 가려고(2차년도 추가)			0	0.0	0	0.0
	⑲ 이성문제로 인해(2차년도 추가)			0	0.0	0	0.0
	⑳ 학교 분위기가 싫어서(2차년도 추가)			0	0.0	0	0.0
	㉑ 전학이 안 돼서(2차년도 추가)			0	0.0	1	3.2
	㉒ 복학생이라고 눈치 줘서(2차년도 추가)			0	0.0	0	0.0
대안교육 선호	㉓ 나이 어린 친구들과 다니기 싫어서(2차년도)			2	9.5	2	6.5
	㉔ 성적이 안 나와서(2차년도 추가)			1	4.8	0	0.0
	㉕ 기타(취업, 타 진로 등)	15	3.3	2	9.5	4	12.9
계		457	100.0	21	100.0	3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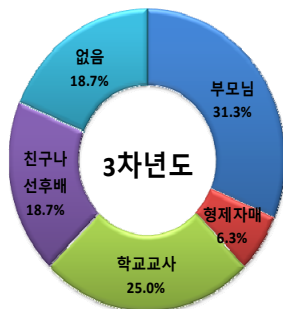
22) 1~3순위로 복수 기입 방식이었으며, 비율은 다중응답 처리된 케이스 퍼센트를 반영하였음. 2~3차년도 조사 시 수정된 보기에 따라 1차년도 조사 시 '학교가기가 귀찮아서, 잠을 자느라고, 출석이 안 좋아서 등', '거리, 내신 성적, 종교, 학교 분위기 등 이유가 있어서', '학교부적응으로', '가출, 학교폭력, 임신, 여자친구 등 비행문제'는 ㉕기타로 간주하여 제시되었음.

문 3-4. 학업 재중단 시 상담자(복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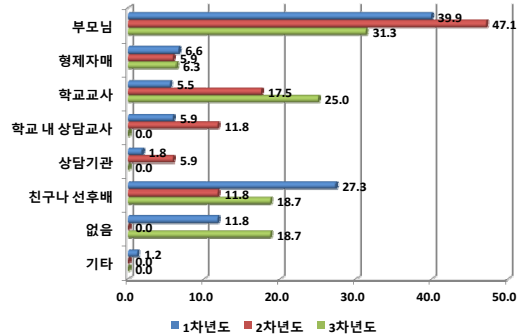
학업 재중단 시 상담자는 '부모님(31.3%)'이 가장 많았고, '학교교사(25.0%)', '친구나 선후배(18.7%)', '아무도 없음(18.7%)'의 순으로 나타남

- 학업 재중단 시 상담자에 대해 질문한 결과, '부모님(31.3%)'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학교교사(25.0%)', '친구나 선후배(18.7%)', '아무도 없음(18.7%)' 순으로 나타났다.

3차년도 결과(전체 기준)



1~3차년도 비교결과



【그림 부록 2-14】 학업 재중단 시 상담자(단위: %)

표 부록 2-16 학업 재중단 시 상담자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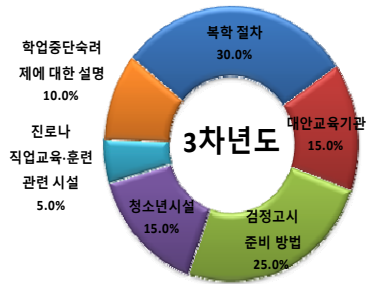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부모님	108	39.9	8	47.1	5	31.3
형제자매	18	6.6	1	5.9	1	6.3
학교교사	15	5.5	3	17.5	4	25.0
학교 내 상담교사	16	5.9	2	11.8	0	0.0
상담기관	5	1.8	1	5.9	0	0.0
친구나 선후배	74	27.3	2	11.8	3	18.7
없음	32	11.8	0	0.0	3	18.7
기타	3	1.2	0	0.0	0	0.0
계	271	100.0	17	100.0	16	100.0

문 3-5. 학업 재중단 시 제공받은 정보(복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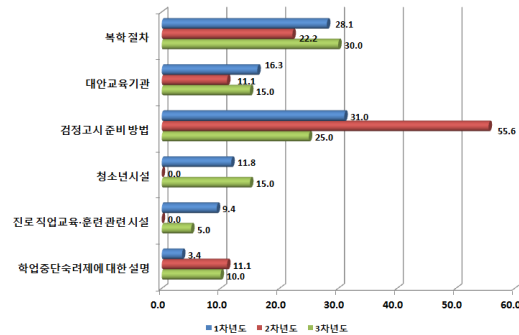
학업 재중단 시 ‘제공받은 정보’는 ‘복학 절차(30.0%)’가 가장 높았고, ‘검정고시 준비(25.0%)’, ‘대안교육기관(15.0%)’ ‘청소년 시설(15.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학업 재중단 시 ‘제공받은 정보’에 대해 질문한 결과, ‘복학 절차(30.0%)’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검정고시 준비(25.0%)’, ‘대안교육기관(15.0%)’, ‘청소년 시설(1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차년도 결과(있다 기준)



1~3차년도 비교결과



【그림 부록 2-15】 학업 재중단 시 제공받은 정보(단위: %)

표 부록 2-17 학업 재중단 시 제공받은 정보²³⁾

(단위: 명, %)

문항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1) 복학 절차	57	28.1	2	22.2	6	30.0
2) 대안교육기관	33	16.3	1	11.1	3	15.0
3) 검정고시 준비 방법	63	31.0	5	55.6	5	25.0
4) 청소년시설	24	11.8	0	0.0	3	15.0
5) 진로나 직업교육·훈련 관련 시설	19	9.4	0	0.0	1	5.0
6)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한 설명	7	3.4	1	11.1	2	10.0
계	203	100.0	9	100.0	2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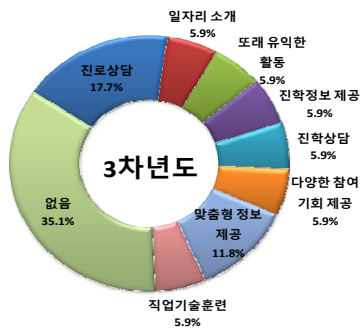
23) 사례수와 비율은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이 ②번 ‘있다’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문 3-6. 학업 재중단 시 필요했던 도움(복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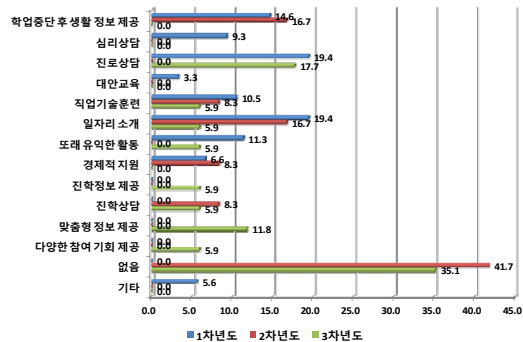
학업 재중단 시 ‘필요했던 도움’은
‘진로상담(17.7%)’, ‘관심분야에 대한 맞춤형 정보제공(11.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학업 재중단 시 ‘필요했던 도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진로상담(17.7%)’, ‘관심분야에 대한 맞춤형 정보제공(11.8%)’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없음(35.1%)’이라는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3차년도 결과(있다 기준)



2013~2015년도 비교결과



【그림 부록 2-16】 학업 재중단 시 필요했던 도움(단위: %)

표 부록 2-18 학업 재중단 시 필요했던 도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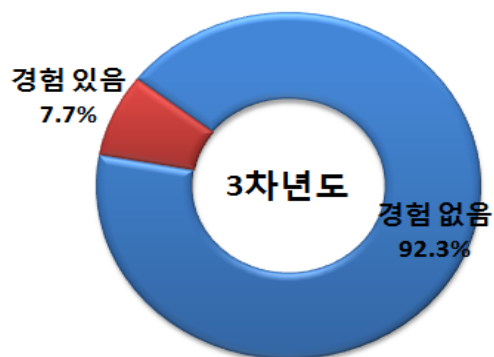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학업중단 이후 생활에 대한 정보 제공	49	14.6	2	16.7	0	0.0
② 심리상담	31	9.3	0	0.0	0	0.0
③ 진로상담	65	19.4	0	0.0	3	17.7
④ 대안교육	11	3.3	0	0.0	0	0.0
⑤ 직업기술훈련	35	10.5	1	8.3	1	5.9
⑥ 일자리 소개	65	19.4	2	16.7	1	5.9
⑦ 또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익한 활동	38	11.3	0	0.0	1	5.9
⑧ 경제적 지원	22	6.6	1	8.3	0	0.0
⑨ 진학정보 제공	0	0.0	0	0.0	1	5.9
⑩ 진학상담	0	0.0	1	8.3	1	5.9
⑪ 관심 분야에 대한 맞춤형 정보 제공	0	0.0	0	0.0	2	11.8
⑫ 관심 분야에 대한 다양한 참여 기회 제공	0	0.0	0	0.0	1	5.9
⑬ 없음	0	0.0	5	41.7	6	35.1
⑭ 기타	19	5.6	0	0.0	0	0.0
계	335	100.0	12	100.0	17	100.0

문 3-7. 학업 재중단시 학업숙려제 경험²⁴⁾

**학업중단숙려제 경험에 관한 문항 응답 결과,
전체 응답자 중 92.3%가 '경험한 적이 없다'고 응답함**

- 학업중단숙려제 경험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92.3%가 '경험한 적이 없다'라고 응답하였고, 7.7%는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3차년도 결과(전체 기준)



【그림 부록 2-17】 학업 재중단 시 학업중단숙려제 경험(단위: %)

표 부록 2-19 학업 재중단 시 학업중단 숙려제 경험 (단위: 명, %)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경험 없음	165	98.8	8	88.9	12	92.3
경험 있음	2	1.2	1	11.1	1	7.7
계	167	100.0	9	100.0	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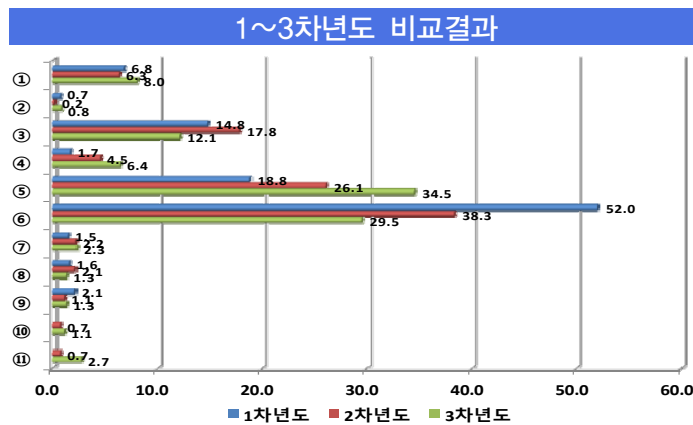
24) 문 3-8(학업 재중단 시 학업중단 숙려제의 유용성)은 사례수가 적은 관계(3차년도 1명)로 응답 결과의 의미가 결여되어 제외됨.

II. 학업중단 후 생활 경험과 인식

문 4. 중단 후 경험실태²⁵⁾

중단 후 경험실태에 대해 ‘하루 8시간이상 일을 함(34.5%)’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아무일도 안하며 늪(29.5%)’, ‘검정고시공부를 함(12.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중단 후 경험실태에 대해 질문한 결과,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하여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함(34.5%)’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늪(29.5%)’, ‘검정고시공부를 함(1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부록 2-18】 중단 후 경험실태(N=167, 단위: %)

표 부록 2-20 중단 후 경험실태²⁶⁾

(단위: 명, %)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복학하여 중·고등학교에 다님	147	6.8	147	6.3	166	8.0
② 대안학교에 다님	15	0.7	5	0.2	16	0.8
③ 검정고시 공부를 함	320	14.8	417	17.8	252	12.1
④ 직업기술을 배움	37	1.7	105	4.5	133	6.4
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하여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함	406	18.8	612	26.1	717	34.5
⑥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늪	1,123	52.0	898	38.3	614	29.5
⑦ 취미나 동아리 활동 등에 참여함	33	1.5	52	2.2	47	2.3
⑧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음	35	1.6	50	2.1	28	1.3
⑨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함	43	2.1	27	1.1	26	1.3
⑩ 대학입시 공부를 함			17	0.7	22	1.1
⑪ 대학에 다님			17	0.7	59	2.7
계	2,159	100.0	2,347	100.0	2,080	100.0

25) 문 4-1은 대안학교 소재지를 묻는 문항으로 수록이 불필요하여 응답결과를 제시하지 않았음. 중단 후 경험실태는 1~3차년도 월별빈도를 합산한 결과로, 년도(2012.7~2013.10)와, 2차년도(2013.7~2014.7)의 중복되는 기간(2013.7~2013.10)이 존재하여, 2차년도 중복기간은 합계에서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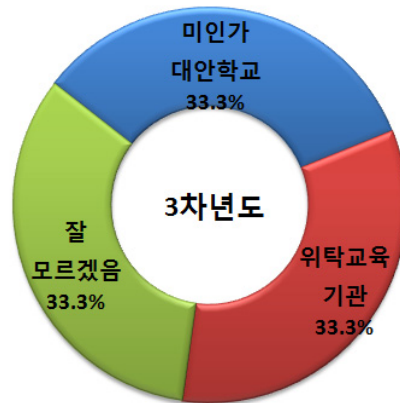
26) 해당 경험이 있는 달에 모두 응답하는 형식이었으며, 비율은 한 달이라도 해당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준으로 제시되었음.

문 4-1-1. 대안학교 유형(3차년도 추가)²⁷⁾

**대안학교 유형에 대해
'공립 또는 사립 인가 대안학교(1명)', '위탁교육기관(1명)'으로 나타남**

○ 대안학교 유형에 대해 질문한 결과, 총3명의 응답자 중 '공립 또는 사립 인가 대안학교(1명)', '위탁교육기관(1명)', '잘모르겠음(1명)' 으로 나타났다.

3차년도 결과(전체 기준)



【그림 부록 2-19】 대안학교 유형(N=3)

표 부록 2-21 대안학교 유형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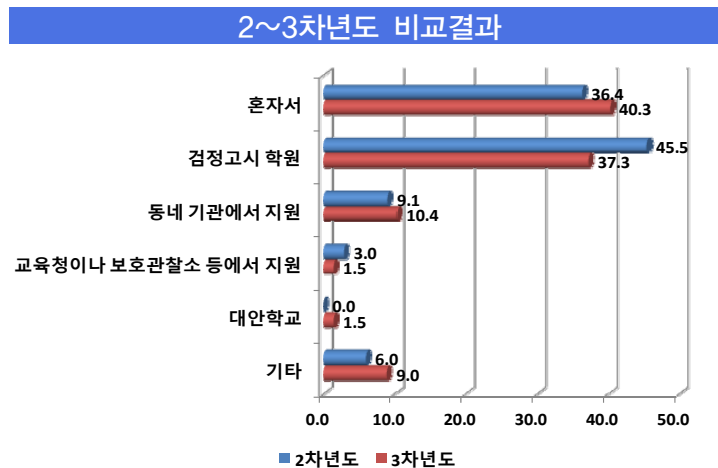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비율
① 공립 또는 사립 인가 대안학교	1	33.3
② 미인가 대안학교	0	0.0
③ 위탁교육기관	1	33.3
④ 잘 모르겠음	1	33.3
계	3	100.0

27) 문 4-1-1은 문 4의 “2) 대안학교에 다님”에 응답한 경우에만 문 4-1-1에 응답하였음.

문 4-2. 검정고시 공부 방법(2차년도 추가)²⁸⁾

검정고시 공부 방법으로는 ‘혼자서 공부했다(40.3%)’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검정고시학원(37.3%)’, ‘청소년 관련시설(10.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검정고시 공부 방법에 대해 질문한 결과, ‘혼자서 공부했다(40.3%)’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검정고시학원(37.3%)’, ‘청소년 관련시설, 사회복지기관 등 동네기관(1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부록 2-20】 검정고시 공부 방법(단위: %)

표 부록 2-22 검정고시 공부 방법

(단위: 명, %)

구분	2차년도		3차년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혼자서(방송이나 인터넷 강의 포함)	36	36.4	27	40.3
② 검정고시 학원	45	45.5	25	37.3
③ 청소년 관련시설, 사회복지관 등 동네 기관에서 지원	9	9.1	7	10.4
④ 교육청이나 보호관찰소 등에서 지원	3	3.0	1	1.5
⑤ 대안학교	0	0	1	1.5
⑥ 기타	6	6.0	6	9.0
계	99	100.0	67	100.0

28) 문 4-2~문 4-2-2는 문 4의 “3) 검정고시 공부를 함”에 응답한 경우만 응답한 결과임.

문 4-2-1. 검정고시 응시 경험 유무(3차년도 추가)

**검정고시 응시 경험 유무에 관한 문항 응답 결과,
전체 응답자 중 86.6%가 '응시 한 적 있다'라고 응답함**

- 검정고시 응시 경험 유무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86.6%가 '응시 한 적 있다'라고 응답하였고, 13.4%는 '응시 한 적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3차년도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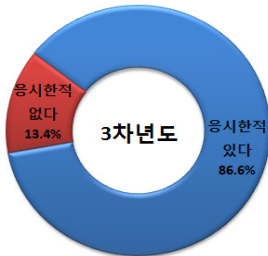


표 부록2-23 검정고시 응시 경험 유무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응시 한 적 없음	9	13.4
응시 한 적 있음	58	86.6
계	67	100.0

【그림 부록 2-21】 검정고시 응시 경험 유무(N=67)

문 4-2-2. 검정고시 합격 여부(3차년도 추가)²⁹⁾

**검정고시 합격 여부에 대해 '전과목 합격(46.5%)'이 가장 높았고,
'부분 합격(34.5%)', '불합격(19.0%)'의 순으로 나타남**

- 검정고시 합격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과목 합격(46.5%)'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부분 합격(34.5%)', '불합격(19.0%)' 순으로 나타났다.

3차년도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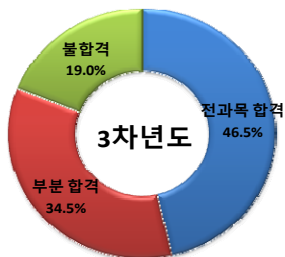


표 부록2-24 검정고시 합격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전과목 합격	27	46.5
부분 합격	20	34.5
불합격	11	19.0
계	58	100.0

【그림 부록 2-22】 검정고시 합격 여부(N=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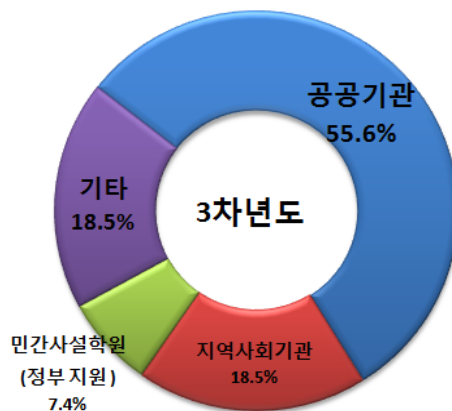
29) 문 4-2-2는 문 4-2-1(검정고시 응시여부)의 ①번 '응시한 적 있다'에 응답한 경우만 응답한 결과임.

문 4-3. 직업훈련 프로그램(3차년도 추가)³⁰⁾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관한 문항 응답 결과,
전체 응답자 중 55.6%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응답함**

-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인 55.6%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응답하였고, 18.5%는 ‘지역사회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7.4%는 ‘정부가 학원비를 지원하는 민간 사설학원 프로그램’이라고 응답하였다.

3차년도 결과(전체 기준)



【그림 부록 2-23】 직업훈련 프로그램(N=27)

표 부록 2-25 직업훈련 프로그램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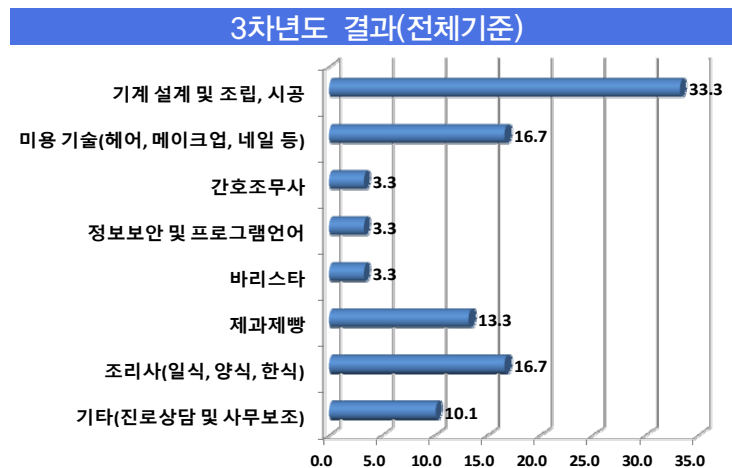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비율
운영기관별	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15	55.6
	② 지역사회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5	18.5
학원비 부담 형식별	③ 정부가 학원비를 지원하는 민간 사설학원 프로그램	2	7.4
	④ 자기가 학원비를 내는 민간 사설학원 프로그램	0	0.0
	⑤ 기타	5	18.5
계		27	100.0

30) 문 4-3~문 4-3-3은 문 4의 “4) 직업기술을 배움”에 응답한 경우만 응답한 결과임.

문 4-3-1. 직업훈련 프로그램 내용(3차년도 추가-복수응답)³¹⁾

직업훈련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기계 설계 및 조립, 시공(33.3%)’이 가장 높았고, ‘미용기술(16.7%)’, ‘조리사(16.7%)’, ‘제과제빵(13.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직업훈련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질문한 결과, ‘기계 설계 및 조립, 시공(33.3%)’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미용기술(16.7%)’, ‘조리사(16.7%)’, ‘제과제빵(1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부록 2-24】 직업훈련 프로그램 내용(N=27, 단위: %)

표 부록 2-26 직업훈련 프로그램 내용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기계 설계 및 조립, 시공	10	33.3
미용 기술(헤어, 메이크업, 네일 등)	5	16.7
간호조무사	1	3.3
정보보안 및 프로그래밍언어	1	3.3
바리스타	1	3.3
제과제빵	4	13.3
조리사(일식, 양식, 한식)	5	16.7
기타(진로상담 및 사무보조)	3	10.1
계	3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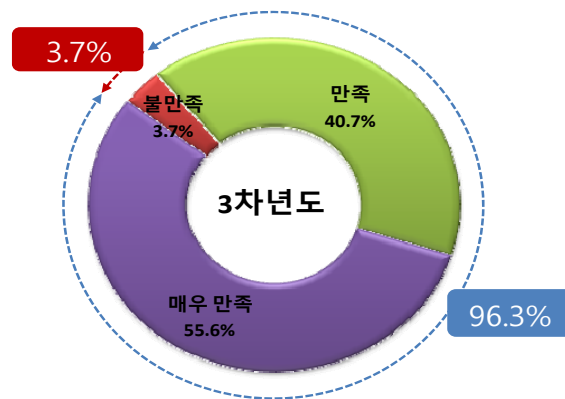
31) 직업훈련 프로그램 교육내용은 복수응답이 포함되어 있음.

문 4-3-2. 직업훈련 프로그램 만족도³²⁾(3차년도 추가)

**직업훈련 프로그램 만족도에 관한 문항 응답 결과,
전체 응답자 중 96.3%가 '만족한다'고 응답함**

- 직업훈련 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인 96.3%가 '만족한다'라고 응답하였고, 3.7%만이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다.

3차년도도 결과



【그림 부록 2-25】 직업훈련 프로그램 만족도(N=27)

표 부록 2-27 직업훈련 프로그램 만족도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비율	M
매우 불만족	0	0.0	3.52
불만족	1	3.7	
만족	11	40.7	
매우 만족	15	55.6	
계	2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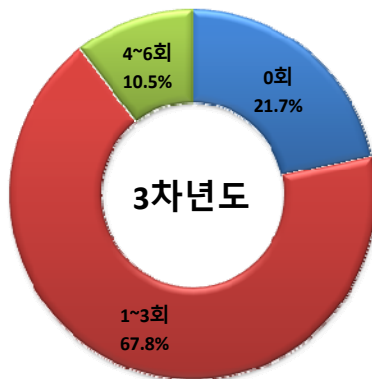
32) 문 4-3-3은 문 4-3-2(직업훈련프로그램 만족도)의 ①번 '매우 불만족' 또는 ②번 '불만족'에 응답한 경우, 직접 기입하는 형식으로 응답한 내용이며, 응답한 사례가 없는 관계로 응답결과가 제시되지 않았음.

문 4-4. 아르바이트 및 일 중단 횟수³³⁾(3차년도 추가)

아르바이트 및 일 중단 횟수에 대해 '1-3회(67.8%)'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 아르바이트 및 일 중단 횟수에 대해 질문한 결과, '1-3회(67.8%)'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중단한 적이 없다'라는 응답은 21.7%로 나타났다.

3차년도 결과(전체 기준)



【그림 부록 2-26】 아르바이트 및 일 중단 횟수(N=115)

표 부록 2-28 아르바이트 및 일 중단 횟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0회	25	21.7
1~3회	78	67.8
4~6회	12	10.5
계	11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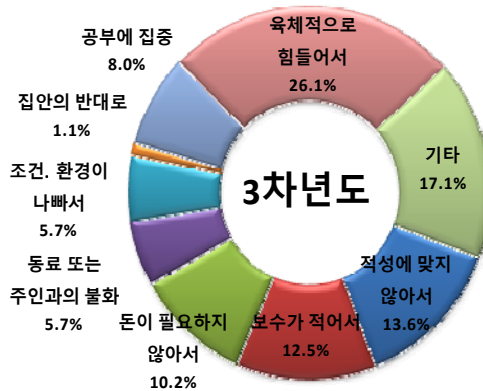
33) 문 4-4~문 4-4-1은 문 4의 "5)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하여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함"에 응답한 경우만 응답한 결과임

문 4-4-1. 아르바이트 및 일 중단 이유(3차년도 추가)

**아르바이트 및 일 중단 이유에 대해, ‘힘들어서(26.1%)’응답이 가장 높았고,
‘적성에 맞지 않아서(13.6%)’, ‘보수가 적어서(12.5%)’순으로 나타남**

○ 아르바이트 및 일 중단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힘들어서(26.1%)’응답이 가장 높았고,
‘적성에 맞지 않아서(13.6%)’, ‘보수가 적어서(12.5%)’순으로 나타났다.

3차년도 결과(전체 기준)



【그림 부록 2-27】 아르바이트 및 일 중단 이유

표 부록 2-29 아르바이트 및 일 중단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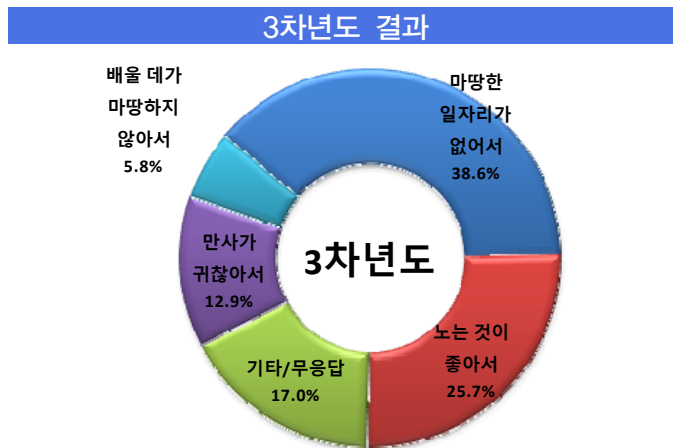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① 적성에 맞지 않아서	12	13.6
② 보수가 적어서	11	12.5
③ 더 이상 돈이 필요하지 않아서	9	10.2
④ 동료 또는 주인과의 불화	5	5.7
⑤ 근무 조건·환경이 나빠서	5	5.7
⑥ 집안의 반대로	1	1.1
⑦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	7	8.0
⑧ 계약기간이 끝나서	0	0.0
⑨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23	26.1
⑩ 기타	15	17.1
계	88	100.0

문 4-5.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놀았던 이유³⁴⁾(3차년도 추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놀았던 이유에 대해,
‘일자리가 없어서(38.6%)’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노는 것이 좋아서(25.7%)’, ‘귀찮아서(12.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노는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일자리가 없어서(38.6%)’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노는 것이 좋아서(25.7%)’, ‘귀찮아서(1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부록 2-28】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놀았던 이유(N=101)

표 부록 2-30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놀았던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①	일하고 싶으나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39	38.6
②	하고 싶은 것이 있으나 배울 데가 마땅하지 않아서	6	5.8
③	만사가 귀찮아서	13	12.9
④	노는 것이 좋아서	26	25.7
⑤기타	일하던 곳의 사정으로	1	1.0
	퇴소후 자유를 위해	1	1.0
	재활치료, 재판 등	1	1.0
	군입대	2	2.0
	연령제한	1	1.0
	건강상의 이유	3	3.0
	소년원,교도소등의 생활	4	4.0
무응답		4	4.0
계		10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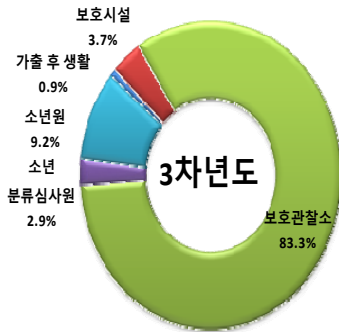
34) 문 4-5는 문 4의 “6)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놀”에 응답한 경우만 응답한 결과임.

문 5. 학업중단 후의 주거 공간 및 비행경험³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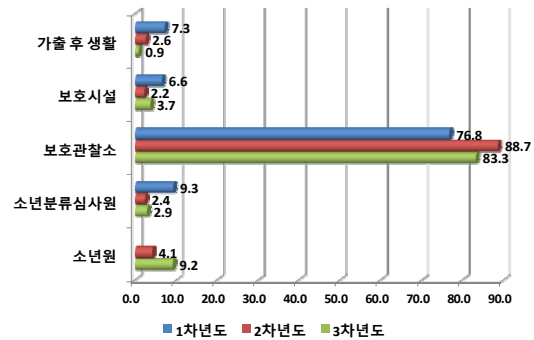
학업 중단 후의 주거 공간 및 비행경험에 대해
‘보호관찰을 받음(83.3%)’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고,
‘소년원 학교에서 생활(9.2%)’, ‘보호시설에서 지냄(3.7%)’등의 순으로 나타남

○ 주거 공간 및 비행추이에 대해 질문한 결과, ‘보호관찰을 받음(83.3%)’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소년원 학교에서 생활(9.2%)’, ‘보호시설에서 지냄(3.7%)’,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생활(2.9%)’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차년도 결과(전체 기준)



1~3차년도 비교결과



【그림 부록 2-29】 주거 공간 및 비행추이(N=167, 단위: %)

표 부록 2-31 학업중단 후의 주거 공간 및 비행경험

(단위: 명, %)

문항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1) 가출하여 친구집이나 PC방 같은 곳에 지내거나 가출팸과 함께 생활함	114	7.3	39	2.6	11	0.9
2) 보호시설에서 지냄	104	6.6	33	2.2	49	3.7
3) 보호관찰을 받음(보호관찰소)	1,205	76.8	1,339	88.7	1,102	83.3
4)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생활함	147	9.3	36	2.4	39	2.9
5) 소년원 학교에서 생활함			62	4.1	122	9.2
계	1,570	100.0	1,509	100.0	1,32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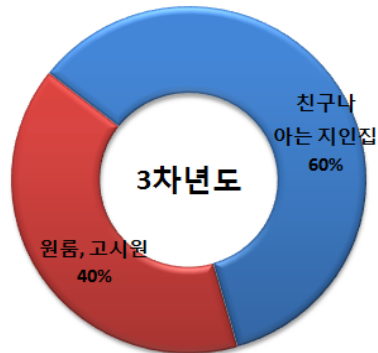
35) 해당 경험이 있는 달에 모두 응답하는 형식이었으며, 비율은 한 달이라도 해당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준으로 제시되었음.

문 5-1. 가출 시 거주 장소³⁶⁾(3차년도 추가)

**가출 시 거주 장소에 대해
‘친구나 아는 지인의 집(60.0%)’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원룸,고시원(40.0%)’의 순으로 나타남**

○ 가출 시 거주 장소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60.0%가 ‘친구나 아는 지인의 집’이라고 응답하였고, 40.0%는 ‘원룸, 고시원’이라고 응답하였다.

3차년도 결과(전체 기준)



【그림 부록 2-30】 가출 시 거주 장소(N=5)

표 부록 2-32 가출 시 거주 장소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① 친구나 아는 형(오빠)/누나(언니) 집	3	60.0
② PC방	0	0.0
③ 찜질방	0	0.0
④ 모텔, 여관	0	0.0
⑤ 원룸, 고시원	2	40.0
⑥ 지하철이나 기차역, 공원 등 거리	0	0.0
⑦ 기타	0	0.0
계	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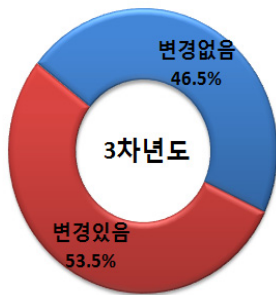
36) 문 5-1은 문 5의 “1) 가출하여 친구집이나 PC방 같은 곳에 지내다가 가출팸과 함께 생활함”에 응답한 달이 있는 경우만 응답한 결과임.

문 5-2. 담당 보호관찰관 변경여부³⁷⁾(2차년도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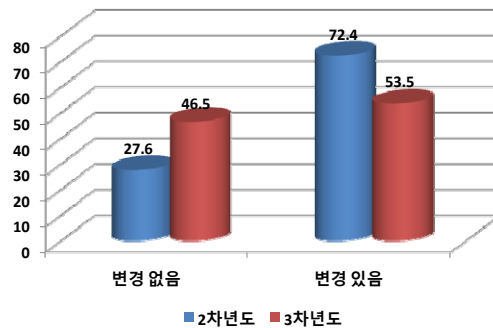
담당 보호관찰관 변경여부에 관한 문항 응답 결과,
전체 응답자 중 53.5%가 '변경 된 적 있다'라고 응답함

- 담당 보호관찰관 변경여부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53.5%가 '변경 된 적 있다'라고 응답하였고, 46.5%는 '변경 된 적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3차년도 결과(전체 기준)



2~3차년도 비교결과



【그림 부록 2-31】 담당 보호관찰관 변경여부(단위: %)

표 부록 2-33 담당 보호관찰관 변경여부

(단위: 명, %)

구분	2차년도		3차년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변경 된 적 없음	43	27.6	60	46.5
변경 된 적 있음	113	72.4	69	53.5
계	156	100	129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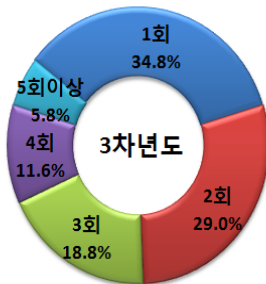
37) 문 5-2~문 5-4는 문 5의 “3) 보호관찰을 받음”에 응답한 달이 있는 경우만 응답한 결과임.

문 5-3. 담당 보호관찰관 변경횟수³⁸⁾(2차년도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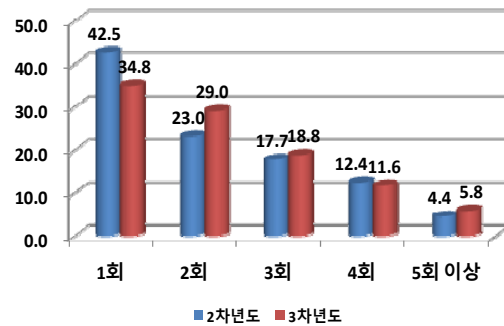
담당 보호관찰관 변경횟수에 대해 '1회(34.8%)'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2회(29.0%)', '3회(19.0%)', '4회(11.6%)'의 순으로 나타남

- 담당 보호관찰관 변경횟수에 대해 질문한 결과, '1회(34.8%)'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2회(29.0%)', '3회(18.8%)', '4회(1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차년도 결과(전체 기준)



2~3차년도 비교결과



【그림 부록 2-32】 담당 보호관찰관 변경횟수(단위: %)

표 부록 2-34 담당 보호관찰관 변경횟수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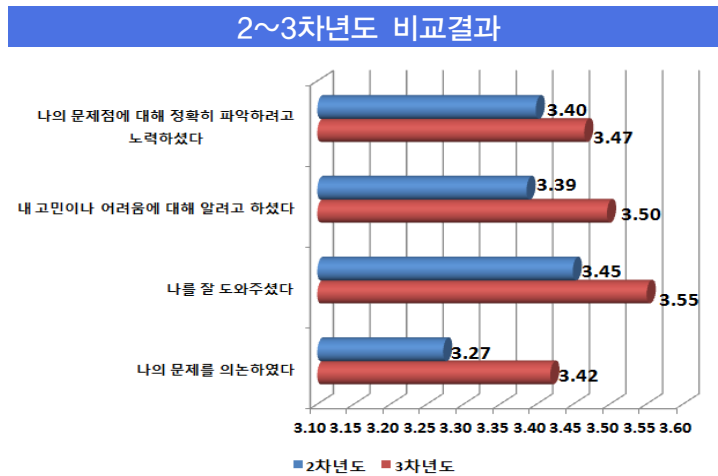
구분	2차년도		3차년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1회	48	42.5	24	34.8
2회	26	23.0	20	29.0
3회	20	17.7	13	18.8
4회	14	12.4	8	11.6
5회 이상	5	4.4	4	5.8
계	113	100.0	69	100.0

38) 문 5-3은 문 5-2(보호관찰관의 변경 여부)의 ②번 '있다'에 응답한 경우만 응답한 결과임.

문 5-4. 담당 보호관찰관과의 관계

담당 보호관찰관과의 관계에 대한 문항별 평균에서는 ‘나를 잘 도와주셨다(M=3.55)’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내 고민이나 어려움에 대해 알려고 하셨다(M=3.50)’의 순이었음

- 담당 보호관찰관과의 관계에 대해 질문한 결과, ‘나를 잘 도와주셨다(M=3.55)’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내 고민이나 어려움에 대해 알려고 하셨다(M=3.50)’, ‘나의 문제점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려고 노력하셨다(M=3.47)’, ‘나의 문제를 의논하였다(M=3.42)’의 순으로 나타났다. 2차~3차년도 비교결과 3차년도의 평균값(M=3.48)이 1차년도(M=3.24) 및 2차년도의 평균값(M=3.38)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 부록 2-33】 담당 보호관찰관과의 관계(단위: 점)

표 부록 2-35 담당 보호관찰관과의 관계³⁹⁾

(단위: 점)

문항	평균			F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1) 보호관찰 선생님은 나의 문제점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려고 노력하셨다	3.25	3.40	3.47	4.922**
2) 보호관찰 선생님은 내 고민이나 어려움에 대해 알려고 하셨다	3.19	3.39	3.50	9.305***
3) 보호관찰 선생님은 나를 잘 도와주셨다	3.35	3.45	3.55	3.743*
4) 보호관찰 선생님께서 나의 문제를 의논하였다	3.17	3.27	3.42	4.742**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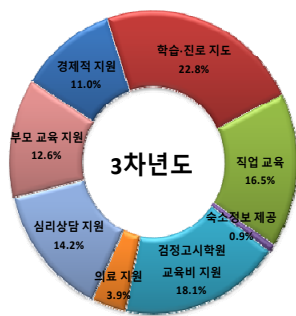
39) 문항은 4점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로 제시되었음.

문 5-5. 보호관찰 지원프로그램 이용경험(2차년도 추가, 복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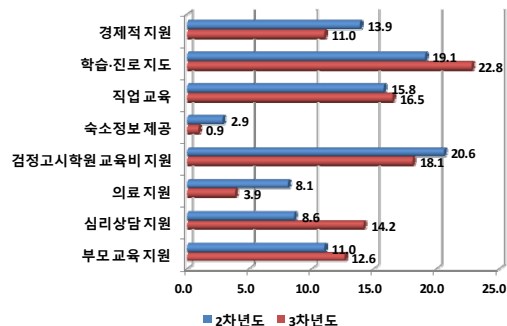
보호관찰 지원프로그램 이용경험 중
이용여부 부분에서는 ‘학습·진로지도(22.8%)’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만족도 부분에서는 ‘검정고시학원 교육비 지원(M=3.48)’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보호관찰 지원프로그램 이용경험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이용분야 부분에서는 ‘학습·진로지도(22.8%)’의 비중이 가장 컸으며, ‘검정고시 학원 교육비 지원(18.1%)’, ‘취업을 위한 직업 교육(16.5%)’, ‘심리상담 지원(14.2%)’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만족도 부분에서는 ‘검정고시학원 교육비 지원(M=3.48)’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학습·진로 지도(M=3.31)’, ‘경제적 지원(M=3.29)’, ‘취업을 위한 직업 교육(M=3.24)’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차년도 결과(전체 기준)



2~3차년도 비교결과



【그림 부록 2-34】 보호관찰 지원프로그램 이용 경험(단위: %)

표 부록 2-36 보호관찰 지원프로그램 이용 경험⁴⁰⁾

[단위: 명(%), 점]

문항	1) 이용여부 사례수(비율)		2) 만족도 평균	
	2차년도	3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경제적 지원	29(13.9)	14(11.0)	2.90	3.29
학습·진로 지도	40(19.1)	29(22.8)	3.37	3.31
취업을 위한 직업 교육	33(15.8)	21(16.5)	3.19	3.24
숙소정보 제공	6(2.9)	1(0.9)	2.50	3.00
검정고시학원 교육비 지원	43(20.6)	23(18.1)	3.45	3.48
의료 지원	17(8.1)	5(3.9)	3.19	3.20
심리상담 지원	18(8.6)	18(14.2)	3.12	3.12
부모 또는 보호자에 대한 교육 상담 지원	23(11.0)	16(12.6)	3.00	3.06
전체	209(100.0)	127(100.0)	3.09	3.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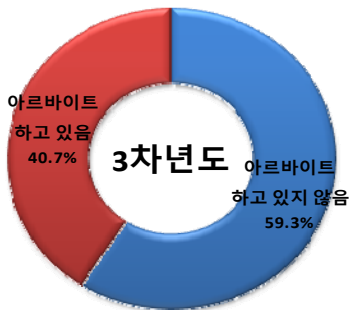
40) 이용여부 사례수(비율)는 각 프로그램의 이용여부를 묻는 문항에서 ①번 '예'에 응답한 사례수와 비율을 합산한 수치이며, 만족도는 이용여부를 묻는 문항에서 ①번 '예'에 응답한 경우에만 응답한 경우로 평균점수로 산출된 수치임.

문 6. 아르바이트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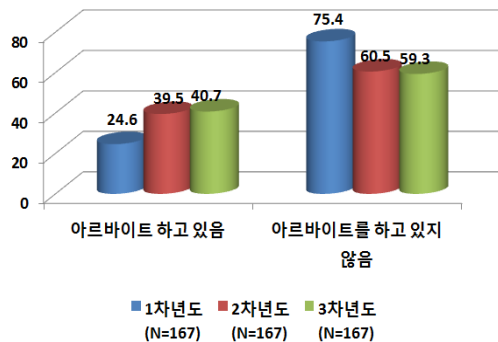
**아르바이트 경험에 관한 문항 응답 결과,
전체 응답자 중 40.7%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응답함**

-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40.7%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라고 응답하였고, 59.3%는 '하고 있지 않음'이라고 응답하였다.

3차년도 결과(전체 기준)



1~3차년도 비교결과



【그림 부록 2-35】 아르바이트 경험(N=167, 단위: %)

표 부록 2-37 아르바이트 경험

(단위: 명, %)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 않음	126	75.4	101	60.5	99	59.3
아르바이트 하고 있음	41	24.6	66	39.5	68	40.7
계	167	100.0	167	100.0	167	100.0

문 6-1. 아르바이트 업종⁴¹⁾

**아르바이트 업종에 대해 ‘피자 치킨 등 패스트푸드점 서빙/카운터/배달(19.1%)’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퀵서비스 배달(13.2%)’, ‘일반상점 판매원(11.8%)’, ‘카페 및 주점
서빙(8.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아르바이트 업종에 대해 질문한 결과, ‘피자·치킨 등 패스트푸드점 서빙/카운터/배달
(19.1%)’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퀵서비스 배달(13.2%)’, ‘일반상점 판매원
(11.8%)’, ‘카페 및 주점 서빙(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부록 2-38 아르바이트 업종

(단위: 명, %)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전단지 돌리기	0	0.0	0	0.0	0	0.0
② 카페 및 주점 서빙	0	0.0	5	7.6	6	8.8
③ 24시간 편의점 점원	0	0.0	2	3.0	1	1.5
④ 일반상점 판매원	3	7.3	5	7.6	8	11.8
⑤ 게임방 카운터 및 서빙	0	0.0	1	1.5	0	0.0
⑥ 노래방 카운터 및 서빙	0	0.0	0	0.0	1	1.5
⑦ 만화방 카운터 및 서빙	0	0.0	0	0.0	0	0.0
⑧ 피자·치킨 등 패스트푸드점 서빙/카운터/배달	11	26.8	14	21.2	13	19.1
⑨ 분식점, 중국집 등에서 서빙/카운터/배달	10	24.4	10	15.2	4	5.9
⑩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호객(삐끼), 서빙 및 접대	2	4.9	1	1.5	1	1.5
⑪ 이벤트 행사장 도우미	0	0.0	0	0.0	0	0.0
⑫ 주유소 주유원	4	9.8	1	1.5	0	0.0
⑬ 이삿짐 운반 또는 물건 포장	0	0.0	3	4.5	1	1.5
⑭ 건설현장 노동	0	0.0	1	1.5	2	2.9
⑮ 공장노동	1	2.4	3	4.5	2	2.9
⑯ 사무업무 보조	0	0.0	0	0.0	0	0.0
⑰ 아기, 노인 돌보기	0	0.0	0	0.0	0	0.0
⑱ 퀵서비스 배달	0	0.0	2	3.0	9	13.2
⑲ 택배기사	0	0.0	1	1.5	0	0.0
⑳ 태권도·수영·헬스 등 운동 코치·사범(2차년도 추가)			0	0.0	0	0.0
㉑ 키즈카페·수영장 등 안전요원(2차년도 추가)			0	0.0	0	0.0
㉒ 오토바이, 자동차 등 정비 엔지니어(2차년도 추가)			0	0.0	2	2.9
㉓ 식당, 출장 뷔페 등 요리사(2차년도 추가)			4	6.1	4	5.9
㉔ 마트 등 주차·안내요원(2차년도 추가)			0	0.0	1	1.5
㉕ 이·미용이나 네일 아트 등(2차년도 추가)			2	3.0	2	2.9
㉖ 전자제품 방문 설치기사(2차년도 추가)			0	0.0	0	0.0
㉗ 패션, 광고 모델(2차년도 추가)			0	0.0	0	0.0
㉘ 배우(2차년도 추가)			0	0.0	0	0.0
㉙ 가수(2차년도 추가)			0	0.0	0	0.0
㉚ 콜센터 안내직원(2차년도 추가)			1	1.5	1	1.5
㉛ 일반 사무직(2차년도 추가)			2	3.0	1	1.5
㉜ 기타			10	24.4	9	13.2
계	41	100.0	66	100.0	68	100.0

41) 문 6-1~문 6-2는 문 6(아르바이트 여부의) ①번 ‘예’에 응답한 경우만 응답한 결과임 1차년도 조사항목 중 빈도가 적은 것은 2차년도 조사 시 삭제되었으며 1차년도 조사 시 기타 응답을 참조하여 응답빈도가 많은 것을 2차년도에 포함시켰음.

표 부록 2-39 주요 아르바이트 업종⁴²⁾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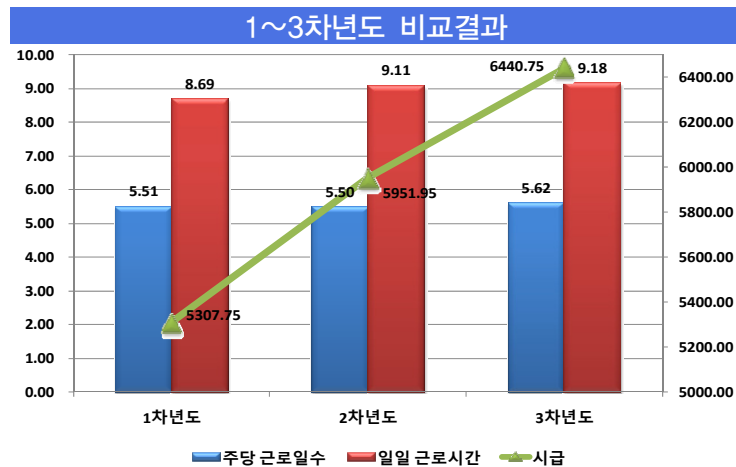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카운터/서빙(카페, 게임방, 노래방, 만화방 등)	0	0.0	6	9.1	7	10.3
서빙/카운터/배달(패스트푸드점, 분식점, 중국집 등)	21	51.2	24	36.4	17	25.0
일반상점 및 편의점 점원	3	7.3	7	10.6	9	13.3
건설현장 및 공장 노동	1	2.4	4	6.0	4	5.8
주유소 주유원	4	9.8	1	1.5	0	0.0
이벤트 행사장 도우미	0	0.0	0	0.0	0	0.0
사무업무 보조(설문조사 포함)	0	0.0	0	0.0	0	0.0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호객(삐끼), 서빙 및 접대	2	4.9	1	1.5	1	1.5
식당 및 출장뷔페 등 요리사			4	6.1	4	5.9
기타	10	24.4	19	28.8	26	38.2
계	41	100.0	66	100.0	68	100.0

42) 주요 아르바이트 업종별 포함된 보기는 다음과 같음. 카운터/서빙(카페, 게임방, 노래방, 만화방 등) ②, ⑤, ⑥, ⑦번, 서빙/카운터/배달(패스트푸드점, 분식점, 중국집 등) ⑧, ⑨번, 일반상점 및 편의점 점원 ③, ④번, 건설현장 및 공장 노동 ⑭, ⑮번, 주유소 주유원 ⑫번, 이벤트 행사장 도우미 ⑪번, 사무업무 보조(설문조사 포함) ⑩번,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호객(삐끼), 서빙 및 접대 ⑩번, 식당 및 출장뷔페 등 요리사 ⑮번, 기타 ①, ⑬, ⑰~⑲, ⑳~㉑번.

문 6-2. 아르바이트 주당 근로일수, 일일 근로시간, 시급

‘주당 근로일수’는 ‘ $M=5.62$ ’로 나타났고,
‘일일 근로시간’은 ‘ $M=9.18$ ’, ‘시급’은 ‘ $M=6440.75$ ’로 나타남

○ 아르바이트 주당 근로일수, 일일 근로시간, 시급에 대해 질문한 결과, ‘근로일수’의 평균은 ‘5.62’로 나타났으며, ‘일일 근로시간($M=9.18$ 시간)’, ‘시급($M=6440.75$ 원)’으로 나타났다. 일일 근로시간 및 시급은 1~3차년도로 진행될수록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그림 부록 2-36】 아르바이트 주당 근로일수, 일일 근로시간, 시급(단위: 일, 시간, 원)

표 부록 2-40 아르바이트 주당 근로일수, 일일 근로시간, 시급 (단위: 일, 시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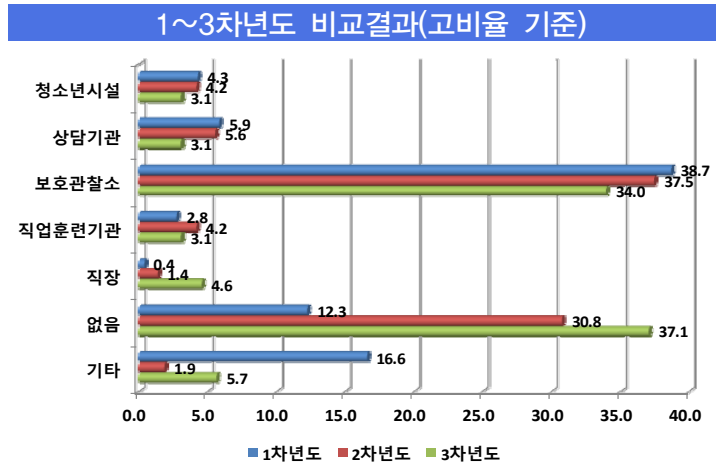
문항	평균			F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1) 주당 근로일수	5.51	5.50	5.62	0.816
2) 일일 근로시간	8.69	9.11	9.18	0.182
3) 시급	5307.75	5951.95	6440.75	14.685***

*** $p<.001$

문 7. 성인 멘토를 만난 기관(복수 응답)

성인 멘토를 만난 기관에 대해 ‘보호관찰소 (34.0%)’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없음 (37.1%)’, ‘기타 (5.7%)’, ‘직장 (4.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인 멘토를 만난 기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보호관찰소 (34.0%)’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직장(4.6%)’, ‘청소년시설(3.1%)’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없다’라는 응답도 37.1%로 나타났다.



【그림 부록 2-37】 성인 멘토를 만난 기관(N=167, 단위: %)

표 부록 2-41 성인 멘토를 만난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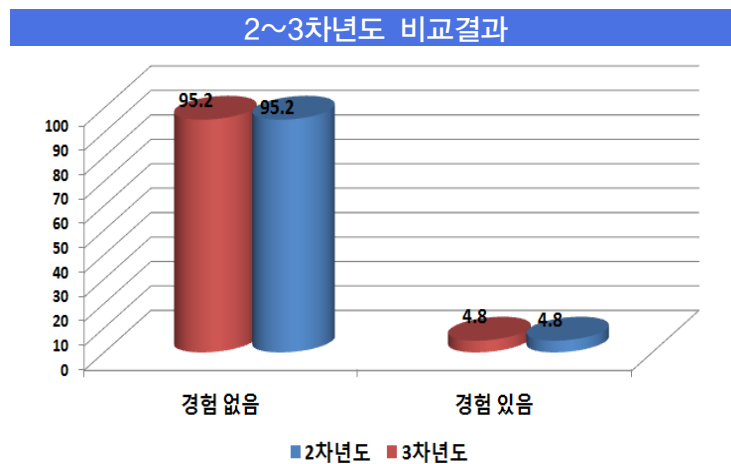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청소년시설	11	4.3	9	4.2	6	3.1
② 복지시설	11	4.3	4	1.9	4	2.1
③ 보호시설	12	4.7	8	3.7	2	1.0
④ 상담기관	15	5.9	12	5.6	6	3.1
⑤ 보호관찰소	98	38.7	80	37.5	66	34.0
⑥ 직업훈련기관	7	2.8	9	4.2	6	3.1
⑦ 종교기관	10	4.0	8	3.7	4	2.1
⑧ 학원	7	2.8	8	3.7	4	2.1
⑨ 병원 등 치료시설	3	1.2	3	1.4	1	0.5
⑩ 대안교육기관	5	2.0	0	0.0	3	1.5
⑪ 직장	1	0.4	3	1.4	9	4.6
⑫ 없음	31	12.3	66	30.8	72	37.1
⑬ 기타	42	16.6	4	1.9	11	5.7
계	253	100.0	214	100.0	194	100.0

문 8. 동아리·인터넷 카페 참여 경험(2차년도 추가)

**동아리·인터넷 카페 참여 경험에 관한 문항 응답 결과,
전체 응답자 중 4.8%가 '있다'고 응답함**

- 동아리·인터넷 카페 참여 경험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4.8%가 '경험 있음'이라고 응답하였고, 95.2%는 '경험 없음'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림 부록 2-38】 동아리·인터넷 카페 참여 경험(N=167, 단위: %)

표 부록 2-42 동아리·인터넷 카페 참여 경험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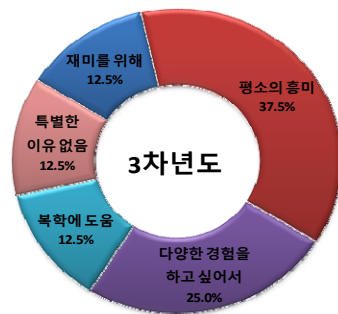
구분	2차년도		3차년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경험 없음	158	95.2	159	95.2
경험 있음	8	4.8	8	4.8
계	166	100.0	167	100.0

문 8-1. 동아리·인터넷 카페 참여 이유(2차년도 추가, 복수응답)⁴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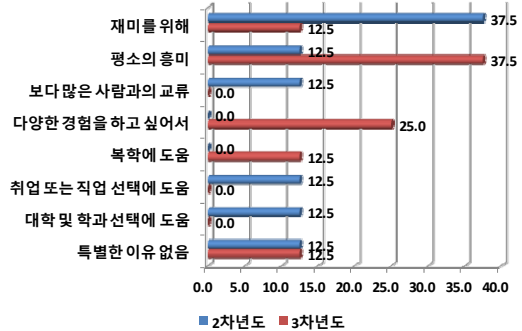
동아리·인터넷 카페 참여 이유에 대해 ‘평소의 흥미(37.5%)’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서(25.0%)’ ‘재미를 위해(12.5%)’ 등으로 나타남

- 동아리·인터넷 카페 참여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평소의 흥미(37.5%)’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서(20.5%)’, ‘재미를 위해(12.5%)’ 등의 이유가 언급되었다.

3차년도 결과(전체 기준)



2~3차년도 비교결과



【그림 부록 2-39】 동아리·인터넷 카페 참여 이유(단위: %)

표 부록 2-43 동아리·인터넷 카페 참여 이유⁴⁴⁾

(단위: 명, %)

구분		2차년도		3차년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재미·흥미	재미를 위해	3	37.5	1	12.5
	평소의 흥미	1	12.5	3	37.5
친교·교류	학업중단 청소년끼리 공감대 형성	0	0.0	0	0.0
	보다 많은 사람과의 교류	1	12.5	0	0.0
정보 및 자아개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서	0	0.0	2	25.0
	복학에 도움	0	0.0	1	12.5
	취업 또는 직업 선택에 도움	1	12.5	0	0.0
	대학 및 학과 선택에 도움	1	12.5	0	0.0
	자아개발	0	0.0	0	0.0
기타	특별한 이유 없음	1	12.5	1	12.5
	계	8	100.0	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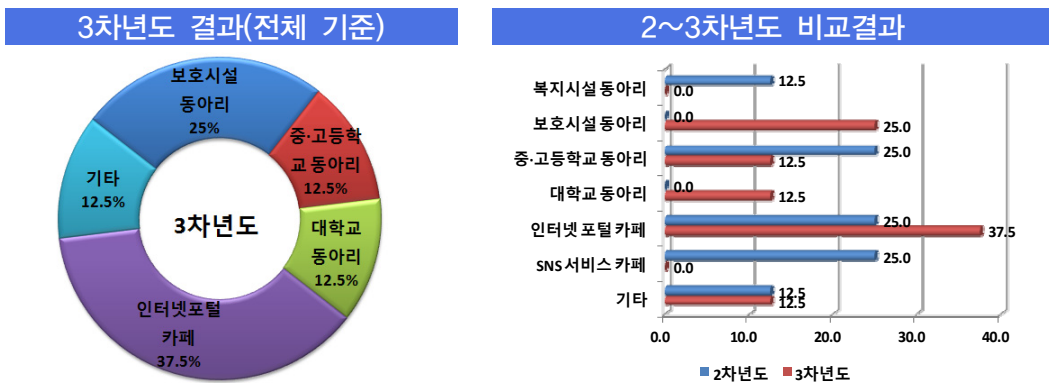
43) 문 8-1~문 8-3은 문 8(동아리·인터넷 카페 참여 경험여부)의 ①번 '예'에 응답한 경우만 응답한 결과임.

44) 1~3순위 복수 기입 방식이었음.

문 8-2. 참여하는 동아리·인터넷 카페 유형(2차년도 추가)

참여하는 동아리·인터넷 카페 유형에 대해
‘인터넷 포털 카페(37.5%)’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보호시설 동아리(25.0%)’, ‘중·고등학교 동아리(12.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참여하는 동아리·인터넷 카페 유형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인터넷 포털 카페(37.5%)’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보호시설 동아리(25.0%)’, ‘중·고등학교 동아리(12.5%)’, ‘대학교 동아리(1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부록 2-40】 참여하는 동아리·인터넷 카페 유형(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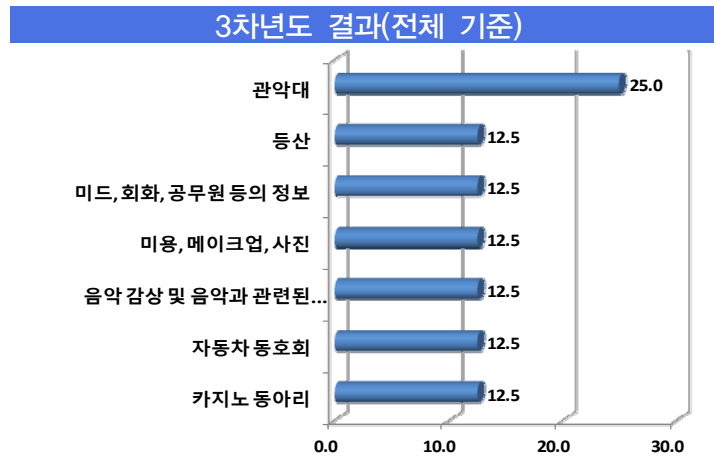
표 부록 2-44 참여하는 동아리·인터넷 카페 유형 (단위: 명, %)

구분		2차년도		3차년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청소년시설 동아리	복지시설 동아리	1	12.5	0	0.0
	보호시설 동아리	0	0.0	2	25.0
소계		1	12.5	2	25.0
학교 동아리	중·고등학교 동아리	2	25.0	1	12.5
	대학교 동아리	0	0.0	1	12.5
소계		2	25.0	2	25.0
사이버 동아리	인터넷 포털 카페	2	25.0	3	37.5
	SNS 서비스 카페	2	25.0	0	0.0
소계		4	50.0	3	37.5
기타	기타	1	12.5	1	12.5
전체		8	100.0	8	100.0

문 8-3. 동아리·인터넷 카페 활동 내용(3차년도 추가)

**동아리·인터넷 카페 활동 내용에 대해
'관악대(25.0%)'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동아리·인터넷 카페 활동 내용에 대해 질문한 결과, 총 8명의 응답자 중 '관악대(25.0%)'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림 부록 2-41】 동아리·인터넷 카페 활동 내용(N=8, 단위: %)

표 부록 2-45 동아리·인터넷 카페 활동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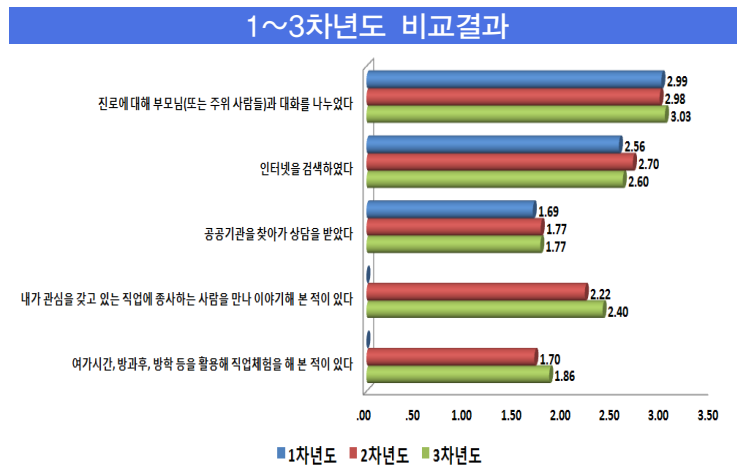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관악대	2	25.0
등산	1	12.5
미드, 회화, 공무원 등의 정보	1	12.5
미용, 메이크업, 사진	1	12.5
음악 감상 및 음악과 관련된 정보공유	1	12.5
자동차 동호회	1	12.5
카지노 동아리	1	12.5
계	8	100.0

문 9. 진로정보탐색

**진로정보탐색에 대한 문항별 평균에서는
‘진로에 대해 부모님(또는 주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다(M=3.03)’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진로정보탐색에 대해 질문한 결과, 1-3차년도 모두 ‘진로에 대해 부모님(또는 주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다’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인터넷 검색으로 나타났다. 3차년도의 경우 ‘진로에 대해 부모님(또는 주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다(M=3.03)’, ‘인터넷을 검색하였다(M=2.60)’,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해 본 적이 있다(M=2.40)’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부록 2-42】 진로정보탐색(N=167, 단위: %)

표 부록 2-46 진로정보탐색⁴⁵⁾

(단위: 점)

문항	평균			t/F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1) 진로에 대해 부모님(또는 주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2.99	2.98	3.03	0.148
2) 인터넷을 검색하였다	2.56	2.70	2.60	1.659
3) 공공기관(교육, 복지, 고용관련 기관 등)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1.69	1.77	1.77	0.540
4)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해 본 적이 있다		2.22	2.40	-1.687
5) 여가시간, 방과후, 방학 등을 활용해 직업체험을 해 본 적이 있다		1.70	1.86	-5.2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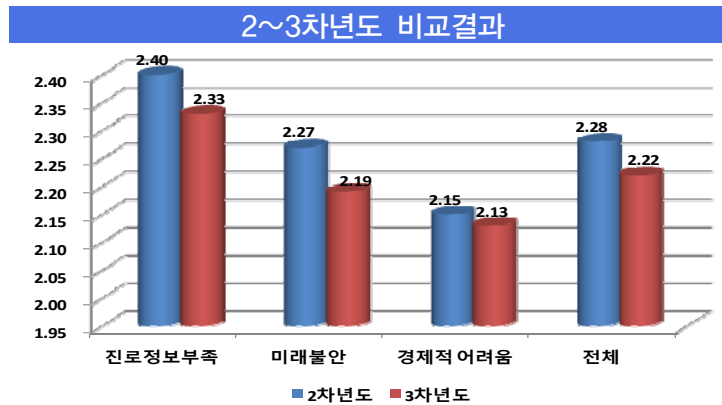
***p<.001

45) 문항은 4점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로 제시되었음.

문 10. 진로 장애(2차년도 추가)

진로 장애에 대한 문항별 평균에서는 ‘나는 선택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M=2.52)’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내가 잘 할 수 있는 직업분야가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M=2.42)’, ‘나는 앞으로 내가 원하는 진로를 갖지 못할까봐 불안하다(M=2.38)’으로 나타남

- 진로 장애에 대해 질문한 결과, 2차년도 평균은 ‘M=2.28’, 3차년도 평균은 ‘M=2.22’로 나타났다. 세부문항을 살펴보면, ‘나는 선택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M=2.52)’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내가 잘 할 수 있는 직업분야가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M=2.42)’, ‘나는 앞으로 내가 원하는 진로를 갖지 못할까봐 불안하다(M=2.38)’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부록 2-43】 진로 장애(단위: 점)

표 부록 2-47 진로 장애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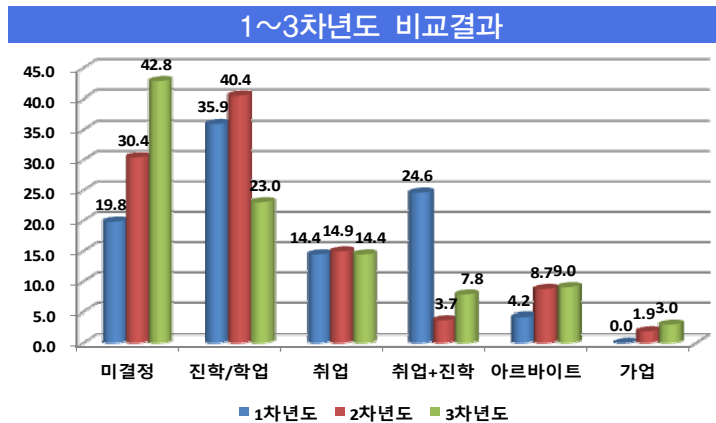
문항		평균		t
		2차년도	3차년도	
진로정보 부족	1) 진로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 잘 모르겠다	2.24	2.17	1.070
	2) 나는 선택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 ⁴⁶⁾	2.49	2.52	-0.495
	3) 나는 여러 가지 직업 분야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	2.41	2.32	1.266
	4) 내가 잘 할 수 있는 직업분야가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	2.49	2.42	1.095
	5) 내가 하고 싶은 일이나 교육 등에 대한 자료를 얻기가 어렵다	2.35	2.23	1.794
미래불안	6) 나는 앞으로 내가 원하는 진로를 갖지 못할까봐 불안하다	2.45	2.38	0.920
	7) 시대의 변화가 나의 진로에 대한 선택과 계획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2.19	2.08	1.485
	8) 경기 불황으로 인해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나의 진로에 영향을 준다	2.08	2.03	0.821
	9) 나는 진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다	2.34	2.25	1.346
경제적 어려움	10) 내가 원하는 진로와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경제적 지원이 부족하다	2.22	2.17	0.798
	11)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나를 뒷받침해 줄 수 없다	2.16	2.15	0.095
	12)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2.18	2.16	0.342
	13) 가정 환경이 열악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진로로 선택하기 어렵다	2.02	2.02	0.000

46) 이 문항은 역코딩 하였음.

문 11. 향후 진로 계획

향후 진로 계획에 대해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42.8%)’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검정고시 준비 (12.7%)’, ‘시간제 근로나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낼 예정(9.0%)’, ‘정규학교로 복학’, ‘진학하지 않고 취업할 예정임(각 8.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향후 진로 계획에 대해 질문한 결과,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42.8%)’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검정고시 준비 (12.7%)’, ‘시간제 근로나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낼 예정(9.0%)’, ‘정규학교로 복학’, ‘진학하지 않고 취업할 예정임(각각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3차년도 모두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부록 2-44】 향후 진로 계획(N=167, 단위: %)

표 부록 2-48 향후 진로 계획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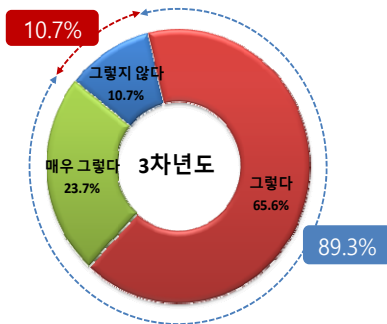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미결정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	33	19.8	49	30.4	71	42.8
소계		33	19.8	49	30.4	71	42.8
진학/학업	정규학교로 복학(2차년도 추가)			18	11.2	14	8.4
	대안학교 진학(2차년도 추가)			2	1.2	3	1.9
	검정고시 준비	60	35.9	45	28.0	21	12.7
소계		60	35.9	65	40.4	38	23.0
취업	진학하지 않고 취업(창업)할 예정임	24	14.4	20	12.4	14	8.4
	취업 혹은 창업을 대비해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예정	0	0.0	4	2.5	10	6.0
소계		24	14.4	24	14.9	24	14.4
취업+진학	취업과 진학 병행(2차년도 추가)	41	24.6	6	3.7	13	7.8
소계		41	24.6	6	3.7	13	7.8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나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낼 예정	7	4.2	14	8.7	15	9.0
소계		7	4.2	14	8.7	15	9.0
가업	당분간 무보수로 가업을 도울 예정(2차년도 추가)			3	1.9	5	3.0
	소계			3	1.9	5	3.0
기타	기타(2차년도 삭제)	2	1.1				
소계		2	1.1				
계		167	100.0	161	100.0	166	100.0

문 12. 진로 계획 달성 예측⁴⁷⁾(2차년도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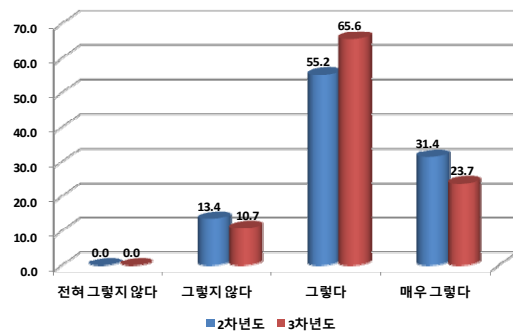
‘향후 원하는 진로계획이 달성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의 문항에 대해
‘89.3%’가 ‘그렇다’라고 응답함

- ‘향후 원하는 진로계획이 달성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89.3%’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3차년도 결과(전체 기준)



2~3차년도 비교결과



【그림 부록 2-45】 진로 계획 달성 예측(단위: %)

표 부록 2-49 진로 계획 달성 예측⁴⁸⁾

(단위: 명, %)

구분	2차년도			3차년도			t
	사례수	비율	M	사례수	비율	M	
전혀 그렇지 않다	0	0.0	3.18	0	0.0	3.13	1.425
그렇지 않다	14	13.4		10	10.7		
그렇다	58	55.2		61	65.6		
매우 그렇다	33	31.4		22	23.7		
계	105	100.0		93	100.0		

47) 문 12는 문 11(향후 진로 계획)의 ②번~⑩번(② 정규학교로 복학 ③ 대안학교 진학 ④ 해외 유학 ⑤ 검정고시 준비 ⑥ 진학하지 않고 취업할 예정임 ⑦ 취업 혹은 창업을 대비해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예정임 ⑧ 취업과 진학 병행 ⑨ 진학이나 취업은 하지 않고 시간제 근로나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낼 예정임 ⑩ 당분간 무보수로 가업을 도울 예정임)에 응답한 경우만 응답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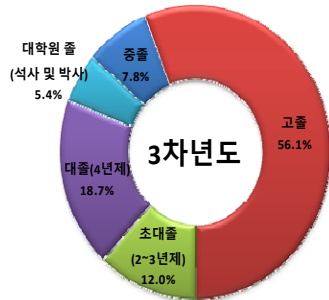
48) 문항은 4점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로 제시되었음.

문 13. 자신의 향후 교육 기대수준(2차년도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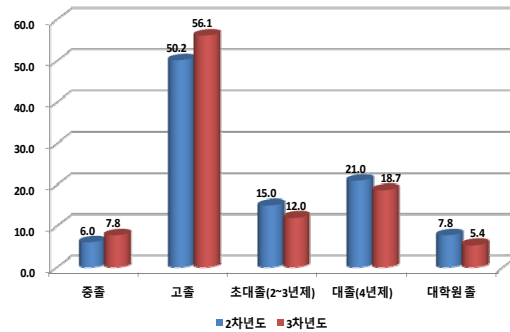
본인의 교육 기대수준에 관한 문항 응답 결과, ‘고졸(56.1%)’이 가장 높았고, ‘대졸(18.7)’, ‘초대졸(12.0)’ 등의 순으로 응답함

- ‘향후 어느 수준까지 교육받기를 원합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고졸(56.1%)’이 가장 높았고, ‘대졸(18.7%)’, ‘초대졸(12.0%)’, ‘중졸(7.8%)’ 순으로 나타났다.

3차년도 결과(전체 기준)



2~3차년도 비교결과



【그림 부록 2-46】 본인의 교육 기대수준(단위: %)

표 부록 2-50 자신의 향후 교육 기대수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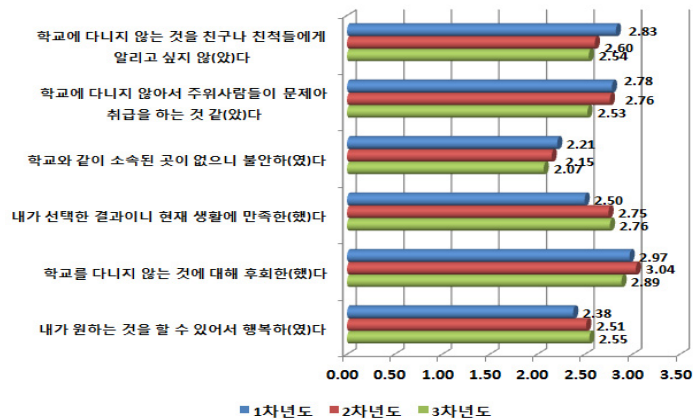
구분	2차년도		3차년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중졸	10	6.0	13	7.8
② 고졸	84	50.2	93	56.1
③ 초대졸(2~3년제)	25	15.0	20	12.0
④ 대졸(4년제)	35	21.0	31	18.7
⑤ 대학원 졸(석사 및 박사)	13	7.8	9	5.4
계	167	100.0	166	100.0

문 14. 학업중단에 대한 생각⁴⁹⁾

학업중단에 대한 생각에 관한 문항별 평균에서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에 대해 후회한(했다)’가 가장 높게 나타남

- 학업중단에 대한 생각에 관하여 질문한 결과,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에 대해 후회한(했다)’ (M=2.89)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내가 선택한 결과이니 현재 생활에 만족한(했다)’ (M=2.76),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M=2.55)’,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을 친구나 친척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다(M=2.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3차년도 비교결과



【그림 부록 2-47】 학업중단에 대한 생각(단위: 점)

표 부록 2-51 학업중단에 대한 생각⁵⁰⁾

(단위: 점)

문항	평균			F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1)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을 친구나 친척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다	2.83	2.60	2.54	4.342*
2) 학교에 다니지 않아서 주위사람들이 문제아 취급을 하는 것 같(았)다	2.78	2.76	2.53	4.393*
3) 학교와 같이 소속된 곳이 없으니 불안하(였)다	2.21	2.15	2.07	1.997
4) 내가 선택한 결과이니 현재 생활에 만족한(했)다	2.50	2.75	2.76	4.011*
5)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에 대해 후회한(했)다	2.97	3.04	2.89	1.685
6)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였)다	2.38	2.51	2.55	1.124

* p<.05

49) 문 14의 1차년도 결과는 조사 시 전체 응답한 결과이며, 2차년도와 3차년도 결과는 지난 조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정규 중 고등학교를 다닌 적이 없거나 그만 둔 경우(대학진학 및 정규 중고등학교 졸업 제외)만 응답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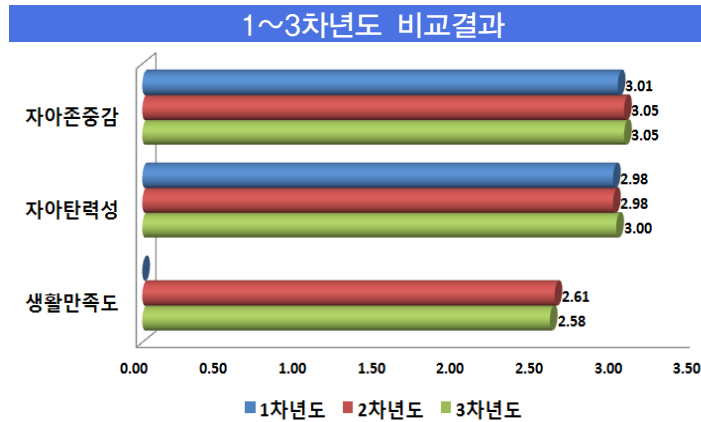
50) 문항은 4점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로 제시되었음.

Ⅲ. 개인의 심리·정서 상황

문 15.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생활만족도⁵¹⁾(생활만족도 2차년도 추가)

개인의 심리·정서상황에 대한 문항별 평균에서는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아탄력성’, ‘생활만족도’의 순으로 나타남

○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생활만족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문항별 평균에서는 ‘자아존중감(M=3.05%)’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아탄력성(M=3.00%)’, ‘생활만족도(M=2.58%)’의 순이었음.



【그림 부록 2-48】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생활만족도(N=167, 단위: 점)

표 부록 2-52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생활만족도

(N=167,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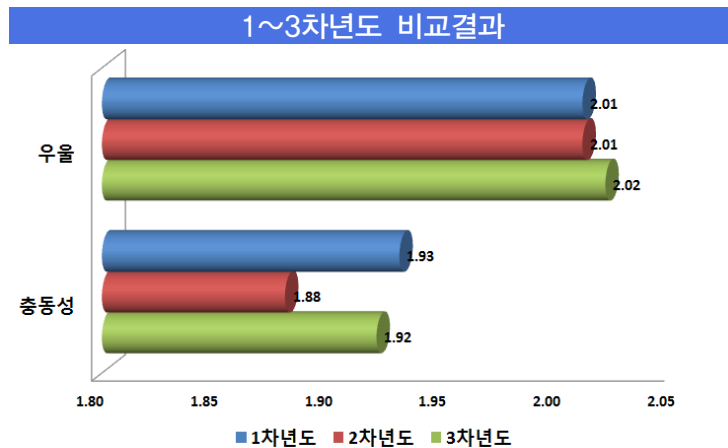
문항		평균			t/F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자아존중감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3.01	3.08	3.04	0.431
	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2.90	2.96	3.02	
	3)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 같이 일을 잘할 수가 있다	3.15	3.15	3.13	
	4)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3.05	3.04	3.06	
	5)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2.96	3.02	2.99	
소계		3.01	3.05	3.05	
자아탄력성	6) 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낸다	2.93	2.97	2.90	0.251
	7) 나는 평소에 잘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해보는 것을 좋아한다	2.99	3.02	3.02	
	8) 나는 내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2.83	2.81	2.87	
	9)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호기심이 많다	3.22	3.15	3.18	
	10) 나는 매우 에너지(힘)가 넘치는 사람이다	2.91	2.96	3.02	
소계		2.98	2.98	3.00	
생활만족도	11) 나는 사는 게 즐겁다		2.81	2.80	0.464
	12)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2.25	2.23	
	13)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2.78	2.72	
총계			2.61	2.58	

51) 문항은 4점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로 제시되었음.

문 16. 우울, 충동성⁵²⁾

우울, 충동성에 대한 문항별 평균에서는 '우울'의 평균(M=2.02)이 더 높게 나타남

- 우울, 충동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우울은 1-3차년도 전체 평균 'M=2.01'로 1-3차년도에 걸쳐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충동성의 경우 1-3차년도 전체 평균 'M=1.91'로, 1차년도 평균이 'M=1.93'으로 가장 높고 2차년도에 다소 감소했으나 3차년도에 다시 'M=1.92'로 나타났다.



【그림 부록 2-49】 우울, 충동성(N=167, 단위: 점)

표 부록 2-53 우울, 충동성

(N=167,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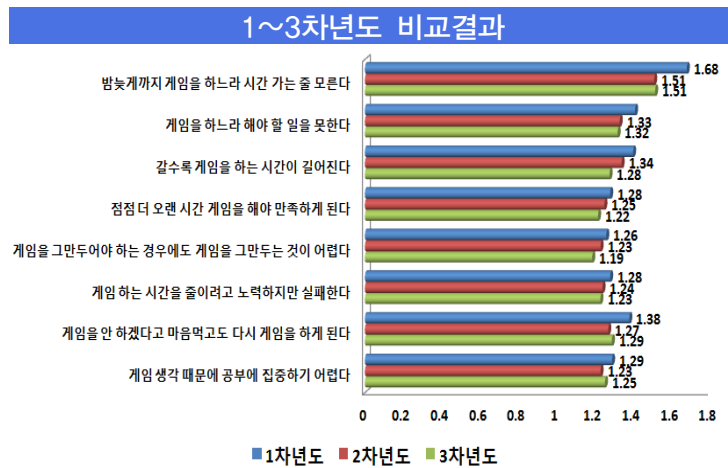
문항		평균			F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우울	1) 기운이 별로 없다	2.02	2.05	2.08	.114
	2)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1.99	1.98	2.02	
	3) 걱정이 많다	2.50	2.41	2.50	
	4)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1.81	1.77	1.69	
	5) 울기를 잘한다	1.84	1.90	1.84	
	6)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자주한다	2.13	2.08	2.03	
	7) 외롭다	1.99	2.14	2.17	
	8)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1.82	1.79	1.82	
	9) 장래가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다	1.99	2.01	2.04	
	10) 모든 일이 힘들다	1.95	1.93	2.03	
전체		2.01	2.01	2.02	.689
충동성	11) 나는 말보다 주먹이 앞선다	1.68	1.73	1.66	
	12) 나는 일이 힘들고 복잡해지면 곧 포기한다	1.97	1.95	2.01	
	13) 나는 위험하고 짜릿한 활동을 즐기는 편이다	2.02	1.90	2.07	
	14) 나는 사람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일이 재미있다	1.75	1.69	1.71	
	15) 나는 화가 나면 물건을 가리지 않는 편이다	2.21	2.12	2.17	
전체		1.93	1.88	1.92	

52) 문항은 4점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로 제시되었음.

문 17-1. 게임 중독⁵³⁾

**게임 중독에 대한 문항별 평균에서는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M=1.51)’가 가장 높게 나타남**

○ 게임 중독에 대해 질문한 결과, 1차년도 평균(M=1.37)이 가장 높았으며, 2차년도 평균(M=1.30), 3차년도 평균(M=1.30)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3차년도 문항 중에서는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가 ‘평균(M=1.5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게임을 하느라 해야 할 일을 못한다(M=1.32)’, ‘게임을 안 하겠다고 마음먹고도 다시 게임을 하게 된다(M=1.29)’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부록 2-50】 게임 중독(N=167, 단위: 점)

표 부록 2-54 게임 중독

(N=167, 단위: 점)

문항	평균			F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1)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	1.68	1.51	1.51	4.185*
2) 게임을 하느라 해야 할 일을 못한다	1.41	1.33	1.32	1.347
3) 갈수록 게임을 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1.40	1.34	1.28	1.659
4) 점점 더 오랜 시간 게임을 해야 만족하게 된다	1.28	1.25	1.22	0.519
5) 게임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에도 게임을 그만두는 것이 어렵다	1.26	1.23	1.19	0.962
6) 게임 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한다	1.28	1.24	1.23	0.395
7) 게임을 안 하겠다고 마음먹고도 다시 게임을 하게 된다	1.38	1.27	1.29	1.758
8) 게임 생각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다	1.29	1.23	1.25	0.455
계	1.37	1.30	1.30	2.9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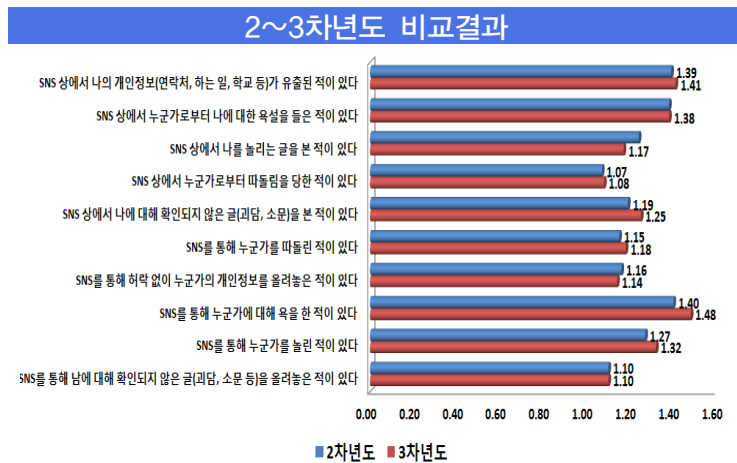
*p<.05

53) 문항은 4점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때때로 그렇다 ③ 자주 그렇다 ④ 항상 그렇다)로 제시되었음.

문 17-2. SNS 관련 피해·가해 경험⁵⁴⁾(2차년도 추가)

SNS 관련 피해·가해 경험에 대한 응답 결과 '피해평균(M=1.26)'이 '가해평균(M=1.24)'보다 높게 나타남

○ SNS 관련 피해·가해 경험에 대해 질문한 결과, '피해평균(M=1.26)'이 '가해평균(M=1.24)'보다 높게 나타났다. 세부문항별로 살펴보면, 피해경험의 경우 'SNS 상에서 나의 개인정보(연락처, 하는 일, 학교 등)가 유출된 적이 있다(M=1.41)'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해경험의 경우는 'SNS를 통해 누군가에 대해 욕을 한 적이 있다(M=1.48)'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부록 2-51】 SNS 관련 피해·가해 경험(N=167, 단위: 점)

표 부록 2-55 SNS 관련 피해·가해 경험

(N=167,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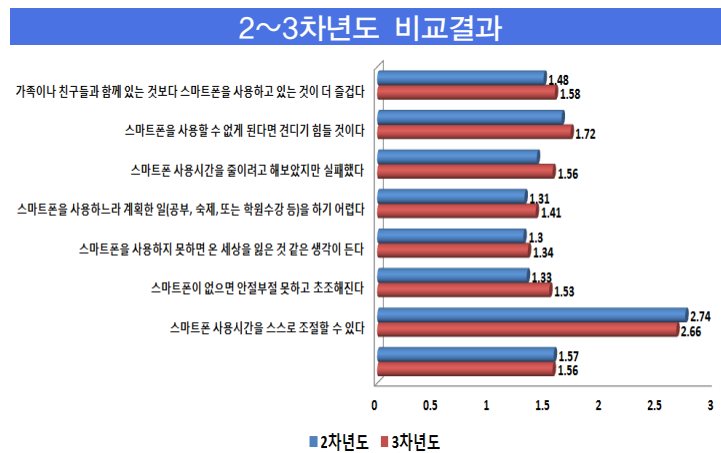
문항		평균		t
		2차년도	3차년도	
SNS 관련 피해 경험	1) SNS 상에서 나의 개인정보(연락처, 하는 일, 학교 등)가 유출된 적이 있다	1.39	1.41	-0.328
	2) SNS 상에서 누군가로부터 나에게 대한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	1.38	1.38	0.097
	3) SNS 상에서 나를 놀리는 글을 본 적이 있다	1.24	1.17	1.368
	4) SNS 상에서 누군가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1.07	1.08	-0.364
	5) SNS 상에서 나에게 대해 확인되지 않은 글(괴담, 소문)을 본 적이 있다	1.19	1.25	-1.224
전체		1.25	1.26	-0.137
SNS 관련 가해 경험	6) SNS를 통해 누군가를 따돌린 적이 있다	1.15	1.18	-0.774
	7) SNS를 통해 허락 없이 누군가의 개인정보를 올려놓은 적이 있다	1.16	1.14	0.456
	8) SNS를 통해 누군가에 대해 욕을 한 적이 있다	1.4	1.48	-1.225
	9) SNS를 통해 누군가를 놀린 적이 있다	1.27	1.32	-0.852
	10) SNS를 통해 남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글(괴담, 소문 등)을 올려놓은 적이 있다	1.1	1.10	0.000
전체		1.22	1.24	-0.766

54) 문항은 4점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때때로 그렇다 ③ 자주 그렇다 ④ 항상 그렇다)로 제시되었음.

문 17-3. 스마트폰 중독⁵⁵⁾(2차년도 추가)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문항별 평균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스스로 조절하기 어렵다’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 질문한 결과, 3차년도 평균($M=1.67$)이 2차년도 평균($M=1.60$)보다 높게 나타났다. 세부문항별로 살펴보면,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M=2.66$)’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다($M=1.72$)’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부록 2-52】 스마트폰 중독($N=167$, 단위: 점)

표 부록 2-56 스마트폰 중독

(N=167, 단위: 점)

문항		평균		t
		2차년도	3차년도	
일상생활 장애	4) 스마트폰을 사용하느라 계획한 일(공부, 숙제, 또는 학원수강 등)을 하기 어렵다	1.31	1.41	-1.711
	8) 스마트폰을 너무 자주 또는 오래 사용한다고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불평을 들은 적이 있다	1.57	1.56	-1.168
가상세계 지향성	1)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더 즐겁다	1.48	1.58	-2.111*
	5)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온 세상을 잃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다	1.30	1.34	-1.469
금단	2)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다	1.64	1.72	-0.702
	6)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1.33	1.53	-2.838**
내성	3)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이려고 해보았지만 실패했다	1.42	1.56	0.719
	7)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⁵⁶⁾	2.74	2.66	0.256

* $p<.05$, ** $p<.01$

55) 문항은 4점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때때로 그렇다 ③ 자주 그렇다 ④ 항상 그렇다)로 제시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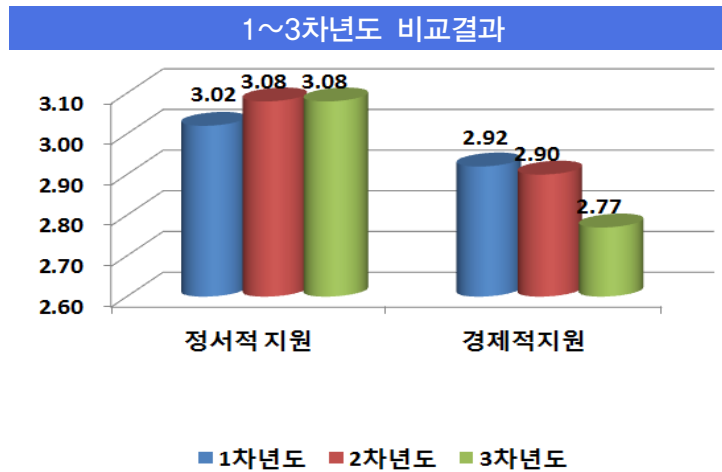
56) 이 문항은 역코딩 하였음.

Ⅳ. 부모·친구관계·동네주변 환경

문 18. 부모의 지원⁵⁷⁾

부모의 지원에 대한 문항 응답결과 정서적 지원($M=3.08$)이 경제적 지원($M=2.77$)보다 높게 나타났고, 문항별 평균에서는 ‘나에게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M=3.14$)’가 가장 높게 나타남

- 부모의 지원에 대해 질문한 결과, 1·3차년도 모두 부모의 지원 중 정서적 지원이 경제적 지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3차년도 정서적 지원의 평균($M=3.08$)이 경제적 지원의 평균($M=2.77$)보다 높았으며, 세부문항별로 ‘나에게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M=3.14$)’,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신다($M=3.11$)’,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주신다($M=3.10$)’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부록 2-53】 부모의 지원 (N=167, 단위: 점)

표 부록 2-57 부모의 지원

(N=167,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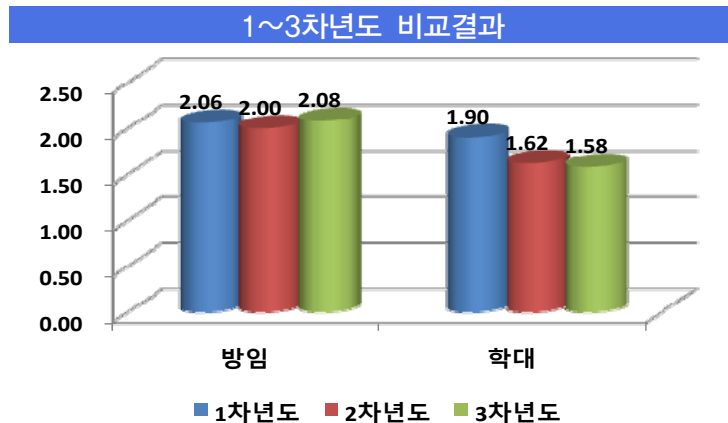
문항		평균			F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정서적 지원	1)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주신다	2.98	3.06	3.10	0.774
	2) 나에게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	3.08	3.16	3.14	
	3) 고민을 들어 주신다	2.98	2.97	2.99	
	4)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신다	3.11	3.16	3.11	
	5)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위로해 주신다	2.94	3.06	3.05	
전체		3.02	3.08	3.08	
경제적 지원	6) 부모님(보호자)은 나에게 용돈을 주신다	2.96	2.93	2.71	
	7) 부모님(보호자)은 내 공부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사 주신다	3.04	2.99	2.87	
	8)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경제적인 걱정 없이 생활하게 해 주신다	2.77	2.77	2.72	
전체		2.92	2.90	2.77	

57) 문항은 4점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로 제시되었음.

문 19. 부모의 방임·학대⁵⁸⁾

부모의 방임·학대에서는 방임 평균(M= 2.08)이 학대평균(M= 1.58)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문항별 평균에서는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다른 일(직장일이나 바깥일)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가 'M= 2.8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부모의 방임·학대에 대해 질문한 결과, 1,3차년도 모두 (M= 2.08)이 학대평균(M= 1.58)보다 높게 나타났고, 3차년도 결과를 살펴보면, 방임은 '평균 M= 2.08', 학대는 '평균 M= 1.58'로 나타났다. 세부문항별로 보면, 방임의 경우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다른 일(직장일이나 바깥일)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가 가장 높았으며, 학대의 경우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을 많이 하신다'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부록 2-54】 부모의 방임·학대 (N=167, 단위: 점)

표 부록 2-58 부모의 방임·학대

(N=167, 단위: 점)

문항		평균			F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방임	1)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다른 일(직장일이나 바깥일)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2.84	2.87	2.83	2.803
	2) 나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칭찬하거나 혼내는 일이 없으시다	1.90	1.92	1.96	
	3)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관심이 없으시다	1.98	1.77	1.93	
	4) 늦게 들어와도 신경 쓰지 않으신다	1.90	1.80	2.02	
	5) 내가 아플 때도 귀찮아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신다	1.66	1.62	1.66	
소계		2.06	2.00	2.08	
학대	6) 화를 낼 때는 주위에 아무거나 손에 닿는 대로 들고 때리신다	1.78	1.57	1.57	11.383***
	7) 내가 잘못하면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때리려고 하신다	2.05	1.69	1.60	
	8) 내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부모님(보호자)께서 나를 때리신다	1.77	1.50	1.54	
	9)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을 많이 하신다	2.01	1.70	1.61	
소계		1.90	1.62	1.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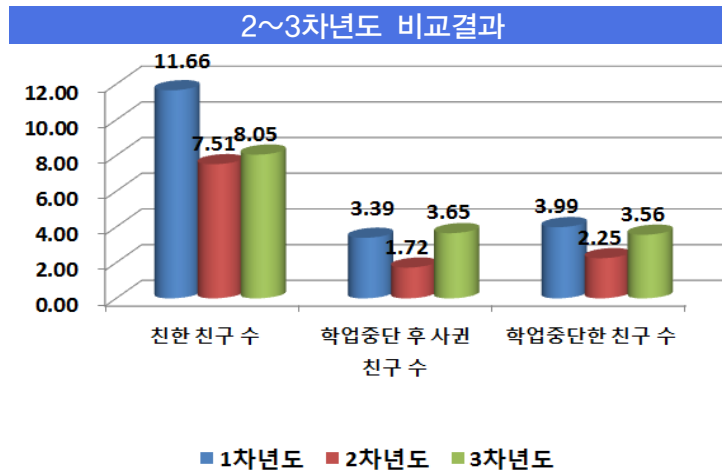
*** $p < .001$

58) 문항은 4점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로 제시되었음.

문 20~20-2. 친한 친구 수, 학업중단 후 사귀 친구 수, 학업중단 한 친구 수

친한 친구 수에 대한 질문에 3차년도 조사 시 평균 'M=8.05명'이라고 응답함

- 친한 친구 수에 대한 질문에, 3차년도 조사 시 평균 'M=8.05명'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학업중단 후 사귀 친구 수는 평균 'M=3.65명', 그리고 학업중단 한 친구는 평균 'M=3.56'명으로 나타났다.



【그림 부록 2-55】 친한 친구 수 (N=167, 단위: 명)

표 부록 2-59 친한 친구 수

(N=167,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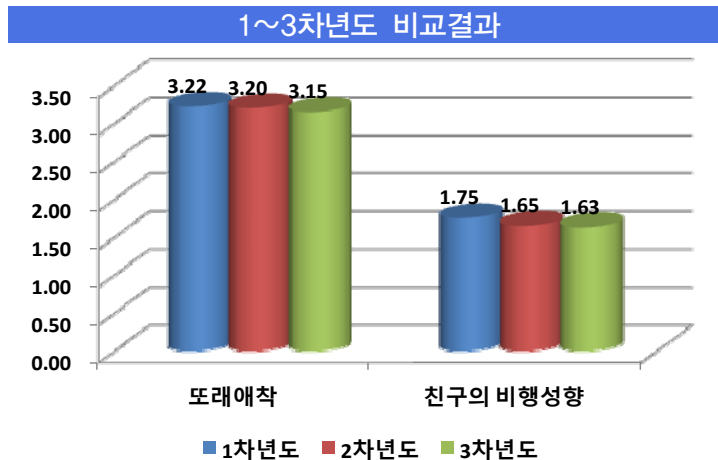
구분	평균			1-3차 평균	F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20. 친한 친구 수	11.66	7.51	8.05	9.08	5.666**
20-1. 학업중단 후 사귀 친구 수	3.39	1.72	3.65	2.92	4.979**
20-2. 학업중단 한 친구 수	3.99	2.25	3.56	3.27	5.426**

** $p < .01$

문 21. 또래애착, 친구의 비행성향⁵⁹⁾

또래애착, 비행성향에 대해 질문한 결과 또래애착의 경우 ‘나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다(M=3.19)’, 친구의 비행성향의 경우 ‘내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을 잘 괴롭힌다(M=1.79)’가 가장 높게 나타남

○ 또래애착, 또래의 비행성향에 대해 질문한 결과, 1-3차년도 모두 ‘또래애착 평균’이 ‘친구의 비행성향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1차년도에서 3차년도 까지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차년도 세부문항별 평균을 살펴본 결과, 또래애착은 ‘나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다(M=3.19)’가 가장 높았으며, 친구의 비행성향 중에서는 ‘내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을 잘 괴롭힌다(M=1.79)’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부록 2-56】 또래애착, 친구의 비행성향 (N=167, 단위: 점)

표 부록 2-60 또래애착, 친구의 비행성향 (N=167,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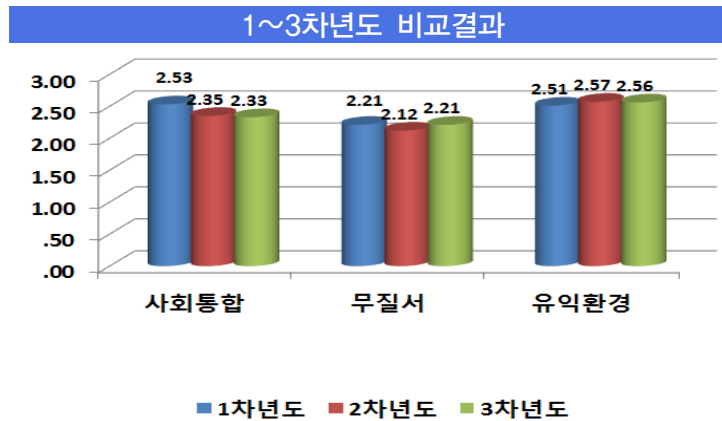
문항		평균			F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또래 애착	1)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	3.20	3.20	3.14	0.728
	2) 나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다	3.25	3.25	3.19	
	3) 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	3.21	3.15	3.12	
소계		3.22	3.20	3.15	
친구의 비행성향	4) 내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을 잘 괴롭힌다	1.91	1.71	1.79	2.117
	5) 내 친구들은 다른 사람을 잘 때린다	1.80	1.70	1.66	
	6) 내 친구들은 물건을 잘 훔친다	1.54	1.54	1.45	
소계		1.75	1.65	1.63	

59) 문항은 4점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로 제시되었음.

문 22. 지역사회⁶⁰⁾

지역사회에 대한 문항별 평균에서는 ‘우리 동네는 산, 공원, 하천 둔치 등이 있어 운동이나 산책하기 좋다(M=2.78)’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지역사회’에 대해 질문한 결과, ‘유익환경(M=2.56)’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사회통합(M=2.33)’, ‘무질서(M=2.21)’로 나타났다. 세부문항별로 살펴보면 ‘유익환경’은 ‘우리 동네는 산, 공원, 하천 둔치 등이 있어 운동이나 산책하기 좋다(M=2.78)’, ‘사회통합’은 ‘우리 동네 사람들은 대부분 잘 알고 지낸다(M=2.47)’, 무질서는 ‘우리 동네는 어둡고 후미진 곳이 많다(M=2.34)’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부록 2-57】 지역사회(N=167, 단위: 점)

표 부록 2-61 지역사회

(N=167, 단위: 점)

문항		평균			F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사회통합	1) 우리 동네 사람들은 대부분 잘 알고 지낸다	2.56	2.47	2.47	12.18***
	2) 우리 동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돕는다	2.29	2.26	2.26	
	3) 동네에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면 우리 동네 어른들은 꾸짖는다	2.56	2.29	2.25	
	4) 우리 동네 사람들은 청소년들이 길거리에서 싸우고 있으면 혼내고 말린다	2.71	2.39	2.35	
무질서	5) 우리 동네는 관리하지 않는 빈 집이나 공터가 많다	1.93	1.80	1.87	2.013
	6) 우리 동네는 어둡고 후미진 곳이 많다	2.15	2.22	2.34	
	7) 우리 동네는 밤에 술 취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닌다	2.32	2.23	2.32	
	8) 우리 동네는 불량한 청소년들이 함께 몰려다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2.44	2.24	2.31	
유익환경	9) 우리 동네에는 여가문화시설이 가까운 곳에 있어 이용하기 편리하다	2.32	2.34	2.34	.424
	10) 우리 동네는 산, 공원, 하천 둔치 등이 있어 운동이나 산책하기 좋다	2.70	2.81	2.78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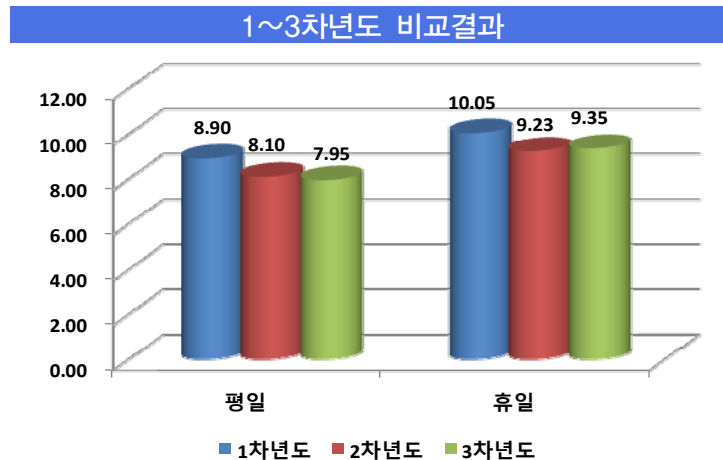
60) 문항은 4점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로 제시되었음.

V. 일상 생활 및 가치관

문 23. 하루 생활 시간-수면

하루 생활시간 중 평균 수면시간에 대해
평일($M=7.95$ 시간), 휴일($M=9.35$ 시간)으로 나타남

- 하루 생활시간 중 수면에 대해 질문한 결과, 평일 평균 수면시간이 1차년도($M=8.88$ 시간), 2차년도($M=8.14$ 시간), 3차년도($M=7.95$ 시간)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또한, 휴일 평균 수면시간 역시 1차년도($M=10.05$ 시간), 2차년도($M=9.23$ 시간), 3차년도($M=9.35$ 시간)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그림 부록 2-58】 하루 생활시간-수면(N=494, 단위: 시간)

표 부록 2-62 하루 생활시간-수면

(단위: 시간)

구분	1차년도 $M(SD)$	2차년도 $M(SD)$	3차년도 $M(SD)$	F
평일 평균 수면시간	8.9(2.16)	8.10(1.73)	7.95(1.74)	12.454***
휴일 평균 수면시간	10.05(2.32)	9.23(2.49)	9.35(2.12)	7.850***

*** $p < .001$

문 23. 하루 생활시간-경험률

하루 생활 시간에 대한 문항별 평균에서는 평일의 경우 '아르바이트나 일을 하는 시간(M=8.9시간)', 휴일의 경우 '수면시간(M=9.3시간)'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하루 생활 시간에 대해 질문한 결과, 평일의 경우 '아르바이트나 일을 하는 시간(M=8.9시간)'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휴일의 경우 '수면시간(M=9.3시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3차년도인 경우 평일에는 '학습 및 일에 사용하는 시간(M=7.9시간)'이 휴일에는 '여가시간(M=3.4)'의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부록 2-63 하루 생활시간

[단위: 명(%),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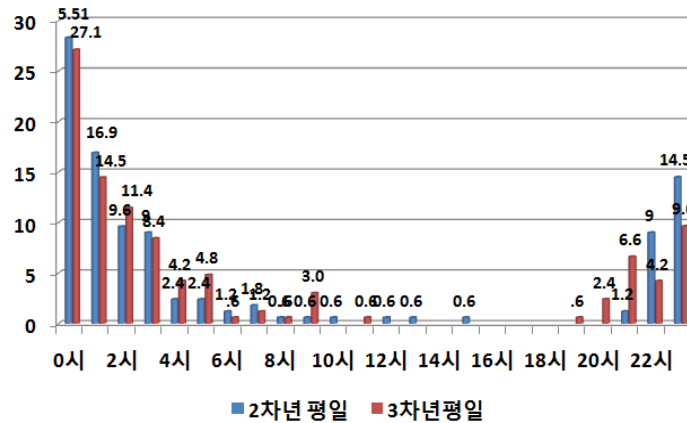
구분	항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사례수 (비율)	평일	휴일	사례수 (비율)	평일	휴일	사례수 (비율)	평일	휴일
수면시간	1) 수면시간		8.9	10.0		8.1	9.2		7.9	9.3
학습 및 일	2) 학교나 대안학교에 머무는 시간	24 (33.8)	4.5	0.8	44 (40.4)	5.8	1.3	36 (32.1)	6.9	0.2
	3) 아르바이트나 일을 하는 시간	47 (66.2)	8.4	6.4	65 (59.6)	8.7	6.3	76 (67.9)	8.9	4.6
소계/평균		71 (100.0)	6.5	3.6	109 (100.0)	7.2	3.8	112 (100.0)	7.9	2.4
여가 시간	4) 공부하는 시간	43 (12.1)	2.6	2.3	54 (14.9)	2.9	2.1	37 (10.8)	2.6	1.6
	5) 혼자 지내는 시간	125 (35.2)	3.7	3.9	115 (31.8)	3.9	3.9	119 (34.8)	3.7	4.8
	6) 취미 및 운동하는 시간	54 (15.2)	1.8	1.9	52 (14.4)	1.5	2.2	41 (12.0)	1.8	1.9
	7)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	133 (37.5)	4.8	5.5	119 (32.9)	4.3	5.8	118 (34.5)	3.6	5.4
	8) 그 외 여가시간				22 (6.1)	4.1	5.7	27 (7.9)	2.7	3.1
소계/평균		355 (100.0)	3.2	3.4	362 (100.0)	3.3	3.9	342 (100.0)	2.9	3.4

문 23-1. 취침 시각(2차년도 추가)

**취침 시간에 대한 질문에 평일기준
평일에는 24시~01시, 휴일에는 02~03시라고 가장 많이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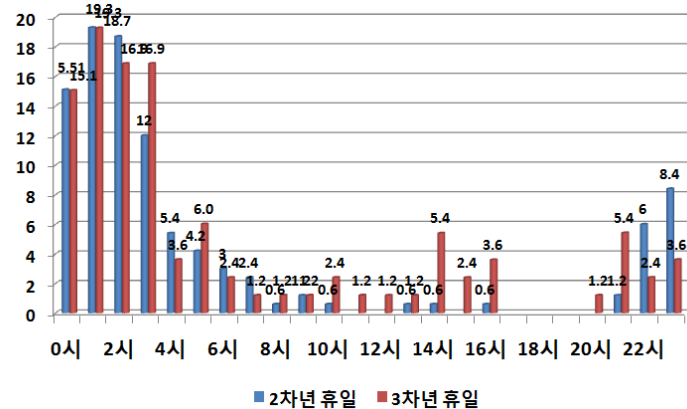
- 취침 시각에 대한 질문에 2~3차년도 모두 평일에는 '24시~01시', 휴일에는 '02시~03시'에 취침한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평균으로 살펴본 결과 평일기준 평균'6.67시'라고 응답하였으며, 휴일기준 평균' 5.03시'라고 응답했다.

2~3차년도 비교결과(평일)



【그림 부록 2-59】 평일 취침 시간(N=167, 단위: %)

2~3차년도 비교결과(휴일)



【그림 부록 2-60】 휴일 취침 시간(N=167, 단위: %)

표 부록 2-64 취침 시각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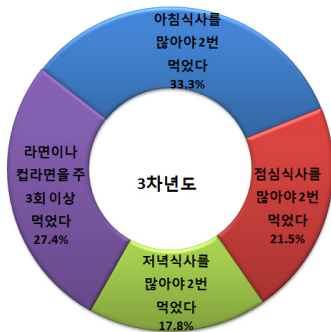
구분	평일				휴일			
	2차년도		3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1시~1시 59분	28	(16.9)	32	(19.3)	24	(14.5)	32	(19.3)
2시~2시 59분	16	(9.6)	31	(18.7)	19	(11.4)	28	(16.9)
3시~3시 59분	15	(9.0)	20	(12.0)	14	(8.4)	28	(16.9)
4시~4시 59분	4	(2.4)	9	(5.4)	7	(4.2)	6	(3.6)
5시~5시 59분	4	(2.4)	7	(4.2)	8	(4.8)	10	(6.0)
6시~6시 59분	2	(1.2)	5	(3.0)	1	(0.6)	4	(2.4)
7시~7시 59분	3	(1.8)	4	(2.4)	2	(1.2)	2	(1.2)
8시~8시 59분	1	(0.6)	1	(0.6)	1	(0.6)	2	(1.2)
9시~9시 59분	1	(0.6)	2	(1.2)	5	(3.0)	2	(1.2)
10시~10시 59분	1	(0.6)	1	(0.6)	0	(0.0)	4	(2.4)
11시~11시 59분	0	(0.0)	0	(0.0)	1	(0.6)	2	(1.2)
12시~12시 59분	1	(0.6)	0	(0.0)	0	(0.0)	0	(0.0)
13시~13시 59분	1	(0.6)	1	(0.6)	0	(0.0)	0	(0.0)
14시~14시 59분	0	(0.0)	1	(0.6)	0	(0.0)	0	(0.0)
15시~15시 59분	1	(0.6)	0	(0.0)	0	(0.0)	0	(0.0)
16시~16시 59분	0	(0.0)	1	(0.6)	0	(0.0)	0	(0.0)
17시~17시 59분	0	(0.0)	0	(0.0)	0	(0.0)	0	(0.0)
18시~18시 59분	0	(0.0)	0	(0.0)	0	(0.0)	0	(0.0)
19시~19시 59분	0	(0.0)	0	(0.0)	1	(0.6)	0	(0.0)
20시~20시 59분	0	(0.0)	0	(0.0)	4	(2.4)	2	(1.2)
21시~21시 59분	2	(1.2)	2	(1.2)	11	(6.6)	9	(5.4)
22시~22시 59분	15	(9.0)	10	(6.0)	7	(4.2)	4	(2.4)
23시~23시 59분	24	(14.5)	14	(8.4)	16	(9.6)	6	(3.6)
24시~24시 59분	0	(0.0)	25	(15.1)	45	(27.1)	25	(15.1)
계	166(100.0)		166(100.0)		166(100.0)		166(100.0)	

문 24. 식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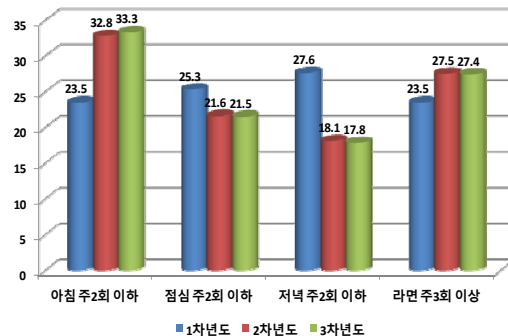
식생활(식습관 및 인스턴트식품 노출)에 대한 문항별 평균에서는
‘최근 7일 동안 나는 아침식사를 많아야 2번 먹었다(33.3)’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최근 7일 동안 라면이나 컵라면을 주 3회 이상 먹었다(27.4%)’등의 순으로 나타남

- 식생활(식습관 및 인스턴트식품 노출)에 대해 질문한 결과, ‘최근 7일 동안 나는 아침식사를 많아야 2번 먹었다(33.3%)’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최근 7일 동안 라면이나 컵라면을 주 3회 이상 먹었다(27.4%)’, ‘최근 7일 동안 나는 점심식사를 많아야 2번 먹었다(21.5%)’, ‘최근 7일 동안 나는 저녁식사를 많아야 2번 먹었다(17.8%)’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차년도 결과(그렇다 기준)



1~3차년도 비교결과



【그림 부록 2-61】 식생활(N=167, 단위: %)

표 부록 2-65 식생활⁶¹⁾

(단위: 명, %)

문항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1) 최근 7일 동안 나는 아침식사를 많아야 2번 먹었다	104	23.5	67	32.8	73	33.3
2) 최근 7일 동안 나는 점심식사를 많아야 2번 먹었다	112	25.3	44	21.6	47	21.5
3) 최근 7일 동안 나는 저녁식사를 많아야 2번 먹었다	122	27.6	37	18.1	39	17.8
4) 최근 7일 동안 나는 라면이나 컵라면을 주 3회 이상 먹었다	104	23.5	56	27.5	60	2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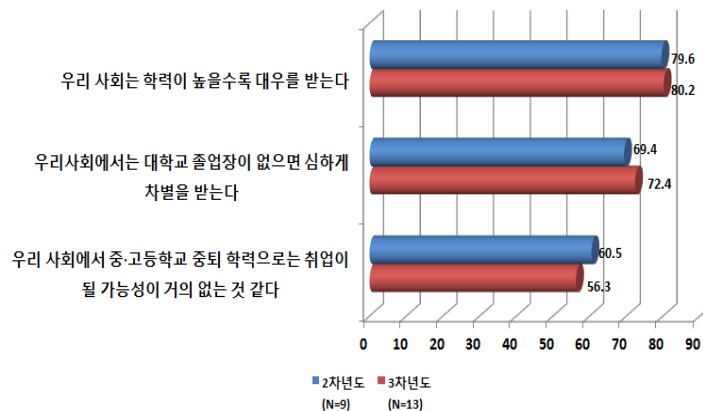
61) 사례수와 비율은 각 문항의 ①번 '예'에 응답한 결과임

문 25. 가치관-학력에 대한 생각⁶²⁾(2차년도 추가)

학력에 대한 생각에 관한 문항별 평균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대우를 받는다(M=3.14)’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학교 졸업장이 없으면 심하게 차별을 받는다(M=3.00)’, ‘중·고등학교 중퇴 학력으로는 취업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다(M=2.59)’의 순으로 나타남

- 학력에 대한 생각에 관하여 질문한 결과, ‘우리 사회는 학력이 높을수록 대우를 받는다(M=3.14)’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우리 사회에서는 대학교 졸업장이 없으면 심하게 차별을 받는다(M=3.00)’, ‘우리 사회에서 중·고등학교 중퇴 학력으로는 취업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다(M=2.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3차년도 비교결과



【그림 부록 2-62】 학력에 대한 생각(N=167, 단위: 점)

표 부록 2-66 학력에 대한 생각

(단위: 점)

문항	평균		t
	2차년도	3차년도	
1) 우리 사회는 학력이 높을수록 대우를 받는다	3.13	3.14	-2.144*
2) 우리 사회에서는 대학교 졸업장이 없으면 심하게 차별을 받는다	2.93	3.00	
3) 우리 사회에서 중·고등학교 중퇴 학력으로는 취업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다	2.72	2.59	
전체	2.93	2.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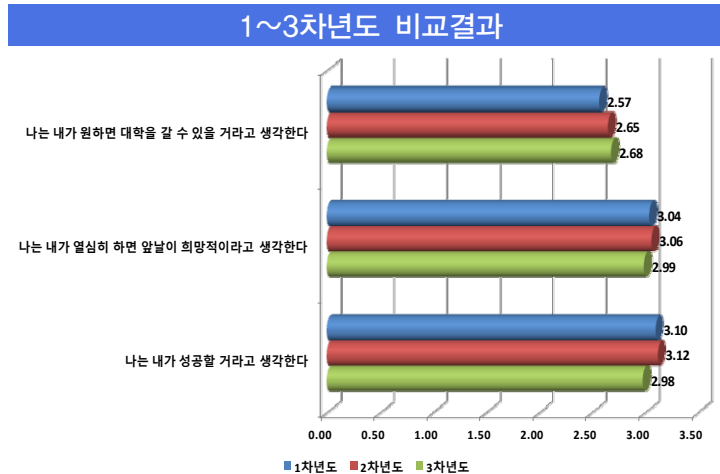
* $p < .05$

62) 문항은 4점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로 제시되었음.

문 26. 가치관-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에 관한 문항별 평균에서는 ‘내가 열심히 하면 앞날이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M=2.99)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내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한다’(M=2.98), ‘내가 원하면 대학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M=2.68)의 순으로 나타남

-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에 관하여 질문한 결과, 문항별 평균을 살펴보면 1-3차년도 모두 ‘내가 열심히 하면 앞날이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3차년도의 경우 ‘내가 열심히 하면 앞날이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M=2.99), ‘내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한다’(M=2.98), ‘내가 원하면 대학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M=2.68)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부록 2-63】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N=167, 단위: 점)

표 부록 2-67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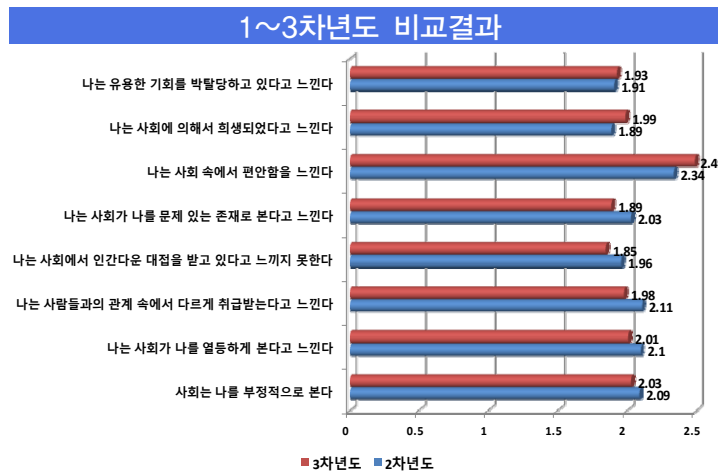
(N=167, 단위: 점)

문항	평균			F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1) 나는 내가 원하면 대학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2.57	2.65	2.68	1.094
2) 나는 내가 열심히 하면 앞날이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	3.04	3.06	2.99	
3) 나는 내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한다	3.10	3.12	2.98	
전체	2.90	2.94	2.88	

문 27. 사회적 낙인감⁶³⁾(2차년도 추가)

사회적 낙인감에 대한 문항별 평균에서는 ‘나는 사회 속에서 편안함을 느낀다(M=2.49)’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회는 나를 부정적으로 본다(M=2.03)’, ‘나는 사회가 나를 열등하게 본다고 느낀다(M=2.01)’ 순으로 나타남

○ 사회적 낙인감에 대해 질문한 결과, 문항별 평균을 살펴보면 2·3차년도 모두 ‘나는 사회 속에서 편안함을 느낀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3차년도의 경우 ‘나는 사회 속에서 편안함을 느낀다(M=2.49)’, ‘사회는 나를 부정적으로 본다(M=2.03)’, ‘나는 사회가 나를 열등하게 본다고 느낀다(M=2.01)’ 순으로 나타남



【그림 부록 2-64】 사회적 낙인감 (N=167, 단위: 점)

표 부록 2-68 사회적 낙인감

(N=167,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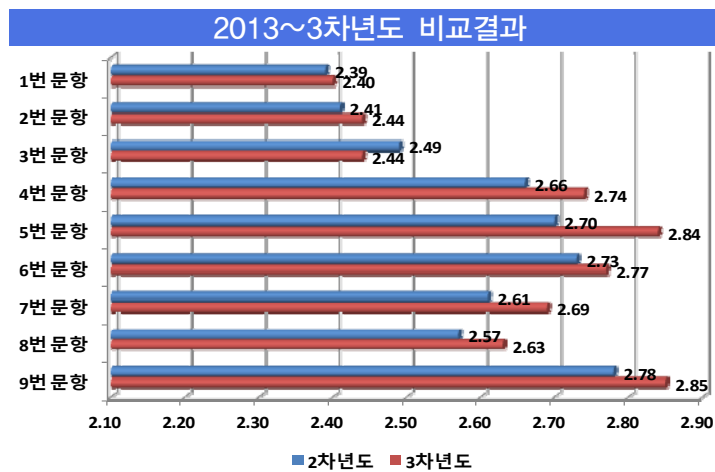
문항	평균		t
	2차년도	3차년도	
1) 사회는 나를 부정적으로 본다	2.09	2.03	1.756
2) 나는 사회가 나를 열등하게 본다고 느낀다	2.10	2.01	
3)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르게 취급받는다고 느낀다	2.11	1.98	
4) 나는 사회에서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	1.96	1.85	
5) 나는 사회가 나를 문제 있는 존재로 본다고 느낀다	2.03	1.89	
6) 나는 사회 속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2.34	2.49	
7) 나는 사회에 의해서 희생되었다고 느낀다	1.89	1.99	
8) 나는 유용한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느낀다	1.91	1.93	
계	2.05	2.02	

63) 문항은 4점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로 제시되었음.

문 28. 자립을 위해 필요한 것⁶⁴⁾(2차년도 추가)

자립을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한 문항별 평균에서는 ‘저축, 돈관리 등 실생활 속의 경제교육과 체험이 필요하다(M=2.85)’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자립을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한 문항별 평균을 살펴본 결과, 2차년도와 3차년도 모두 ‘9번 문항인 저축, 돈관리 등 실생활 속의 경제교육과 체험이 필요하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3차년도의 경우 ‘9번 문항인 경제교육과 체험이 필요하다(M=2.85)’의 응답 외에, ‘5번 문항인 직업기술,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기회가 늘어야 한다(M=2.85)’, ‘6번 문항인 관심 있는 분야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필요하다(M=2.77)’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부록 2-65】 자립을 위해 필요한 것(N=167, 단위: 점)

표 부록 2-69 자립을 위해 필요한 것

(N=167, 단위: 점)

문항	평균		t
	2차년도	3차년도	
1) 목표의식을 갖기 위한 동기부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2.39	2.40	-0.153
2) 자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2.41	2.44	-0.476
3) 자립을 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 정보를 제공해주는 상인·내자의 도움이 필요하다	2.49	2.44	0.683
4)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제적인 학업준비가 필요하다	2.66	2.74	-1.010
5) 직업기술,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기회가 늘어야 한다	2.70	2.84	-1.733
6) 관심 있는 분야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2.73	2.77	-0.419
7) 취업 및 대학진학과 관련한 진로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2.61	2.69	-0.995
8) 긍정적인 대인관계 형성, 갈등상황 해결, 분노조절 등의 사회관계훈련이 제공되어야 한다	2.57	2.63	-0.657
9) 저축, 돈관리 등 실생활 속의 경제교육과 체험이 필요하다	2.78	2.85	-0.791

64) 문항은 4점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로 제시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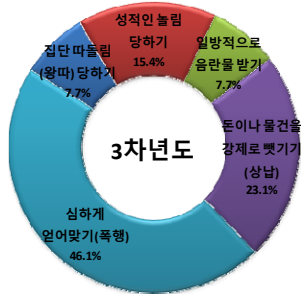
VI. 행동 경험

문 29. 문제행동 피해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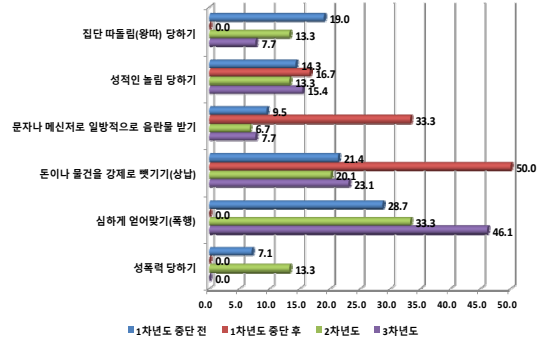
문제행동 피해경험에 대해 ‘심하게 얻어맞기(폭행)(46.1%)’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뺏기기(상납)(23.1%)’, ‘성적인 놀림 당하기(15.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문제행동 피해경험에 대해, ‘심하게 얻어맞기(폭행)(46.1%)’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뺏기기(상납)(23.1%)’, ‘성적인 놀림 당하기(15.4%)’, ‘집단 따돌림(왕따)당하기, 문자나 메신저로 일방적으로 음란물 받기(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차년도 결과(전체 기준)



1차년도 중단 전~3차년도 비교결과



【그림 부록 2-66】 문제행동 피해경험(N=167, 단위: %)

표 부록 2-70 문제행동 피해경험⁶⁵⁾

(N=167, 단위: 명, %)

문 항	1차년도 ⁶⁶⁾		2차년도	3차년도
	1차년도 중단 전	1차년도 중단 후		
1) 집단 따돌림(왕따) 당하기	8(19.0)	0(0.0)	2(13.3)	1(7.7)
2) 성적인 놀림 당하기	6(14.3)	1(16.7)	2(13.3)	2(15.4)
3) 문자나 메신저로 일방적으로 음란물 받기	4(9.5)	2(33.3)	1(6.7)	1(7.7)
4)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뺏기기(상납)	9(21.4)	3(50.0)	3(20.1)	3(23.1)
5) 심하게 얻어맞기(폭행)	12(28.7)	0(0.0)	5(33.3)	6(46.1)
6) 성폭력 당하기	3(7.1)	0(0.0)	2(13.3)	0(0.0)
계	42(100.0)	6(100.0)	15(100.0)	13(100.0)

65) 사례수와 비율은 해당 피해경험이 ②번 '있다'에 응답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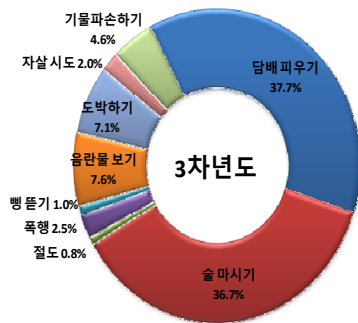
66) 문29~문30의 1차년도 경우 학업 중단 전 경험과 학업중단 이후 조사시점까지의 경험에 대한 응답 결과임.

문 30. 비행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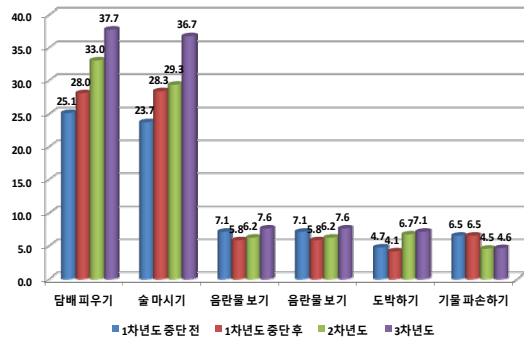
비행경험에 대해 ‘담배피우기(37.7%)’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술마시기 (36.7%)’, ‘음란물(영상, 사진, 서적)을 보기 (7.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비행경험에 대해, ‘담배피우기(37.7%)’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술마시기 (36.7%)’, ‘음란물(영상, 사진, 서적)을 보기(7.6%)’, ‘돈내기, 도박 해보기(7.1%)’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차년도 결과(전체 기준)



1차년도 중단 전~3차년도 비교결과(교비율 기준)



【그림 부록 2-67】 비행경험(N=167, 단위: %)

표 부록 2-71 비행경험⁶⁷⁾

[N=167, 단위: 명(%)]

문항	1차년도 중단 전	1차년도 중단 후	2차년도	3차년도
1) 담배 피우기	155(25.1)	130(28.0)	154(33.0)	149(37.7)
2) 술 마시기	146(23.7)	131(28.3)	137(29.3)	145(36.7)
3)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	73(11.8)	47(10.1)	32(6.9)	3(0.8)
4)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56(9.1)	33(7.1)	24(5.2)	10(2.5)
5) 남의 돈이나 물건 뺏기(뺑 뜨기)	63(10.2)	34(7.3)	24(5.2)	4(1.0)
6) 음란물(영상, 사진, 서적)을 보기	44(7.1)	27(5.8)	29(6.2)	30(7.6)
7) 돈내기 도박 해보기(인터넷 포함)	29(4.7)	19(4.1)	31(6.7)	28(7.1)
8) 자살 시도	11(1.8)	13(2.8)	11(2.4)	8(2.0)
9) 공공장소에 있는 기물이나 물건 파손하기	40(6.5)	30(6.5)	21(4.5)	18(4.6)
10) 약물(보드) 흡입	0(0.0)	0(0.0)	3(0.6)	0(0.0)
계	617(100.0)	464(100.0)	466(100.0)	395(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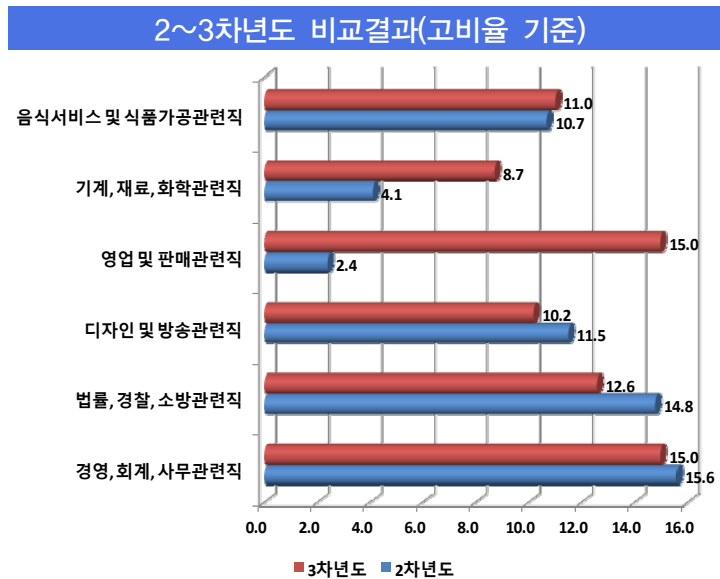
67) 사례수와 비율은 해당 가해경험이 ②번 '있다'에 응답한 결과임.

Ⅶ. 배경요인⁶⁸⁾

문 35. 장래 희망(2차년도 추가)⁶⁹⁾

장래 희망에 대해 ‘사업가, 자영업자(13.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경찰, 군인, 검찰공무원(7.2%)’, ‘바리스타, 제과제빵, 요리사(6.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장래 희망에 대해 질문한 결과, ‘사업가, 자영업자(13.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경찰, 군인, 검찰공무원(7.2%)’, ‘바리스타, 제과제빵, 요리사(6.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직 장래 희망이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응답도 ‘18.0%’로 나타났다.



【그림 부록 2-68】 장래 희망(N=167, 단위: %)

68) 문 31~문 34(문 31. 가족구성, 문 32. 이사경험, 문 33. 경제적 수준, 문 34. 건강상태)는 응답자 특성의 변수로 다루었음으로 제외되었음.

69) 해당 문항은 고용직업분류를 바탕으로 제작된 고용노동부(2015) ‘2015년 한국직업전망’ 보고서를 기준으로 분류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고용직업분류에 포함되어있는 ‘군인’을 추가로 분류기준에 포함하였음.

표 부록 2-72 장래 희망

(단위: 명, %)

구분	2차년도		3차년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경영, 회계, 사무관련직	19	15.6	19	15.0
금융, 보험관련직	0	0.0	0	0.0
교육 및 연구관련직	10	8.2	6	4.7
법률, 경찰, 소방관련직	18	14.8	16	12.6
보건, 의료관련직	5	4.1	4	3.1
사회복지관련직	5	4.1	3	2.4
문화예술관련직	3	2.4	1	0.8
디자인 및 방송관련직	14	11.5	13	10.2
운전 및 운송관련직	0	0.0	0	0.0
영업 및 판매관련직	3	2.4	19	15.0
경비, 청소 및 개인서비스관련직	17	13.9	8	6.3
건설관련직	2	1.6	9	7.1
기계, 재료, 화학관련직	5	4.1	11	8.7
전기전자, 정보통신관련직	4	3.3	4	3.1
음식서비스 및 식품가공관련직	13	10.7	14	11.0
섬유, 환경 및 공예관련직	0	0.0	0	0.0
농림어업관련직	0	0.0	0	0.0
군인	4	3.3	0	0.0
미정/무응답	45	0.0	40	0.0
계	167	100.0	167	100.0

부 록 3

(1차년도 혹은 2차년도 조사 후 삭제된 문항 결과)

부록 3에서는 보호관찰 청소년 패널을 대상으로 한 총 3개년에 걸친 조사 중 조사 내용의 특성상 1차년도에서는 조사하였지만, 2차년도와 3차년도 조사에서 삭제된 문항(부록 3-1), 2차년도만 조사 후 3차년도 조사에서 삭제된 문항(부록 3-2) 그리고 1차년도와 2차년도에서는 조사하였지만, 3차년도 조사에서 삭제된 문항(부록 3-3)에 대한 응답결과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분석 대상은 본문에서의 분석대상과 마찬가지로 1차년도부터 3차년도까지 모두 참여한 일반학업중단 청소년 패널 총 167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다음 표에 제시된 문항의 번호는 각 해당년도 설문지의 설문문항 번호를 기준으로 하였다.

표 부록 3-1 1차년도 혹은 2차년도 조사 후 삭제된 문항

구분		문항번호
부록 3-1	1차년도에서만 조사 후 삭제된 문항	1차년도 설문지 기준: I 장(1, 1-1, 4, 5, 6, 7-1, 7-2, 11, 12), 1차년도 설문지 기준: II 장 전체(14, 14-1, 14-2, 15, 16), 1차년도 설문지 기준: IX 장(40, 41, 42)
부록 3-2	2차년도에서만 조사 후 삭제된 문항	2차년도 설문지 기준: II 장 전체(4, 5, 6, 7, 7-1, 7-2), 2차년도 설문지 기준: III 장(9-5, 10-1)
부록 3-3	1~2차년도 조사 후 3차년도 조사에서 삭제된 문항	1차년도 설문지 기준: VII 장 35, 2차년도 기준 VIII 장 36

【부록 3-1】 1차년도에서만 조사 후 삭제된 문항⁷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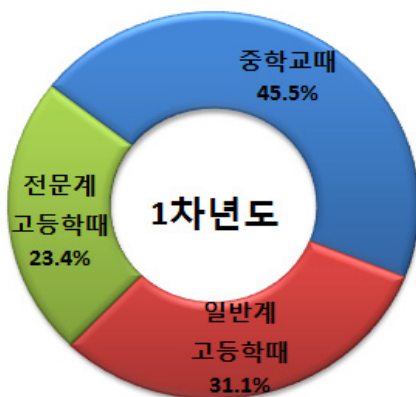
Ⅰ. 학업중단 현황

문 1. 최근 학업중단 시기

최근 학업 중단 시기에 대해 ‘중학교 때(45.5%)’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일반계 고등학교 때(31.1%)’, ‘전문계 고등학교 때(23.4%)’의 순으로 나타남

- 최근 학업 중단 시기에 대해 질문한 결과, ‘중학교 때(45.5%)’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일반계 고등학교 때(31.1%)’, ‘전문계 고등학교 때(23.4%)’의 순으로 나타났다.

1차년도 결과(전체 기준)



【그림 부록 3-1-1】 최근 학업 중단 시기(N=167)

표 부록 3-1-1 최근 학업 중단 시기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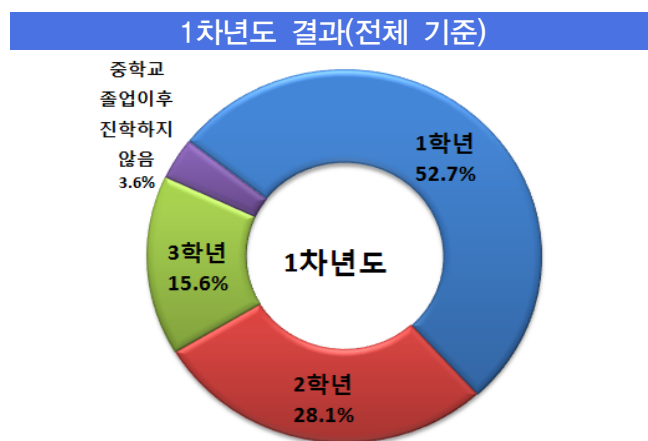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비율
중학교 때	76	45.5
일반계 고등학교 때	52	31.1
전문계 고등학교(현행 특성화고) 때	39	23.4
계	167	100.0

70) 해당 내용은 2013년 조사 당시의 설문지 문항 번호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문 1-1. 최근 학업 중단 시 학년

최근 학업 중단 시 학년에 대해 '1학년(52.7%)'이 응답이 가장 높았고, '2학년(28.1%)', '3학년(15.6%)'의 순으로 나타남

- 최근 학업 중단 시 학년에 대해 질문한 결과, '1학년(52.7%)'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2학년(28.1%)', '3학년(1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부록 3-1-2】 최근 학업 중단 시 학년 (N=167)

표 부록 3-1-2 최근 학업 중단 시 학년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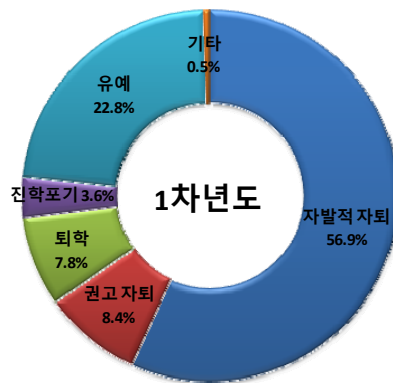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비율
1학년	88	52.7
2학년	47	28.1
3학년	26	15.6
중학교 졸업이후 진학하지 않음	6	3.6
계	167	100.0

문 4. 학업 중단 시 행정처리 형태

학업 중단 시 행정처리 형태에 대해 ‘자발적 자퇴(56.9%)’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유예(22.8%)’, ‘권고자퇴(8.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학업 중단 시 행정처리 형태에 대해 질문한 결과, ‘자발적 자퇴(56.9%)’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유예(22.8%)’, ‘권고자퇴(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차년도 결과(전체 기준)



【그림 부록 3-1-3】 학업 중단 시 행정처리 형태(N=167)

표 부록 3-1-3 학업 중단 시 처리 형태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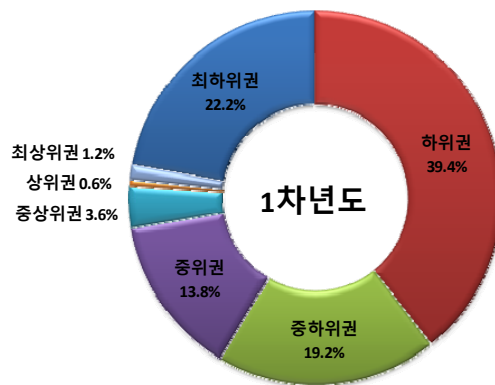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비율
자발적 자퇴(내가 그만 둔 것)	95	56.9
권고 자퇴(내 생각보다는 학교의 권고로 자퇴)	14	8.4
징계로서의 퇴학	13	7.8
졸업 후 상급학교 진학포기	6	3.6
유예	38	22.8
기타	1	0.5
계	167	100.0

문 5. 학교성적수준

**학교성적수준에 관한 문항 응답 결과,
전체 응답자 중 80.8%가 '하위권'이라고 응답함**

- 학교성적수준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80.8%가 '하위권'이라고 응답하였고, 13.8%는 '중위권', 5.4%는 '상위권'이라고 응답하였다.

1차년도 결과(전체 기준)



【그림 부록 3-1-4】 학교성적수준(N=167)

표 부록 3-1-4 학교성적수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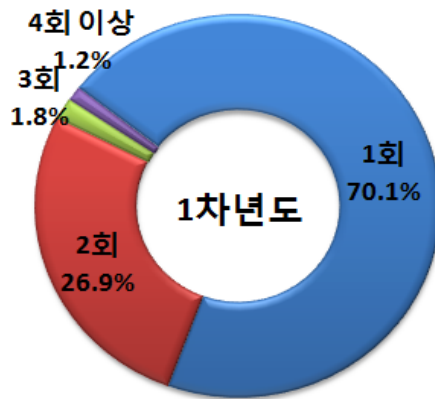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비율
최하위권	37	22.2
하위권	66	39.4
중하위권	32	19.2
중위권	23	13.8
중상위권	6	3.6
상위권	1	0.6
최상위권	2	1.2
계	167	100.0

문 6. 학업중단 횟수⁷¹⁾

학업중단 횟수에 대해 '1회(70.1%)'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2회(26.9%)', '3회(1.8%)', '4회(1.2%)'의 순으로 나타남

- 학업중단 횟수에 대해 질문한 결과, '1회(70.1%)'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2회(26.9%)', '3회(1.8%)', '4회(1.2%)'의 순으로 나타났다.

1차년도 결과(전체 기준)



【그림 부록 3-1-5】 학업중단 횟수(N=167)

표 부록 3-1-5 학업중단 횟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1회	117	70.1
2회	45	26.9
3회	3	1.8
4회 이상	2	1.2
계	16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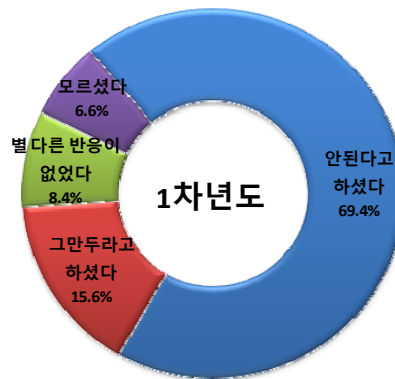
71) 문 7-1(최초 학업중단 시기)은 문 2와 중복되는 문항이며, 문 7-2(최초 학업중단 후 복학소요기간)는 수록이 불필요하여 응답결과를 제시하지 않았음.

문 11. 학업중단 시 부모님 태도

학업중단 시 부모님 태도에 대해 ‘안된다고 하셨다(69.4%)’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그만두라고 하셨다(15.6%)’,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8.4%)’, ‘학업을 중단하는 것을 모르셨다(6.6%)’의 순으로 나타남

- 학업중단 시 부모님 태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안된다고 하셨다(69.4%)’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만두라고 하셨다(15.6%)’,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8.4%)’, ‘학업을 중단하는 것을 모르셨다(6.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차년도 결과(전체 기준)



【그림 부록 3-1-6】 학업중단 시 부모님 태도(N=167)

표 부록 3-1-6 학업중단 시 부모님 태도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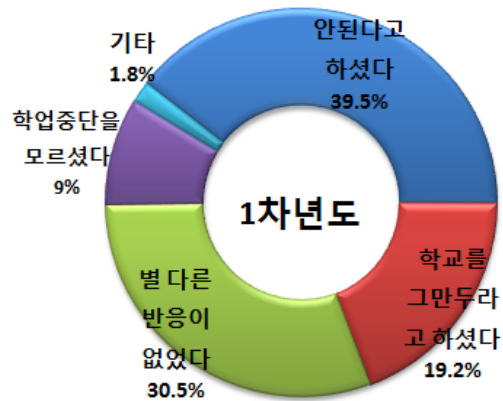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비율
안된다고 하셨다	116	69.4
학교를 그만두라고 하셨다	26	15.6
별 다른 반응이 없었다	14	8.4
학업을 중단하는 것을 모르셨다	11	6.6
계	167	100.0

문 12. 학업중단 시 학교 선생님 태도

학업중단 시 학교 선생님 태도에 대해 ‘안된다고 하셨다(39.5%)’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30.5%)’, ‘그만두라고 하셨다(19.2%)’, ‘학업을 중단하는 것을 모르셨다(9.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학업중단 시 학교 선생님 태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안된다고 하셨다(39.5%)’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30.5%)’, ‘그만두라고 하셨다(19.2%)’, ‘학업을 중단하는 것을 모르셨다(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차년도 결과(전체 기준)



【그림 부록 3-1-7】 학업중단 시 학교 선생님 태도(N=167)

표 부록 3-1-7 학업중단 시 학교 선생님 태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안된다고 하셨다	66	39.5
학교를 그만두라고 하셨다	32	19.2
별 다른 반응이 없었다	51	30.5
학업을 중단하는 것을 모르셨다	15	9.0
기타	3	1.8
계	16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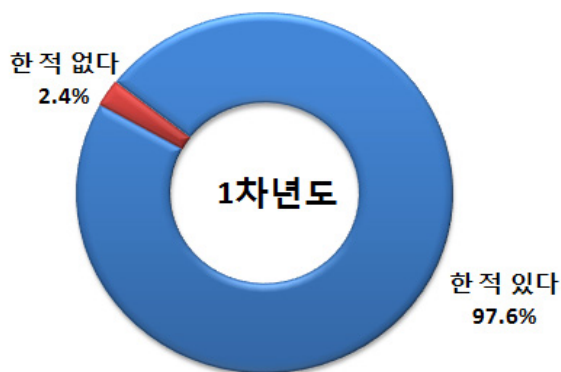
II. 학업중단 당시 학교생활 회고

문 14. 무단 결석 여부

무단 결석 여부에 관한 문항 응답 결과,
전체 응답자 중 97.6%가 '있다'라고 응답함

- 무단 결석 여부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97.6%가 '있다'라고 응답하였고, 2.4%만이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1차년도 결과(전체 기준)



【그림 부록 3-1-8】 무단 결석 여부(N=167)

표 부록 3-1-8 무단 결석 여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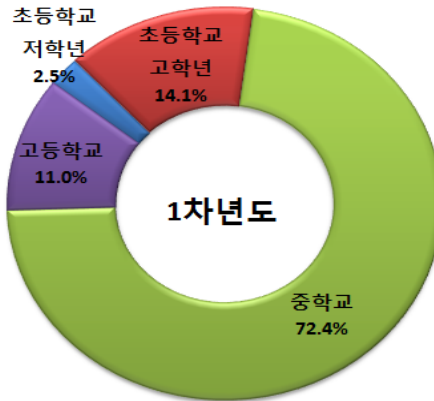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비율
결석한 적이 있다	163	97.6
결석한 적이 없다	4	2.4
계	167	100.0

문 14-1. 최초 결석 시기⁷²⁾

최초 결석 시기에 대해 ‘중학교(72.4%)’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 고학년(14.1%)’, ‘고등학교(11.0%)’, ‘초등학교 저학년(2.5%)’의 순으로 나타남

- 최초 결석 시기에 대해 질문한 결과, ‘중학교(72.4%)’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초등학교 고학년(14.1%)’, ‘고등학교(11.0%)’, ‘초등학교 저학년(2.5%)’의 순으로 나타났다.

1차년도 결과(전체 기준)



【그림 부록 3-1-9】 최초 결석 시기(N=163)

표 부록 3-1-9 최초 결석 시기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초등학교 저학년	4	2.5
초등학교 고학년	23	14.1
중학교	118	72.4
고등학교	18	11.0
계	16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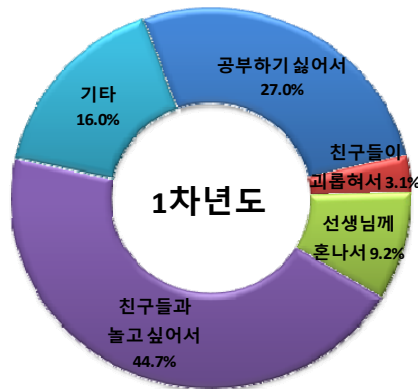
72) 문 15-1~문 15-2는 문 15(무단 결석 여부)의 ①번 ‘있다’에 응답한 경우만 응답한 결과임.

문 14-2. 최초 결석 이유

최초 결석 이유에 대해 ‘친구들과 놀고 싶어서(44.7%)’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공부하기 싫어서(27.0%)’, ‘기타(16.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최초 결석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친구들과 놀고 싶어서(44.7%)’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공부하기 싫어서(27.0%)’, ‘선생님께 혼나서(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차년도 결과(전체 기준)



【그림 부록 3-1-10】 최초 결석 이유(N=163)

표 부록 3-1-10 최초 결석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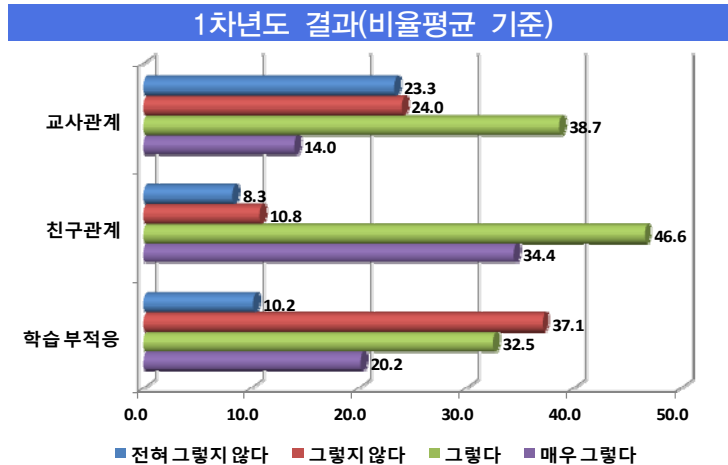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공부하기 싫어서	44	27.0
친구들이 괴롭혀서	5	3.1
선생님께 혼나서	15	9.2
친구들과 놀고 싶어서	73	44.7
기타	26	16.0
계	163	100.0

문 15. 학업중단 전 학교생활

학업중단 전 학교생활에 대하여 ‘교사관계’보다 ‘친구관계’에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학습부적응’에 관한 질문에는 ‘그렇다’는 응답이 52.7%로 나타남

- 학업중단 전 학교생활에 대해 질문한 결과, ‘교사관계’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라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문항별 평균 을 살펴본 결과 ‘학교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이 있었다(M=2.3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친구관계’에 대한 질문은 교사관계보다 더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문항별 평균에서는 ‘나는 쉬는 시간에 혼자 있기보다 친구들과 함께 지냈다(M=3.18)’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습부적응’에 관한 질문에는 ‘그렇다’는 응답이 ‘52.7%’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는 47.3%로 나타났다.



【그림 부록 3-1-II】 학업중단 전 학교생활(N=167, 단위: %)

표 부록 3-1-II 학업중단 전 학교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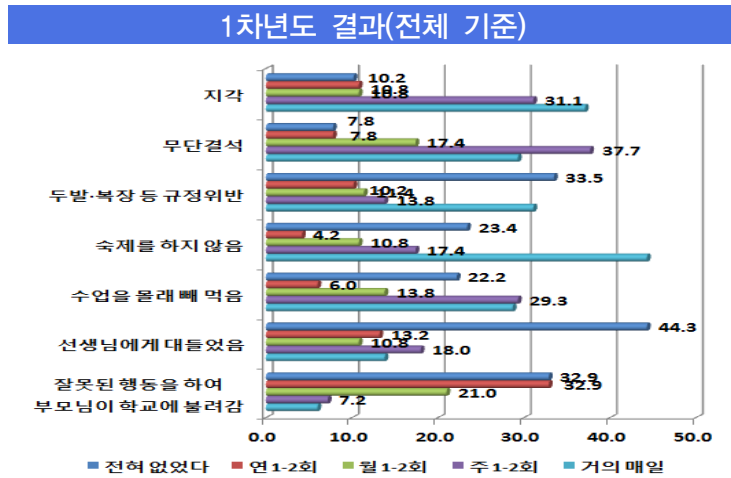
(단위: %, 점)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교사관계	1) 학교에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었다	18.0	20.4	45.5	16.2	2.60
	2) 학교에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었다	26.9	27.5	32.9	12.6	2.31
	3) 학교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이 있었다	25.1	24	37.7	13.2	2.39
	소계	23.3	24.0	38.7	14.0	2.43
친구관계	4) 학교에 내가 믿고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있었다	9.0	10.8	41.3	38.9	3.10
	5) 학교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마음이 편했다	9.0	13.2	50.9	26.9	2.96
	6) 나는 쉬는 시간에 혼자 있기보다 친구들과 함께 지냈다	7.8	6.6	45.5	40.1	3.18
	7) 학교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친구들이 도와주었다	7.2	12.6	48.5	31.7	3.05
	소계	8.3	10.8	46.6	34.4	3.07
학습 부적응	8) 학교 수업내용은 내 관심, 흥미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6.6	26.3	41.9	25.1	2.86
	9) 학교 수업내용은 내 수준에 맞지 않았다	10.2	48.5	26.9	14.4	2.46
	10) 학교 수업을 알아듣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었다	13.8	36.5	28.7	21	2.57
	소계	10.2	37.1	32.5	20.2	2.63

문 16. 학교규범 위반 경험

학교규범 위반 경험 중 ‘거의매일 위반하였다(27.2%)’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 1-2회 위반하였다(22.1%)’, ‘월 1-2회 위반하였다’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학교규범 위반 경험에 대해 질문한 결과, ‘거의매일 위반하였다(27.2%)’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전혀 위반하지 않았다(24.9%)’, ‘주 1-2회 위반하였다(2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부록 3-1-12】 학교규범 위반 경험(단위: %)

표 부록 3-1-12 학교규범 위반 경험

(단위: 명, %)

문항	전혀 없었다		연 1-2회		월 1-2회		주 1-2회		거의 매일	
1) 지각	17	10.2	18	10.8	18	10.8	52	31.1	62	37.1
2) 무단결석	13	7.8	13	7.8	29	17.4	63	37.7	49	29.3
3) 두발·복장 등 규정위반	56	33.5	17	10.2	19	11.4	23	13.8	52	31.1
4) 숙제를 하지 않음	39	23.4	7	4.2	18	10.8	29	17.4	74	44.3
5) 수업을 몰래 빼 먹음	37	22.2	10	6.0	23	13.8	49	29.3	48	28.7
6) 선생님에게 대들었음	74	44.3	22	13.2	18	10.8	30	18.0	23	13.8
7) 잘못된 행동을 하여 부모님이 학교에 불려감	55	32.9	55	32.9	35	21.0	12	7.2	10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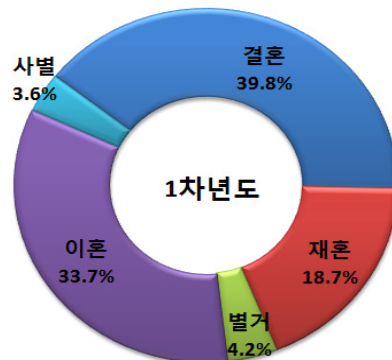
IX. 배경요인

문 40. 부모 결혼상태

부모 결혼상태에 대해 ‘결혼(39.8%)’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이혼(33.7%)’, ‘재혼(18.7%)’, ‘별거(4.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부모 결혼상태에 대해 질문한 결과, ‘결혼(39.8%)’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혼(33.7%)’, ‘재혼(18.7%)’, ‘별거(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차년도 결과(전체 기준)



【그림 부록 3-1-13】 부모 결혼상태(N=167)

표 부록 3-1-13 부모 결혼상태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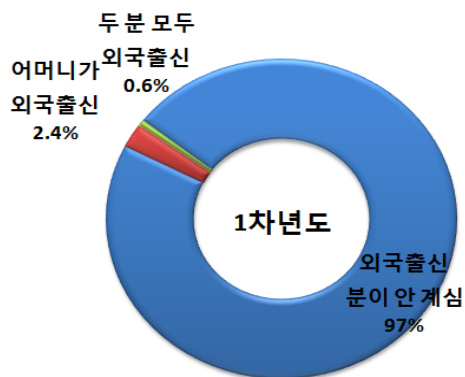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비율
결혼	66	39.8
재혼	31	18.7
별거	7	4.2
이혼	56	33.7
사별	6	3.6
계	166	100.0

문 41. 다문화가정 여부

다문화가정 여부에 대해
'어머니가 외국출신(2.4%)', '두 분 모두 외국출신(0.6%)'으로 나타남

- 다문화가정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어머니가 외국출신'인 경우 '4명(2.4%)', '두 분 모두 외국출신'인 경우 '1명(0.6%)'으로 나타났다.

1차년도 결과(전체 기준)



【그림 부록 3-1-14】 다문화가정 여부(N=167)

표 부록 3-1-14 다문화가정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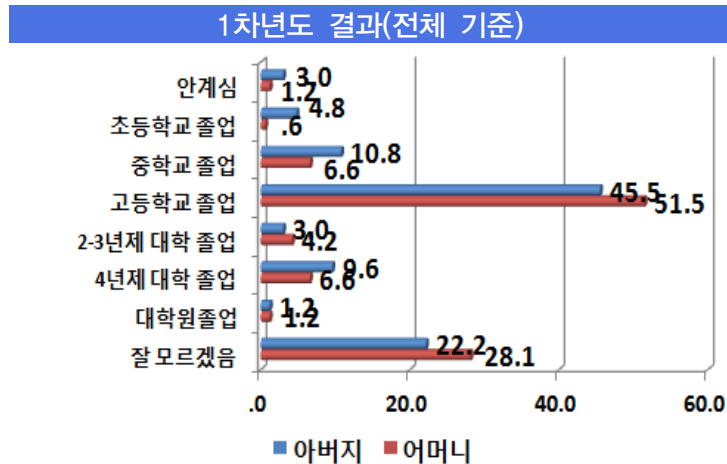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사례수	비율
외국출신 분이 안 계심	162	97.0
어머니가 외국출신	4	2.4
두 분 모두 외국출신	1	0.6
계	167	100.0

문 42. 부모 학력

부모 학력 중 아버지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45.5%)'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어머니의 경우에도 '고등학교 졸업(51.5%)'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부모 학력에 대해 질문한 결과, 아버지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45.5%)'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중학교 졸업(10.8%)', '4년제 대학 졸업(9.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45.5%)'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중학교 졸업(6.6%)', '4년제 대학교 졸업(6.6%)'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부록 3-1-15】 부모 학력

표 부록 3-1-15 부모 학력

(단위: 명, %)

구분	안계심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잘 모르겠음
1) 아버지	5(3.0)	8(4.8)	18(10.8)	76(45.5)	5(3.0)	16(9.6)	2(1.2)	37(22.2)
2) 어머니	2(1.2)	1(0.6)	11(6.6)	86(51.5)	7(4.2)	11(6.6)	2(1.2)	47(2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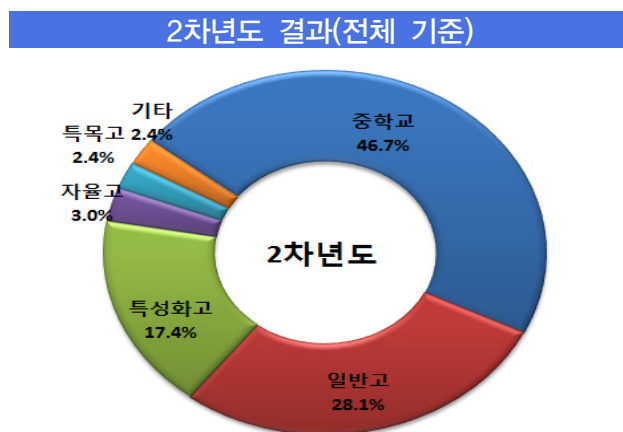
【부록 3-2】 2차년도에서만 조사 후 삭제된 문항⁷³⁾

II. 최초 학업중단 당시의 회고와 현재

문 4. 최초 학업중단 시 학교 유형(2차년도 추가)

학업중단 시 학교 유형은 ‘중학교(46.7%)’가 가장 높았고, ‘일반고(28.1%)’, ‘특성화고(17.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학업중단 시 학교 유형에 대해 질문한 결과, ‘중학교(46.7%)’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일반고(28.1%)’, ‘특성화고(1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부록 3-2-1】 학업중단 시 학교 유형(N=167)

표 부록 3-2-1 학업중단 시 학교 유형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중학교	78	46.7
일반고	47	28.1
특성화고	29	17.4
자율고	5	3.0
특목고	4	2.4
기타	4	2.4
계	16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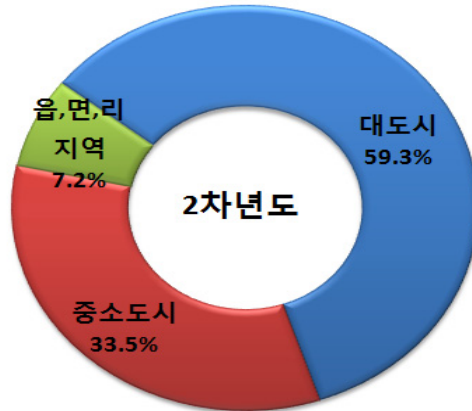
73) 해당 내용은 2014년 조사 당시의 설문지 문항 번호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문 5. 최초 학업중단 시 학교 소재지(2차년도 추가)

학업중단 시 학교 소재지는 ‘대도시(59.3%)’가 가장 높았고, ‘중소도시(33.5%)’, ‘읍,면,리 지역(7.2%)’의 순으로 나타남

- 학업중단 시 학교 소재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대도시(59.5%)’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중소도시(33.5%)’, ‘읍,면,리 지역(7.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차년도 결과(전체 기준)



【그림 부록 3-2-2】 학업중단 시 학교 소재지(N=167)

표 부록 3-2-2 학업중단 시 학교 소재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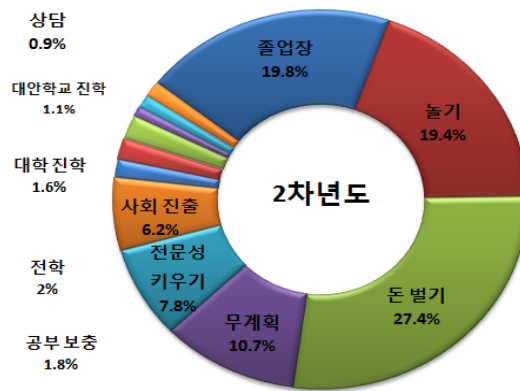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비율
대도시	99	59.3
중소도시	56	33.5
읍,면,리 지역	12	7.2
계	167	100.0

문 6. 학업중단 시 하고 싶었던 일(2차년도 추가-복수 응답)

학업중단 시 하고 싶었던 일은 ‘돈벌기(27.4%)’가 가장 높았고,
‘졸업장 취득(19.8%)’, ‘놀이(19.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학업중단 시 하고 싶었던 일에 대해 질문한 결과, ‘돈벌기(27.4%)’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졸업장 취득(19.8%)’, ‘놀이(19.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차년도 결과(전체 기준)



【그림 부록 3-2-3】 학업중단 시 하고 싶었던 일(N=167, 단위: %)

표 부록 3-2-3 학업중단 시 하고 싶었던 일⁷⁴⁾

(단위: 명, %)

구분	2차년도
졸업장	89(19.8)
놀이	87(19.4)
돈 벌기	123(27.4)
무계획	48(10.7)
전문성 키우기	35(7.8)
사회 진출	28(6.2)
대학 진학	7(1.6)
공부 보충	8(1.8)
전학	9(2.0)
상담	4(0.9)
대안학교 진학	5(1.1)
기타	6(1.3)
계	449(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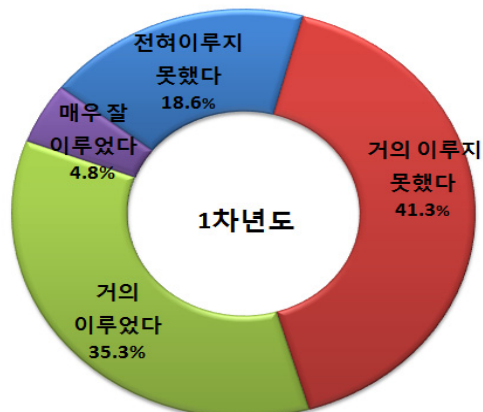
74) 1~3순위 기입 방식이었으며, 비율은 다중응답 처리된 케이스 퍼센트를 반영하였음.

문 7. 하고 싶었던 일 성취 정도(2차년도 추가)

하고 싶었던 일 성취 정도에 관한 문항 응답 결과,
전체 응답자 중 59.9%가 '성취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함

- 하고 싶었던 일 성취 정도에 관한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59.9%가 '성취하지 못하였다'고 응답 40.1%는 '성취하였다'라고 응답하였다.

2차년도 결과(전체 기준)



【그림 부록 3-2-4】 하고 싶었던 일 성취 정도

표 부록 3-2-4 하고 싶었던 일 성취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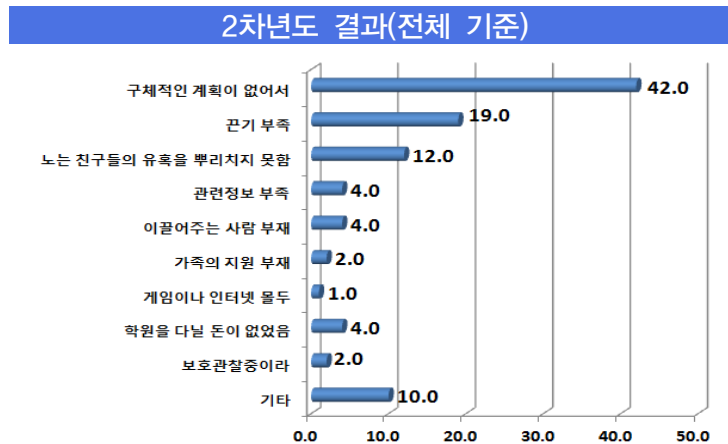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사례수(명)	비율(%)
전혀 이루지 못했다	31	18.6
거의 이루지 못했다	69	41.3
거의 이루었다	59	35.3
매우 잘 이루었다	8	4.8
계	167	100.0

문 7-1. 하고 싶었던 일 성취 실패 이유⁷⁵⁾(2차년도 추가)

하고 싶었던 일 성취 실패 이유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42.0%)’가 가장 높았고, ‘끈기 부족(19.0%)’, ‘노는 친구들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함(12.0%)’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하고 싶었던 일 성취 실패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42.0%)’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끈기 부족(19.0%)’, ‘노는 친구들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함(1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부록 3-2-5】 하고 싶었던 일 성취 실패 이유

표 부록 3-2-5 하고 싶었던 일 성취 실패 이유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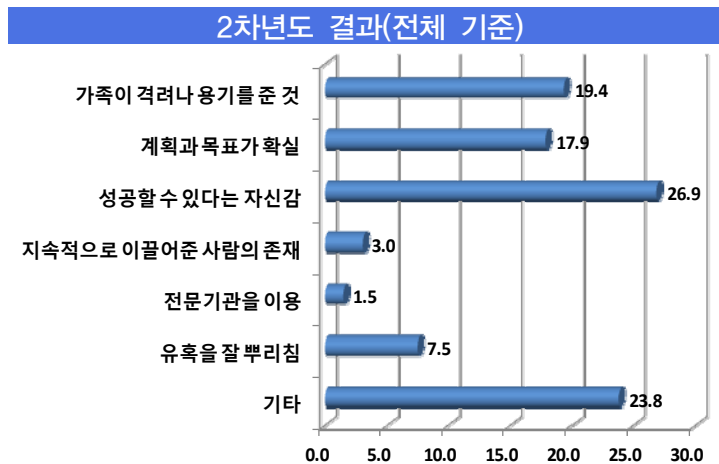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비율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42	42.0
끈기 부족	19	19.0
노는 친구들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함	12	12.0
관련정보 부족	4	4.0
이끌어주는 사람 부재	4	4.0
가족의 지원 부재	2	2.0
게임이나 인터넷 몰두	1	1.0
학원을 다닐 돈이 없었음	4	4.0
보호관찰중이라	2	2.0
기타	10	10.0
계	100	100.0

75) 문 7-1은 문 7(하고 싶었던 일 성취 정도)의 ①번 ‘전혀 이루지 못했다’ 또는 ②번 ‘거의 이루지 못했다’에 응답한 경우만 응답한 결과임.

문 7-2. 하고 싶었던 일 성취 성공 이유⁷⁶⁾(2차년도 추가)

하고 싶었던 일 성취 성공 이유는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26.9%)’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가족이 격려나 용기를 준 것(19.4%)’, ‘계획과 목표가 확실(17.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하고 싶었던 일 성취 성공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26.9%)’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가족이 격려나 용기를 준 것(19.4%)’, ‘계획과 목표가 확실(1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부록 3-2-6】 하고 싶었던 일 성취 성공 이유

표 부록 3-2-6 하고 싶었던 일 성취 성공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가족이 격려나 용기를 준 것	13	19.4
계획과 목표가 확실	12	17.9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	18	26.9
지속적으로 이끌어준 사람의 존재	2	3.0
전문기관을 이용	1	1.5
유혹을 잘 뿌리침	5	7.5
기타	16	23.8
계	6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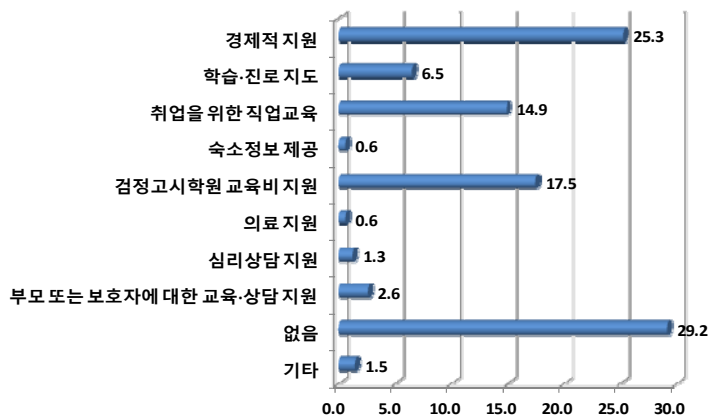
76) 문 7-2은 문 7(하고 싶었던 일 성취 정도)의 ③번 ‘거의 이루었다’ 또는 ④번 ‘매우 잘 이루었다’에 응답한 경우만 응답한 결과임.

문 9-5. 지원받고 싶은 보호관찰 프로그램⁷⁷⁾(2차년도 추가-복수응답)

지원받고 싶은 보호관찰 프로그램은 ‘경제적 지원(25.3%)’, ‘검정고시학원 교육비 지원(17.5%)’,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14.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원받고 싶은 보호관찰 프로그램에 대해 질문한 결과, ‘없음(29.2%)’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경제적 지원(25.3%)’, ‘검정고시학원 교육비 지원(17.5%)’,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14.9%)’ 등의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년도 결과(1순위 기준)



【그림 부록 3-2-7】 지원받고 싶은 보호관찰 프로그램

표 부록 3-2-7 지원받고 싶은 보호관찰 프로그램⁷⁸⁾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경제적 지원	39	25.3
학습·진로 지도	10	6.5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	23	14.9
숙소정보 제공	1	0.6
검정고시학원 교육비 지원	27	17.5
의료 지원	1	0.6
심리상담 지원	2	1.3
부모 또는 보호자에 대한 교육·상담 지원	4	2.6
없음	45	29.2
기타	2	1.5
계	154	100.0

77) 문 9-5는 문 9의 “3) 보호관찰을 받음”에 응답한 경우만 응답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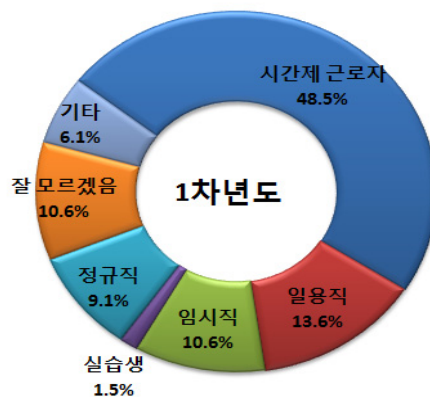
78) 1~3순위 기입 방식이었으며, 비율은 다중응답 처리된 케이스 퍼센트를 반영하였음.

문 10-1. 아르바이트 근로상 지위⁷⁹⁾(2차년도 추가)

**아르바이트 근로상 지위는 ‘시간제 근로자(48.5%)’가 가장 높았고,
‘일용직(13.6%)’, ‘임시직(10.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아르바이트 근로상 지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시간제 근로자(48.5%)’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일용직(13.6%)’, ‘임시직(1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차년도 결과(전체 기준)



【그림 부록 3-2-8】아르바이트 근로상 지위

표 부록 3-2-8 아르바이트 근로상 지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시간제 근로자	32	48.5
일용직	9	13.6
임시직	7	10.6
실습생	1	1.5
정규직	6	9.1
잘 모르겠음	7	10.6
기타	4	6.1
계	66	100.0

79) 문 10-1은 문 10(아르바이트 경험)의 ①번 ‘예’에 응답한 경우만 응답한 결과임.

[부록 3-3] 1~2차년도 조사 후 3차년도 조사에서 삭제된 문항⁸⁰⁾

Ⅶ. 생애사건 경험⁸¹⁾(1차년도)

문 35. 생애사건 경험

생애사건 경험에 관한 질문에 ‘친부모님의 이혼(14.4%)’이 가장 많았고, ‘전학(12.0%)’, ‘친부모님의 부부싸움(11.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생애사건 경험에 대해 질문한 결과, 친부모님의 이혼(14.4%)이 가장 많았고, ‘전학(12.0%)’, ‘친부모님의 부부싸움(11.7%)’, 친부모님의 별거(1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부록 3-3-1 생애사건 경험(1차년도)⁸²⁾

[N=167, 단위: 명(%), 명]

문 항	사례수(비율)	처음 경험한 시기				
		취학 전	초	중	고	무응답
1) 친아버지가 돌아가심	10 (1.7)	2	3	4	1	157
2) 친어머니가 돌아가심	3 (0.5)	1	2	0	0	164
3) 친부모님의 별거	68 (11.7)	26	30	9	3	99
4) 친부모님의 이혼	84 (14.4)	37	34	10	3	83
5) 친아버지의 재혼(또는 새어머니가 들어오심)	22 (3.8)	2	12	6	2	145
6) 친어머니의 재혼(또는 새아버지가 들어오심)	15 (2.6)	3	8	4	15	152
7) 친아버지의 가출	11 (1.9)	2	6	3	11	156
8) 친어머니의 가출	20 (3.4)	4	8	5	3	147
9) 친아버지의 사업실패	33 (5.7)	9	16	5	2	135
10) 친어머니의 사업실패	3 (0.5)	1	1	1	0	164
11) 친아버지의 실직	26 (4.5)	9	11	3	3	141
12) 친어머니의 실직	8 (1.4)	1	2	4	1	159
13) 친아버지의 오랜 병상생활(질병, 교통사고 등)	23 (3.9)	3	10	9	1	144
14) 친어머니의 오랜 병상생활(질병, 교통사고 등)	13 (2.2)	2	8	3	0	154
15) 기억에 남을 만큼 심한 친부모님의 부부싸움	68 (11.7)	14	41	12	1	99
16) 친아버지가 친어머니를 심하게 때림	35 (6.0)	9	23	3	0	132
17) 친아버지로부터 심하게 맞음	39 (6.7)	2	23	13	1	128
18) 친어머니로부터 심하게 맞음	12 (2.1)	0	9	3	0	155
19) 학교선생님으로부터의 치욕적인 대우나 구타	20 (3.4)	0	3	13	4	147
20) 이사 등으로 전학함	70 (12.0)	7	51	12	0	97

80) 해당 내용은 해당년도 조사 당시의 설문지 문항 번호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81) 1차년도 문 40과 2차년도 문 36은 동일한 내용이나 조사방식의 차이로 인해 개별적으로 제시되었음.

82) 사례수와 비율은 해당 경험의 발생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 ②번 '있음'에 응답한 경우를 합산한 결과임.

Ⅶ. 배경요인(2차년도)

문 36. 생애사건 경험

생애사건 경험에는 ‘형제·자매와 사이가 좋아짐(9.9%)’이 가장 높았고, ‘시설 및 기관에서 생활(6.1%)’, ‘친가족으로부터 독립(5.1%)’, ‘시설 및 기관 퇴소(5.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생애사건 경험에 대해 질문한 결과, ‘형제·자매와 사이가 좋아짐(9.9%)’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시설 및 기관에서 생활(6.1%)’, ‘친가족으로부터 독립(5.1%)’, ‘시설 및 기관 퇴소(5.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부록 3-3-2 생애사건 경험(2차년도)

(N=167,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내가) 친가족으로부터 독립	15	5.1
(내가) 시설 및 기관 퇴소	15	5.1
(내가) 떨어져 살던 친가족과 생활	8	2.7
(내가) 시설 및 기관에서 생활	18	6.1
(내가) 종교를 갖게 됨	12	4.1
(내가) 자격증 취득	14	4.8
(내가) 건강이 좋아짐	14	4.8
(내가) 건강이 나빠짐	11	3.8
(내가) 형제·자매와 사이가 좋아짐	29	9.9
(내가) 새어머니(또는 새아버지)와 사이가 좋아짐	7	2.4
(형제·자매 중) 한 명 이상 대학 진학	7	2.4
(형제·자매 중) 한 명 이상 취업	4	1.4
(형제·자매 중) 한 명 이상 결혼	5	1.7
(형제·자매 중) 한 명 이상 건강이 나빠짐	3	1.0
(형제·자매 중) 한 명 이상 사망	0	0.0
(함께 살던 외조부모 중) 한 명 이상 사망	5	1.7
(친부모님 중) 한 분 이상 건강이 좋아지심	5	1.7
(친부모님 중) 한 분 이상 건강이 나빠지심	6	2.0
(친부모님이) 사이가 좋아지심	15	5.1
(친부모님이) 사이가 나빠지심	8	2.7
(친부모님이) 별거	6	2.0
(친부모님이) 이혼	9	3.1
(친부모님이) 취업 또는 창업	5	1.7
(친부모님이) 재혼	2	0.7
(친부모님이) 돌아가심	3	1.0
(친부모님이) 사망	4	1.4
없음	59	20.1
기타	4	1.5
계	293	100.0

Abstract

A Longitudinal Survey and Support Plan for Delinquent Juveniles Dropping out of School

This study was conducted as part of a three-year study on delinquent juveniles dropping out of school and measures to support them began in 2013, with the aim of investigating their characteristics and changes for the last three years. The third year study explored their changes over the last three years, recidivism and other factors to present supportive measures. The first year survey was conducted on 226 dropouts under probation of 11 probation offices nationwide, and the second year survey was on 210 of 14 probation offices. The panel of 167 (retention rate 75.9%) participated in the third year survey conducted from July 13 to August 10, 2015.

The survey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hen it comes to school retention, majority of respondents (85.5%) was still out of school. Of 167 respondents, only 5 (3.0%) said that they have went back to school, and 13 or 7.8% of them dropped out of school again. This demonstrates that many delinquent school dropouts are not likely to re-enter the educational system and to last long if they did. When asked what they did after dropping out of school, majority of them (68.9%) said they were employed or worked part-time. This is a significant increase from the two previous studies. When it comes to changes in the living environment of juveniles, the number of physical or emotional abuses from a parent or a carer decreased compared to the first year study. There was no significant change in peer attachment and delinquent tendency of peers compared to the first and second studies. In terms of school dropouts' psychological-emotional changes, there was an insignificant psychological change compared to the first and second studies. This indicates that school dropout did not have a significant adverse impact on the psychology of delinquent juveniles dropping out of schools over the last one year.

Unlike previous studies, the third year study evaluated probation supportive programs and relations with probation officers considering the feature of its control group of delinquent school dropouts under probation. Although the rate of change in probation officers over the past one year decreased from the second study, the figure still stands at 53.5%. Nevertheless, it was found that they have good relationship with their probation officer, even better relationship compared to the first and second studies. In order to examine the continuation and discontinuation of delinquency, this study analyzed three dependent variables: status offenses, serious offenses and criminal offenses. This study also examined the effects of social environment of juveniles under probation – family, friends, community, probation, etc. –, especially focusing on protective factors and risk factors.

The result shows that rather than deterrence of offenses through protective factors, intervention in offenses through risk factors had a positive effects. In terms of family factors, youth with strong emotional attachment with parents tended to commit less serious offenses and experience a reduction of serious offenses over time. Meanwhile, other protective factors seemed to have little influence on delinquency declined. It was found that some risk factors such as the number of relocation, delinquent tendency of close friends and change of a probation officer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status offenses. This indicates that higher number of relocation and stronger delinquent tendency of a friend affect juveniles committing serious offenses at the first place, making them to further commit offenses in the future. Based on its findings, this study presents several ways to support delinquent youth dropping out of school. There should be more effective career guidance, mentoring program, family program, for school dropouts under probation.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network of probation offices, schools and social welfare centers, and this requires collaboration of the Ministry of Justice (MOJ), the Ministry of Education (ME) and the Ministry of the Gender Equality & Family (MOGEF).

Key words: delinquent juvenile, school dropout, probation

2015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5-R01 청소년 나눔활동의 실태 및 개선방안 / 이경상 · 조용하
- 15-R02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Ⅱ / 최창욱 · 문호영 · 김진호
- 15-R02-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Ⅱ - 기초분석보고서 / 최창욱 · 문호영
- 15-R03 청소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소셜 미디어 활용 연구 / 배상률
- 15-R04 지역사회 청소년의 인성교육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 임지연 · 김영석 · 김혁진
- 15-R05 청소년수련시설 역할 재정립 및 정체성 확립 방안 연구 / 김형주 · 김정주 · 김인규
- 15-R06 동북아시아 평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 발전 방안 / 김기현 · 황세영 · 이경자 · 강영배
- 15-R07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 황여정 · 김정숙 · 이수정 · 변정현
- 15-R08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 김지경 · 정연순
- 15-R09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 백혜정 · 송미경
- 15-R10 아동 · 청소년 · 가족 보호체계 개선방안 연구 / 김지연 · 좌동훈 · 박세경 · 한미경
- 15-R1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Ⅴ : 총괄보고서 / 김영지 · 김희진 · 이민희 · 박선영
- 15-R11-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Ⅴ : 청소년 인권의식과 시민적 권리의 경험에 대한 관련 요인 분석 / 김진석
- 15-R11-2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Ⅴ : 2015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 / 김영지 · 김희진
- 15-R1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 총괄보고서 / 김영한 · 오해섭 · 성윤숙 · 정윤미
- 15-R12-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운영과 추진전략 개발 / 오해섭 · 김세광
- 15-R12-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진단 / 성윤숙 · 홍성호
- 15-R12-3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 청소년정책모니터단 운영 연구 / 김영한 · 정윤미
- 15-R13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Ⅲ : 총괄보고서 / 김현철 · 모상현 · 오성배
- 15-R13-1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Ⅲ : 기초분석보고서 / 김현철 · 모상현
- 15-R14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Ⅱ : 위기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 이유진 · 박선영
- 15-R14-1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Ⅱ :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모형 개발 및 창업 활성화 방안 / 강경균 · 이춘우
- 15-R15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Ⅰ / 김경준 · 김태기
- 15-R15-1 외국의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 비교 연구 / 이진영 · 장안리 · 김판준 · 임영연 · 정호원 · 성일광
- 15-R16 한국 아동 · 청소년 패널조사Ⅵ : 사업보고서 / 이종원 · 서정아 · 정은주 · 강현철 · 한영근
- 15-R16-1 한국 아동 · 청소년 패널조사Ⅵ : 데이터분석보고서Ⅰ -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이 청소년 행복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 서정아

15-R16-2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Ⅵ : 데이터분석보고서2 - 청소년의 또래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 / 정은주

협동연구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1-01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Ⅲ / 윤철경·최인재·유성렬·김강호 (자체번호 15-R1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1-02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Ⅲ / 전영실·김지영·박성훈 (자체번호 15-R17-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1-03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Ⅲ : 조사결과 자료집 / 윤철경·최인재 (자체번호 15-R17-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2-0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최홍일·진성희·김균희 (자체번호 15-R1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2-0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 - 초·중·고등학생용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최홍일·진성희·김균희 (자체번호 15-R18-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2-0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 - 대학생용 기초통계 분석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최홍일·진성희·김균희 (자체번호 15-R18-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2-0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 - 청소년의 사회참여 역량 측정도구 개발 및 분석 연구 / 김태준·오민아·이영훈 (자체번호 15-R18-3)

연구개발적립금

15-R19 동북아 청소년정책 국제비교 연구 / 김정숙·김기현·황세영

15-R20 대학비전학 청소년 역량개발 정책사업 추진방안 연구 / 윤민중·김기현·한도희

수 시 과 제

15-R21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방안 연구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과제 개발 기초연구 / 김영지·김희진

15-R22 '사회적 통증' 개념을 통한 청소년 정신건강 이해 : 중독과 자살생각 / 장근영·전우영

15-R23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 황세영·조성화

15-R23-1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워크북 / 황세영·조성화·곽정남·김경전·현명주

15-R24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현황과 전망 : 생애과정 연구를 중심으로 / 김현철

15-R25 동북아 청소년연구 분류체계 구축 연구 / 김정숙·김기현

15-R2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현안과 의제 / 김지연

- 15-R27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운영 실태와 확대방안 연구 / 좌동훈
- 15-R28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청소년 삶의 질 정책방안 연구 / 김기현 · 좌동훈 · 강경균 · 김정숙 · 황세영 · 문호영 · 윤민중
- 15-R29 의료형 청소년쉼터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 김지연
- 15-R30 학교와 지역사회 청소년체험활동 연계모형 평가 연구 / 김기현 · 김형주
- 15-R31 국가근로장학사업으로서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운영체계의 개선 - 대학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 김지경 · 윤민중
- 15-R32 청소년운영위원회 연간활동 효율화 방안 연구 / 최창욱 · 좌동훈
- 15-R33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기준 개발 / 이경상 · 장원경
- 15-R34 청소년분야 ODA 사업추진 기본방향 마련 / 최창욱 · 한도희
- 15-R35 생애주기에 따른 아동 · 청소년 · 청년 연령구분 실태와 방향 / 문호영 · 최창욱

수 탁 과 제

- 15-R36 청소년활동 중장기 수요 및 공급기반 조성 연구 / 김영한 · 유성렬 · 임성택 · 주동범
- 15-R37 2014년도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적용 게임물 평가 / 배상률 · 유홍식 · 김동일
- 15-R38 201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 · 이유진 · 김영한
- 15-R39 2015년 행복교육 학생모니터단 운영 / 오해섭 · 최홍일
- 15-R40 가출 청소년 실태 및 청소년쉼터 중장기 발전방안 / 백해정 · 좌동훈
- 15-R41 청소년 연계서비스 시범사업 개선방안 연구 / 서정아 · 전영기
- 15-R42 청소년 디지털 매체 및 서비스 이용실태 연구 / 성윤숙 · 김경준 · 김희진
- 15-R42-1 청소년의 디지털 역기능 사례조사 및 모니터링 연구 / 성윤숙 · 김경준 · 김희진
- 15-R43 2015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최인재 · 이경상 · 김정숙 · 장근영
- 15-R44 청소년 · 가족 연계서비스 시범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 서정아 · 조성은
- 15-R45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6~2018)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김지경 · 최인재
- 15-R46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위상 정립방안 모색 연구 / 김현철 · 최창욱
- 15-R47 청소년 근로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방안 / 김지경 · 이상준
- 15-R48 나라사랑 체험프로그램 효과 분석 / 최창욱 · 성은모 · 정윤미
- 15-R49 2015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김기현
- 15-R50 2025 청년 전망 및 향후 정책 추진과제 연구 / 김기현 · 김형주 · 박성재 · 민주홍 · 김종성
- 15-R51 청소년 권리증진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 김영지 · 모상현 · 이용교
- 15-R52 성남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방안 연구 / 김영지 · 모상현
- 15-R53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5 / 김희진 · 이종원 · 유성렬 · 김진석
- 15-R54 제11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연구 / 최창욱
- 15-R55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강화를 위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 김형주 · 김정주 · 김혁진
- 15-R5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 관리체계 개선 및 2015년 사업 효과 만족도 조사 연구 / 김영지 · 정은주 · 김정주
- 15-R56-1 삼성전자 임직원과 함께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성과 분석 및 만족도 조사 연구 / 정은주

- 15-R57 과학적 실행 중심 모형기반 생명과학 교수학습 디자인 실험연구 / 황세영
- 15-R58 2015년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효과성 및 만족도 연구 / 황세영 · 윤민중
- 15-R59 휴먼네트워크 협력기관 실태조사 / 성은모 · 강경균
- 15-R60 청소년의 'X-질문' 발굴 및 개선방안 연구 / 강경균
- 15-R61 청소년활동안전센터 중장기 계획 연구 / 김영한 · 임지연
- 15-R62 휴먼네트워크 코디네이터 전문성 강화 연구 / 성은모 · 서동인
- 15-R63 아산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따른 연구 / 김영한 · 오해섭 · 정윤미
- 15-R64 서울시 청소년시설 운영실적 평가 / 모상현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5-S01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연구결과 공개 보고회 (1/19)
- 15-S02 온라인 도움행동의 원인 (2/9)
- 15-S03 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1권역 (2/23~27)
- 15-S04 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2권역 (2/23~27)
- 15-S05 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3권역 (2/23~27)
- 15-S06 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4권역 (2/23~27)
- 15-S07 2014년도 제1차 연구성과발표회 (3/12)
- 15-S08 2014년도 제2차 연구성과발표회 (3/13)
- 15-S09 일본진로교육의 현황과 과제 (3/31)
- 15-S10 2015년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컨설팅위원 워크숍 (4/16)
- 15-S11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컨설팅위원 워크숍 (4/28)
- 15-S1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담당자 교육 (4/29)
- 15-S13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1권역 (5/12~13)
- 15-S14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2권역 (5/18~19)
- 15-S15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3권역 (5/26~27)
- 15-S16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4권역 (5/28~29)
- 15-S17 교육 소외와 격차 해소를 위한 방과 후 청소년 정책 : 지역 방과 후 청소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5/18~19)
- 15-S18 2015년 꿈키움멘토단 운영 담당자 연수 (5/21)
- 15-S19 2015 청소년 문화와 안전 국제포럼 (6/4)
- 15-S20 2015년 대안학교 진로직업교육 컨설팅위원 워크숍 (6/4)
- 15-S21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회 (6/26)
- 15-S22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II 데이터 분석 세미나 (7/2)
- 15-S23 2015년 대안교육 담당교원 등 연수 (7/8~10)
- 15-S2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관계자 워크숍 (7/9~10)
- 15-S25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장 워크숍 1권역 (7/27~28)
- 15-S26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장 워크숍 2권역 (7/28~29)
- 15-S27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장 워크숍 3권역 (8/3~4)

- 15-S28 2015년 제2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7/30~31)
- 15-S29 청소년의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방안 및 추진전략 (7/22)
- 15-S3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해외사례 (8/11)
- 15-S31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담당자 교육 워크숍 (8/21)
- 15-S32 제2회 동북아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의 성인기로의 이행 (9/17)
- 15-S33 민족정체성 확립의 역량을 미치는 4가지 주요요소 : 1960년대 및 70년대 초와 80년대 및 90년대 초에 자라난 젊은세대의 비교 (9/14)
- 15-S34 대안교육 국제포럼 2015 (9/16)
- 15-S3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성과발표회 (9/18)
- 15-S36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디지털 역기능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10/19)
- 15-S37 제5회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10/23)
- 15-S38 한-중 국제세미나 (10/27)
- 15-S39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워크숍 -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현황과 전망 - (10/21~22)
- 15-S40 제4회 동북아청소년정책포럼 - 한·러 차세대 전무가 대화 : 동북아미래를 위한 한·러 청소년(차세대) 정책 협력 (11/17)
- 15-S41 국회다정다감포럼 -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의 과제와 방향 (11/5)
- 15-S42 2015년 시·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업무 담당자 워크숍 (11/26~27)
- 15-S4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담당자 심화워크숍 (12/17~18)
- 15-S44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기준 개발 (12/10)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1호(통권 제76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2호(통권 제77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3호(통권 제78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4호(통권 제79호)

기 타 발 간 물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9호 :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0호 :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1호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2호 : 기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3호 :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방안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4호 :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9호 :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0호 :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1호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연구Ⅳ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2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Ⅰ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3호 : 청소년의 휴대전화 보유 현황과 이용빈도, 휴대전화 의존도
- KCYPS 초1 패널 제5차년도 조사결과 분석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4호 : 청소년 체험·여행·문화활동과 삶의 만족도
- KCYPS 초4 패널 제5차년도 조사결과 분석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5호 : 초등학교생 삶의 만족도의 종단적 변화 분석 - KCYPS 초4 패널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호 : 지금, 이 시대 왜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에 주목해야하는가?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호 : 아동, 청소년 보호체계 쟁점 사례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3호 :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과 정체성, 재정립이 필요한가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4호 : 동북아 청소년연구 분류체계 구축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5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현안과 의제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6호 :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운영 실태와 확대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7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체계화의 필요성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8호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청소년 삶의 질 정책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9호 : 그 나라는 어때? 세계의 청소년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0호 : 의료형 청소년쉼터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1호 : 학교와 지역사회 청소년체험활동 연계모형 평가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2호 : 청소년의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 이용 현황과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해외사례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3호 : 지역사회의 청소년 인성교육 실태와 과제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4호 : 청소년의 기업가정신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여건 조성 방안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5호 : 청소년 나눔활동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6호 : 동북아지역 청소년 국제교류 정책 및 사업 현황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7호 : 국가 근로 장학사업으로서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운영체계의 개선
- 대학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8호 : 재외동포청소년의 주요 이슈와 지원 방안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9호 : 청소년운영위원회 연간활동 효율화 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0호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기준 개발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1호 : 생애주기에 따른 아동·청소년·청년 연령구분 실태와 방향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2호 : 청소년분야 ODA 사업 추진 기본방향 마련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3호 : 학령기에 학교를 나온 청소년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4호 : 다문화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

청소년현안 Blue Note 봄호
청소년현안 Blue Note 여름호
청소년현안 Blue Note 가을호
청소년현안 Blue Note 겨울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5-31-02

연구보고 15-R17-1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II

인 쇄 2015년 12월 24일

발 행 2015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노 혁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휘문인쇄 전화 1661-7576 대표 김점순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086-1 94330

979-11-5654-065-6 (세트)